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박사학위논문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도시공공미술 전략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Urban Public Art Strategies to Enhance City Competitiveness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공공디자인전공

박 재 은

2025년 8월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도시공공미술 전략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Urban Public Art Strategies to Enhance City Competitiveness

지도교수 장 영 호

지도교수 김 주 연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7월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공공디자인전공

박 재 은

박재은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심사위원장 이현석 (인)

심사위원 張永鎬 (인)

심사위원 金柱然 (인)

심사위원 오병찬 (인)

심사위원 최오규 (인)

심사위원 高殷禎 (인)

홍익대학교 대학원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국문초록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도시공공미술 전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부
공공디자인전공

박 재 은

공공미술(Public Art)은 1980년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야외공간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을 뜻한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1%법(Percent for Art)의 국내 도입으로 시작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역사적 기념비와 사건을 기리는 동상·기념비, 정부의 정책 목적 맞춘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으로 폭을 넓혀왔다. 공공미술은 '공공(公共)'의 목적으로 모두에게 열린 장소에 공개함으로써 도시공간에서 시민의 문화향수(文化享受) 기회와 다양한 담론을 생산하며 진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공미술은 여전히 특정 공간의 장식하는 요소이거나 소규모 공동체 활동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도시의 문화 매력과 경쟁력 강화 기제(基劑)로써 도시공공미술의 적용 가능을 제시하고 도시문화의 질적 성장가능성을 견인하는 정책으로서 체계적인 적용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공공미술은 전 세계적으로는 194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을 시작으로 1990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년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유럽 문화도시(Culture City) 조성 등으로 정부 또는 도시의 정책화되며 도시 활성화의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2019년 말부터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린공간, 일상의 틈새, 가상공간을 활용한 예술 향유 접점을 만드는데 공공미술이 활용되면서 공공미술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공공미술을 통한 경제적 집객 효과, 감성적 치유효과, 공동체 회복효과 등 일상 공간에서의 예술에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미술은 1994년 지방자치제 본격화 이래 각 정부들의 성과주의적 공공조형시설물, 상징조형물들이 공공미술 작품과의 분리되지 않은 채 증가하면서 공공미술의 효과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2025년 2월 기준, 서울시 안에 설치된 미술작품과 조형물의 수가 4,500여점[1]에 이르는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작품의 관리와 미래지향적 공공미술 정책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공공미술이 문화도시, 예술 도시를 위한 도시의 경쟁력이나 매력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은 이론적 타당성이 있으나 실제적 영향력의 관계구조와 인과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을 대체로 단발적인 사업들로 완성하려는 정책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발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안정적 프로세스와 실행체체 구축을 위한 전략구조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연구자는 변화하고 있는 현대도시에 공공미술로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장식차원을 넘은 공공미술이 보다 확장적이과 실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행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각 도시가 각자의 매력을 강화하고 문화 선진도시로의 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

1) 서울시 미술작품 관리시스템 (https://publicart.eseoul.go.kr)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회복력(resilience)이 전 세계 도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문화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의 창의도시(Creative City), 빌바오의 문화클러스터, 유네스코 문화도시(Culture city) 등 문화적 요소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의 성공 사례들은 공공미술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최근 미국과 일본의 문화정책 성과는 문화적 요소가 도시경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문화산업의 생산효과가 GDP의 4.3%를 견인하며 경제 회복과 도시 활력 증진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며, 일본은 2023년 제2차 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적 감성치유를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도시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UNESCO, OECD, HABITAT Ⅲ, EU 등 국제기구에서도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도시의 내부적 구조재편과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의 회복력 강화를 강조하며, 이는 공공미술의 장소 특정성, 커뮤니티 중심성, 일상 공간 활용성을 강조하는 현대 어바니즘(urbanism)의 가치지향성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경쟁력 평가지표가 경제적 요소 중심에서 삶의 질, 문화적 매력, 시민참여와 같은 정성적 가치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바탕으로,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전략적 결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공공미술, 도시계획 이론, 도시의 문화경쟁력 개념을 고찰하여 이론적 관계성을 구체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공미술의 핵심 요소와 어바니즘 요소, 도시경쟁력 평가지표를 통합하여 전략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적 요소 우선순위를 분석(AHP)하고,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활용하여 이들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도시공공미술(Urban Public Art)' 개념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파리, 코펜하겐, 뉴욕, 싱가폴, 멜버른, 서울 6개 도시의 대표적 공공미술 사례 분석하여 도시공공미술 효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한국에 적용가능한 전략제시와 전문가 검증으로 도시공공미술의 현실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추상적으로 여겨지던 공공미술의 적용을 어바니즘과 결합함으로써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적용방식을 '도시공공미술'로 치환함으로써 도시에 공공미술을 적용하는 태도전환을 시도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둘째, 도시공공미술이 도시의 경쟁력에 영향력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장식적 목적의 공공미술 정책에서 탈피하여 도시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임을 확인하여 각 정부의 문화정책으로 확산 적용할 수 있는 수치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공간조성의 마무리 단계를 장식하는 미술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공간 변화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도시공공미술'의 행정적으로 실행성과 작동가능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이러한 공공미술의 영향력과 활용가치 확인을 토대로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실행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매력적이고 삶의 질 높은 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예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공공미술 정책이 단순한 환경미화나 홍보 수단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전국의 다양한 도시들이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공공미술, 도시공공미술, 도시경쟁력, 어바니즘, 도시공공미술 전략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목 차

국 문 초 록 ····· i
목 차 ····· vii
표 목 차 ····· x
그 림 목 차 ····· x iv

제 1 장 서 론 ····· 1
1.1 연구 배경과 목적 ····· 1
1.1.1 연구의 배경 ····· 1
1.1.2 연구의 목적 ····· 4
1.2 연구 범위와 방법 ····· 5
1.2.1 연구의 범위 ····· 5
1.1.2 연구의 방법 ····· 7
1.3. 연구의 구성체계 ····· 9
1.4 선행연구 고찰 및 용어정의 ····· 10
1.4.1 공공미술 관련 선행연구 ····· 11
1.4.2 어바니즘 관련 선행연구 ····· 16
1.4.3 도시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 19
1.4.4 용어의 정의 ····· 22
1.5 연구의 차별성 ····· 25

제 2 장 이론적 고찰 ····· 27
2.1 도시와 공공미술 ····· 30
2.1.1 공공미술의 개념 ····· 30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2.1.2 공공미술의 개념과 유형변화 ····· 32
2.1.3 공공미술과 도시공간의 관계 ····· 38
2.2 공공미술과 어바니즘(Urbanism) ····· 44
2.2.1 2000년대 시대적 가치변화 ····· 44
2.2.2 어바니즘의 개념과 변화 ····· 45
2.2.3 어바니즘과 공공미술의 관계 ····· 53
2.3 공공미술과 도시경쟁력 ····· 57
2.3.1 도시경쟁력의 개념과 변화 ····· 57
2.3.2 공공미술과 도시경쟁력의 관계 ····· 60
2.3.3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경쟁쟁력 효과 ····· 62
2.4 소 결 ····· 64
제 3 장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요인분석과 영향력 평가 ····· 68
3.1 요인분석 ····· 69
3.1.1 특성요소 도출 ····· 69
3.1.2 전략요소 체계화 ····· 79
3.1.3 요소 중요도 및 우선순위 조사 ····· 84
3.2 도시 공공미술의 영향력 조사 ····· 92
3.2.1 조사의 목적과 방법 ····· 92
3.2.2 조사의 설계 ····· 93
3.2.3 조사의 분석 ····· 109
3.3.4 소 결 ····· 122
3.3 도시공공미술(Urban Public Art)의 개념화 ····· 125
3.3.1 도시공공미술 개념 ····· 125
3.3.2 도시공공미술 방향성 ····· 128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3.3.3 도시공공미술 특성요소와 기본원칙 ····· 130

제 4 장 도시공공미술 전략제시 ····· 137

4.1 도시공공미술 실증분석 ····· 139

4.1.1 조사의 범위 ····· 139

4.1.2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 147

4.1.3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 179

4.2 도시공공미술 전략 구성 ····· 188

4.2.1 한국 공공미술 정책환경 특성 ····· 188

4.2.2 한국 도시공공미술 전략구성 ····· 194

4.3 전문가 검증 (FGI) ····· 214

4.3.1 조사목적과 대상 ····· 214

4.3.2 전문가 의견 분석 ····· 216

4.3.3 FGI 결과에 따른 전략 수정 ····· 228

4.4 도시공공미술 실행전략 제시 ····· 231

4.3.1 도시공공미술 실행전략 종합 ····· 231

4.3.2 도시공공미술 전략 기대효과 ····· 233

제 5 장 결 론 ····· 237

5.1 연구의 의의 ····· 237

5.2 연구의 한계와 발전방향 ····· 243

참 고 문 헌 ····· 245

〈부록 1〉 전문가 조사(AHP), 시민 설문조사(SEM) 설문지 ····· 256

〈부록 2〉 도시경쟁력 조사지표 모음 ····· 273

ABSTRACT ····· 285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목차

[표 1-1] 연구의 구성 ····· 7
[표 1-2] 도시와 공공미술의 다양한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 ····· 10
[표 1-3] 뉴어바니즘과 N분 도시이론 관련 선행연구 ····· 16
[표 1-4] 도시경쟁력과 문화정책관련 선행연구 ····· 18
[표 2-1] 공공미술 관련 용어 개념 ····· 30
[표 2-2] 공공미술의 유형변화의 과정 ····· 34
[표 2-3] 공공미술의 유형분류관련 선행연구 ····· 35
[표 2-4] 각 기준에 따른 공공미술의 유형분류 ····· 36
[표 2-5] 공공미술의 도시와 사회와의 관계 고찰 선행논문 ····· 38
[표 2-6] 도시공간에서의 공공미술 기능 ····· 39
[표 2-7] 도시공간과 공공미술의 역할을 논의한 선행연구 ····· 40
[표 2-8] 어바니즘과 도시계획의 관계 ····· 45
[표 2-9] 아와니 원칙과 뉴어바니즘 선언문의 지향점 차이 ····· 48
[표 2-10] 뉴어바니즘 도시공간 설계 방향 ····· 48
[표 2-11] 2000년대 주요 어바니즘의 공통점과 차이점 ····· 52
[표 2-12] 2000년대 이후 어바니즘과 공공미술의 공통적 지향점 ····· 54
[표 2-13] 21도시의 경쟁력 평가요소의 변화 추이 ····· 59
[표 2-14] 도시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 61
[표 2-15]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경쟁력창출 사례 ····· 64
[표 3-1] 공공미술 관련 참고문헌 ····· 69
[표 3-2] 공공미술 관련 요소도출 과정 (1차 분류) ····· 70
[표 3-3] 공공미술 요소도출 결과 ····· 71
[표 3-4] N분 도시 개념 적용을 통한 공공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72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3-5] 뉴어바니즘과 15분 도시를 중심으로 한 어바니즘 요소 도출 ····· 72
[표 3-6] 9개 경쟁력 평가에 포함된 문화관련 지표 추출 ····· 74
[표 3-7] 도시의 문화경쟁력 평가요소 ····· 76
[표 3-8] 각 구성 요소별 세부설명 ····· 83
[표 3-9] 조사자 분포표 ····· 85
[표 3-10] 1계층 우선순위 도출 결과 ····· 87
[표 3-11] 도시의 인상변화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 87
[표 3-12] 일상의 활력제고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 88
[표 3-13] 참여와 가치지향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 88
[표 3-14] 시스템의 안정성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 89
[표 3-15] 공공미술의 문화경쟁력 증진 전략의 종합 중요도 및 우선순위 ····· 89
[표 3-16] 평가항목 기준 우선순위 (1~10) ····· 91
[표 3-17]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97
[표 3-18] 공공미술 구성요소 측정모형적합도 ····· 99
[표 3-19] 공공미술 구성요소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100
[표 3-20]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측정모형의 적합도 ····· 101
[표 3-21]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101
[표 3-22] 문화예술 가치인식 측정모형 적합도 ····· 103
[표 3-23] 문화예술 가치인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104
[표 3-24] 도시경쟁력 측정모형의 적합도 ····· 105
[표 3-25] 도시경쟁력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105
[표 3-26] 신뢰도 분석 결과 ····· 107
[표 3-27] 상관분석 결과표 ····· 109
[표 3-28] 측정모형의 적합도 ····· 110
[표 3-2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112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PRO HOMINUM BENEFICIO · 1946

[표 3-30] 연구모형의 적합도 ····· 114
[표 3-31]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 115
[표 3-32] 매개효과 검증 결과 ····· 115
[표 3-33] 공공미술 구성요소가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 116
[표 3-34]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117
[표 3-35] 문화예술 가치인식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118
[표 3-36]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종합 ····· 119
[표 3-37] 각 조사결과의 주요 결론 연결해석 ····· 121
[표 3-38] 주요 인과관계 확인 경로 ····· 122
[표 3-39] 도시공공미술과 공공미술, 어바니즘의 개념차 ····· 125
[표 3-40] 전통적 공공미술과 도시공공미술의 차별점 ····· 126
[표 3-41] 도시공공미술의 전통적 공공미술과의 차별점 ····· 127
[표 3-42] 도시공공미술의 특성요소 ····· 129
[표 3-43] 도시공공미술의 8개의 구성요소 ····· 134
[표 4-1] 1차 선정된 도시의 도시계획과 적용된 어바니즘 원리 ····· 139
[표 4-2] 11개 도시 대상 서울과의 유사도 평가 ····· 142
[표 4-3] 각 도시의 관련 상위계획 ····· 142
[표 4-4] 사례분석의 대상 ····· 144
[표 4-5] 사례분석의 틀 ····· 145
[표 4-6] 코펜하겐 수퍼킬렌 프로젝트 조사표 ····· 148
[표 4-7] 파리 그랜드 파리 익스프레스 프로젝트 조사표 ····· 151
[표 4-8] 프랑스 뉘 블랑쉬 프로젝트 프로젝트 조사표 ····· 154
[표 4-9] 뉴욕 하이라인 파크 프로젝트 조사표 ····· 157
[표 4-10] 뉴욕 록펠러센터 공공미술 프로젝트 조사표 ····· 159
[표 4-11] 싱가포르 아이 라이트 싱가포르 프로젝트 조사표 ····· 165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표 4-12] 20분 동네 프로젝트 조사표 ····· 167
[표 4-13] 크리에이티브 홀딩 트라이얼 조사표 ····· 170
[표 4-14]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조사표 ····· 174
[표 4-15] DDP 미디어 파사드 조사표 ····· 176
[표 4-16] 유형별 도시공공미술 표형형식 ····· 180
[표 4-17] 도시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공공미술 적용방식 ····· 181
[표 4-18] 사례분석 결과 종합 ····· 182
[표 4-19] 도시공공미술 적용을 통한 도시경쟁력 지표 달성 ····· 183
[표 4-20] 사례에서 도출된 도시공공미술 전략 ····· 186
[표 4-21] 공공미술의 범위 또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률 ····· 189
[표 4-22] 2000년대 이후 주요 주체별 공공미술 프로젝트 흐름 ····· 191
[표 4-23] 도시공공미술의 핵심전략과 세부내용 ····· 195
[표 4-24] FGI 참여인원 구성 ····· 214
[표 4-25] 그룹별 키워드 빈도 우선순위 분석 ····· 215
[표 4-26] 실행조직 및 대상관련 용어빈도 ····· 216
[표 4-27] 제도·정책관련 용어 빈도 ····· 216
[표 4-28] 전문가와 실무자의 시각차 ····· 218
[표 4-29] 도시공공미술 전략에 대한 추가의견 ····· 220
[표 4-30] 도시공공미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의견 ····· 222
[표 4-31] 도시공공미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의견 ····· 224
[표 4-32] FGI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와 실무자의 제안 종합 ····· 226
[표 4-33] 도시공공미술 전략 종합 ····· 233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기본방향 ····· 3
[그림 1-2] 연구의 방법 ····· 6
[그림 1-3] 연구의 구성체계 ····· 8
[그림 1-4] 선행연구 범위 ····· 9
[그림 2-1] 전 세계의 도시화의 정도, UN Habitat2020 ····· 26
[그림 2-2] 2장 내용의 구성 ····· 28
[그림 2-3] 공공미술 주요 개념의 등장 시기와 관점 ····· 31
[그림 2-4] 2000년대 전후의 주요 어바니즘의 변화 흐름 ····· 46
[그림 2-5] 15min city scheme ····· 51
[그림 2-6] 파리 15분 도시 개념도 ····· 51
[그림 2-7] 도시경쟁력 평가지표 변화과정 ····· 58
[그림 2-8] JLL and The Business of Cities 2019 ····· 58
[그림 2-9] Cloud Gate(2004), SpceWalk(2021), Cecil.B.Moor(2024), HAHN/COCK(2013) ····· 64
[그림 2-10] 2000년대 이후 도시와 공공미술의 변화추이 종합 ····· 66
[그림 3-1] 3장 연구의 흐름 ····· 67
[그림 3-2]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증진 요소 도출 단계 ····· 77
[그림 3-3] 어바니즘+공공미술의 특성요소 도출과정 ····· 79
[그림 3-4] 도시경쟁력 특성요소 도출과정 ····· 80
[그림 3-5]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도시공공미술 전략요소 도출 ····· 81
[그림 3-6] 요소종합을 통한 지표체계 ····· 82
[그림 3-7] 1계층 우선순위 ····· 91
[그림 3-8] 2계층 우선순위 ····· 91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그림 3-9] 구조방정식 모형 ····· 93
[그림 3-10] 확인적 요인분석에 따른 경로별 부하량 ····· 111
[그림 3-11]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경로 ····· 113
[그림 3-12]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 114
[그림 3-13] 변수 간 인과관계의 정도 ····· 122
[그림 3-14] 공공미술과 도시공공미술의 속성과 포지셔닝(Positioning) ····· 128
[그림 3-15] 도시공공미술의 개요와 도시공공미술 10개 원칙 ····· 135
[그림 4-1] 4장 연구의 흐름 ····· 137
[그림 4-2] 11개 도시의 2020~2024 GPCI 변화추이 ····· 140
[그림 4-3] 11개 도시의 2020~2024 GCI 변화추이 ····· 140
[그림 4-4] 도시경쟁력 종합평가 순위 ····· 141
[그림 4-5] 서울과의 유사도 평가순위 ····· 141
[그림 4-6] 수퍼킬렌 붉은광장, 검은광장 이미지 ····· 147
[그림 4-7] 그랑파리 익스프레스 종합지도 ····· 151
[그림 4-8] 뉘 블랑쉬 포스터(좌)와 축제 전경(우) ····· 153
[그림 4-9] 하이라인파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 이미지 ····· 156
[그림 4-10] 록펠러센터 전경 및 공공예술 프로젝트 ····· 159
[그림 4-11] I lights singapore의 대표 조명 설치물 ····· 163
[그림 4-12] 멜버른 20분 도시 ····· 165
[그림 4-13] 20분 도시 프로젝트 ····· 167
[그림 4-14] Creative Hoarding Trial ····· 169
[그림 4-15] 숨쉬는 그물(서울숲), 싱싱겨울(한강), 비의 장막(가락시장) ····· 173
[그림 4-16] DDP미디어 파사드 ····· 175
[그림 4-17] 사례분석을 통한 대륙별 도시공공미술 특성 ····· 179
[그림 4-18] 한국 공공미술의 전개과정 ····· 189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그림 4-19] 도시공공미술 전략 개념도 ····· 193
[그림 4-20] 도시공공미술 전략구조 ····· 194
[그림 4-21] 도시공공미술 단기 전략과제 ····· 196
[그림 4-22] 도시공공미술 중기 전략과제 ····· 202
[그림 4-23] 도시계획, 경관계획과 공공미술의 프로세스 결합 모델 ····· 204
[그림 4-23] 일반 공공미술 프로세스(상)와 도시공공미술 프로세스(하) 비교 205
[그림 4-25] 민간재원의 정부 및 지자체 유입경로 ····· 207
[그림 4-26] 도시공공미술의 장기 전략과제 ····· 209
[그림 4-27] 산타모니카 공공건축에 대한 건축물미술작품 시스템 ····· 210
[그림 4-28] 도시공공미술 개념 및 정책화 동의도 ····· 218
[그림 4-29] 도시공공미술 전략 동의수준 ····· 221
[그림 4-30] 도시공공미술 전략별 상대적 중요도 ····· 221
[그림 4-31] 전략 시기별 동의도 ····· 223
[그림 4-32] 초기 전략 및 수정전략 비교 ····· 223
[그림 4-33] 도시공공미술 전략 종합 ····· 230
[그림 4-34] 도시공공미술 전략 로드맵 ····· 231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PRO HOMINUM BENEFICIO · 1946

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1.1.1. 연구의 배경

한국의 공공미술은 역사적 위인을 기리는 동상과 기념비 형태의 미술이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준비를 위한 환경정비에 활용되어 공원이나 가로를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고(양현미 2017), 조각공원에서 출발한 조형적 장식은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로 의무화되었다. 1만㎡ 이상의 신·증축 건축물에 주로 환경조각의 형태로 삶의 공간을 파고든 조형은 1994년 지방자치제가 본격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도시정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 상징조형, 홍보조형물, 진입게이트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후 제작 의뢰된 포토존, 디자인 시설물, 홍보시설물, 장식물품과 예술작품이 혼동되어 ‘공공조형물’라 통칭되며 현재에 이르렀으며 건물앞과 도시의 많은 공간에 설치되는 흐름을 이루었다.

1990년대 IMF 경제위기 이후 예술을 통한 정서환기와 소외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된 〈아트인시티 Art in City〉 프로젝트는 문화복지의 도구로써 미술의 방식을 선택한 첫 공공미술 사업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전국 11개소에 추진되었다. 단순한 미화의 목표를 넘어 지역사회를 위한 예술의 공공성을 지향했던 이 사업은 2010년 전후 서울시의 ‘디자인서울’ 사업으로 연결되어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로 확장되었다. 시설물 디자인과 결합되거나 특정 장소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며 공공미술을 다양한 도시공간에 선보였다. 현재 서울시는 이러한 흐름을 연결해 2016년부터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서 공공미술의 형식과 표현, 도시공간과의 결합방식을 다변화면서 새로운 도시 예술을 통한 장소만들기(Place Making)를 추진 중이며, 도시공간을 활용한 미술행사인 안양공공미술 트리엔날레(APAP)는 3년에 한번씩 개최중이다. 이 두 사업은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외에 지방정부가 실행하는 대표적인 정기 공공미술 사업으로 안착되었다.

도시정부가 공공미술의 정책화 하면서 2000년대 이후 공공미술은 단품 조성을 넘어 복합적인 프로세스나 여러 사업이 조합된 '프로젝트(Project)'의 성격으로 전환 되면서 다양한 유형과 장르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작가의 작품적 경향성과 장르적 특성을 넘어 도시정부의 정책태도와 가치철학, 제시되는 도시공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며 도시의 대표 문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도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점을 내포한다.

그러나 공공미술은 여전히 조형물 건립과 환경미화 작업 등 부가적인 장식요소로써의 인식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명확한 법제도와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부재로 인해 확장된 정책으로 안착하기 어려운 한계에 있다.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강화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와 정책사례로 증명이 되었고, 코로나 19이후 일상에서의 감성회복을 시작으로 확산된 시민의 문화향유의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객관화된 데이터와 정책적 효과에 대한 타당한 근거의 부족으로 공공미술은 도시에 확장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시대 도시와 공공미술이 어떤 방식으로 조화와 결합을 이루어야 실질적인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한국 공공미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확장적이고 선진적인 도시 공공미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보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다 부각시키고 정책적인 목적에 부합함으로써 많은 지방정부에서의 공공미술 활용 정책을 활용한 도시계획, 도시재구조화, 도시활성화를 전략화함으로써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로의 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의 과정에서 각 도시가 도시계획을 통해 가치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어바니즘(Urbanism)과 공공미술의 공통성을 다수 발견함에 따라 공공미술이 도시계획으로 연결되는 매개체로 어바니즘을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예술표현과 도시개입의 원칙을 연결하였고,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결합을 통해 발생하는 도시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의 영향력에 대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실제 정책화 가능한 작동 프로세스 발굴과 정성적 검증을 통해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 공공공간을 점유하는 공공자산으로써의 작품에 지나친 작가주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도시공간과 시민사회와 화합하는 공공미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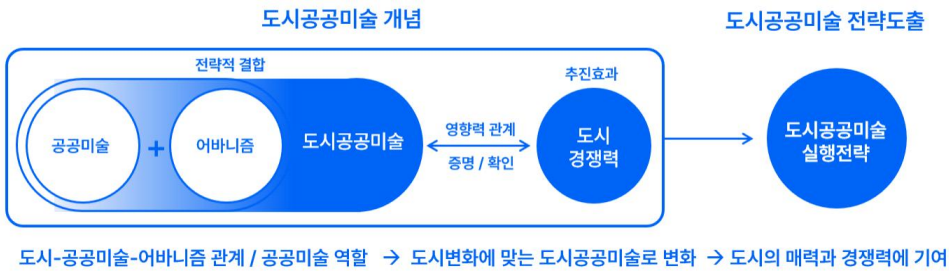
연구를 통해 객관화된 절차와 방식을 바탕으로 한 도시공공미술은 공공미술의 실행 목적과 방향, 지향성을 구체화 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단지 예쁜 사례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 방향이나 특성에 맞지 않는 장식적 공공미술 적용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변화와 시대가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공공미술 다변화 전략 기획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의 창의 발현의 기회 확대와 정부의 목표 지향성, 도시변화와의 연결성,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모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확장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시대변화에 맞추어 공공미술에 대한 관점을 미학적 해석 대상에서 문화적인 도시를 구현하는 핵심요소로 관점을 전환하고 도시의 공간변화에 전략적으로 결합 가능한 예술로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도시개발, 도시계획 등의 장기적인 도시 지형 변화를 설계함에 있어 시민 삶과 맞닿아 도시의 경관과 지역의 매력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공공미술을 도입시켜 실질적인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활용 가능함을 증명함으로써, 도시를 위한 공공미술로써 '도시공공미술'을 하나의 실행유형으로 적용 가능함을 실증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간 계획과 공공미술의 이원성의 매개체로 어바니즘 이론을 공공미술과 다면적으로 결합하는 방식 제안하여 한 도시의 철학과 사회적 가치를 지원하는 공공미술의 방식으로 적용과 실행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계획이나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단계부터 결합하는 프로세스, 안정적 정책 체계화 방식을 조직화한다. 이러한 도시공공미술의 실행을 통해 도시계획과 문화예술의 하나의 지향점을 이루어 도시의 문화적 성장과 시민 삶질 제고와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연구의 기본방향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연구의 기본방향

1.2 연구 범위와 방법

1.2.1.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본 논문에서 논하는 대상의 주요 시간적 범위는 2000년대 도시 간의 도시경쟁력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글로벌 의제 등장으로 전지구적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변화의 양상을 반영한다. 사회문화적 변화의 기점으로 밀레니엄(millennium)[2]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발생 시점이 1990년대 전후인 관계로 2000년대에 이후에 본격 적용된 이론은 본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2) 내용적 범위

본 논문은 공공미술과 관련된 이론 전반과 도시계획, 도시경쟁력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공공미술의 범위는 조성 목적이 건축물 구축을 위한 절차에 부합하기 위해 만드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역사적 인물이나 기념사업을 위해 조성한 동상·기념비를 제외하였다. 또한 단체나 정부의 특정 목적을 위해 주문 생산된(order made) 제작물품 납품의 성격이 강하거나 조형적 형태를 가지고 있되 작가의 자기표현적 작품이 아닌 상징 조형, 홍보 조형, 디자인 물품, 장식용 조형은 제외하고 미술작품으로써 예술작가의 순수 창작에 의한 '작품'으로 정부나 민간의 자율에 의해 기획, 실행한 성과물 또는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어바니즘의 범위는 2000년대 전후에 등장한 이론으로 도시설계와 경관, 디자인 적용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뉴어바니즘(New urbnism)과 이 이

2) 밀레니엄 : 1000년 단위로 년도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킬로이어(kiloyear)라고도 부른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론에서 발전된 시간이론으로 N분 도시이론(N minute theory)[3]을 중심으로 한다. 이 두 이론은 현재 많은 선진도시의 도시기본계획에 형태적 적용원리와 도시공간 재구성의 핵심이론으로 적용하고 있는 어바니즘으로 특히 현재 서울, 부산 등 한국의 주요 도시에도 적용되고 있는 이론으로 확인되었다.

도시경쟁력 평가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9개의 도시경쟁력 조사지표[4] 중 사회·문화 영역의 평가요소를 핵심적으로 다루어 전체적인 시대 흐름에 따른 영역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다만 문화경쟁력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측정하는 역사적 문화자원인 헤리티지(Heritage) 중심의 공공미술 사례는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문화재 또는 역사자원은 중요한 관광과 문화적 자산이 분명하나 현시대 성장하는 도시들이 변화와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쟁력 요소이자 특화요소로 보았기 때문이다.

3) 사례분석의 범위

본 논문에서의 도시공공미술은 각 시대적 흐름, 도시의 규모, 특정 경쟁력 요소, 추구하는 어바니즘의 형태에 맞추어 정의할 수 있는 개념으로 특성으로 유기적 변용성이 있다. 다만 본 논문에 적용된 사례분석 대상은 인구 100만이 거준=하는 이상 정치, 경제, 집합주거, 대형업무지구, 교통 시스템이 복합화 된 대도시로, 202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논문의 내용적 범위인 N분 도시이론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거나 해당 도시의 핵심 도시계획과 연계 추진된 공공미술의 사례가 있는 도시로 한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3) 프랑스의 도시이론가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의 15분 도시이론(15 Minute theory)에서 출발하여 각 도시나 주체에 맞도록 N분 도시이론으로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다.

4) 'Quality of Life (Mercer)', '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European Ccommission,EC)', 'Global Cites Index (Kearney)', 'Global Cites Outlook (A.T Kearney)', 'World 100 best cities (Resonance)', 'Better Life Index(OECD)', 'Global Power City Index(Mori)', 'UNESCO 2030(Unesco)', 'Global liveability Index(EIU)'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우수 평가를 받고 있는 도시로써 한국 서울과 인구, 면적, 도시구조 등의 유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개 도시 10개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1.1.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히여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포함하는 혼합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방식으로 문헌연구, 사례분석, 정책분석, 도출된 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FGI)를 포함하였고 파이선(Python)을 활용한 언어 빈도분석을 병행하였다. 객관적 데이터 도출을 위한 양적 연구 방법으로써 지표 우선순위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과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 모형에 따라 SPSS 25.0와 AMOS 25.0을 활용한 회귀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론을 통하여 지표의 정의와 영향력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그림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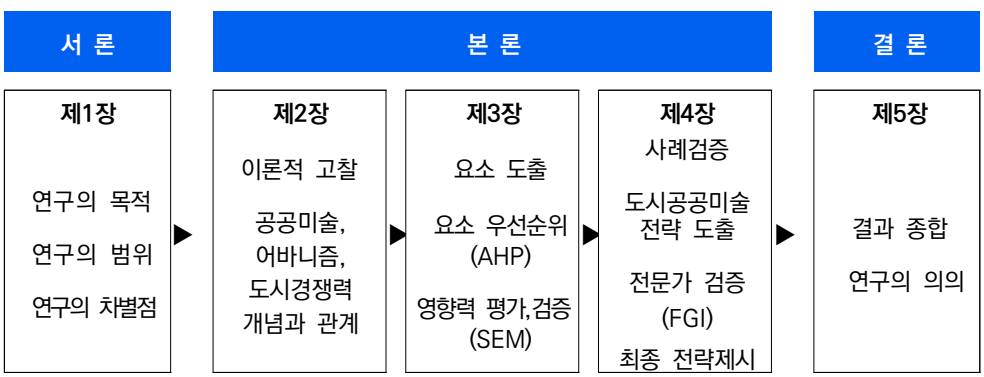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의 방법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본 논문의 기술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주제에 대한 연구 관점 목적, 범위 설정하고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진행체계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달라진 공공미술(Public art)과 도시 가치이론으로서의 어바니즘(Urbanism)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 공중(公衆)의 공간에 대한 전략적 적용과 도시의 경쟁력강화의 관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공공미술과 어바니즘, 도시경쟁력 요인분석과 도시공공미술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 증명을 위하여 AHP, SEM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공공미술,어바니즘, 도시경쟁력 간의 인과관계, 영향력을 근거로 '도시공공미술(Urban Public Art)'을 개념화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과정에서 발견된 '도시공공미술'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도시경쟁력이 높고 조사 조건에 맞는 도시들의 사례검증을 진행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도시공공미술'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전략의 실현가능성 검증 절차로 전문가 집단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거쳐 최종 전략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진행된 연구의 핵심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전체 연구의 흐름은 [표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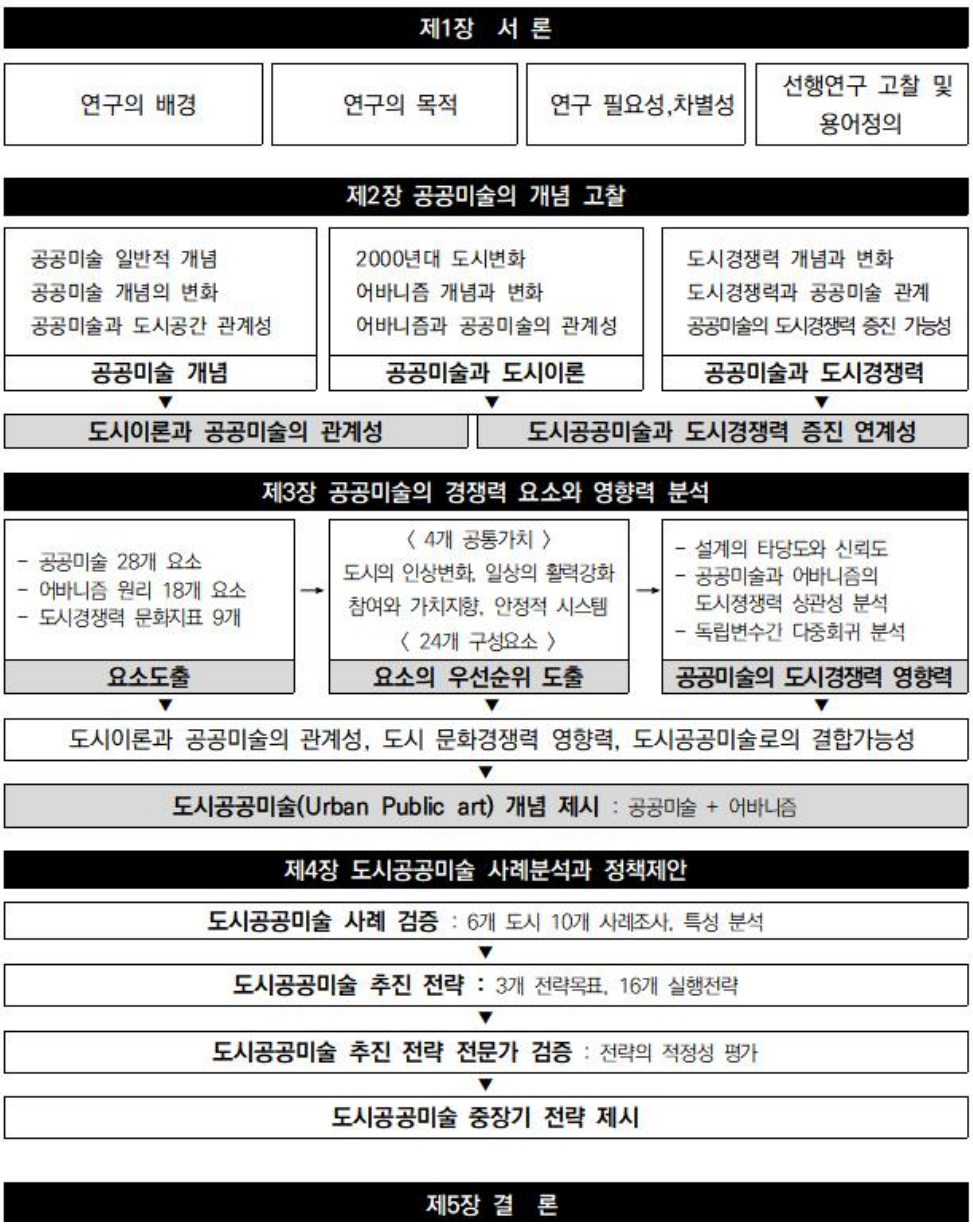
[표 1-1] 연구의 흐름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1.3. 연구의 구성체계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체계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연구의 구성체계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1.4 선행연구 고찰 및 용어정의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공공미술과 어바니즘, 도시경쟁력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정책데이터 등을 검색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사회문화적인 지향 가치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연구의 시간적 범위 시점에 맞추어 2000년 전후의 담론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어바니즘과 공공미술의 접점을 아우르는 논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성을 고려하여 미학적 비평이나 사례연구보다는 변화의 양상, 도시와의 관계성, 가치추구의 방향을 담은 국내외 논문, 기고,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도시경쟁력과 관련된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사회학, 공간학, 도시계획의 선행연구를 포함한 국내외 학술논문, 학위논문, 각 국가의 연구보고서, 공식 웹사이트 등을 참고하였다.

도시경쟁력과 관련된 선행연구평가와 관련한 자료들은 각 평가주체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OECD, UN, UN Habitat를 포함하여 기관과 도시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데이터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이 도시의 경쟁력과 관련된 문화, 지역 매력, 삶의 질 등의 목표치와의 관계성을 고찰한 선행연구와 사례로 선정된 도시정부들이 발표한 도시기본계획, 문화계획, 아트플랜 등에 대한 공식 자료와 정부 사이트들을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그림 1-4 참조)



[그림 1-4] 선행연구 범위

1.4.1 공공미술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공공미술에 대한 작품평가나 미학 중심의 담론보다는 도시와 도시공간과 공공미술에 대한 의미와 사회적 역할, 효과성, 추진방식, 정책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표 1-2]와 같이 참고하였다. 대부분이 공공미술에 대한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공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고(강현아, 2020), 시스템화된 도시공간 안에서 공공미술의 역할을 한 도시의 문화적인 품격을 높이고(조경진,2014) 아름다운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장소의 정체감(문희숙,2013)을 높이는 문화예술의 형식으로 바라보았다. 관계적 관점에서 참여와 소통의 방식(M.W Kwon, 2020 ; 오재란, 최익서, 2019 ; Sennet, 1977)을 강조함으로써 공공미술을 장식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도시공간과에서의 확장된 관계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공공미술 정책 연구지 양현미는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점을 제안함과 동시의 공공미술의 공공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공공미술의 체계화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강수미는 최근 공공미술의 공공성과 예술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 개념에서 발전된 열린 특정성(Open-specificity)[5]를 언급하며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표 1-2] 도시와 공공미술의 다양한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제목	주요내용	주요 키워드
강현아 (2020)	공공미술의 역할과 방향성에 관한 연구 –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론을 중심으로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적 공간'의 유형으로 기획 단계에서 부터의 '공간의 재현'에 대한 분석과 제도와 시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간적 실천'의 중요성 설명	재현적 공간, 공간의 실천, 대안적 공간, 르페브르, 제도개선,

5) 강수미(2024), 공공미술의 복합 논리: 글로벌 도시의 미적 공간과 아니쉬 카푸어의 〈구름문〉, 미학예술학연구, 71, 50-77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연구자	제목	주요내용	주요 키워드
강수미 (2024)	공공미술의 복합 논리 : 글로벌 도시의 미적 공간과 아니쉬 카푸어의 〈구름문〉	현대공공미술은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전통적 장소특정성을 넘는 복합논리 요구, '열린 특정성'을 통해 글로벌 도시의 미적 생산 가능성 제시	장소특정성. 열린 특정성, 예술자본주의, 글로벌도시, 미적공간
김주연, 이미림, 권양숙 (2010)	도시 공간에서의 인간과 공공미술의 유기적 관계 연구	공공미술은 일차적으로 공공에게 열린 공간에 설치, 아름답게 꾸며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도시공간에서 예술과 문화에 대한 공공의 접촉을 높여 공공예술의 기능을 유발	상징성, 심미성, 일관성, 연결성
김현정 (2011)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고찰	공공미술이 장소마케팅 전략으로서 도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시 및 부산의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와 시사점을 제공	장소마케팅, 경제활성화, 부산 공공미술 프로젝트
김도년 (2011)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공공미술	공공미술이 도시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	공공미술,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 공동체
김동규 (2013)	새로운 공공미술의 정치철학 –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중심으로	하버마스의 담화조건을 적용, 공공미술이 민주적 토론장을 형성할 조건 제시. 미적 경험 · 시민 담론 간 상호작용을 규명	공론장, 상호작용 정치철학, 담론
김유진 (2017)	로컬시대의 공공미술 : 2000년대 이후 한국 공공미술에서 공공성의 의미 변화	한국 공공미술의 발전 과정에서의 공공성의 의미 변화와 확장을 분석하며, 현대 공공미술의 방향성을 제시	공공미술, 공공성, 로컬시대,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역사회, 주민참여
김연희 (2017)	공공미술의 공공성 실현에 관한 연구	예술성과 기능성, 접근성, 주인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한 공공성구현. 시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공공성 실현에 핵심임을 강조	예술성, 기능성, 장소성, 접근성, 정체성, 식별성, 장식성, 주인의식
김재경 (2001)	도시 공공미술 공공성 향상 방안 연구	공공미술 설치는 안정성, 쾌적성, 일관성, 독자성을 갖추어 경관과 환경의 질을 향상함	안정성, 쾌적성, 일관성, 연속성, 독자성
김혜진 (2010)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유형 분석	공공미술 프로젝트 정서적·사회정치적·문화적·경제적 관점에서 유형화됨. 이를 통해 도시와 주민의 요구 충족과 사회적 통합 유도	정서성, 사회성, 정치성, 경제효과
양현미 (2004)	공공미술의 제도적 기반: 미술을 위한 퍼센트 법을 중심으로	한국의 퍼센트법이 단순히 장식수준에 머물러 공공미술의 발전을 저해함에 따라 해외사례와 비교한 퍼센트 법의	퍼센트법, 제도, 공공성 확대 의성, 다양성,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연구자	제목	주요내용	주요 키워드
		제도적 개선과 개념확장의 필요성 강조	평등성, 포용력
라도삼 (2017)	서울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서울시 내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관리, 활용에 대한 현황을 분석, 제도적 방안을 제시로 서울시 공공예술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향후 공공예술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	공공예술,공공미술, 제도개선, 시민참여
류선정 (2012)	우리나라와 호주 공공 미술 제도 비교 연구	서울과 호주의 공공미술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공미술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 연구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한 정책 운영 방안 제시	공공미술제도, North Sydney Council City of Holroyd
문희숙 (2013)	공공공간의 환경조형물 설치에 관한 기본조사 연구	공공공간의 조형물은 심미성·지표성·실용성·참여성 등 다중적 가치를 구현하여 도시환경의 질과 미적 수준을 높이는 수단이 됨	심미성, 지표성, 실용성, 참여성
박재은 (2023)	Project형 공공미술 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프로젝트성 공공미술은 시간성, 다양성, 협치성, 복합성, 지역 밀착성을 강조하여 접근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추진 가능	시간성, 다양성, 현장성, 복합성, 협치성, 지역밀착성
박미숙 (2024)	공공미술의 사회미학적 가치와 활성화 연구 -소외지역 인식개선을 중심으로	공공미술이 소외지역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회미학적 관점에서 탐구	공공미술, 사회미학, 도시재생, 마을미술, 환경친화
반정화 김수진 (2022)	수용미학의 메커니즘 관점에서 공공미술 특정 장소가 갖는 의미 연구	장소는 공공미술의 상징성, 접근성, 이용성 등을 통해 의미가 형성됨. 수용자의 미학적 경험이 성패에 중요함을 강조	상징성,접근성, 이용성 수용미학
송 천 (2020)	Placemaking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방안 연구	플레이스메이킹 전략에서 예술성·사회적 책임·지속가능성을 강조하여 도시 공간이 사교적 교류, 문화적 소통 중심으로 전환 필요	예술성, 사교성,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접근성
오재란, 최익서 (2019)	도시 공간에서 공공미술 가치에 관한 연구 - 빌바오 공공미술작품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미술은 넓은 의미에서 공공장소와 공간의 예술적 형태를 의미, 대중과의 상호작용이 중요시되는 독특한 예술표현으로 주민, 예술가, 장소, 행정가의 유기적 관계의 중요성 강조	상징성, 유기성 상호작용, 예술표현, 공공성
조경진 (2014)	도시개발 및 재생의 수단으로 통합적 공공미술 추진 전략 연구	도시공간에서 공공미술은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표현하고 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향유를 상징함으로써 집단적 정체성을 표현함	도시계획 연계. 공동체 활성화 집단적 정체성 재생, 예술
왕위잉 (2023)	문화도시 공간을 위한 공공미술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 공공성 가치를 중심으로	공공미술은 도시문화공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개 역할을 함. 공공가치 향상을 위한 시민 인지도, 전문성 강화 필요성 제안	공공성, 시민 인지도, 공공성 강화, 공공가치,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연구자	제목	주요내용	주요 키워드
		공공미술과 공공성의 가치 연관성, 도시 공간에 공공미술 자원의 효과성 확인	공공자원, 공공공간
이명진 (2014)	공공미술을 통한 공공공간의 의미 확장에 관한 연구	공공미술이 물리적, 사회적, 상징적 층위에서 공간 경험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외계층 문화권 보장을 지원함을 규명	공공공간, 의미확장, 소외계층, 문화접근성
이은정 외 (2013)	장소특정성 공공미술의 발전방향 연구	미술사·인류학 관점을 결합해 장소특정성 개념 진화와 도시 적용 메커니즘 (주민 서사, 역사성)을 체계화	장소특정성, 도시 맥락, 공간작동
이정민 (2013)	공공미술의 공공성과 주체 간 관계의 특성 연구	예술가·행정가·주민·관람자 다중주체의 가치 충돌, 협력과정을 사례 비교로 탐색. 거버넌스 모형에 따라 작품 의미·관리 방식이 달라짐을 실증	관계성, 다중주체, 협력, 의미공유, 거버넌스
임성훈 (2009)	미술과 공공성 : 공공미술에 대한 미학적 고찰	포스트 구조주의 관점에서 공공미술이 '열린 텍스트'로 기능하며. 장소·맥락·사회관계가 예술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함	장소맥락, 공공성, 사회관계, 의미형성, 관객중심
양초롱 (2022)	도시 발전과 공공미술의 상관관계: 프랑스 리옹 도시를 중심으로	공공미술이 도시재생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리옹시의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	도시예술, 공공미술, 도시재생, 도시 개발
김소은 (2014)	공공미술의 공론장 기능과 역할	공공미술이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사회적 대화와 참여를 촉진하는 공론장으로 공공미술의 사회적 가치 재조명	공공미술, 뉴장르 공공미술, 공론장, 공동체 미술
C. Grodach (2010)	Art Spaces, Public Space, and the Link to Community : Cultural Economic Regeneration Strategies	美·호주 예술창작 공간 전환 사례를 문화경제 효과(고용·투자)와 지역사회 교류 측면에서 비교 분석	예술공간, 공공공간, 지역사회, 문화경제
G. Scard (2024)	Creating a Space of Sharing : Public Art's Role in Rebuilding Social Function and Communal Resilience	팬데믹 이후 '공유의 장소' 개념을 도입, 공공미술이 회복적 커뮤니티 형성을 매개하는 조건·사례 분석.	공유공간, 사회적 기능, 공동체회복
Grant Kester (2004)	Conversation Pieces: Community and Communication in Modern Art	'대화적 미술(dialogic art)' 개념 제안. 예술가·지역사회 간 협업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며, 참여가 사회정의·문화치유 가능성 높임	대화예술, 소통, 사회변화, 사회적 협업
J.Francis (2012)	Creating Sense of Community: The Role of Public Space in Enhancing Social Connectedness	3개의 호주 도시에서 설문과 행태 관찰. 공공미술 포함 공공공간 요소가 공동체성과 신뢰도를 체계적으로 높임을 실증	공동체성, 소속감, 공공공간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연구자	제목	주요내용	주요 키워드
Jan Brennan (2019)	Public Art and the Art of Public Participation	미국 중소도시 사례 8건 분석. 기획·제작·평가 단계별 주민참여가 지역 정체성, 사회적 응집력 증대에 결정적임을 입증	정체성, 응집력, 주민참여
Malcolm Miles (1997)	Art, Space and the City: Public Art and Urban Futures	공공미술의 도시정책 도구화가 신자유주의 개발 논리와 충돌할 수 있음을 비판. 예술이 도시 미래를 상상하는 '담론 장치'로 기능함을 제시	공공미술, 공간정치, 도시정책
Matilde Carrasco (2024)	Artistic Aesthetic Value in Participatory Art : Re-evaluating the Role of Spectator Agency	관객 행위가 미적 가치 판단의 핵심 변수임을 논증. 전통적 '작품 중심 가치'에서 '행위-경험 중심 가치'로 전환할 필요성을 밝힘	참여예술, 미적가치, 관객활동, 평가변화, 경험가치
Nicolas Bourriaud (1998)	Relational Aesthetics	1990년대 '관계미학' 현상을 개념화. 미술작품을 사회적 인터페이스로 규정, 관객이 작품 사회적 관계망을 생성·소비하는 과정을 관계적 해석	관계미학, 상호작용, 사회적 공간, 공동체, 의미생산
Patricia Phillips (1988)	Temporality and Public Art: Dynamic Meanings in the Urban Landscape	시간성·일시성 개념으로 공공미술을 재해석. 임시 설치·퍼포먼스가 도시 경험을 확장하며 공적 공간의 경계를 재구축함	시간성, 일시성, 공공영역, 변화성
Rosalyn Deutsche (1996)	Evictions: Art and Spatial Politics	뉴욕 사례를 통해 예술이 젠트리피케이션재개발 권력관계를 가시화, 비판할 잠재력 분석	공간정치, 재개발 비판이론, 공공공간
Graeme Evans (2009)	Creative Cities, Creative Spaces and Urban Policy	현대 도시에서의 혁신이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예술, 디자인, 미디어 기술 등 창의산업과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 활동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함	예술의 창의, 디자인, 사화적 참여, 도시정체감
Richard Sennett (1977)	The Fall of Public Man	공공영역의 쇠퇴는 단절을 유발, 상호작용을 위한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설명 공공미술과 도시디자인이 공공영역 활성화에 기여	공간 상호작용, 공공성, 도시공간 활력
William H. Whyte (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공공 공간이 특정 용도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사용 방식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설계,공간을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중요	창의성, 활동지원, 다목적성
Mi won. Kwon (2002)	One place after another : Site specific art and Locational Identity	공공미술이 동일화 되는 지역 이미지의 '정체성의 차이(diffenence)를 만들어 장소의 차별성을 두는 역할 수행 가능, 뉴장르공공미술과 장소특정적미술에 대한 의미적 재검토 필요성 강조	장소정체성, 장소특정성, 장소와 예술, 뉴장르 공공미술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1.4.2 어바니즘 관련 선행연구

어바니즘 관련 선행연구는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뉴어바니즘(New Urbanism)에서 N분 도시(N-minute city)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대 도시설계의 방향으로써 지속가능성, 복합활용성, 접근성과 도시의 공공성 중심의 형태론적 접근이론인 뉴어바니즘은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에 기여(문선욱, 2008)하며 보행자 중심성, 혼합용도의 개발(김영희, 2005 ; 서수정, 2007)을 강조하며 도시구조 변화와 도시재생에 질적 변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뉴어바니즘 기반의 형태론은 시민의 생활권과 일상 접근성 중심의 시간론인 N분 도시 개념으로 발전해 가면서 파리, 바르셀로나, 멜버른, 포틀랜드, 서울, 부산 등의 도시에서는 생활권 계획으로 활용(박창석, 2022 ; 유지현외, 2024) 되었다. 21세기 어바니즘의 핵심이론인 뉴 어바니즘과 N분 도시이론은 형태적 개념(Morphological Logic)과 시간 도시주의(Chrono-Urbanism) 개념이 서로 대치되지 않고 양립과 보조를 통해 도시 발전 전략으로 유효하게 적용 (박수경,김경배, 2024)되어 오고 있으며 팬데믹과 기후 위기 등의 이슈는 성장 중심의 창조적 경제활성화(박정은, 2015)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원형을 지시하고 있다. 특히 유엔 해비타트의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등과 같은 공통의 가치를 연계(박세훈, 2016)하고 시민의 도시권(Right to the city)을 강조함으로써 도시이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현재 뉴어바니즘과 15분 도시 등의 시간이론과 관계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으며 형태 중심적 도시디자인에서 시민의 삶의 질, 접근성, 지속가능성, 문화적 경험을 핵심으로 하는 시간 도시주의로의 변화를 통해 도시정책과 계획에서 보다 사람 중심의 문화친화적인 접근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표 1-3] 뉴어바니즘과 N분 도시이론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제목	주요내용	주요 키워드
박세훈 (2016)	해비타트III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성립배경과 의의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주요 내용과 성립 배경, 의제가 갖는 의의를 분석한 연구로, 새로운 도시의제가 도시 및 도시정책에 갖는 의미와 향후 도시연구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 제공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의제, 도시에 대한 권리, 제인 제이콥스, 도시정책, 유엔 해비타트
박창석 (2022)	파리의 15분 도시, 미래의 삶을 꿈꾸다.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개념과 그 실현방안을 통하여 도시모델이 미래의 삶에 미칠 영향을 탐구. 15분 조시 전략은 도시 내 생활 편의성 증대와 환경 대선을 동시에 이루어, 미래 도시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을 시사	15분 도시,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생활권 계획, 파리
콘셉시온 머라이어 카밀 (2024)	15분 도시 개념 적용을 통한 공공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15분 도시 개념을 광주광역시의 공공공간에 적용하여 그 특성을 분석한 연구로서, 광주광역시의 공공공간 개선을 위한 실질작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15분 도시의 적용가능성 제시	15분 도시, 공공공간, 도시계획, 광주광역시, 보행가능성
박정은 (2015)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의 활용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 글로,도시재생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는 방안 제시	창조경제, 도시재생, 혁신 생태계, 산업 입지 전략, 스마트 규제
유지현 외 (2024)	경기도 n분 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방향	경기도에서 'n분 도시'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	n분 도시, 공간계획, 생활권 계획, 도시 접근성
문선욱 (2008)	뉴어바니즘의 도시디자인과 공공성	미국에서 발전한 뉴어바니즘의 도시디자인 과정과 유형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내재된 공공 가치와의 상관성을 도출 하여 뉴어바니즘의 도시디자인 원칙이 공공성 증진과 도시계획 및 설계에 시사점 제공	뉴어바니즘, 도시디자인, 공공성, 유형학적 특성, 공공 가치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연구자	제목	주요내용	주요 키워드
김영희 (2005)	미국의 뉴어바니즘 특성에 관한 연구	뉴어바니즘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현대 도시 설계의 방향성과 과제 조명	뉴어바니즘, 도시설계, 공간구조, 보행자중심, 혼합용도
박수경, 김경배 (2024)	시간도시주의(Chrono-Urbanism) 전략에 관한 연구 : 파리, 포틀랜드, 멜버른 사례를 중심으로	시간도시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파리, 포틀랜드, 멜버른 의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전략과 계획 요소를 도출한 연구로서, 국내 도시에서 시간도시주의를 적용하는데에 있어서 시사점 제공 및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 가능성 제시	시간도시주의, N분 도시, 파리 15분 도시, 포틀랜드 20분 동네, 멜버른 20분 동네
심은주 (2011)	현대 도시 공간디자인에 나타나는 영역의 융합 유형 및 특성	현대 도시 공간디자인에서 다양한 영역 간의 융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로, 도시 공간디자인에서 영역 융합의 중요성과 그 적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디자인 전략 수립에 유용한 지침 제공	도시공간디자인, 영역 융합, 융합 유형, 공간 특성, 현대 디자인
서수정 (2007)	지속가능한 개발과 뉴어바니즘 이론의 적용에 의한 영국 버밍험 시 도시재생의 특성	뉴어바니즘 이론이 실제 도시재생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제시	지속가능한 개발, 뉴어바니즘, 도시재생
우영주 (2023)	강남 슈퍼블록을 통한 n분 도시계획 요소에 관한 연구	강남 슈퍼블록 사례를 통해 n분 도시 개념을 적용한 도시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도시 설계 및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 제공	n분 도시, 슈퍼블록, 도시계획, 보행자 중심, 생활 편의시설
최찬양 (2024)	2SFCA 기법을 활용한 서울시 문화공간 보행 접근성 분석 : N분 도시 및 서울시 보행일상권을 중심으로	2SFCA 기법을 활용하여 서울시 문화공간의 보행 접근성을 실증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으나, 분석 기준의 정밀성, 문화공간 규모 반영 부족, 민간 공간 데이터 미포함, 문화공간 특성별 보행거리 차등화 미반영 등의 한계 지적	N분 도시, 보행일상권, 2SFCA, 문화공간, 보행네트워크 분석
박세훈 (2008)	문화의 시대, 도시계획의 새로운 역할	경제의 문화화에서 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문화의 시대 돌입, 도시공간 속 문화구현을 위한 문화계획을 통해 도시계획 자체의 문화화 필요성 강조	도시계획, 문화경험, 문화계획, 도시공간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1.4.3 도시경쟁력과 문화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도시경쟁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경제적 평가지표 중심에서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문화예술적 가치평가로의 지향성 변화를 발견하였다. 특히 공공미술과 문화적 경험을 통한 도시의 매력 발견과 그를 통한 도시정체성 형성이 도시의 경쟁력에 향상에 기여한다는 주장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가의 경쟁력평가에서 국가 문화경쟁력 평가로의 전환(김주호, 이은정, 2009)의 관점은 문화자산과 인프라 조성에서 벗어나 도시의 문화권 확대와 예술 생태계 조성이 도시의 경쟁력의 필수요소(윤소영, 2020)로 보는 관점, 지역의 매력과 주민 삶의 질이 도시경쟁력에 결정요소(김해보 2023)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했다. 도시경쟁력 연구자인 변미리(2013, 2022)는 서울과 주요 아시아 도시를 비교하면서 문화적 요소가 도시경쟁력 평가에 필수요소임을 밝혔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공공공간보다 그 관계인 시민과의 상호작용이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 주장한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 1977)과 공공미술이 도시의 역사 문화적 의미를 시각화하여 도시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분석한 톰 핀켈펄(Tom Finkelpear, 2021)의 주장과 연결된다.

특히 유럽연합(2023)에서 도시의 문화적 창의성이 도시 간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강조한 만큼 예술을 통한 창의요소[6]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도시경쟁력 연구자인 변미리(2013)는 도시경쟁력이 물질적 개발보다는 '문화+삶의 질'이라는 복합적 자산으로 정의하며 문화적 경험, 창의성, 도시정체성, 문화정책의 안정 등이 발현하는 부가가치를 강조하였다. 본 논문과 관련하여 도시경쟁력 및 문화정책에 대하여 고찰한 선행연구는 [표1-4]와 같다.

---

6) 문화와 창의도시 모니터(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 :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표1-4] 도시경쟁력과 문화정책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제목	주요내용	주요 키워드
김주호, 이은정 (2009)	문화지수 비교를 통한 OECD 5개국의 문화경쟁력 연구	국가별 문화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정책 방향성을 제시	문화자산,문화지수, 국가적 인프라, 개인 경쟁력
윤소영 (2020)	지속가능한 문화비전 2030 추진방안 연구	문화비전 20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한국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콘텐츠 산업 발전, 지역문화 분권, 문화다양성 실현
김해보 (2023)	지역문화 매력·활력 증진 방안 연구	도시경쟁력에 대하여 전통적인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도시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도시의 매력도와 삶의 질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	지역문화, 지역 매력 증진, 지역 활력 증진, 문화정책, 지방시대
노영순 (2019)	문화권 선언 2030 방향 설정 연구	문화권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문화권을 2030년까지 어떻게 발전시키고 보장할 것인지에 대힌 방향성 설정 및 제시	문화권, 문화권 선언, 2030비전, 문화정책, 문화적 권리
변미리 (2022)	도시경쟁력 진단에 근거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를 중심으로	서울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도시들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여,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도시경쟁력, 경쟁력 강화 전략
변미리 (2013)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분석	다양한 도시경쟁력 평가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한 연구로 서울의 현 주소를 평가하고,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글로벌 도시지표, 서울의 경쟁력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연구자	제목	주요내용	주요 키워드
UN HABITAT (2021)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 (2020-2021)	도시들이 글로벌 발전의 맥락에서 경제적 경쟁력에서 발전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도전 과제 극복 방법에 대한 통찰 제공	Urban Competitiveness, Global Urban Value Chain, Economic Competitiveness, Sustainable Competitivenes
Richard Sennett (1977)	The Fall of Public Man	공공영역의 쇠퇴는 단절을 유발, 상호작용을 위한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설명 공공미술과 도시디자인이 공공영역 활성화에 기여	공간 상호작용, 공공성, 도시공간 활력
Tom Finkelpear (2021)	Dialogues in Public Art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미술이 도시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로 자리잡아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시각화함	도시 정체성, 상징성, 이미지, 역사문화
송선영 (2021)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브랜드 정책 연구 - 주요 도시의 도시브랜드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관리 차원에서 도시마케팅 4M 전략을 적용, 국내외 주요 도시의 도시브랜드 정책 비교분석과 향후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브랜드 정책에 대한 전략적 방안 제시	도시브랜드 정책 도시경쟁력, 지속가능한 발전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시민 참여, 거버넌스
유럽연합 (2023)	문화 및 창의 도시 모니터	유럽 도시들의 문화적, 창의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시 간 벤치마킹과 정책 제시	문화적 활력, 창의 경제, 사회적 환경
양혜원, 김면, 김소연, 주익현 (2023)	지속가능한 문화매력국가를 위한 국가문화지수 개발 연구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국제적으로 평가하고, 문화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 한국의 문화적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여, 향후 문화정책 방향 제시	국가문화지수,문화매력국가, 문화적 위상, 지속가능성
박종웅 (2021)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연구	미국의 문화예술 행정체계와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문화예술 지원체계,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연구자	제목	주요내용	주요 키워드
장훈 (2020)	문화예술분야 동향 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문화예술 분야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제시	문화예술, 동향지표 지표체계 구축 문화정책
신재령 (2022)	정서적 적응성 환경 특성 기반 – 산업유산 재생(IHR) 공간디자인 전략 연구	산업유산 재생 과정에서 정서적 적응성 환경 특성을 고려한 공간디자인이 사용자 만족도와 공간 활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디자인 전략 제시	산업유산 재생, 정서적 적응성, 환경 특성 공간디자인 전략 사용자 경험
서동진 (2023)	장소정체성을 위한 내러티브 환경 요소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내러티브 환경 요소의 조합에 따라 장소정체성이 강화됨을 규명하고,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유형화를 통해 장소정체성의 형성·강화·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적 발전 방향 제시	장소정체성 장소감 내러티브 환경 내러티브 환경 요소 내러티브 환경의 유형화
전지훈, 정문기 (2013)	문화경쟁력과 창의성이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창의성이 도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로,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문화와 창의성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 제시	문화경쟁력, 창의성, 도시경제, 경제성장

1.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해제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공공미술 (Urban Public Art)

본 연구의 과정에서 확인된 새로운 개념으로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철학을 바탕이 된 어바니즘과 공공미술의 전략을 결합한 시스템적 공공미술을 말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한다. 확장된 공공미술의 도시공간 적용원칙을 어바니즘이 추구하는 시대의 도시철학을 기초로 활용하여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성을 반영한다. 일반적인 공공미술이 빈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고찰하는 반면 도시공공미술은 공간변화, 공간조성의 초기 단계부터 결합하며 기획되며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구현하는 공공미술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공공미술 (Public art)

일반적으로 대중을 위한 미술로 정의된다. 대중에게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 전시되는 미술작품이며 최근의 연구를 통하여 미술의 영역을 넘는 복합매체와 퍼포먼스, 음악, 건축 등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공공예술(公共藝術)'이라는 용어로도 치환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공공미술'의 용어적 한계점을 인정하고 내용적으로는 '예술'의 범주를 포괄하지만 현재까지의 법, 제도, 정책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현 체제와의 맥락적 공통성을 유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공공미술이란 대중에게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작가의 순수 창작품을 구현하거나 전시, 참여의 과정을 통해 구현되는 공공을 위한 예술작품으로 정의한다.

또한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 제13조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미술은행이 관리하는 미술품인 공공미술품(公共美術品), 상징물, 입체적인 홍보물, 디자인 설치물 등으로 납품되는 공공조형물(公共造形物)과 분명하게 구분짓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공공미술이란 영역과 장르적 경계를 떠나 모두에게 열린 도시공간에서 대중이 향유 할 수 있는 작가(作家)의 순수 창작품(創作品)으로 경계와 범주를 명확히 한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3) 어바니즘(Urbanism)

본 연구에서의 어바니즘이란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도시의 물리적 구조의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의 어바니즘은 도시의 지향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도시공간의 배치방식, 거버넌스의 체계화, 도시개발과 재생 등의 실행을 위한 개념과 실행의 매개체로 해석하였다. 또한 각 도시의 철학의 근간을 이루어 도시계획 수립의 기초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4) 도시경쟁력(Urban Competitiveness)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도시경쟁력은 각 도시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적 생산력과 삶의 질 만족도 등 한 도시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다층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단위의 생산력에 근거한 국가경쟁력평가, 문화예술 인프라와 예술인 지원비용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경쟁력 평가와 구분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에 대한 평가방식 전환에 기반한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1.5 연구의 차별성

공공미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드러난 동류의 연구의 한계점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공미술과 도시 간 관계 설정의 전환이다. 공공미술의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공공미술작품이나 사업, 공공미술작품을 중심으로 작품과 관람객의 소통의 방식, 유휴한 공간에 대한 공공미술의 적용 효과에 또는 현대미술적 가치, 작품 설치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 등을 주로 다루었다. 즉 대부분이 '작품' 또는 추진 결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 중심의 논리에서 '도시'와 '공공미술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표현된 결과보다 시작의 근거가 된 도시의 맥락에 집중하여 공공미술이 도시를 구성하는 자원으로써 '어떻게 기획하고 작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둘째, 공공미술의 영향력과 경로에 대한 실증이다. 대부분 공공미술, 공공예술 관련 연구는 질적 연구방식으로써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또는 비평, 혹은 특정 사업이나 작품에 대한 시민 설문결과를 다루고 있어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미술 영향력이라 보기 어려운 추상적 경향이 강하였다. '공공미술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라는 막연함에서 벗어나 공공미술과 도시경쟁력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실증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공공미술의 정책적 확장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공공미술의 정책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이다. 전반적인 공공미술 연구에 있어 정책적 분석 연구가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와의 일반 시민이 관계성을 맺는 과정과 행정적 실행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제안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명확한 정책 행정에서 공공미술의 실행 프로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세스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도시계획과의 공공미술의 연결 시도에서도 기반한 실무 프로세스가 연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러한 공공미술에 대한 구체적 프로세스는 더욱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혼합연구로 공공미술의 정책 목표로써 '도시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미술의 영향경로를 알아보고, 어바니즘과의 결합을 통해 증폭되는 영향력 관계를 도출함으로써 특정 사례중심에서 벗어난 구조방정식에 의한 영향력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공간의 재배치와 밀도 높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식에 공공미술 연결요소를 적용함으로써 장식을 위한 공공미술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넷째, 도시의 가치철학과 연결된 어바니즘 요소가 반영된 최근의 공공미술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공공미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도시경쟁력의 목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재 한국의 공공미술 관련 대표 전문가, 실행가. 행정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정책화, 법제화 가능한 공공미술 정책의 발전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차별화 방향을 통해 본 연구가 실제 도시공공미술로 실행함에 있어 정책적, 행정적 발전과 사업의 효율화 등의 실효성, 도시경쟁력의 효과적 적용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제 2 장 이론적 고찰

공공(公共)미술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열린 공간에 설치되거나 감상할 수 있는 미술작품[7]을 의미한다. 모더니즘 개념 중심의 순수예술에 공공성이라는 관계를 덧붙여 공공을 위한(for public), 공공에게 공개된(open to the public, publicity), 공공과 함께하는(with the public) 공공의(common) 대상이 되는 예술작품을 의미한다. 공공미술은 첫째는 공공의 공간(topos), 둘째로는 공공의 자본 또는 협력, 셋째로는 공중(公衆)과의 교감을 전제로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사건, 매체의 변화, 시민의 공간 향유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였다.



[그림 2-1] 전 세계의 도시화의 정도, UN Habitat2020

특히 2010년 전세계 인구의 22%가 인구 1백 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살고[8] 2022년 기준 세계인구의 절반이 넘는 57%가 도시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9] 인간의 삶의 주 무대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공공미술과 도시공간과의 연계성은 보다 강화되었다. 2024년 두바이 세계 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TURE FORUM)에서 발표된 세계도시문화트렌드 보고서에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GDP의 80% 이상을 도시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

7) 우리말샘(opendic.korean.go.kr) : 공공미술(公共美術) : 거리, 공원, 광장 따위의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전시하는 미술
8) Population data booklet, Global stater of metropolis 2020, UNHabitat, 2020
9)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https://hbs.unctad.org/total-and-urban-population/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여 세계 문화정상회담을 통해 현대도시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개발의제에 대하여 10가지 새로운 동향을 발표하고 문화를 통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10)]

사람의 관점에서 도시를 연구한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도시를 ‘사람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생명체’로 보고 다양한 교류와 보행연결, 기능성의 혼합 강화를 통해 사람이 만들어가는 도시의 생명성, 문화적 교류가 발생시키는 변화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오스트리아의 문화경제학자인 트로스비(David Throsby)는 저서 ‘경제학과 문화(Economics and Culture)’에서 도시에서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역할과 맥을 함께 이루는데, 트로스비는 제이콥스가 말한 상호작용과 함께 문화의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유지를 통해 도시는 경쟁력과 지속성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도시에서의 문화적 현상, 예술의 개입은 예쁘게 장식하는 표현 도구로써의 역할을 넘어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도시의 생명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미술의 가치가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유지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공미술의 개념과 적용의 원칙은 모호하다.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가 관계의 미학(relational aesthetics)[11)]을 통해 작품의 생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과 관계를 확장하였고 수잔레이시(Suzan lacy)가 주장한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미학적 관계의 확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권미원(M.W.Kwon)이 재해석한 장소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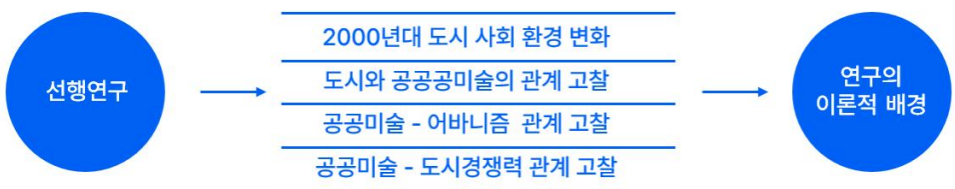
10) World Cities Culture Trends 2024, World cities culture Forum Trend report 2024,
11) 니콜라 부리오, 관계의 미학(Relational aesthetics)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정성(site-specificity)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작품' 중심이 아닌 '도시'관점에서의 공공미술의 필요성과 적용에 대한 유의미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 중 하나로 창의계급(creative class)의 증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창의 도시(Creative City, R.Florida))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기초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의 공공미술이 진화해가는 과정과 공공미술이 도시공간 안으로 흡수되어가는 방식으로써 어바니즘(Urbanism)과의 개념적 연결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연결과 결합의 유의미성을 고찰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문화예술적인 방식으로 확산 또는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을 진행한다.

본 장은 크게 3개의 절로 이루어진다. 첫째, 2000년대 이후 확장된 공공미술의 논의와 도시의 공간적용 원칙으로써의 어바니즘의 개념을 설명한다. 둘째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연관성과 결합가능성을 검토하고, 셋째 진화하고 있는 도시경쟁력 평가에 있어 문화적 경쟁력과 공공미술의 연관성을 증명함으로써 현시대의 도시 속에 공공미술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2-2] 2장 연구의 흐름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2.1 도시와 공공미술

2.1.1. 공공미술의 개념

공공미술이란 작가의 순수예술로써의 미술작품에 공공성을 입혀 대중의 공간으로 전시의 장소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출발하였다. 1967년 존 웰렛(John illet)이 처음으로 개념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울릴 수 없는 '공공'과 '미술'이 결합되면서 도시나 열린 공공의 장소에 새로운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한국에 공공미술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유치를 위한 조각공원을 조성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디자인, 건축, 조경, 디지털, 미디어, 퍼포먼스 등과의 유기적 결합을 시도하고 시간성, 공동체성을 포함한 무형적 예술과 태도를 포용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공공미술에 포함된 공공성이란 다학제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정부의 합리성(rationality),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공공재(public goods), 법학적 관점에서의 정당성(justification),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공익성(public interst), 미술학적 관점에서는 소통의 흐름(flow of communic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세훈, 2008) 공공미술이 공공장소에 설치되고, 공공정책에 의해 구현되며, 재원 조성 및 절차에 있어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미술(이슬기, 2018)[12]이기 때문에 장소, 재원, 절차, 주체에 따라 그 성격과 형상이 결정되거나 도시 속에서의 자유로운 접근(Public access), 함께 즐김(public use), 공동의 소유(public ownership)(박삼철,

12) 이슬기 (2015) 시공간 영역의 공공미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2000)[13]가 가능함으로써 공론적 기능을 갖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공미술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Public art로 제시되어 있으나 다양한 학제적인 논문들을 통해 공공미술의 성격에 따라 다른 학문적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행정력과 공공성이 강조된 Civic art, 도시화에 대한 반향적 개념을 포함하는 urban art, 참여와 연대를 통한 공공미술인 Community art, 현재적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융합적 성격을 갖춘 City art 등이다. 각 용어들의 특성과 각 용어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던 학자들을 포함하여 다음 [표 2-1]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표 2-1] 공공미술 관련 영어기반 용어 개념

	Civic Art	Public Art	City Art	Urban Art	Community Art
철학	공공성, 도시 정체성 강화	대중과의 상호작용	도시의 환경 특성 반영	자발적, 반권위적 창작	공동체 참여와 연대
대상	도시 전체, 공공공간	공공장소에서 모든 대중	도시 환경 전체	거리, 벽화 등 도시 하위 공간	지역사회, 사회적 단체 등
방식	전문가 주도, 제도적 지원	대중 참여 유도	예술가와 도시 공간의 상호작용	비공식적 창작, 개인, 소규모 팀	주민과의 협력, 워크숍 형태
표현 형태	공공 조각, 도시 디자인, 기념비	야외 조각, 벽화, 복합 설치미술, 인터랙티브아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미술	그래피티, 거리 설치미술	공동 벽화, 커뮤니티 기반 설치 작품
주요 목적	공공공간의 미학적·기능개선 상징성 강화	대중과의 상호작용, 공공성 확대	도시 안에서의 창의적 활용 정체성 구축	사회적 메시지 전달 대중과의 거리감 해소	사회적 연대 및 문제 해결
추진 주체	정부, 시 당국, 공공 기관	공공 및 민간 지원 포괄	도시 문화 기관, 갤러리,민간기구	개별 예술가, 비공식 네트워크	비영리 단체, 지역 사회
연구자	· Lewis Mumford · Miwon Kwon	· Rosalyn Deutsche ·Hilde Hein	· Charles Landry · Jane Jacobs	·Tristan Manco ·Jeff Ferrell	· Suzanne Lacy · Grant Kester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2.1.2. 공공미술의 개념과 유형변화

1) 공공미술 개념변화

공공미술의 개념과 형태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변화해 왔고,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정책과 연계되며 발전해 왔다. 연구자 양현미는 한국과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공공미술의 시대적 변천사를 아래 [그림 2-3]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 2-3] 공공미술 주요 개념의 등장 시기와 관점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공공미술은 1940년대 경제공황 시기에 일자리 창출 개념의 뉴딜(New Desal) 정책과 연결되어 확산하였고 195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 법인 1%법(1% Artique)[14]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으며 1970년대 조각공원조성과 동상설립 방식이 확장되면서 도시공간을 활용한 공공미술작품설치가 시작되었다.

공공미술은 대중과의 사회적 연결, 도시공간과의 관계, 공공가치와의 연계성을 갖추어 오면서 사회학, 공간론, 행정학 등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며 발전되어 왔다. 사회적 공간이론을 주장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공간의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된 공간'의 공간과 사회의 상호 연결방식은

14) 건축물미술작품의 모태의 사례가 된 법으로 현재 각국마다 별도의 요율을 정하여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권미원(Miwon.Kwon)이 주장한 장소특정성(Site Specific)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캐서린 호엣(Catherine Howett)은 환경미술로써의 지표성의 상회하는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표현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외부의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에서 사회적 관계론으로 공공미술의 영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사회와 예술과의 충돌의 과정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도시의 경제성장의 시대였던 1980년대의 공공미술은 특징적으로 각 정부의 문화정책 사업화가 시작되었으며 공공미술이 광장과 도시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등장하는 초기단계이다. 공공미술의 가장 대표 사건으로 꼽히는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Tilted Arc)'가 논란이 되면서 국가적 반달리즘(vandalism)과 작가의 작가주의인 모더니즘적 공공미술에 대한 논쟁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과도한 작가주의적 태도로 인한 사회와의 충돌과 행정적 오류에 대하여 미학자 벤자민 부클로(Benjamin Buchloh)는 「행정의 미학」[15](Astheatics of administration)을 통해 행정과 제도의 승인으로 발생하는 관료적인 합리성(bureaucratic rationality)을 경계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제도에 대한 비판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의 유연한 태도로써의 진정한 공공성(公共性)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후 공공미술은 실질적 주체로써 시민의 참여를 통한 작품과 사회의 연대와 관계에 대한 고찰이 을 주장하는 흐름으로 연결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수잔레이시(Suzanne Lacy)의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 이론이 그 바탕을 이루며 점진적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와해된 도시의 공동체들을 화복하는 과정으로써 공공미술의 활용방식을 소개하였고 향후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공공의(by th

15) Buchloh, B. H. D. (1990). Conceptual Art 1962-1969: From the Aesthetic of Administration to the Critique of Institutions. October, 55, 105-143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Public) 미술 방식을 시도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치물 중심이였던 공공미술에 참여의 과정과 개념적 미술이 도입되면서 정부의 문화정책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도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하였던 방식에서 시민과의 관계성에 집중하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이후 각 정부를 중심으로 문화경쟁력 강화와 자율적 이슈에 따른 공공미술의 방식으로 프로젝트(Project) 형태의 공공미술의 등장으로 연결되는데, 한국의 경우 2004년 문화부에서 추진한 '아트인 시티'사업과 2007년 서울시에 추진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016년부터 정책화 한 '서울은 미술관', '안양공공미술 프로젝트(APAP) 등이 대표적이다.

2) 공공미술의 유형변화

2000년 이후 도시공간에서의 공공미술을 다양화함에 따라 공공미술은 설치적 한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유형과 매체를 활용하며 확장하였다.[16] 이러한 변화는 공공미술의 표현과 방식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미디어아트, 과정적 예술 등을 포함하여 영구설치에서 벗어난 공공공간의 한시적 개입(temporary intervention)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구체적인 생산물 형태가 없는 참여과정 자체가 작품으로 기록되는 사회를 통한 미술(Socially Engaged Art) 방식의 프로세스들이 제안되었다. 더불어 기술의 발달을 통해 도시공간에서의 가상적 예술작품의 실시간 경험(Digital Interactive) 등의 표현방식의 확장을 통해 광장, 공원, 일상공간 곳곳에 도시공간의 밀집도와 공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며 적용었다. 세계적인 공공미술의 정책 유형변화는 [표 2-2]과 같다.

16) 김유진 (2017) 로컬시대의 공공미술 : 2000년대 이후 한국 공공미술에서 공공성의 의미 변화, 미술사연구회, 2017,vol.,no32,pp.189-219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표 2-2] 공공미술의 유형변화의 과정

구분	개념	특징	주요내용	주요 관점
1930 -1940	미술가를 위한 공공사업 (Public Work for Artist)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	벽화나 조각, 시설물의 장식을 위한 미술	작가의 작품위주
1950 -1960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	미술품을 통한 건축물의 미적 가치 향상	정부의 공공건물에 조각이나 벽화설치 , 순수미술 작품 우선 프랑스(1951), 미국(1963) 1%법 등장	생활공간과의 연결
1960 -1970	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place)	공원이나 광장에 미술품 설치, 기념동상,상징 조형물 중심	내부 전시물의 규모를 키워 공공장소에 내어놓는 방식	공공장소의 작품개입
1970 -1980	도시계획 속의 미술 (art in Urban plan)	도시개발이나 활성화 정책에 미술 결합 시작 환경조각작품	작가의 작품화 대상이 디자인 시설물, 문화 프로그램화 도시디자인 팀에 미술가 참여	시설물의 장식으로 활용
1990 -2000	지역사회 기반 공공미술 (community based public art)	지역공동체 기반 커뮤니티 아트	문화활동, 퍼포먼스, 공간운영, 영화 등으로 확장, 공동체 활동 중심 뉴장르 공공미술 확산	지역사회의 이슈와 공동체 회복
2000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Public art Project)	도심 일상공간과 결합한 복합적 설치, 전시, 행사	도시,장소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 다장르 복합적 구성, 공공 정책과 결합	정부 정책확대 지역, 도시와 결합 다양화

이러한 흐름과 함께 공공미술의 유형분류 또는 각 시대에 새로 등장한 공공미술유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연구자 양현미(2004)와 김정희(2013)는 공공미술의 유형변화를 정책 또는 제도분류의 기준을 두고 시대변화를 정리하였으며, 강수미(2009), 최옥영(2009)은 참여적 예술, 미디어아트, 정치철학과 연결하는 공공미술 개념유형을 소개하였으며, Cuffie(2021)는 공공미술의 실행유형을 분류하며 각 표현들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였다. Zi Yang(2023)은 서비스디자인 방법론과 참여형 예술의 유사성을 근거로 서비스디자인 요소를 통해 공공미술유형 확장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표 2-3 참조)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2-3] 공공미술의 유형분류관련 선행연구

저자(년도)	논문 제목	주요 내용	키워드
김정희 (2013)	한국 공공미술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 공공미술의 100여 년 역사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	공공미술, 유형 변화, 기념조형물, 환경조형물, 공동체 참여
김혜진 (2010)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유형	2000년대 이후 한국 공공미술 프로젝트 유형분류, 유형의 특징과 문제점 분석	환경조형물, 장소특정형, 커뮤니티 참여형, 예술가 주도형, 정부 연계형, 복합형
정규상 (2018)	공공미술 유형 분류에 관한 기초연구	도시에 설체된 공공미술의 감상자적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	상징형, 기능형, 체감형, 근접형, 자유형
정철현 외 (2011)	공공미술의 정책실행유형에 관한 연구	예술가 주도에서 시민참여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svwkdfm 공공미술의 실천 제안	커뮤니티 기반형, 제도적 기반형, 협력적 실행형
양현미 (2004)	공공미술의 제도적 기반: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을 중심으로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Percent for Art Ordinance)'의 도입과 발전을 중심으로, 공공미술의 시대별 변화 정리	공공미술, 퍼센트법, 제도화, 도시미관, 예술행정
최옥영 (2009)	공공미술로서의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사례분석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공공미술로서 분석하며, 관객 참여를 통한 물리적 인지적 감성적 참여방식 유형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물리적 참여형, 인지적 참여형, 감성적 참여형
Cuffie, H.A.T. (2021)	Public Art and the Impact It Has on the Society	공공미술을 기념작품, 수중조각, 축제, 기술형 작품, 표현적 작품, 커뮤니티 아트워크 등으로 유형화 및 사회적 영향을 분석	수중(underwater)조각 기념형, 축제 예술형
Zi Yang et al. (2023)	Public Art, Public Space and Service Design: Communication Between Artists and Audience	공공미술을 경험중심 서비스디자인으로 해석하여 시민과의 연계와 경험을 촉진하므로 서비스디자인요소 접근성, 상호장용, 만족도 등의 고려 필요	사이트 특정형 (Site specific art) 장소 특정형 (place specific art)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듯, 공공미술은 유형의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할이 가능하다. 연구된 내용들을 근거로 공공미술의 유형분류를 진행하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표 2-4] 각 기준에 따른 공공미술의 유형분류

제도·정책유형	실행유형	장르 유형
· 동상·기념비 · 건축물미술작품 · 공공미술사업	· 설치미술형 · 기술결합(미디어 등)형 · 커뮤니티 기반형 · 야외전시형(비엔날레 등) · 축제형	복합예술, 융합예술, 회화, 조각, 미디어아트, 과정형 프로그램. 참여예술, 아카이빙, 영상, 건축, 조경, 경관, 디자인 등

최근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을 '공공미술관(公共美術館)'이라 하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전시를 공공미술로 기술하는 경우도 발견되며, 미술진흥법은 정부가 소유한 미술은행 작품을 '공공미술품(公共美術品)'으로 용어화 하여설명하고 있어 경확한 정의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공공미술에 대한 올바른 정의의 도출이 조속히 필요하다. 특히 시각예술 분야 전반을 다루며 디자인 시설물과의 경계, 건축부대시설과의 경계가 흐려지는 추세에 있다.

즉 공공미술이란 특정한 순수미술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작가의 '작품'으로써 공공의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예술기제로써 다분야의 영역을 아우를 시각예술 중심의 표현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공공미술의 정책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각 유형의 기본 체제와 내용을 이해하여 제시되어야 하므로 유형의 분류와 제도분류를 혼동하거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 홍보조형물, 즉 작가의 순수창작이 아니거나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제안한 디자인과의 차별점에 대한 본질적인 분류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예술'로의 용어변경의 경우, 문화예술 영역에서 현재 공공미술이 위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예술로써의 중심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 검토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2.1.3. 공공미술과 도시공간의 관계

1) 도시관점에서의 공공미술

과거 작품이 주인공이 되는 설치미술의 도시개입의 문제점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는데, 미학자 임성훈(2008)은 공공미술의 큰 축을 '장소'(Place)와 '소통'(Communication)의 두 축으로 설명하며, 장소와 현장중심의 '장소 속의 공공미술'과 장소로서의 이념을 지향하는 '소통으로서의 공공미술'[17] 모두 장소와 과정이 분리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2000년대 이후 예술의 담론으로 등장한 수용미학(受容美學, receptive aesthetics)으로 순수미술의 확장개념으로 받아들이던 공공미술의 영역에 응용미학적 개념 융합과 그 결을 같이한다. 예술작품을 도시공간에 놓는 이유가 시민의 감상권을 지원하는 순수미술의 표현영역을 넘어 응용미술적인 일종의 목적적 개념을 포괄하면서 감상자로써의 시민을 능동적인 체험과 해석, 사용가능성을 지원받는 대상으로 전환시켰다. 즉, 향유자인 시민은 수동적인 감상자에서 스스로 작품을 해석하고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을 통해 감상을 수용해 가는 접근의 과정을 갖게 된다.

미학자 볼프강 아이저(Wolfgang Iser)와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Hans Robert Jaus)는 고정되어 있는 미술작품의 의미는 그 자체적 의미보다는 작품과 관객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미술에서의 '경험성(Experience)'을 수용미학의 핵심으로 보았고, 이러한 관계의 확장방식은 공공미술의 현장성과 몰입적 경험을 강조하는 현대의 공공미술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일상적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되는 공공미술은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들에

17) 박재은, 장영호, 김주연(2024) 공공미술의 정의 및 공공미술 정책 진흥방안에 관한 고찰, 공간디자인학회, 19(1),94,pp 581-592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게 일종의 소속감을 고취하고[18] 지역 주민들의 집단과 함께 응집력을 증대 함으로써서[19] 후기산업사회의 도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만든다. 이러한 상호작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상자의 정체감과 소속감은 공동체의 응집력으로 치환된다고 하였다.[20] 이를 통해 동떨어진 것 같은 도시공간과 미술작품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학적, 문화적 담론[21]을 발생시켜 공간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유기적 관계를 만든다. 관련 선행논문은 [표 2-5]와 같다.

[표 2-5] 공공미술의 도시와 사회와의 관계 고찰 선행논문

연구자	제목	주요 내용
임성훈 (2009)	미술과 공공성: 공공미술에 대한 미학적 고찰	감상자의 참여와 해석을 통해 공공미술의 의미가 형성됨
김동규 (2013)	새장르 공공미술의 정치철학 : 공론장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미술이 공론장을 형성하여 사회적 소통 촉진하는 요소가 됨
이정민 (2013)	공공미술의 공공성과 주체 간 관계 특성 정리	예술가, 정부, 주민 간 관계가 작품 의미 형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
Nicolas Bourriaud (1988)	Relational Aesthetics	예술 작품은 감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며, 사회적 관계망에서 의미 형성하는 관계의 중요성 강조
Grant Kester (2004)	Conversation Pieces : Community and Communication in Modern Art	공공미술작품과 공간, 감상자 간의 대화를 방식으로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변화 촉진
Matilde Carrasco -Barranco (2024)	Artistic Aesthetic Value in Participatory Art	참여형 예술에서 감상자의 활동이 작품의 미적 가치를 형성하며, 이는 전통적인 예술 평가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진
C. Kühnapfel et. (2026)	On the impact of public art : How engaging a pedestrian-level exhibition improves neighborhood connectedness and well-being	보행권에서 만나는 공공미술이 주민의 만족도와 소속감 증가시킴을 실증적으로 고찰

18) Matilde Carrasco-Barranco(2024) Artistic Aesthetic Value in Participatory Art
19) Jan Brennan(2019) Public Art and the Art of Public Participation
20) 니콜라 부리오의 관계의 미학은 수잔레이시의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로의 개념적 연결점을 만들어 장소특정적 미술과 커뮤니티 아트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Jan Brennan (2019)	Public Art and the Art of Public Participation	공공미술이 지역 정체성과 응집력 증대를 위한 요소라는 것을 사례로 설명

이러한 공공미술과 관련한 미학적 개념변화는 2000년대 이후의 공공미술에서 공공성(公共性)이 시민의 경험과 도시권(都市圈)을 강화하는 철학으로 연결되어 과거 국가 질서 규범으로써의 '公'에 의존적이던 시대를 지나, 주체적으로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共'적 가치를 추구하는(이영범, 이철호, 2011) 사회적 경향성과 일치한다. 특히 샤론 주킨(Sharon Zukin)이 말한 사회와 문화예술 간의 권력관계의 '진정성(authenticity)'은 '누구를 위한 문화이고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22]라는 문화예술의 도시적용에 있어 계층포용과 공간이해를 통해 점차 밀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표 2-6 참조)[23]

[표 2-6] 도시공간에서의 공공미술 기능

구분	세부구분	내용
미적	미적 기능	건축물의 외부공간에 설치되어 형태와 공간을 보완 도시 또는 도시경관의 조성 및 보완 시민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미적 활동
기능적	실용적 기능	장소와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 방문객들의 관심 대상 활동성과 사용성을 제공하여 매력성과 가치 높임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의 접촉면을 넓힘
	랜드마크 기능	도시의 접점의 역할을 수행 시민에게 기호, 정보, 시각적 방향감과 공간의 인상 제공 다양한 활동과 공간경험이 가능하도록 함
	지역 활성화 기능	참여와 사용을 통해 더욱 완성되고 특색있는 도시문화공간화 경제적 효과, 연구모임, 장소활용 등의 효과로 관광요소화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한 활동의 매개공간화

22) 『Naked City: The Death and Life of Authentic Urban Places』,(2010)
23) 김주연, 이미림, 권양숙(2010) 도시공간에서의 인간과 공공미술의 유기적 관계 연구-시카고 공공미술 작품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5권 제3호 참고, 연구자 재편집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2) 도시공간과 공공미술의 관계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자율적인 공공미술 정책의 확장은 도시공간과 공공미술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촉발시켰다. 조경분야의 권위자인 조경진(2014)은 공공미술이 도시개발에 있어 건축, 조경과 통합화된 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24]을 강하게 주장하며 도시의 쇠퇴한 공간의 활성화, 도시개발촉진, 국제 예술이벤트 등의 방식을 통하여 도시문화의 품격을 표현하고 집단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학자 김연희(2017)는 현대의 공공미술은 환경개선이라는 방식으로 심미적, 실용적 기능을 통한 공공성을 실현하면서 문화예술의 범주를 넘은 정치, 사회 등과의 유기적인 소통방식으로 활용됨에 따라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상을 진단하였다. 도시공간에서의 공공미술의 역할과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는 다음의 [표 2-7]과 같다.

[표 2-7] 도시공간과 공공미술의 역할을 논의한 선행연구

학자	제목	주요내용	유형
김주연 외 (2010)	도시 공간에서의 인간과 공공미술의 유기적 관계 연구	공공미술의 장소성과 조형 요소를 중심으로 시카고 사례를 통해 도시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 분석	사례 연구
김정주 외 (2010)	서울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의 외부공간 공공미술 실태 분석 연구	공공미술이 도시 외부공간에서 가지는 실질적 문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사례 연구
이은정 외 (2013)	장소-특정성 공공미술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장소특정성 개념을 기반으로 공공미술이 도시공간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고찰	이론 연구
조경진 (2014)	도시개발 및 재생의 수단으로 통합적 공공미술 추진 전략 연구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공공미술이 도시개발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전략적 제안	사례 연구
이명진 (2014)	공공 미술을 통한 공공 공간의 확장	공공미술이 공공공간의 의미 확장과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 향상에 기여	이론 연구

24) 조경진(2014) 도시개발 및 재생의 수단으로 통합적 공공미술 추진전략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5(1)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학자	제목	주요내용	유형
G. Scardi (2024)	Creating a Space of Sharing	공공미술이 공간의 사회적 기능과 공동체성 회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론 연구
J Francis 외 (2012)	Creating sense of community: The role of public space	공공공간의 예술요소가 사회적 연결성과 소속감을 높이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도시 공동체 형성의 핵심 요소로 공공미술을 조명	실증 연구
X.Jiang 외 (2025)	User-centred Digital Art Design for Public Space	디지털 공공미술 설계를 통해 도시공간에서의 사용자 중심성과 예술적 상호작용 분석	실증 연구
A. Wyllie (2025)	Gradation at a Ludic Edge	도시공간에서 놀이 기반 공공예술이 어떻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재활성화 하는지 분석	이론 연구
C.Grodach (2010)	Art spaces, public space, and the link to community development	예술공간과 공공공간의 통합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경제적 재생을 분석한 정책 중심 논문.	이론 연구

이러한 논의는 과거 공공미술의 추상적 조형작품 설치로 인한 대중으로부터의 외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도시공간에서의 미술은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심리적 교감을 증폭시키며 생활반경 안에서의 공간적 친밀감(spatial intimacy)[25]과 심리적 접근성 강화하는 요소로 활용됨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반경에서 조응하는 공공미술에 대한 개념은 공공미술 정책이 순수미술의 확장적 개념이라 하기보다는 도시공간에 '설계된(designed)' 예술표현[26]이라는 주장과 일치한다.

향후 보다 발전적인 공공미술을 위해서는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써의 도시공간, 작품을 중심으로 사람의 관계를 고찰하는 방식에서 도시의 일부 표현으로써의 공공미술, 도시공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안에서의 예술경험으로의

25) 에드워드 T.hall이 사람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 거리감각 (Proxemics)을 공공미술과 관람객 간의 관계에 적용하여 설명함

26) 박재은, 김주연, 장영호(2023) 프로젝트(Project)성 공공미술 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연구, 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8(1)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술기획자 존 빙엄 홀(John Bingham-Hall)은 본인의 저서[27]를 통해 공공미술은 도시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하나의 객체로 분리할 수 없는 이미지(Image)로 작동하기 때문에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다루는 도시형 태학적(Urban Morphology) 원리를 적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도시형태학은 예술작품이 생산되는 방식에서 역할까지를 구조화할 수 있으며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공공미술이 어떤 공간적 함의를 가지는지를 설명하고, 공공미술의 실행은 감상자와 공간, 작품이 만나는 지점을 출발점으로 하는 공간사회학적 장소만들기(Place making)로 귀결되어야 함을 설명한 것이다. 즉 역사, 사회, 공간구조의 복합적 이해 위에서 공공체의 지지와 지역 고유의 장소감(genius loci)을 유지함과 동시에 장소 밀착적인 방식으로의 작품개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영구적이거나 장식적 미(美)를 충족하는 목적보다는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적인 개입과 도시공간의 고유의 경험 창출이 도시공간에서의 공공미술의 핵심 요소임을 설명하였다. 이는 공공미술이 2019년 코로나19로 일상의 교류와 접근의 단절을 경험한 인류는 인간적인 교류와 예술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보다 가치있는 삶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요구로 일상 반경 안에서의 공공미술의 역할은 보다 강조되는 반면 도시-사람-공간의 체계적인 연결의 방식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은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7) Public art as a Function of Urbanism(2015)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2.2 공공미술과 어바니즘(Urbanism)

2.2.1. 2000년대 시대적 가치변화

2000년 UN은 새천년개발 목표(MDG)를 시작으로 2015년「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발표하면서 정주 공간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이 발표는 2030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GDs)로 발전되면서 전세계의 미래지향적 목표가 되었고 도시계획, 국토개발, 토지이용과 문화적 환경조성을 위한「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가 해비타트 Ⅲ[28]를 통해 발표되면서 국제적인 도시들의 공통의제가 되었다.(김세훈, 2016)[29] 2016년에 에콰도르 키토에서 발표된 의제에는 특히 도시민들이 누려야 할 '도시권(Right to the city)'과 '모두를 위한 도시(cites for all)' 의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앞으로 인간의 정주공간이 될 현대도시가 갖추어야 할 포용성과 변혁을 이끄는 힘(transformative power)의 원천에 대하여 논하였다. 과거 효율적, 경제적, 행정 집행력을 통해 확장과 성장에 집중하였던 도시가 도시민의 '실천'과 '정서', '인간적인 삶'을 지향하는 '회복력'을 강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을 우선가치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도시들의 지향성은 어바니즘(Urbanism)의 발전으로 이어져 도시계획에 반영되게 되는데, 도시와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도시 사회학 (Urban Sociology), 건축 (Urban Architecture), 도시 디자인(Urban Design)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

28) 해비타트 Ⅲ : https://habitat3.org/
UN의 결의를 통해 20년마다 열리는 회의로 193개 유엔회원국이 함께 도시와 주택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쟁점을 합의하는 것으로, 1976년 벤쿠버, 1996년 이스탄불에 개최된데 이어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29) 김세훈(2016),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성립 배경과 의의, 공간과 사회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2.2.2 어바니즘(Urbanism)의 개념과 변화

1) 어바니즘(Urbanism)의 정의

어바니즘(Urbanism)은 라틴어 'urbs(도시,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에서 유래하여 "도시의 특성" 또는 "도시계획"을 의미하는 단어로, 오귀스트 슈아지가 1885년에 처음 사용하였다(Choay, 1965). 초기에는 도시의 물리적 형태와 계획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도시 생활의 조직, 문제, 사회·문화적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Michael, 2006)

어바니즘은 도시 공간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학문적 개념으로, 도시의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구조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Lefebvre, 1996) 최근 연구에서는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 형태를 다루는 것을 넘어, 도시 생활의 본질과 도시 환경이 인간의 삶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탐구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Wheeler & Beatley, 2014)

근대 이후 어바니즘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Urban Sprawl), 자동차 중심 개발로 인한 보행자 공간 축소, 공공공간의 상실 등과 같은 도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발전하였다(Harvey, 2000). 특히, 어바니즘은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의 집합체가 아닌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의미가 축적된 공간으로 간주하며(Mumford, 1961), 건축, 조경, 도시계획,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융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적 접근방식을 모색한다.

어바니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내포한 공간 창출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공간이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 커뮤니티 내 상호작용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장소로 기능해야 함을 강조하고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Sennett, 1974)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설계원칙으로 삼아 도시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적 영향 최소화(Register, 2006), 공공성과 장소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표 2-8] 어바니즘과 도시계획의 관계

	어바니즘 (Urbanism)	도시계획 (Urban Planning)
개 념	사회문화 현상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제적 담론	도시의 구체적인 개발과 규제 정책결정 등의 행정체계
목 적	공공공간 관련 인간중심적 사회문화적 가치 수용	토지의 계획, 도시 설계의 기능적 배치와 법적 기준 수립
주요특성	경관, 디자인, 미술, 사회참여 등 중요한 가치 융합 활용 건축,도시의 디자인원칙, 경험성을 강조	제도적 관리, 통합적 측면의 구조화, 관리체제, 용도, 밀도 기능적 효과 측면에서 효과적 도시설계에 집중
주요학자	Mattew Carmona(2010)	Gehl, J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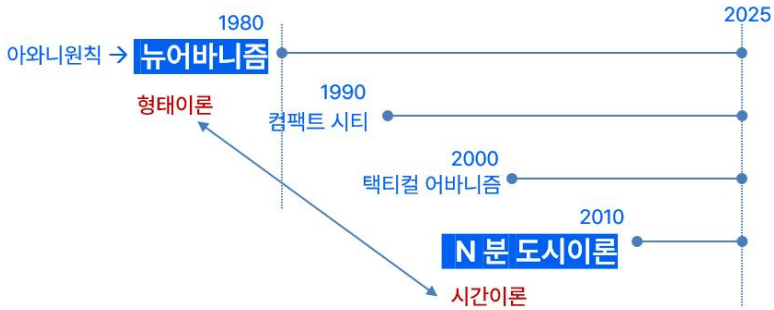
현대에 이르러 어바니즘은 뉴어바니즘(New Urbanism)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과 같은 다양한 하위 개념으로 분화되며 발전해 왔다. 뉴어바니즘은 198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이론으로, 보행 가능성과 복합 용도 개발을 강조하며 인간 중심적인 커뮤니티 설계를 목표로 한다(Duany & Plater-Zyberk, 1991). 반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를 설계하며 조경과 건축의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접근이다(Waldheim, 2006). 이처럼 어바니즘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현대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따라서 어바니즘은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의 집합체로 보는 것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과 공공 공간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현대 도시설계와 활용 방식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2) 어바니즘(Urbanism) 개념 발전

도시에서의 삶의 방식과 도시공간의 구조개선 전략에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어바니즘(Urbanism)은 도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인 통합, 도시공간의 공공성의 질서 확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를 통해 공간적 개념과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의 확장과 밀집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대에 따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한 어바니즘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 어바니즘의 주요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2-4]와 같으며, 그 중 도시의 계획적 요소로써 공간 구조 형태이론을 제시한 뉴어바니즘과 그 연장선으로써 시민의 활동 시간을 중심으로 개념을 확장한 N분 도시이론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림 2-5] 2000년대 전후의 주요 어바니즘의 변화 흐름

3) 뉴어바니즘 (New Urbanism)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은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도시설계의 방식으로 용도지역의 명확한 기능 분리로 발생한 도시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 속 생활 요소들의 효율적 연계와 복합적 재구성을 통해 도시공간을 활성화하는 설계원칙이자 사회 운동이라 할 수 있다(박영춘 외, 2000). 다양한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유형의 공간 창출과 친근하고 감성적인 공공공간들을 밀도 높은 도시공간 내에 융화시킴으로써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환경문제, 갈등 요소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설계 원칙이다.

이 개념은 코르뷔지에(Le Corbusier)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기능주의적 도시계획에 대한 반향에서 시작되었다. 도시이론가 제인제이콥스(Jane Jacobs)는 근대 도시계획으로 발생하는 공동체의 파괴와 그로 인한 자생적 질서, 용도의 혼합이 없는 도시를 비판[30]하며 용도의 혼합, 작은 블록의 활성화, 기능적 조닝(zoning), 보행자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반기능주의적(antifunctional) 도시를 지향하였다.

오브제 중심적 건축과 자동차 중심의 도시의 한계를 인식하며 '계획적인 도시'에서 '생활이 있는 도시'로 도시계획의 접근법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1991년 '아와니원칙(Ahwahnee Principles)' 선언으로 이어지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요세미티(Yosemite) 국립공원 아와니 호텔에서 피터 칼소프(Peter Calthorpe) 등 6명의 건축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로컬 정부 위원회(Local Government Commission)가 도시설계 지침으로 이 원칙을 선언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자원 효율적인 커뮤니티를 목표[31]로 제시하였다. 이 원칙은 도시 설계 원칙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도시 및 지역 계획 가이드라인으로 현대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Sustainable Urban Develop ment)과 뉴어버니즘(New Urbanism) 운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

30) Jane Jacobs, 1961『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31) Corbett, J., & Weissman, S. (1994). Ahwahnee Principles. Western City Magazine, 70, 4-9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표 2-9] 아와니 원칙과 뉴어바니즘 선언문의 지향점 차이

구분	아와니 원칙 (Ahwahnee Principles)	뉴어바니즘 선언문 (Charter of the New Urbanism)	관계
개념	지속 가능한 지역 및 도시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디자인 원칙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철학	복합용도 설계
초점	도시와 자연환경의 균형을 강조	공간 디자인과 도시 형태에 초점	공간 창출
적용 범위	도시와 교외 지역을 포괄 통합 지침	도시 내부 요소와 구조적 디자인에 집중	장소성 필요
주체	지역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적 접근	다양한 주체의 건축 및 도시디자인 중심	정부 정책 포함
환경	환경 친화적 개발 및 토지 이용 관리	환경적 요소 고려, 건축·도시 디자인 강화	환경 영향 최소화
교통	대중 교통과 같은 지속가능한 교통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운송 수단 강조	자전거 인프라 및 보행 친화적 전략	보행 접근성 강조

뒤를 이어 1996년 뉴어바니즘 의회에 의해 채택된 뉴어바니즘 선언(Charter of New Urbanism, CNU)은 도시디자인과 건축의 방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체계적 적용을 위한 도구화된 코드방식으로 (Smart Code, Form-based Code)등 으로 발전되어 적용되었다. 그중 형태기반코드(Form-Based Code)는 도시의 밀도와 공간유형에 따라 6단계[32]의 표준모형인 Transet Zene을 구분하고 각 단위의 커뮤니티 개발의 패턴을 4개로 유형화[33] 함으로써 도시를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원칙으로 활용되었다. 아와니원칙에서 뉴어바니즘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표 2-9]와 같으며, 많은 도시의 디자인과 공간배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뉴어바니즘의 도시설계의 방향성은 [표 2-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2) 자연지역(Natural Zone), 농촌지역(Rural zone), 교외지역(Sub0Urban Zone), 일반도시지역(General Urban Zone), 도시중심지역(Urban Center Zone), 도심부지역(Urban Core Zone)

33) 군집형 개발(Clustered Land Development, CLD)', '전통적 근린주구개발(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TND)', '지역중심지 개발(Regional Center Development, RCD)', 그리고 '대중교통중심형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2-10] 뉴어바니즘 도시공간 설계 방향

목표	공 간 요 소	내 용	뉴어바즘의 도시설계 방향
보행 중심 공간	보행로 (Pedestrian Paths)	사람들이 걷기에 적합한 도로, 산책로, 교차로 등	보행 중심의 도시 설계,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도로
	도심부휴식공간(Central Urban Rest Areas)	도시 내 휴식과 휴양을 위한 공공공간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 접근성 높은 휴식 공간
	소규모 공공광장 (Small Public Plazas)	미니 광장, 벤치와 같은 공공적 휴식 공간	도심 내 사람들의 만남을 촉진하고,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공간
혼합 용도 공간	혼합용도의 상업/주거지(Mixed-use Commercial/ Residential Areas)	상업, 주거, 업무가 혼합된 지역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교통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공개공지 (Public Open Spaces)	상업과 주거지 사이의 공개된 개방형 공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다목적 공간
친환경적 설계	도시 공원 (Urban Parks)	도시 내 녹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	지속 가능성, 생태적회복력을 고려한 공간, 시민들의 건강 증진
	수자원 관리 공간 (Water Management Spaces)	물을 활용한 도시 내 자연적 공간, 연못, 강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를 위한 물 관리 시스템 포함
사회적 연대와 참여	공공미술 공간 (Public Art Spaces)	공공 장소에 설치된 예술 작품들	도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징성을 강화하며, 시민들의 참여와 자부심을 높임
	커뮤니티 공간 (Community Spaces)	지역 주민들이 모여 상호작용하는 공간	사람들의 연대감을 촉진하며, 커뮤니티 내 활동을 활성화하는 공간
교통 및 이동성	대중교통 노선 (Public Transport Nodes)	대중교통이 연결 되는 주요 지점	효율적인 이동과 접근성을 강조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자전거 도로 (Bicycle Paths)	자전거 이동 경로 및 관련 시설	친환경적이고 이동성 높은 도시 설계를 촉진하는 도로 네트워크
다목적 공간	대형 광장 (Major Plazas)	대규모 공개 행사와 상업적 활동을 위한 공간	사회적 활동,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중심지, 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4) N분 (N-Minute) 도시이론

어바니즘(Urbanism)은 도시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적 분야로, 도시 계획(Urban Planning), 도시 사회학(Urban Sociology), 건축(Urban Architecture), 도시 디자인(Urban Design)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가치개념이며 뉴어바니즘이 주장한 형태이론은 도시의 디자인 시스템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뉴어바니즘이 제시한 디자인 원칙들이 이상주의적 모델로써 실제 정책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34]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도시공간과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의제가 UN Habitat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도시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써 '콤팩트시티(Compct City)' 개념의 어바니즘이 활성화 되었다.

인간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추구하는 콤팩트시티 개념은 도시 발전에 대한 의제로써 뉴어바니즘에서 추구하던 지역중심성을 탈피하여 스프롤의 확산을 통한 도시성장을 추구하였다. 보행중심 측면에서 뉴어바니즘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컴팩트시티 이론과 대비를 이루고 있으나 가치지향 관점에서는 토지이용의 복합화와 활용성 강화를 추구하는 뉴어바니즘 이론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경향성은 현재 일본과 영국의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었으며 발전적인 기술을 적극 활용함 으로써 최적화된 시스템으로써 성장형 도시를 만드는 배경으로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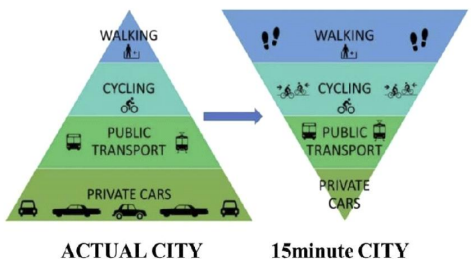
2019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어바니즘이론은 또 한번의 변화를 맞게 되

34) 알렉스 마살(Alex Marshall)은 1996년 메트로폴리스지를 통해 '뉴어바니즘은 향수를 자극하는 이미지와 공허한 슬로건으로 포장된 교외확장'이라 하였으며 도시계획 연구자 미트라 고르비(Mitra Ghorbi)는 2019년 논문 'A Critical View on New Urbanism Theory in Urban Planning: from Theory Parctice'를 통해 뉴어바니즘이 제시하는 이상적 도시커뮤니티는 고소득층 중심의 지역을 형성하여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론적 원칙들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계획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이상주의적 성격을 띈다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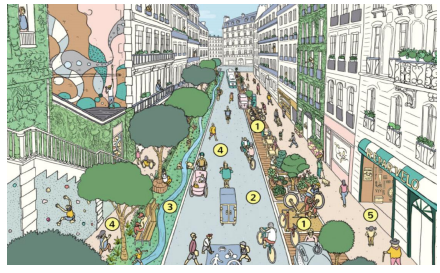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는데 도시의 공간구조와 효율을 중시하던 어바니즘 원칙이 생활하는 사람의 행동반경에 집중하도록 관점을 전환하여, 도시민이 느끼는 일상공간의 범주를 '생활시간' 단위기반으로 구분하는 시간중심의 도시주의'(Chrono-Urbanism)가 등장하였고 도시민들의 '도시에 살 권리'와 삶의 질적 가치적 측면을 고찰함에 따라 현재 세계 주요 도시정책에 적용되었다.

카를로스 모레노가 주장한 15분 도시(15 minute City)의 개념에서 확장된 본 이론은 일정 시간동안의 이동반경 안에 근거리 생활권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 등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재배열과 재배치를 주장한 어바니즘이론이다. 전세계적인 감염병으로 2020년 봉쇄되었던 많은 도시들은 자족적 도시, 보행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 감소와 일상생활의 회복력(Resilience)을 지향하면서 각 도시의 규모와 형태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였다.



[그림 2-5] 15min city scheme



[그림 2-6] 파리 15분 도시 개념도

파리의 15분 도시, 보고타의 생활권 도시(Barrios Vitales), 멜버른의 20분 이웃(20 minuite neiborhood) 등의 개념은 근린권을 포함하는 생활권 규모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보행성 강화, 탄소배출 저감, 회복탄력성 강화 , 녹지와 연결된 휴식이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등 '나의 삶의 반경'에 대한 가치를 제고함[35]으로써 미래지향성을 가지고자 하였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N분 도시이론은 뉴어바니즘에서 제시했던 설계원칙을 존중하고 보다 공동체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뉴어바니즘의 형태적 원리에 시간적 활동을 지원하는 어바니즘을 설명하고 있어 공통성과 차이점을 가진다. 2000년대 이후 어바니즘의 변화방향에 대하여 뉴어바니즘과 N분 도시이론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2-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1] 2000년대 주요 어바니즘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2000년대 어바니즘	뉴어바니즘	N-분 도시이론
인간중심의 도시디자인	형태원리	시간성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강화	대규모 적용가능	생활반경 환경
혼합용도 개발	도시사회 연계성	효율과 편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 보행과 자전거, 친환경 교통 지향	도시공간의 구조개선, 커뮤니티 활성화	계층 간의 평등한 접근성, 평등한 도시활용
공간의 민주화, 공공의 접근성	디자인원칙에 집중	포용성, 사회적 가치
도시공간의 공공성 강화	도시공간의 체계적 배치	도시공간의 활용성 강화

2.2.3 어바니즘과 공공미술의 관계

2000년대 이후 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도시공간의 의미는 '생활의 안정성'과 '커뮤니티와 일상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흐름에서 뉴어바니즘과 15분 도시이론은 소규모 블록, 복합용도, 지역사회와의 연대[36]를 촉구하며 미래지향적 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뉴어바니즘과 N분 도시이론 모두

35) 성은영, 김현미, 허재석 (2021),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auri
36) 뉴어바니즘 선언(2009), congress of New Urbanism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보행자와 인간의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공간설계에 집중하고 있으며, 뉴어바니즘이 보행을 통한 지역 살리기의 방식을 형태기반 코드와 혼합용도의 개발에서 찾고 있다면, N분 도시이론은 보다 짧은 이동반경 안에서의 자급자족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차이가 있다. 즉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되 그 중심의 축인 '형태학적' 방법론(Morphological Urban Planning Logic) 과 '시간주의적' 방법론(Temporal Urban Planning Logic)의 적용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변화의 핵심은 '사람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인간의 감성 회복은 참여와 소통, 창의를 지향한다.

21세기 어바니즘이 추구하는 사람, 지역, 일상 중심적 사고체계는 현대의 공공미술의 방향과도 접점을 이루었다. 기념비(Monument)적 조형물이나 동상 설립 등을 업적을 기리거나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미술에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미술을 통해 도시에서 상실하기 쉬운 '공동체 중심'의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며 확산되었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뉴장르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이 있다. 수잔 레이시(S.Lacy)는 설치적 미술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공공미술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공공미술의 지향점을 '결과적 유형성'보다는 '과정적 관계성'으로 전환하며 성장주의의 도시에 예술의 역할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커뮤니티의 집중도가 마을 단위의 지역보다 낮은 도시에 더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공공미술의 장소 특정성(site-specificity)의 한계극복, 수용미학적 관점(Reception Esthetics)의 감성미학,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의 관계의 미학(relational aesthetics) 등과 맥을 함께하며 현 시대의 공공미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고정적 형상전시를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관계'를 고찰하는 현시대의 공공미술의 방식은 어바니즘의 변화와 시대적인 흐름을 같이하며 도시에서의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사람’과 ‘사람들의 연결’을 통해 인간적인 정취와 본질적인 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한다. 이러한 공통의 흐름은 [표 2-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2] 2000년대 이후 어바니즘과 공공미술의 공통적 지향점

분류		어바니즘(Urbanism)	공공미술(Public Art)
형식적 유사성 형태, 공간의 절대성에서 시간성을 매개한 가변 형식화	개념	공간 배치방식의 중심에서 시간 중심 도시를 계획하는 크로노 어바니즘 (Chrono - Urbanism)으로 전환, 일상생활에서 공간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시간적 리듬 중시함	작품의 형태보다는 작품을 매개로 한 인간 간의 관계 형성과 소통의 과정 자체가 예술이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
	학자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15분 도시(15-minute city)를 제안하며 도시공간의 활용에 대한 시간중심 접근을 주장	**니콜라 부리요 (Nicolas Bourriaud)** '관계의 미학 (Relational Aes thetics 1998)'을 강조하고 일상적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예술의 역할을 주장
방법론적 유사성 시민참여 과정 시민 중심성 강조	개념	N분 도시(N-minute city) 개념은 도시 설계와 관리의 기준을 시간 거리로 제시하여 시민의 생활 리듬과 도시 공간 간 관계 형성을 유도	공공미술을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커뮤니티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론으로 사용하여 공공미술을 통한 공동체의 부활과 연결을 강조
	학자	**제프 스펙 (Jeff Speck)** 걷기 쉬운 도시 (Walkable City)를 만들기 위한 시간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	**수잔 레이시 (Suzanne Lacy)** 뉴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를 통한 참여적, 프로세스 중심의 공공미술 강조
가치철학의 유사성 사용자 중심적, 삶의 질 향상, 공동체와의 사회적 소통 강화	개념	어바니즘 이론은 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전환	참여예술의 정치미학을 설명하며 예술을 통해 시민들의 삶과 사회적 소통,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비판적 관점 촉구
	학자	**얀겔 (Jan Gehl)** 인간중심 도시계획과 (Cities for People) 생활의 질 향상을 주장함	**클레어 비숍 (Claire Bishop)** 예술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민주적 소통 강조 (Artificial Hells, 2012)
사회적 효과의 공통성 커뮤니티의 재생, 참여 문화의 형성 사회적 안전감	개념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사회통합적 효과 창출에 초점을 둔 도시주의 이론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미술 시도로 예술을 매개로 사회 문제 해결, 커뮤니티 재생, 참여적 문화 촉진
	학자	**피터 캘소프 (Peter Calthorpe)** 뉴어바니즘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사회 통합성 강조함 (Urbanism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릭 로우 (Rick Lowe)** 공공미술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재생 실천을 강조함 (Project Row Houses)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이러한 고찰을 통해 2000년대 이후 공공미술와 어바니즘의 공통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형태적인 변화보다 내면의 역학관계에 집중한다. 공공미술에서의 기념비의 탈피와 21세기 어바니즘의 웅장한 랜드마크보다 일상의 보행 생활반경 안에서 경험을 확장하고 지역의 문제의 해결책 도출을 우선한다. 즉 예술과 도시공간 모두 일상에서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둘째, 공공자원의 적극적, 자발적 활용이다. 작가의 모더니즘적 개인연구가 아니라 공동의 자산, 집단의 기억, 공동의 향유를 지향하는 공공미술로의 전향과 공공공간, 커뮤니티 공간의 확산, 도시공간의 복합적 활용을 지향하는 어바니즘은 시민의 직접 참여와 도시공간의 민주화라는 공통적 속성을 내포한다.

셋째, 보행을 통한 휴먼스케일에서의 문화교류 지원이다. 어바니즘이 지향하는 보행의 연결성은 걸으면서 발견하고 감상하는 공공미술의 특성들과 맞물려 적용 도시와 사람의 세부 연결점들을 연결함으로써 도시의 활력 강화를 지원한다. 경험을 통한 매력은 물리적인 보행로 연결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관계방식을 통해 인프라, 시설, 환경, 사건 등 유무형의 자원들과 연결되어 공공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경험 확장이다. 인터렉티브와 미디어 기술의 도입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풍경을 경험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공간에 예술이 짧은 기간 개입하는 방식 등을 지향하며 도시공간 자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 등을 통해 문화적 성장을 지원한다. 이러한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공진화(公進化)함으로써 두 영역의 공동의 가치지향성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과 도시의 문화예술을 연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2.3 공공미술과 도시경쟁력

2.3.1. 도시경쟁력의 개념과 변화

도시경쟁력(都市競爭力, city competitiveness)이란 한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경쟁할 만한 힘이 있는지를 도시의 입지, 기업이나 기관, 교통여건, 문화시설 등 다양한 평가를 기준으로[37] 비교한 강점을 말한다. 연구자 변미리에 따르면 도시의 경쟁력을 파악하는데 있어 경제력(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도시의 매력(Urban Attrativeness)[38]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도시경쟁력은 1980년대 이후 국가단위의 거시경제 중심의 우선순위 평가를 시작으로 점차 도시, 문화·삶의 질 중심 평가로 진화해 오면서 재정, 지식,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측정가능성이 제안되었다.(김갑성 외, 2009)

세계경제포럼(WEF)이 1979년 첫 발간한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국가의 생산성, 거시경제 안정성 등 국가경쟁력 지표를 제시[39] 하였고 GDP, 인프라, 인적자원 등 경제적 수치와 성과를 중심 구성되었던 척도는 1998년 Mercer사가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요소를 도시의 안전, 환경, 보건 등을 기준으로 '생활환경 지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그 평가지표가 한층 다차원화되기 시작하였는데, 2008년 미국 Foreign Policy 잡지와 A.T.커니가 공동으로 '글로벌 도시 지수(Global Cities Index)'를 발표하면서 기업 활동, 인적자본, 정보 교류, 문화 경험, 정치적 영향력 등 5개 부문으로 27개 지표를 활용해 복합적인 평가가 시작되었다. 같은 시기 등장한 일본 모리재단의 '글로벌 파워 시티 지수(GPCI)'는 경

37) 우리말 샘 정의
38) Shimomura, Tetsuta and Tadashi Matumoto(2010)
39) https://www.kaggle.com/datasets/weforum/global-competitiveness/data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삶의 질(거주적합성), 환경, 접근성 등 6대 기능, 70개 지표를 새롭게 구성해 문화적 활력, 생활여건 등 개인의 삶의질 평가를 요소로 포함시켰다. 도시의 경쟁력 평가는 2010년대 '문화 접근성'이 도시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Economist 잡지가 실행하는 세계 거주환경 지수(EIU Global Liveability Index)등에서는 안정성, 의료, 문화·환경, 교육, 인프라의 다섯 영역으로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였고 이러한 환경에대한 평가를 통해 호주 멜버른은 2011~2017년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세계의 공통적인 의제들이 발표되면서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문화창의도시 지표(Cultural Creative City Index)를 적용하여 유럽 주요 도시의 문화적 활력, 창의경제, 정책 환경을 비교평가 하였는데 약 20년 국가의 경제 중심의 평가방식과 명백히 대비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대에 이르러 도시경쟁력 평가지표는 더욱 미시적·복합적 기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도시의 성공 요인이 과거의 순수한 경제력에서 고객 서비스 문화, 도시 경험, 혁신 역량, 지속가능성 같은 소프트한 속성으로 이동[40]하고 있으며, 지역 브랜딩, 마케팅, 지역개발(place development) 분야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레조넌스[41]는 트립바이저, 트위터 등에서 수집한 개개인의 평가정보들을 수집하여 전세계 270개국 중 World's 100 Best Cities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에 대한 가치측정 기준 변화는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미시적인 것으로, 국가적인 것에서 도시적인 것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을 넘어 개인적 평가, 문화적 경험, 제공자에서 제공받는 자의 만족도로 평가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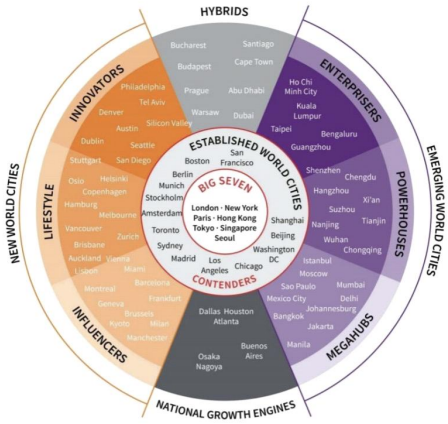
---

40) Image: JLL and The Business of Cities 2019 https://www.weforum.org
41) Resonance Consultancy, World's100 Best Cities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그림 2-8] 도시경쟁력 평가지표 변화과정



[그림 2-9] ILL and The Business of Cities 2019

이러한 일상적 삶의 질, 도시의 활력, 포용성, 사회적 결속, 지속가능한 가치 추구 등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와 지표들은 데이터 수집의 진화에 따라 향유의 방식, 접근성 정도, 환경의 만족도, 행복도 평가까지 지표 다변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공공미술을 비롯한 문화 사업들이 도시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문화관련 지표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지표로써 문화 시설 수, 공연장의 수, 지역의 랜드마크 수 등이 경쟁력 평가의 핵심지표였던 것에 반해 최근의 지표에서는 야간의 문화활동, 보행 접근성, 도시의 안전성, SNS '좋아요' 평가의 수 등향유자 관점에서의 직접적인 경험과 만족도로 평가로 핵심이 이동하였다. 문화예술과 감성에 대한 평가방식이 가시적, 물리적, 양적 평가로써 기준을 예산의 정도, 지원된 예술인 수, 문화시설 등을 넘어 레조넌스 Worrld Best city 100의 평가지표와 같이 사랑스럽고(Loveability), 살기좋고(Livability), 신뢰할 수 있는(Responsibility)도시에 대한 긍정, 부정평가를 모으는 방식으로 진화하였다. 도시경쟁력평가 개념의 등장부터 2020년대까지 주요 경쟁력평가 기준의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 [표 2-13]과 같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2-13] 20세기 도시의 경쟁력 평가요소의 변화 추이

년 도	관련 지표 및 변화 방향
1979년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s)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발간
1985년	EU, 유럽문화도시 문화수도 프로그램 시작 [42]
1998년	Mercer, 도시 삶의 질 지수 (Quality of life Index)
2008년	A.T 커니 글로벌도시지수(GCI) : 문화경험을 포함한 5개 평가지표 제시 모리(Mori) 글로벌 파워시티 자수(GCPI) : 문화교류, 거주적합성 포함 6개 평가지표 제시
2010년대	이코노미스트 거주환경지수, 삶의 질 기반 도시순위 발표 UN- Habitats 도시 번영지수, Monocle Quality of Life Survey 시작
2020년대	문화매력, 도시경험, 지속가능성, 일상의 삶의 질, 혁신 포용 등 복합지표 중심 다양한 소프트파워 경쟁력 평가로 확대

2.3.2. 공공미술과 도시경쟁력의 관계

200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새계화의 담론 안에서 문화예술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찰스 랜들리의 창의도시이론(Creative city theory)이 확산되었고, 문화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도시경쟁력은 예술과 문화를 자산적 가치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발생의 요소로 적용되었다. 그에 반응하여 도시계획에서도 문화를 경쟁력 요소로 활용하면서 스페인의 빌바오,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 사례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공공미술을 통한 효과는 도시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제로서써 쾌적성과 심미성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현격히 높이는 중요 요소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도시경쟁력 평가의 중심이 된 개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에에 대하여 문화와 예술은 문화적 장소성을 만듦으로

42) The Role of Arts and Culture in Liveability and Competitiveness – Precis (2008)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써 아름답고 심리적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미술은 생활 반경에 개입하며 시민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여 도시를 소비의 공간에서 공감의 공간으로 전환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였다.(Yue Cheng et al. 2023)[43]

특히 열린 공공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문화향유의 시공간적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강화한다. 별도로 문화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의 다양한 미적 경험을 제공(Ming Cheung dt al., 2022)함으로써 창의적 활력과 도시의 풍요를 견인한다.(Montalto, 2022) 또한 공공미술 적용 대상의 규모를 확대하여 소외된 공간 재생이나 도시를 대표하는 대형 예술 랜드마크로 명소화 될 경우, 도시의 환경개선과 문화의 경쟁력 상승 뿐 아니라 창조계급(creative class)[44]을 통한 부가가치를 생산으로 새로운 도시 아이덴티티(Hall.T, 2001) 형성과 공공미술 적용을 통한 도시의 특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공공미술이 조형물 설치나 모뉴먼트(Monument)건립, 벽화 조성을 넘어 건축, 도시, 디자인, 조경을 아우르는 작가적 표현을 수용하는 예술 방식임을 증명한다. 존 메커시(John Mccarthy, 2006)는 공공미술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들과 결합한 창의산업으로 작동하며 도시의 재생, 장소 정체성 형성, 매력 공간조성 등을 통해 유연하게 확장 가능함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효과는 디자인과 관련된 환경사업과 달리 공공미술이 가지는 장소특정성과 유일무이성이 촉발하는 경쟁력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는 [표 2-14]와 같다.

---

43) Yue Cheng, Jiayin Chen et al, Research on the Preference of Public Art Design in Urban Landscapes: Evidence from an Event-Related Potential Study, Lanf 2023

44) Richard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2002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2-14] 도시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저자	제 목	내 용
Hall. T & Robertson, I. (2001)	Public Art and Urban Regeneration : Advocacy, Claims and Critical Debates' Landscape Research	도시공간에서의 공공미술은 지역 특성을 표출하여 도시의 매력요소가 되어 장기적으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Valentina Montalto (2019)	Culture counts: An empirical approach to measure the cultural and creative vitality of European cities	유럽 30개국 168개 도시의 '문화 및 창의적 도시 모니터(CCCM)'의 29개 지표를 직접 수집하여 공공미술이 문화적, 창의적 활력, 도시생활의 풍요, 문화적 활력에 기여하며, 창의적 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이 있음을 확인
Ming Cheung, Natasha Smith et al. (2022)	The Impacts of Public Art on Cities, Places and People's Lives	공공미술은 근본적으로 일상적으로 공유되는 공공영역에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경험을 창조하는 것으로 보고 장소만들기, 사회, 문화,경제, 지속가능성,웰빙,지혜,혁신의 8가지 범주로 체계화
최현희 (2024)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혁신 성공 모델 연구	문화예술은 도시의 차별화 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요소로,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방문자 모두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도시가 도시경쟁력(투자,총체적 역량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함
변미리 (2013)	도시경쟁력과 문화가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적이고 소프트한 파워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도시경쟁력 평가영역에서 문화가치를 포함한 무형의 부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
UN HABITAT (2021)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 (2020-2021)	도시들이 글로벌 발전의 맥락에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 제공
John Mccarthy (2006)	Regeneration of Cultural Quarters: Public Art for Place Image or Place Identity?	공공미술이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예술, 디자인, 미디어, 음악 등 창의산업이 문화재생을 통한 장소의 이미지 형성, 지역정체성 강화, 매력공간의 조성으로 경제투자와 축제 등이 가능하나, 지역사회의 진정성 있는 참여와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의 우선적 대처 필요
Douglas Webster and Larissa Muller (2002)	Challenges of Peri-urbanization in the Lower Yangtze Region: The Case of the Hangzhou Ningbo Corridor	도시경쟁력이란 재화, 서비스 등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도시지역의 능력에서 출발, 가격 관계없이 다른 지역상품이 좋은 가치를 가지는 의미 경쟁력이 중요하며 기업의 안전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능력.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함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PRO HOMINUM BENEFICIO · 1946

저자	제 목	내 용
Yi-Fu Tuan (2007)	Space and Place: Humanistic Perspective	도시는 타 도시와는 구별되는 도시 인지도와 호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사람들과 비즈니스가 도시로의 유입을 일어나게 하여 관련집단과 친화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창조적인 생산공간. 도시는 하나의 장소이며, 특히 의미의 중심임. 그것은 매우 가시적인 상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도시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임

2.3.3.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경쟁쟁력 효과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미술이 발생시키는 효과는 다양하며 실질적인 삶의 쾌적성 뿐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도시경쟁력 효과가 발생한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앞서 언급한 시카고 밀레니엄파크(Milleium Park)는 2004년에 규모 99,000㎡의 도시공원으로 개장하였고 도시공간기획자 에드워드 율리어((Edward Uhlir)를 중심으로 조성당시 민간 기부금과 시카고시 정부의 협력으로 아니쉬 카푸어의 '클라우드게이트(Cloud Gate)', 하우메 플렌사의 '크라운 분수(Crown Fountain)'의 두 개의 대형작품과 프랭크 개리(Frank Gary)가 설계한 공연장을 조성하였다.[45] 그 결과 연간 5백만명의 방문객이 연간 1조 4천억원의 관광효과를 발생시켰으며 시카고 방문객의 12.8%가 반드시 들러가는 관광명소[46]이자 시카고 빈(Chicago Bean)이라는 애칭이 있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

45) 조경진,2014 도시개발 및 재생의 수단으로 통합적 공공미술 추진 전략 연구, 도시설계학회지 제15권 제1호(2014.2) p.89~104

46) DePaul News Archive, 13.November.2011(https://wdat.is.depaul.edu/newsroom/year_2011/2380.html#:~:text=,in%20ticket%20sales%20annually%3B%20and)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공공미술의 체험성이 강조된 최근 사례로 한국 포항 환호공원의 스페이스워크(Space walk)가 있다. 독일의 설치미술가 하이케무터와 울리히 겐츠(Heike Mutter & Ulrich Genth)의 작품으로 최고높이 25m의 유연한 선형모양의 작품으로 333m 계단을 올라가 보는 전망형 작품으로 2021년 포스코의 민간투자를 통해 약170억원을 투입해 완공하였다. 개장 23개월만인 2023년 10월 누적방문객 200만명을 돌파[47]하며 '한국관광의 별' 선정과 야간활동 활성화, 주변 숙박연계 프로모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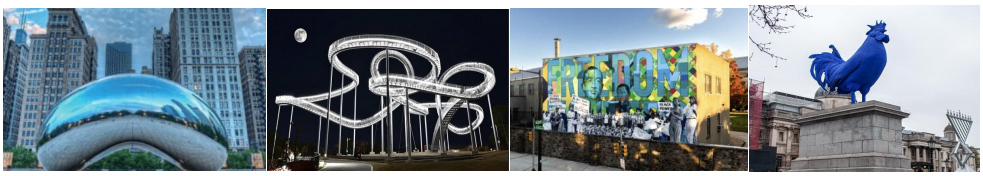
대형설치 없이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사례로 미국 필라델피아의 벽화 프로젝트(Mural Arts Philadelphia)가 있다. 1984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반(反)그래피티(Graffity)를 위해 시작되어 현재까지 4,400점의 작품이 전시된 세계 최장 벽화프로젝트이다.[48]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창작활동을 합법화하며 지역사회 협업과 아티스트 활동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간 25,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civic engagement)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공미술 교육 프로그램, 출소자를 위한 사회화 프로그램(Reimagining Reentry Fellowship)으로 지역사회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예술적 도시경관을 만들고 있다. 정기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으로 연간 240만달러의 지역경제 효과, 연간 250명 이상의 예술가 참여를 통해 범죄의 재발방지와 지역화합, 낙후된 환경을 재생하는 활성화 프로젝트로 자리잡았다. 이로써 2022년 연간 방문객 1,350만명을 달성하고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시 정부의 지원을 통해 30여년 간 지속 운영 중이다.

작품의 순환성으로 경쟁력을 높인 사례로 영국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의 네 번째 좌대(4th Plinth)는 광장에 비워진 전시좌대 위에 2년마다

47) '포항 찾은 관광객 지난해 750만명 돌파', 한국경제신문(2024,1.11) 지면A24
48) https://muralarts.org/join-the-action/annual-report/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시민이 뽑아 전시하는 순환형 프로젝트로 런던의 문화적 수준을 알리고 도시이미지를 제고하였다. 작품비 약 17억원[49]으로 연간 1,500만명의 방문객을 발생시켜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경쟁력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사례로 꼽힌다. 각 사례의 이미지는 [그림 2-10]과 같다.



[그림 2-10] Cloud Gate(2004), SpceWalk(2021), Cecil.B.Moor(2024), HAHN/COCK(2013)

그 외 미디어 축제, 비엔날레, 러버덕 프로젝트(Rubber duck)와 같은 일시적 도시개입 프로젝트는 순간적인 도시의 인상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며 도시의 생명력을 더하고 있다. 각 사례의 도시경쟁력 효과는 [표 2-15]와 같다.

[표 2-15]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경쟁력 창출 사례

주요 사례	주요 내용	도시경쟁력 증진 효과
밀레니엄 파크 조성 Millenium Park (시카고, 미국)	공공미술작품과 파빌리온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문화예술 공원 조성	· 연간 방문객 500만명 · 연간 1조 4천억 관광효과 · 시카고 대표 랜드마크
포항 스페이스 워크 Space Walk (포항, 한국)	포항 환호공원을 대표하는 333m의 유선형 전망형 계단 조형작품	· 연간 방문객 100만명 · 포항 대표 예술명소
필라델피아 벽화 프로젝트 Mural Arts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미국)	범죄율이 높은 낙후도시를 그래피티 작가양성과 공공체 참여를 통해 4,400점의 벽화가 있는 세계적인 벽화의 수도로 명성	· 연간 240만 달러 경제효과 · 세계벽화의 수도로 명성 · 공동체 회복,범죄율 저감효과, · 매년 250명 아티스트 참여
네 번째 좌대 프로젝트 4th Plinth Project (런던, 영국)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들의 대표작을 선보이는 명소로 활성화	· 연간 방문객 1,500만명 · 런던의 문화도시 이미지 견인

49) https://www.london.gov.uk/md3193-fourth-plinth-programme-2024-27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2.4 소 결

공공미술은 일반적으로 공공(public)의 공간(space)을 활용하는 미술작품으로 화이트큐브 안, 미술시장에서의 작품, 장식을 위한 플롭아트(plop art)와 구분되는 장소특정적 미술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장소특정성 개념에 대하여 이론가 권미원은 장소를 보다 도시적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장소를 활용한 작품설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미술이 도시공간의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 공간을 민주화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복합적인 장을 만들기 때문에 장소지향적 공공미술은 작품성을 넘어 좀 더 '공공적인 영역'으로써의 공공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 즉 도시공간과 공공미술의 연결점은 단순히 작품과 전시 위치의 개념 이상의 관계를 발생시킨다.

도시의 공간의 배치와 활용은 한 도시의 미래지향적 가치성을 담는 어바니즘으로 발현되었다. 도시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던 어바니즘이 차츰 시민의 삶의 질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였으며, 코로나 19 이후 일상 보행권 내에서의 활동과 커뮤니티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대 이후 본격화된 나의 삶의 반경과 개인의 안녕에 대한 관심, 행동은 도시의 문화향유 방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시민 개개인의 만족과 평가, 표현의 자유와 도시 안에서의 24시간 안전감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과 기준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어바니즘과 공공미술, 도시경쟁력의 변화 방향성의 동일성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도시에서의 공공미술이 시민 생활과 경험에 밀착도를 높이고 질적 만족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함께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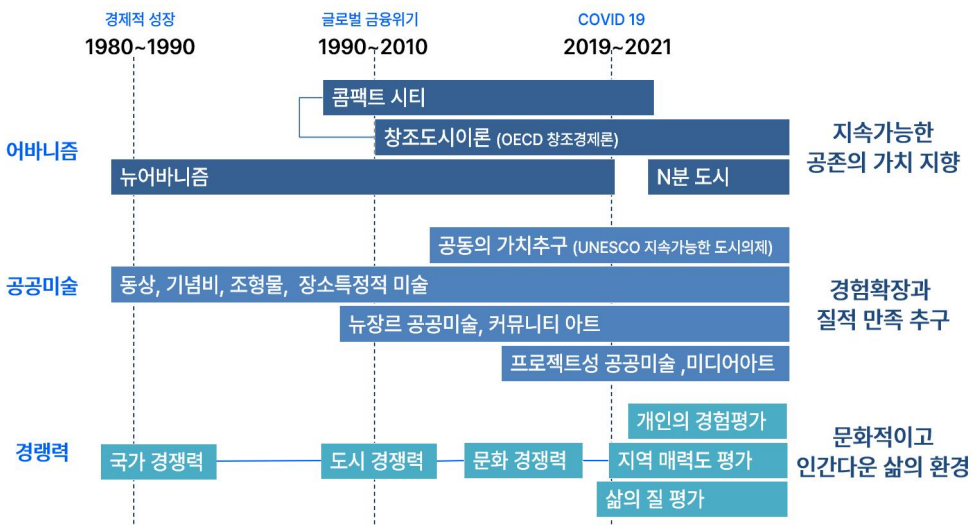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본 장에서 공공미술과 도시, 어바니즘, 도시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미술은 조형적 설치와 표현의 범주를 넘어 비물질적 매체, 비가시적 관계성, 타 예술간의 융합을 통해 도시 공간의 활성화와 되였다. 일상권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도시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관점을 투영하는 어바니즘의 변화양상과 공공미술의 변화방향에 공통성을 발견하였으며,

셋째, 2000년대 이후 시대의 가치변화에 따라 도시경쟁력의 평가관점이 인간다운 삶, 만족도 있는 삶의 지향함으로써 문화적이고 대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한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공미술이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소프트파워로 작용함을 의미하며 인간적이고 개성이 있는 도시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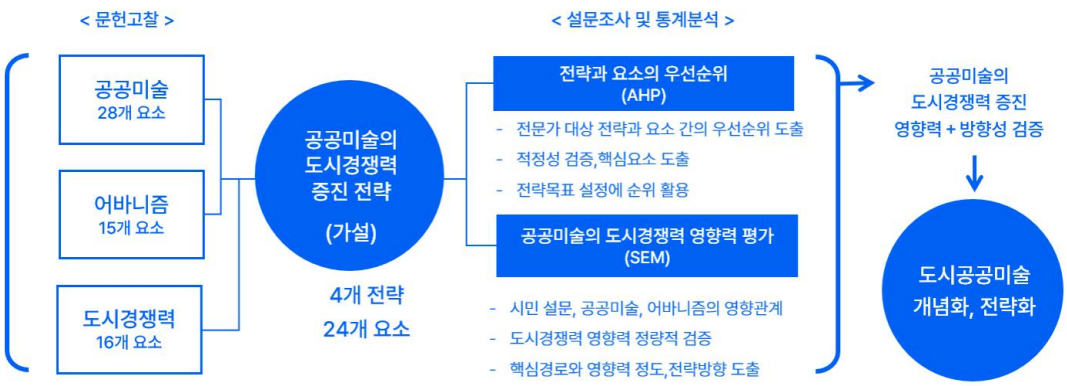


[그림 2-11] 2000년대 이후 도시와 공공미술의 변화추이 종합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제 3 장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요인분석과 영향력 평가

본 장에서는 도시 공공미술과 도시경쟁력 간의 관계성을 고찰하고 각 요소들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하여야 할 경쟁력 강화요인을 도출한다. 여기에서는 첫째, 도시 공공미술을 구성하는 어바니즘 원칙과 공공미술의 이론과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문화관련 도시경쟁력 지표 달성을 위한 전략요소를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매겨 도시경쟁력을 위한 공공미술의 우선적 전략의 순위와 함께, 각 전략요소들의 순위를 결정한다. 셋째, 도출된 주요 요소들을 구조화된 방정식 모델로 구성하여 도시경쟁력이라고 하는 달성목표에 미치는 영향력과 요소관계를 정량적으로 도출한다. 넷째,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명확해진 어바니즘, 공공미술의 관계성과 도시경쟁력 달성을 위한 전략적 결합의 유의미성을 증명하여 도시의 공공미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점검한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검증된 영향력 경로를 기반으로 어바니즘과 공공미술 결합을 통한 '도시공공미술(Urban Public Art)'을 개념화한다. 본 장의 흐름은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3장 연구의 흐름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3.1 요인분석

3.1.1 요소도출

1) 공공미술 특성요소 추출

현대사회의 흐름에 따라 확장되어 온 공공미술에 대한 연구는 도시, 건축,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등의 범주에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관계성에 대한 선행논문은 공간적인 관점, 공공적 가치적 측면, 사회와 예술과의 관계성, 도시를 위한 공공미술에 역할로 큰 주제의 범주를 나눌 수 있으며 전통적인 예술에서 공공성, 도시공간 적용, 시민참여의 필요성, 제도의 개선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50] 도시에서의 공공미술이 공동체의 삶의 공간에 적용됨으로써 발생되는 관계성에 관하여 로잘린 도이치(Rosalind Deutsche, 1966)는 공공미술의 사회정치적 관계를 차용하여 '사람-자연-역사'를 담는 도시 안에 장소로서의 미술에서 '주민-작가-장소'의 '유기적 소통관계(Relationship of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공공미술의 장소특정성(site specific)을 연구한 권미원(M.W Kwon)[51]은 공공미술의 장소개입에 있어 그 맥락의 중요성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장소특정성(Site Specific)의 개념을 정체성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관계의 중심으로 보았다. 박세훈(2008)은 문화예술 역할로써 도시의 경제적 효과를 견인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양현미(2013)는 행정적 측면에서의 공공미술 체계적인 운영방식에 개선이 작가의 창의성과 시민 향유의 평등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50) 2025. 5월 기준 한국학술정보에서 '공공미술' '공공예술'로 검색된 논문은 학술지 487건, 박사논문 285건으로 확인

51) 권미원 (2002) 장소특정적 미술 One place after another : Site specific-art and Locational Identity, 현실문화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공공미술의 관점 변화를 반영한 요소도출을 위하여 현시대의 도시와 사회, 시대와의 연결과 관련된 28편의 선행연구를 선별하여 각 연구에 포함된 키워드 추출을 진행하였다. 고찰을 진행한 국내외 논문과 저서는 [표 3-1]과 같다.

[표 3-1] 공공미술 관련 참고문헌

연구자	주요 키워드
강 수 미 (2024)	장소특정성, 예술성,열린특정성
권 미 원 (2002)	장소특정성, 맥락성, 사회적 관계, 지역성, 공공성, 탈 미술관
김 동 규 (2013)	공론장, 상호작용 정치철학, 담론
김 연 희 (2017)	예술성, 기능성, 장소성, 접근성, 정체성, 식별성, 장식성, 주인의식
김 재 경 (2001)	안정성, 쾌적성, 일관성, 연속성, 독자성
김주연외(2010)	안정성, 쾌적성, 일관성, 연속성, 독자성, 적합성, 상호작용
김 혜 진 (2010)	정서성, 사회성, 정치성, 경제효과
문 희 숙 (2013)	심미성, 지표성, 실용성, 참여성
박 재 은 (2023)	시간성, 다양성, 현장성, 복합성, 협치성, 지역밀착성
반정화 외 (2022)	상징성,접근성,이용성 수용미학
송 천 (2020)	예술성, 사교성,,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 접근성
양 현 미 (2009)	창의성, 다양성, 평등성, 포용력, 예술지원
오 재 란 (2021)	예술성, 상징성, 공유공간,참여성,경제성,보존성
왕 위 잉)2023)	예술성, 상징성, 기능성, 지속가능성, 접근성, 주인의식
이 명 진 (2014)	공공공간, 의미확장, 소외계층, 문화접근성
이은정외(2013)	장소특정성, 도시맥락, 공간작동
이 정 민 (2013)	관계성, 다중주체, 협력, 의미공유, 거버넌스
임 성 훈 (2009)	장소맥락, 공공성, 사회관계, 의미형성, 관객중심
조 정 진 (2014)	도시재생, 통합전략, 프로세스
C.Grodach (2010)	예술공간, 공공공간, 지역사회, 문화경제
G. Scard (2024)	공유공간, 사회적기능, 공동체회복
Grant Kester (2004)	대화예술, 소통, 사회변화, 사회적 협업
J.Francis (2012)	공동체성, 소속감, 공공공간
Jan Brennan (2019)	정체성, 응집력, 주민참여
Malcolm Miles (1997)	공공미술, 공간정치, 도시정책
Matilde Carrasco (2024)	참여예술, 미적가치, 관객활동, 평가변화, 경험가치
Nicolas Bourriaud (1998)	관계미학, 상호작용, 사회적공간, 공동체, 의미생산
Patricia Phillips (1988)	시간성, 일시성, 공공영역, 변화성
Rosalyn Deutsche (1996)	공간정치, 재개발 비판이론, 공공공간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28개의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키워드는 중복을 제거하면 총 98개로, 각 키워드의 의미적 공통성과 차별성, 용어의 가치지향성을 고려하여 1차 요소분류를 진행하였다. 키워드의 분류는 체계화 과정은 [표 3-2]과 같다.

[표 3-2] 공공미술 관련 요소도출 과정 (1차 분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키워드	분류기준		1차 분류
심미성, 지표성, 창의성, 독자성	작품 고유가치	→	**독자성**
창의성, 의미형성, 의미확장, 의미생산, 예술지원	창의적 가치	→	**창의성**
상징성, 조형요소, 장식성, 식별성, 글로벌 미적공간	상징적 표현	→	**상징성**
심미성, 미적가치, 관계미학, 수용미학, 대화예술, 참여예술	미학적 가치	→	**심미성**
지표성, 평가변화	기준제시	→	**지표성**
예술성, 예술공간, 참여예술, 대화예술	예술적 완성도	→	**예술성**
복합성, 협력, 통합전략, 다중주체, 공간작동	융합적 활용	→	**복합성**
일시성, 시간성, 변화성, 재개발, 재생	시간의 유연성	→	**시간성**
일관성, 관리체계, 도시전략, 정책	일관적 체체	→	**일관성**
연속성, 연결성, 체계성	맥락의 연결	→	**연속성**
접근성, 문화접근성, 보행환경	접근 용이성	→	**접근성**
이용성, 실용성, 사용성, 공유공간. 경험가치	실용적 사용성	→	**이용성**
장소특정성, 장소성, 열린특정성, 도시맥락, 장소맥락	장소기반 맥락성	→	**장소특정성**
지역밀착, 지역사회, 현장성, 도시맥락	지역특성	→	**지역밀착성**
주인의식, 참여, 관객 활동	주체성	→	**주인의식**
다양성, 다중주체	다중적 주체	→	**다양성**
협치성, 거버넌스, 협업, 사회변화, 정치철학, 사회적 협업	거버넌스 협력	→	**협치성**
포용성, 소통, 담론, 소외계층	사회적 포용	→	**포용성**
참여성, 공론장, 관객활동, 참여	적극적 참여	→	**참여성**
공공성, 공공영역, 공공가치, 응집력, 소속감	공유가치	→	**공동의 관심**
평등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형평	→	**평등성**
경제성, 경제효과, 문화경제	경제적 효율	→	**경제성**
보존성	보존 가치	→	**보존성**
지속가능성, 웰빙, 회복, 재활성화	안정적 지속성	→	**지속가능성**
공동체성, 공유공간, 공공공간, 공동체회복	커뮤니티 중심	→	**공동체 수요**
공동체, 지역사회, 공유공간	지역사회 편익	→	**공동체 이익**
안정성, 정서성, 사회성, 정체성, 쾌적성	환경적 안정성	→	**안정성**
사회적 책임, 사회관계, 사회변화	사회윤리적 가치	→	**사회적 책임**
재활성화, 도시재생, 공유공간, 경험가치	공간활용	→	**활용성**
정치성, 의미생산, 의미공유	정서적 의미	→	**유의미성**
소외계층, 관객중심, 사용자중심	인간중심적 접근	→	**수용성**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1차 분류된 요소를 공공미술이 가지는 문화예술적 가치, 사회적가치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2차 분류를 진행하였다. 재분류 과정에서 유사한 의미로써 하나의 단어로 결합할 수 있는 용어를 정리하여 [표 3-3]과 같이 총 28개의 특성요소를 도출하였다.

[표 3-3] 공공미술 특성요소 도출 결과

가치구분	요소구문	요소정리	
문화예술적 가치	예술 관계요소 (8개)	독자성	예술성
		창의성	복합성
		상징성	장식성
		심미성	시간성
공간적 가치	공간 관계요소 (6개)	연속성	쾌적성
		접근성	기능성
		이용성	장소특정성
사회적 가치	사회적 관계요소 (8개)	다양성	공동의 관심
		협치성	주인의식
		포용성	장소밀착성
		참여성	사회적 책임
경제적 가치	경제적 관계요소 (6개)	경제성	공동체 수요
		보존성	공동체 이익
		지속가능성	안정성

2) 어바니즘 특성요소 도출

앞서 2장에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공간에 적용하는 어바니즘 이론과 공공미술의 연결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어바니즘 이론의 도시 적용원칙을 정리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도시들의 도시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2개의 어바니즘원리의 흐름 안에서 공공미술이 도시공간에 개입하는 원칙의 기준을 찾기 위하여 그 특성요소를 정리한다.

1990년대 이후 도시의 형태적 (Form Based) 디자인 원리를 언급하였던 뉴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어바니즘(New Urbanism) 원리로부터 삶의 반경을 활동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치환한 2020년대 시간개념의 어바니즘(Chrono-Urbanism)인 N-분 도시이론(N-minute theory),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던 2010년대 대표 도시이론이였던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theory)의 3개의 어바니즘이 주를 이룬다. 뉴어바니즘에서 N분 도시이론으로 이어지는 어바니즘의 흐름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52)]

[표 3-4] N분 도시 개념 적용을 통한 공공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이론	연구자 / 발간처	년도	주요 요소
뉴 어바니즘 (New Urbanism)	Congrass for the New Urbanism	2001	근린구조, 고품격디자인, 복합기능 및 다양성, 조밀성, 혼합주택, 삶의 질, 보행성, 모빌리티 네트워크, 지속가능성, 연결성
컴팩트 시티 (Compact City)	Dempsey & Jenks	2010	다중적 중심, 건축 형태의 다양성, 복합토지이용, 도시의 심화, 조밀성, 거리의 활성화, 효율적 교통, 문화적 맥락
	sim	2019	건축형태의 다양성, 야외공간의 다양성, 유연성, 휴먼스케일, 보행성, 통제감과 정체성, 쾌적한 기후, 생물의 다양성
15분 도시 (15 Minute City)	C. Moreno	2022	도보 또는 접근성, 자전거 접근성, 녹지공간 확보, 공공공간의 활용, 연대성, 참여성

그 중 가치의 지향성이 공공미술의 원칙인 공동체 중심성, 접근성, 지역의 정체성과의 연결성이 강하고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어바니즘으로써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이론과 15분 도시이론을 적용하여 도시 공공미술의 원칙으로 활용 가능할 공통 원칙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52) 콘셉시온 머라이어 카밀(2024) ,15분 도시 개념 적용을 통한 공공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8 재편집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표 3-5] 뉴어바니즘과 15분 도시를 중심으로 한 어바니즘 특성요소 도출

구 분	뉴어바니즘 (New Urbanism)	15분 도시 (15-Minute City)	공통 원칙
핵심 철학	사람 중심 도시	생활 중심 도시	걷기 좋은, 사람 중심 도시
접근성 기준	공간구성 방식	시간성 기반 접근성	도보·자전거 중심
주요 원칙	① 보행 가능성 ② 혼합용도 ③ 전통적 이웃 구조 ④ 고밀도 개발 ⑤ 다양성 포용 ⑥ 공동체 중심성 ⑦ 공공공간 강조	① 근접성 (Proximity) ② 다양성 (Diversity) ③ 밀도 (Density) ④ 디지털화 (Digitalization) ⑤ 유연성 (Flexibility) ⑥ 연결성 (Connectivity)	용도 혼합 밀도 완화 지역특성 고려
주요방향	기능의 통합 (주거+상업+공공)	6대 기능 시간권 내 배치 (거주, 근무, 상업, 의료, 교육, 여가)	도시기능의 통합
공간활용	광장, 거리, 공원 등의 커뮤니티 활용성 강조	일상 속 공공공간 접근성과 효율적인 활용, 상업공간 배치	공공공간 활성화
사회적 포용	실제 구현의 한계요인	사회적 형평성·향유격차 검토	포용적 도시 지향
	↓	↓	↓
15개 어바니즘 특성요소	공공공간의 미적조화	보행친화적 네트워크	보행 일상권 강화
	혼합용도의 개발	인프라의 복합적 활용	공공공간의 효율성 제고
	커뮤니티 활성화	도시 정체성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친화적 도시설계	포용적 도시 지향	유연한 확장성
	거버넌스 활동 지원	생활중심의 공간배치	자연요소 연결성 강화

카를로스 모레노의 15분 도시의 개념은 단순한 시간의 적용을 넘어 접근성(accessibility)과 근접성(proximity)을 핵심으로 삶의 질(life quality) 향상을 목표로 하며, 1990년대 디자인 원칙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던 뉴어바니즘 이론의 방향성 위에 코로나19로 달라진 현대도시의 효율성과 시간적 개념, 도시 단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위로의 확장 가능성을 포함한 어바니즘으로 개념적으로 연결된다. 이 두 이론의 공통 지향점인 사람 중심의 도시, 보행편의성, 커뮤니티의 회복의 3개의 가치를 포함하여 각 이론의 공통적 요소와 차별절 요소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본 논문에 적용할 어바니즘 특성요소 15개를 확정하였다.

3) 도시경쟁력 특성요소 도출

앞선 고찰을 통해 언급되었던 도시경쟁력, 문화경쟁력, 도시 매력도 평가 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OECD, UN, MERCER, MORI, KEARNEY 등 공신력 있는 글로벌 평가로써 정부의 발표, 언론, 연구 등에 활용되는 9개의 경쟁력 지표를 조사하였다. 각 지표가 포괄하는 범위, 내용이 상이할 수 있고 경제, 사회, 문화, 인프라 등을 종합평가하는 경쟁력 조사지표의 경우 사회문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공공미술과 연결가능한 지표를 체계화하였다.

이렇게 9개의 각 도시경쟁력 평가지표에서 문화와 관련된 경쟁력 요소의 공통적 가치지향성과 동일 평가항목을 추출하여 재결합한 결과 도시 문화경쟁력 특성요소를 [표 3-6]과 같이 총 16개로 집약할 수 있다.

[표 3-6] 9개 경쟁력 평가에 포함된 문화관련 지표 추출

평가명	평가기관	공공미술 관련 연관 지표 추출	
Quality of Living	Mercer	사회문화 환경	·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미디어와 검열
		레크레이션	· 레스토랑 / 연극 및 영화공연, 영화관 수 / 스포츠 여가활동
		정치사회 환경	· 출입의 편의성 / 다른 나라와의 관계 / 법의 집행
Liveability	EIU	문화 및 환경	· 문화적 어려움(부패, 사회/종교 제한, 검열) · 레크레이션(스포츠. 문화, 식음료) · 소비재 가용성
		하부구조	· 지역 및 국제 연결의 품질
World's 100 Best Cities	Resonace	거주성	· 도시의 보행성 · 관광명소 및 랜드마크 · 공원 및 야외 레크레이션/ - 문화시설 수
		사랑스러움	· 문화공연 및 체험 / 나이트 라이프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평가명	평가기관	공공미술 관련 연관 지표 추출	
			· 관광명소, 가족친화적 활동 수
		번영	· 최대 규모의 컨벤션
UNESCO 2030	UNESCO	환경과 회복력	· 문화시설(다양성, 면적, 접근인프라) · 열린문화공간(면적, 수, 문화행사의 구성비율)
		번영과 생활	· GDP 내 문화생산 비율 , 문화고용, 문화 사업체 수 · 문화비 지출, 문화상품 및 서비스 수출 · 문화를 위한 공공재정(공공예산, 지원금 유형) · 문화 거버넌스(제도 규제, 관리기술 재정지원 체계 및 예산)
		지식과 기술	· 지속가능한 교육 정책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 발전) · 문화훈련(훈련 받은 학생의 수)
		포용과 참여	· 사회적 응집을 위한 문화(타 문화에 대한 관용) · 예술적 자유정책(예술가의 지위, 저작권, 자유로운 향유,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유무 · 문화에 대한 접근성(문화 인프라 이용가능성, 문화시설 수) · 문화적 참여 (문화장소 방문 횟수, 외부 문화활동 인구비율) · 참여적 과정(문화장소 방문, 활동참여, 개인문화활동 등)
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	UN	문화적 활기	· 문화장소 및 시설명소, 랜드마크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음악당, 극장) · 문화참여 및 매력(방문객, 관광객, 문화시설 만족도)
		창조경제	· 창의,지식기반 일자리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 · 지적재산권 및 혁신 · 창의적인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예술, 문화, 뉴미디어 등)
		환경활성화	· 인적자본 및 교육 (예술,인문학 졸업생) - 거버넌스의 질
Better life Inetex	OEDC	삶의 질	· 커뮤니티 : 사회적 무등 · 시민참여 : 법률제도, 투표율 · 생활만족도
Global Power City Index	Mori	문화의 상호작용	· 트렌드 결정 잠재력(국제 컨퍼런스, 세계 문화행사 수, 문화 컨텐츠 수출액, 예술시장 환경)-관광 자원 (관광지 매력도, 야간활동 선택지) · 문화시설 수 (영화관 수, 박물관 수, 경기장 수) · 방문객 매력도 (호텔, 쇼핑센터, 식사 선택지) · 국제교류
		거주적합성	· 웰빙 (사회적 자유도와 평등)
		환경	· 지속가능성 / 도시환경
Global Cities Index	KEARNY	정보교환	· 표현의 자유
		문화체험	· 박물관, 미술관 수/스포츠 이벤트 수/시각 및 공연예술 · 해외 여행객 /요리제공
Global Cities Outlook	A.T KEARNY	개인의 웰빙	· 안정성과 보안/ 환경성
		혁신	· 민간투자, 특허출원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인프라 관점에서의 도시개발과 자율적 가치, 도시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의 정도와 지속가능한 정책에 대한 지원성을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정책에 관하여는 산업육성과 예산, 구조 등 정책지원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틀을 갖추고 있는 UNESCO의 지표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된 16개의 도시경쟁력 특성요소는 '문화시설의 수', '보행의 연결성,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관심과 참여', '예술적 표현의 자유', '문화의 상호작용', '거버넌스', '관광객의 수', '문화적 체험', '야간 문화활동', '국제적 행사', '예술지원체계', '지원예산', '예술산업', '창의산업'과 '창의적 인력'이다. (표 3-7 참조)

[표 3-7] 도시경쟁력 특성요소

구분		평가요소	적용 지표
개발	도시개발	문화시설, 랜드마크,명소 수	GCI, GPCI, CCCM, UNESCO,World 100, GLI
	자원정비	보행의 연결성	World 100, UNESCO, GPCI
		문화시설 물리적 접근성	UNESCO, CCCM, QOL, EIU
자율성	대 중	관심과 참여	World 100, QOL, UNESCO
	작 가	예술적 표현의 자유	QOL, GCI, UNESCO
	관 계	문화의 상호작용	World 100, QOL, GPCI, UNESCO
	공동체	거버넌스	GCO, UNESCO
체험	경 험 확 장	관광객의 수	World 100, GCI, CCCM,
		문화적 체험	UNESCO, GCI, CCCM, GPCI
		야간 문화활동	World 100, GPCI
	즐거움	국제적 행사(이벤트)	GCI, GPC, World 100, CCCM, GPCI
정책	제 도 개 선	예술활동지원(법,제도)	UNESCO, CCCM
		지원예산	UNESCO
	시 장 육 성	예술산업	CCCM, GPCI, UNESCO
		창의산업 (경제)	GCO, UNESCO, CCCM
		창의적 인력	CCCM, UNESCO, CCCM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3.1.2 전략요소 체계화

앞선 문헌과 주요 지표를 통해 도출된 공공미술 요소, 어바니즘 요소, 목표치로써의 도시경쟁력 요소들을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전략제시를 위하여 재조직화하였다. 3개 분야의 공통성을 단계적으로 묶어나가는 과정에 있어 2장을 통해 확인된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공통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우선결합하며 공통 특성요소를 추출한 후 도시경쟁력 특성요소와의 연결을 진행함으로써 기본 틀 구성을 위한 특성요소를 종합하였다. 요소의 도출 단계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증진 요소 도출 단계

1) 요소 도출의 과정

1차적으로 도시의 공공미술 관련 특성요소 도출을 위하여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요소를 결합하였다. 문헌고찰 과정을 통해 추출된 요소는 공공미술 28개, 어바니즘 15개이다. 두 개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중요 개념 요소들을 공통의 가치지향성을 고려하여 종합하였다. 이러한 언어 추출과정을 통해 총 6개의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공통 특성요소 도출하였는데, '예술적 일상', '공간활용 강화', '지역특성 발견', '포용과 참여 확대', '경제적 가치창출', '안정된 시스템'의 6개의 도시+공공미술 특성요소가 도출되었다. 현대 어바니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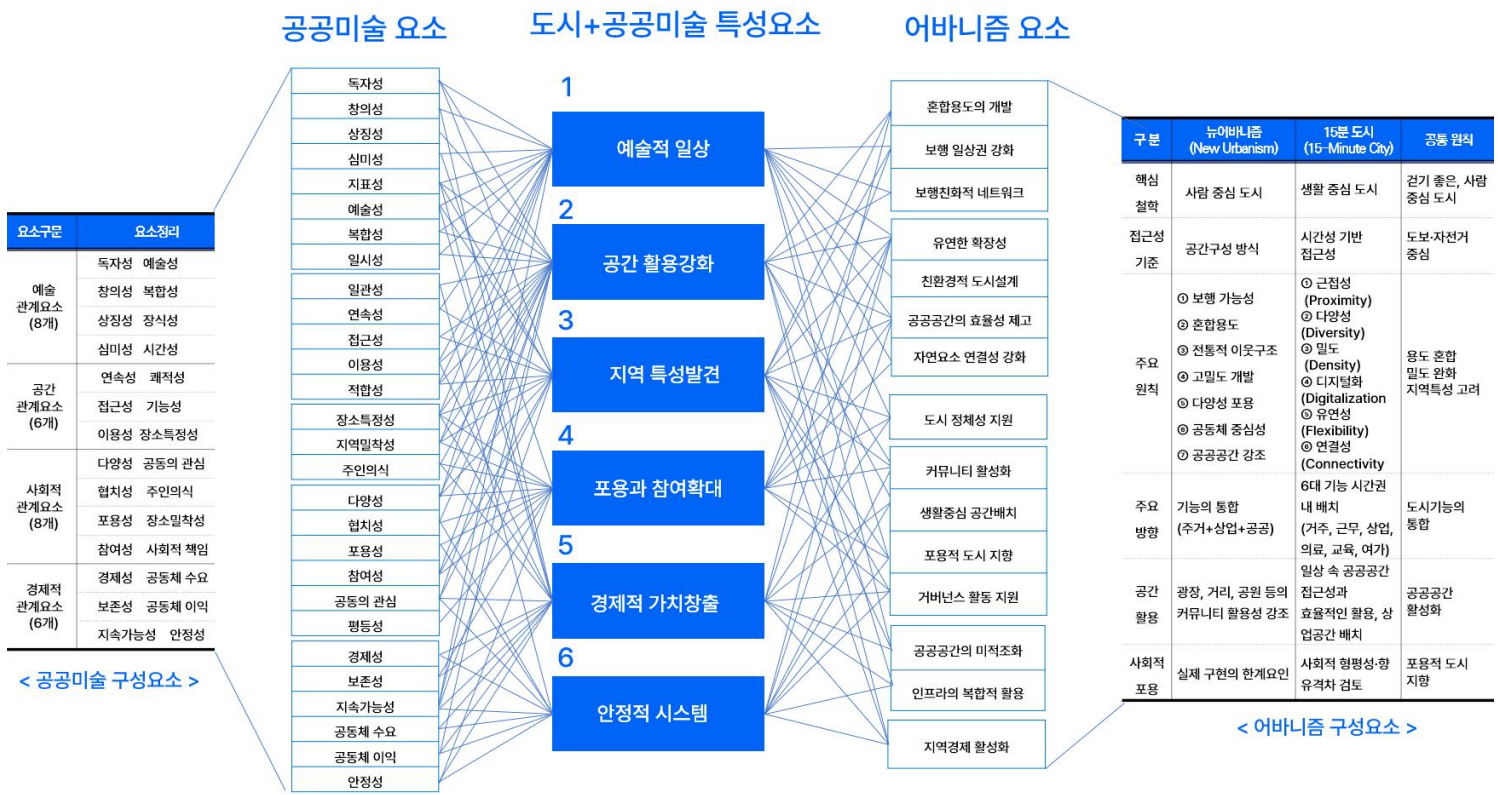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공공미술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키워들 유사성과 가치지향성을 중심으로 결합시켜 도시의 공공미술 특성요소 도출하였는데, 그 과정은 [그림 3-3]과 같다.

또한 도시경쟁력 분야의 특성요소 추출을 위하여 앞서 검토된 9개의 도시경쟁력 평가 지표를 융합하였다. 도시경쟁력 지표가 포괄하는 범위가 넓은 경우 문화예술과 보행접근성, 시민의 삶의 만족도와 연결되는 지표들에 집중하여, 어바니즘과 공공미술 영역과 동일한 언어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도시경쟁력 특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문화경험 지원', '보행접근성 강화', '일상 문화활력', '자율적 가치추구', '국제적 위상정립', '문화예술 제도', '창의산업의 육성'의 7개 도시경쟁력 특성요소가 도출되었다. 특성요소 추출과정은 [그림 3-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도출된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공통요소와 도시경쟁력 특성요소를 최종적으로 종합하였는데, 앞 단계에서 도출된 6개의 도시공공미술 특성요소와 7개 도시경쟁력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도시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전략요소로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앞서 진행된 언어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각 특성요소들의 가치지향의 유사성, 용어적 표현의 유사성을 종합하였다. 13개의 특성요소의 공통성이 있는 특성요소들을 결합하여 도시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도출하였는데, '도시의 인상변화', '일상의 활력제고', '참여와 가치지향', '안정적 시스템'의 총 4개의 전략요소로 압축되었다. 1차적으로 도출된 13개의 용어가 4개의 전략으로 압축되는 연결과정은 [그림 3-5]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1946 · PRO HOMINUM BENEFICIO



요소구분	요소정리
예술 관계요소 (8개)	독자성 예술성
	창의성 복합성
	상징성 장식성
	심미성 시간성
공간 관계요소 (6개)	연속성 쾌적성
	접근성 기능성
	이용성 장소특정성
사회적 관계요소 (8개)	다양성 공동의 관심
	협치성 주인의식
	포용성 장소밀착성
	참여성 사회적 책임
경제적 관계요소 (6개)	경제성 공동체 수요
	보존성 공동체 이익
	지속가능성 안정성

< 공공미술 구성요소 >

구분	뉴어바니즘 (New Urbanism)	15분 도시 (15-Minute City)	공통 원칙
핵심 철학	사람 중심 도시	생활 중심 도시	걷기 좋은, 사람 중심 도시
접근성 기준	공간구성 방식	시간성 기반 접근성	도보·자전거 중심
주요 원칙	① 보행 가능성 ② 혼합용도 ③ 전통적 이웃구조 ④ 고밀도 개발 ⑤ 다양성 포용 ⑥ 공동체 중심성 ⑦ 공공공간 강조	① 근접성 (Proximity) ② 다양성 (Diversity) ③ 밀도 (Density) ④ 디지털화 (Digitalization ⑤ 유연성 (Flexibility) ⑥ 연결성 (Connectivity	용도 혼합 밀도 완화 지역특성 고려
주요 방향	기능의 통합 (주거+상업+공공)	6대 기능 시간권 내 배치 (거주, 근무, 상업, 의료, 교육, 여가)	도시기능의 통합
공간 활용	광장, 거리, 공원 등의 커뮤니티 활용성 강조	일상 속 공공공간 접근성과 효율적인 활용, 상업공간 배치	공공공간 활성화
사회적 포용	실제 구현의 한계요인	사회적 형평성·향 유격차 검토	포용적 도시 지향

< 어바니즘 구성요소 >

[그림 3-3] 어바니즘 + 공공미술의 특성요소 도출과정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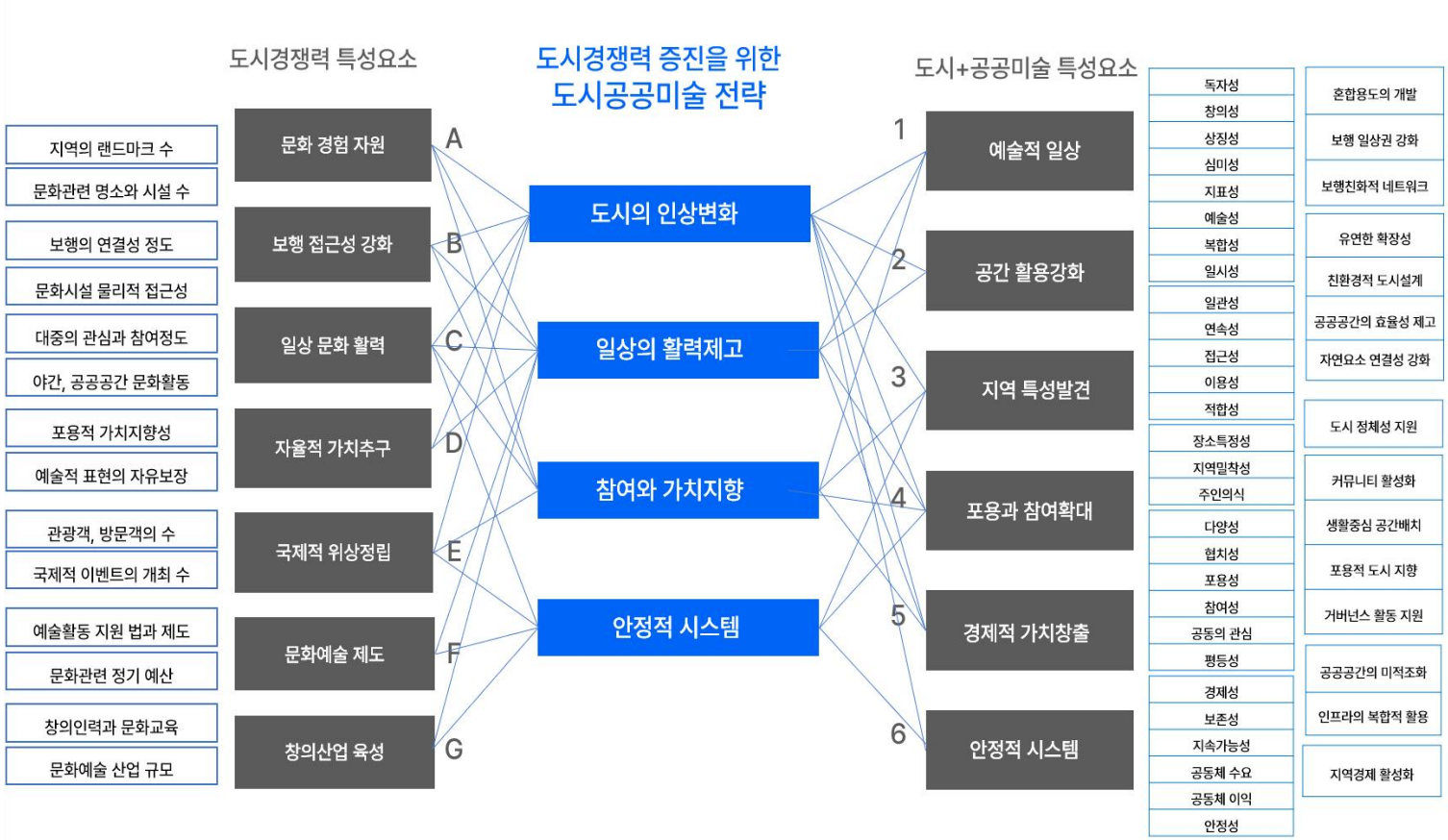
< 9개 도시경쟁력 관련 조사 지표 >

지수명	평가기관	공공미술 연관 지표	
Quality of Living	Mercer	사회문화 환경	-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 미디어와 검열
		레크레이션	- 레스토랑/ 연극 및 영화공연, 영화관 수 - 스포츠 여가활동
		정치사회 환경	- 출입의 편의성 - 다른 나라와의 관계 / 법의 집행
Livability	EIU	문화 및 환경	- 문화적 어려움 (부패, 사회/종교 제한, 검열) - 레크레이션 (스포츠, 문화, 식음료) - 소비재 가용성
		하부구조	- 지역 및 국제 연결의 품질
World's 100 Best Cities	Resonace	거주성	- 도시의 보행성 / - 관광명소 및 랜드마크 / - 문화시설 수 - 공원 및 야외 레크레이션
		사랑스러움	- 문화공연 및 체험 /- 나이트 라이프 - 관광명소, 가족친화적 활동 수
		번영	- 최대 규모의 컨벤션
UNESCO 2030	UNESCO	환경과 회복력	- 문화시설(다양성, 면적, 접근 인프라) - 열린 문화공간(면적, 수, 문화행사의 구성비율)
		번영과 생활	- GDP 내 문화생산 비율 / - 문화고용, 문화 사업체 - 문화비 지출, 문화상품 및 서비스 수출 - 문화를 위한 공공재정(공공예산, 지원금 유형) - 문화 거버넌스(제도 규제, 관리기술 재정지원 체계 및 예산)
		지식과 기술	- 지속가능한 교육 정책 (세계시민교육과 지속발전 - 문화운련(운련 받은 학생의 수)
		포용과 참여	- 사회적 응집을 위한 문화(타 문화에 대한 관용) - 예술적 자유정책(예술가 지위, 저작권, 자유로운 항유,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 문화에 대한 접근성(문화 인프라 이용가능성, 문화시설 수) - 문화적 참여 (문화장소 방문 횟수, 외부 문화활동 인구비율) - 참여적 과정(문화장소 방문, 활동참여, 개인문화활동 등)
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	UN	문화적 활기	- 문화장소 및 시설 (명소, 랜드마크,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음악당, 극장) - 문화참여 및 매력 (방문객, 관광객, 문화시설 만족도)
		창조경제	- 상의, 지식기반 일자리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 - 지적재산권 및 혁신 - 상의적인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새로운 예술,문화,뉴미디어 등)
		환경활성화	- 인적자본 및 교육 (예술 및 인문학 졸업생) - 거버넌스의 질
Quality of Life	Monocle	삶의 질	- 공공예술의 접근성 - 문화공간의 경제성
Global Power City Index	Mori	문화 교류 상호작용	- 트렌드 결정 잠재력 (국제 컨퍼런스, 세계 문화행사 수, 문화 컨텐츠 수출액 - 관광 지원 (관광지 매력도, 야간활동 선택지) - 문화시설 수 (영화관 수, 박물관 수, 경기장 수) - 방문객 매력도 (호텔, 쇼핑센터, 식사 선택지) / - 국제교류
		거주적합성	- 안보와 안전, 생활환경 성숙도
		환경	- 지속가능성, 재활용 비율 - 도시환경 수질, 기온의 쾌적도
Global Cities Index	KEARNY	정보교환	- 표현의 자유
		문화체험	- 박물관, 미술관 수 / - 스포츠 이벤트 수 - 시각 및 공연예술 - 해외 여행객 /- 요리제공
Global Cities Outlook	A.T KEARNY	개인의 웰빙	- 안정성과 보안 / 환경성
		혁신	- 민간투자, 특허출원



[그림 3-4] 도시경쟁력 특성요소 도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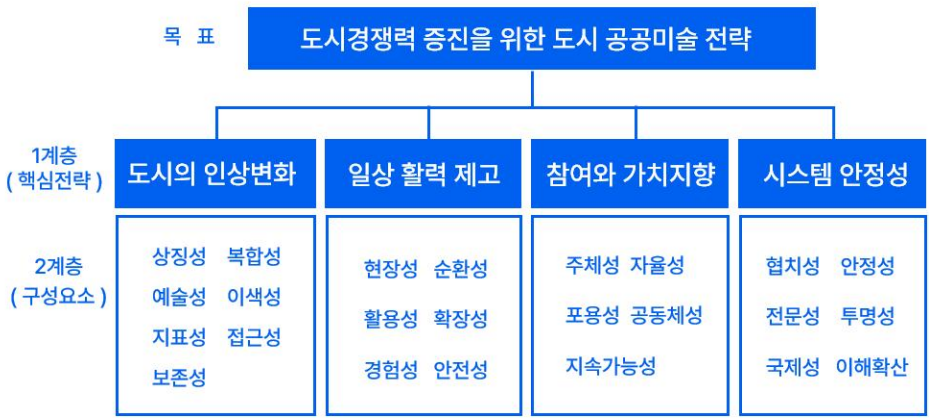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그림 3-5]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도시공공미술 전략요소 도출

2)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도시공공미술 전략 구성

앞서 도출된 4가지의 공통요소를 중심으로 도시공공미술의 문화경쟁력 증진을 위한 지표도출을 위한 구조화를 진행하였다. 이는 도시공공미술을 전략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방향성을 설정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전략화함에 있어 어떤 적용원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도시공공미술의 문화경쟁력 증진 전략을 위한 공통가치와 구성요소를 체계화 하면 다음의 [그림 3-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6] 요소종합을 통한 지표체계

각 요소들에 적용된 개념은 공공미술과 어바니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일상의 활력제고'를 구성하는 '안전성'은 24시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요소로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의 안전감이라 재정의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24개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도시의 공공미술의 세부요소들을 구체화 하였다. 세부적인 요소의 정의는 다음 [표 3-8]과 같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표 3-8] 각 구성 요소별 세부설명

1계층 〈핵심전략〉	2계층 〈구성요소〉	내 용 설 명
도시의 인상변화	상징성	지역의 서사가 있는 정체성 발현
	복합성	지역 대표 문화명소 조성, 복합용도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예술성	현대미술적 대표성이 있는 예술작품 유치
	이색성	개성 있는 건축, 디자인과 독특한 경관연출
	지표성	시각적 주목도를 높여 도시의 지표로서의 존재감
	접근성	공공공간에서의 물리적, 심리적 접촉면 확대
	보존성	도시의 자원 재발견과 원래의 공간, 자원의 스토리, 형태보존
일상의 활력제고	현장성	현재, 한시적 기간, 이곳에서만 감상 할 수 있는 현재적 감각
	순환성	지정 열린장소에 콘텐츠 주기적 변화를 통한 생동감
	활용성	도시의 공간, 시설 등 사용성이 있는 요소들과의 유연한 결합
	확장성	스마트 기술, 야간콘텐츠를 접목한 장르, 감상 범위 확장
	경험성	공공미술작품의 체험적인 요소를 도입한 다면적 경험
	안전성	24시간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의 안전감
참여와 가치지향	주체성	공동체 주도이고 주체적인 관심과 참여과정
	자율성	작가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율 보장. 다양성 표출
	공동체성	공동체 회복을 통한 공동의 가치추구
	포용성	자율적 의사표출과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포용적 가치추구
	지속가능성	지구와 환경, 세계적 지속가능 의제에 동참 여부
시스템의 안정성	협치성	공공공간 활용제고를 위한 민간과 정부, 정부기간관 협치성
	안정성	법제도 개선, 산업 육성, 체계적 정책, 작품관리,안정적 예산확보 등
	전문성	전문 교육, 인력 양성, 정부에의 전문인력 배치 등
	투명성	공개, 공유, 공감 가능한 과정의 투명성
	이해확산	공공미술에 대한 홍보, 교육, 체험을 통한 이해도 증진
	국제성	국제적 교류 강화와 행사유치 교류확대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3.1.3 요소 중요도 및 우선순위 조사 분석

1) 지표 우선순위 도출

도시공공미술을 전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하여 공통적 가치와 세부요소를 2개 계층의 지표로 적용하여 우선순위 도출하기 위한 지표 우선순위결정(AHP)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표 우선순위결정법은 계층별 구성요소들에 대한 분석적 의사결정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이하 AHP)으로,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복합적이거나 여러 개인 경우 상호 배타적인 대안에 대한 평가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조사기법 중의 하나이다. AHP 방법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단계적, 계층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인간의 사고특성을 활용하 분석법으로 알려져있다. 이 방법론은 조사의 모형을 통해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 정도를 비율척도(Ratio Scale)화 하여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또한 간단한 방식에도 불구하고 척도 선정, 가중치 선정 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과정을 통해 채택된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본 연구에의 AHP 조사 진행을 위하여 상호 관련된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증진 전략 방안을 사고의 계층별로 2개 층위로 구분하고 각 층위 별, 구분 항별로 요소 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비교행렬로 나타낸다. 평가점수는 일반적으로 상대적 비교 중요도의 척도와 동일하게 리커트 9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상대적 가중치 추정을 위하여 고유치 방법(Eigenvalue method)을 이용하였고, 응답의 일관성을 평가는 비일관성 검증을 통해 일관성 비율이 0.1 미만이면 응답의 일관성이 있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고 판단하였다. 특히 최하위 계층의 요소간의 우선순위 또는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계층의 평가기준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하여 상위계층의 우선순위가 하위계층 요소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 산술적으로 확인하며 복합 가중치를 확인힌다. 최종 도출된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증진 전략 방안을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분석을 통하여 도시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증진 전략 방안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전략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엑셀(Excel VBA기반)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자 특성

본 연구를 위해 공공미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실질적인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공공미술관 평균 근무년수 12.5년이며 전체 구성인원의 50%는 교수 및 전문가였으며 해당 업무 최소 5년이상의 전문직 공무원 4명을 포함하여 정책입안, 연구, 실행의 전체 과정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세부 비율은 남자 12명(48.0%), 여자 13명(52.0%)이며, 연령은 40대 18명(72.0%), 50대 6명(24.0%), 60대 1명(4.0%)으로 구성되며, 경력은 5년 이하 1명(4.0%), 5~10년 3명(12.0%), 11~15년 8명(32.0%), 16~20년 5명(20.0%), 21년 이상 8명(32.0%)으로 평균 근무년수는 12.5년이다. 학력은 석사과정 1명(4.0%), 석사 4명(16.0%), 박사 20명(80.0%)으로 나타났고, 교수 및 전문가 14명(56.0%), 현업 종사자 7명(28.0%), 행정기관 4명(16.0%), 전문 분야는 미술/디자인 18명(72.0%), 건축/조경 2명(8.0%), 도시계획 3명(12.0%), 문화/사회학 1명(4.0%), 기타 1명(4.0%)이다. 조사기간은 2025년 1월 20일 ~ 2월 10일이다.(표 3-9 참조)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1946 · PRO HOMINUM BENEFICIO

[표 3-9] 조사자 분포표

항 목	구분	인원수	구성비율 %
성 별	남 자	12	48.0
	여 자	13	52.0
연 령	40대	18	72.0
	50대	6	24.0
	60대	1	4.0
경 력	5년 이하	1	4.0
	5-10년	3	12.0
	11-15년	8	32.0
	16-20년	5	20.0
	21년 이상	8	32.0
학 력	석사과정	1	4.0
	석사	4	16.0
	박사	20	80.0
분 류	교수, 전문가	14	56.0
	현업 종사자 (작가,업체)	7	28.0
	행정기관	4	16.0
전 문 분 야	미술/디자인	18	72.0
	건축/조경	2	8.0
	도시계획	3	12.0
	문화/사회학	1	4.0
	기타	1	4.0
전 체		25	100.0

3) 계층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가) 1계층의 우선순위 분석

공공미술의 문화경쟁력 증진 전략 1계층의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은 0.270으로 산출되었다. AHP 분석 결과, 공공미술의 문화경쟁력 증진 전략 1계층에서 일상의 활력제고의 중요도가(0.320)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시의 인상변화(0.251), 참여와 가치지향(0.228), 시스템의 안정성(0.201) 순으로 나타났다.(표 3-10 참조)

[표 3-10] 1계층 우선순위 도출 결과

요인	일관성 비율(CR)	중요도	우선순위
일상의 활력제고	0.270	0.320	1
도시의 인상변화		0.251	2
참여와 가치지향		0.228	3
시스템의 안정성		0.201	4

4) 계층별 세부요소 우선순위 도출

가) '도시의 인상변화'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시의 인상변화'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요인의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은 0.155로 타당성이 있으며 '도시의 인상변화' 요인 중 '접근성'의 중요도가 0.189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징성(0.177), 보존성(0.148), 지표성(0.143), 예술성(0.134), 이색성(0.105), 복합성(0.105) 순이다.(표 3-11 참조)

[표 3-11] 도시의 인상변화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요인	평가항목	일관성 비율(CR)	중요도	우선순위
도시의 인상변화	접근성	0.155	0.189	1
	상징성		0.177	2
	보존성		0.148	3
	지표성		0.143	4
	예술성		0.134	5
	이색성		0.105	6
	복합성		0.105	7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나) ‘일상의 활력제고’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공공미술의 문화경쟁력 증진 전략 요소 중 일상의 활력제고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은 0.193으로 타당성이 있는 결과로, 세부요소 중 ‘활용성’의 중요도가 0.210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전성(0.197), 현장성(0.168), 경험성(0.158), 순환성(0.157), 확장성(0.110) 순으로 나타났다.(표3-12 참조)

[표 3-12] 일상의 활력제고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요인	평가항목	일관성 비율(CR)	중요도	우선순위
일상의 활력제고	활용성	0.193	0.210	1
	안전성		0.197	2
	현장성		0.168	3
	경험성		0.158	4
	순환성		0.157	5
	확장성		0.110	6

다) ‘참여와 가치지향’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참여와 가치지향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은 0.122이며, 지속가능성의 중요도가 0.261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동체성(0.197), 포용성(0.195), 자율성(0.182), 주체성(0.164) 순으로 나타났다.(표3-13 참조)

[표 3-13] 참여와 가치지향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요인	평가항목	일관성 비율(CR)	중요도	우선순위
참여와 가치지향	지속가능성	0.122	0.261	1
	공동체성		0.197	2
	포용성		0.195	3
	자율성		0.182	4
	주체성		0.164	5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라) '시스템의 안정성'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공공미술의 문화경쟁력 증진 전략 요소 중 시스템의 안정성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은 0.176으로 나타났고, 시스템의 안정성 요인 중 안정성의 중요도가 0.212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투명성(0.196), 전문성(0.192), 협치성(0.166), 이해확산(0.145), 국제성(0.089) 순으로 나타났다.(표 3-14 참조)

[표 3-14] 시스템의 안정성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요인	평가항목	일관성 비율(CR)	중요도	우선순위
시스템의 안정성	안정성	0.176	0.212	1
	투명성		0.196	2
	전문성		0.192	3
	협치성		0.166	4
	이해확산		0.145	5
	국제성		0.089	6

5) 종합 중요도 및 우선순위

전체 종합순위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1계층의 우선순위 결과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전체 요소들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일상의 활력제고'에서의 '활용성'의 종합 중요도가 0.067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일상의 활력제고 안전성(0.063), 참여와 가치지향 지속가능성(0.060), 일상의 활력제고 현장성(0.054), 일상의 활력제고 경험성(0.050)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표 3-15 참조)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3-15] 공공미술의 문화경쟁력 증진 전략의 종합 중요도 및 우선순위

1계층	중요도	2계층	중요도	종합 중요도	우선순위
도시의 인상변화	0.251	상징성	0.177	0.044	10
		복합성	0.105	0.026	23
		예술성	0.134	0.034	19
		이색성	0.105	0.026	22
		지표성	0.143	0.036	17
		접근성	0.189	0.047	7
		보존성	0.148	0.037	16
일상의 활력제고	0.320	현장성	0.168	0.054	4
		순환성	0.157	0.050	6
		활용성	0.210	0.067	1
		확장성	0.110	0.035	18
		경험성	0.158	0.050	5
		안전성	0.197	0.063	2
참여와 가치지향	0.228	주체성	0.164	0.037	15
		자율성	0.182	0.041	12
		공동체성	0.197	0.045	8
		포용성	0.195	0.044	9
		지속가능성	0.261	0.060	3
시스템의 안정성	0.201	협치성	0.166	0.033	20
		안정성	0.212	0.043	11
		전문성	0.192	0.039	14
		투명성	0.196	0.039	13
		이해확산	0.145	0.029	21
		국제성	0.089	0.018	24

6) 전문가 중요도 평가 시사점

전문가에 의한 AHP분석의 결과 4가지의 공통가치영역에서 '일상의 활력 제고'가 '도시의 인상변화'보다 높은 순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전문가들은 상징 조형물, 대형 아이콘(Icon)나 인상적 가치보다는 앞으로의 공공미술이 감상적, 심미적 요소보다 활용과 경험의 요소로 작동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전체 요소 중 활용성 (0.067) 〉 안전성 (0.063) 〉 지속가능성 (0.060) 〉 현장성 (0.054) 〉 경험성 (0.050) 순으로 순위가 높았으며 전문성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0.035), 예술성(0.039)과 같은 전통적인 공공미술과는 도시활력요소로써 직접적이고 활용가능한 가치로의 전환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 1계층 우선순위



[그림 3-8] 2계층 우선순위

[표 3-16] 평가항목 기준 우선순위 (1~10)

평가항목	중요도	포함된 1계층	순위 해석
활용성	0.067	일상의 활력 제고	1위: 공간의 실용적 결합
안전성	0.063	일상의 활력 제고	2위: 주야간 활동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0.06	참여와 가치지향	3위: 공동체의 주도권 강조
현장성	0.054	일상의 활력 제고	4위: 시·공간의 맥락 강조
경험성	0.05	일상의 활력 제고	5위: 작품이 제공하는 다차원적인 경험
순환성	0.05	일상의 활력 제고	6위: 새로운 콘텐츠의 전시, 변화
접근성	0.047	도시의 인상변화	7위: 심리적 물리적 접근편의성
공동체성	0.045	참여와 가치지향	8위: 공동체 주도의 주도권
자율성	0.041	참여와 가치지향	9위: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투명성	0.039	시스템안정성	10위: 과정과 결과 공정성과 공유

AHP 분석 결과는 공공미술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전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향휴 어바니즘을 활용한 공공공미술 정책의 수립에 있어 활용성과 24시간의 안전감 등의 반영한 정책을 확산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3.2 도시 공공미술 영향력 조사

3.2.1. 조사의 목적과 방법

1)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이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실제적인 작동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앞선 AHP분석을 통하여 공공미술과 어바니즘 결합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면, 도출된 우선요소들을 활용한 구조방정식(SEM)을 설계하여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결합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조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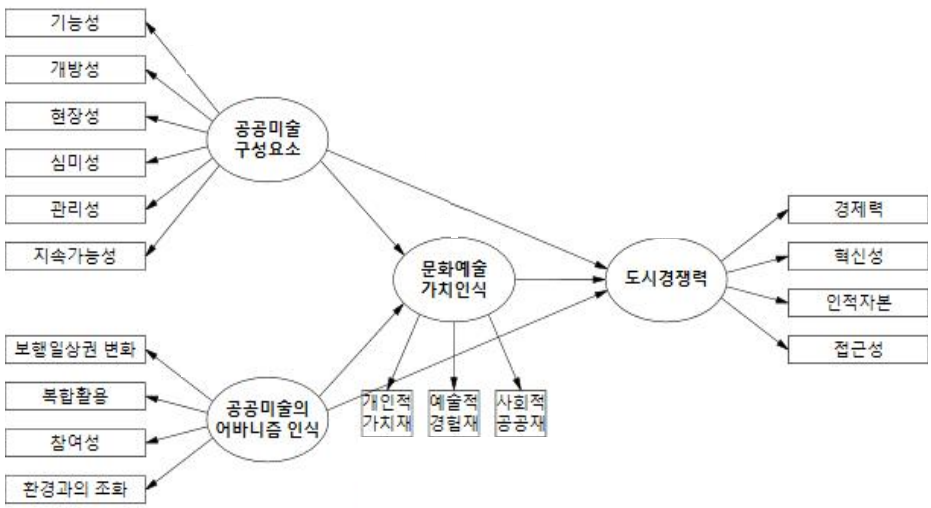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도시경쟁력 영향력의 유효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비례할당을 적용하여 310명의 서울시민의 유효표본을 활용한 시민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앞선 AHP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공공미술의 전략요소로써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최종목표인 종속변수를 도시경쟁력으로 설계하여 경로를 만들면서 경험과 활용중심의 공공미술에 대한 변화방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문화예술 경험[53] 요소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을 설계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의 전체 인구는 약 940만명으로, 대규모 모집단에 대해 통계적으로 신뢰수준 95%, 허용오차 ±5% 조건에서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약 384명(Cochran's formula 기준)[54]으로 인구비례할당에 근거한 표본 구성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53) 신은주(2022), 문화예술상품 소비자의 가치인식과 추구혜택의 개념구조 및 속성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통해 경로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 조사임을 감안하여 310명이라는 사회과학적 통계 분석에서 수용 가능한 표본 수를 설정, 조사의 정밀도를 확보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데이터스프링코리아 패널을 중심으로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으며, 설문의 결과로 얻어진 통계자료들은 SPSS 25.0와 AMOS 25.0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AMOS를 통해 구현한 조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3-9]과 같다.



[그림 3-9] 구조방정식 모형

3.2.2. 조사의 설계

1) 설문의 설계

조사의 독립변수로 설정된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문을 구성하였고, 공공미술의 요소는 체험성, 상

54) 표본 수 공식 : $n = \frac{Z^2 \cdot p(1-p)}{e^2} \div \left(1 + \left(\frac{Z^2 \cdot p(1-p)}{e^2 N}\right)\right)$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징성, 현장성을 공공미술의 기능성에 포함하였고, 안전성, 접근성, 체험성을 개방성 설문항목으로, 예술가의 자율 표현 및 상징성을 심미성 항목의 설문내용으로 구조화하여 포함시켰다. 두 번째 매개변수로써 뉴어바니즘과 N분 도시이론을 중심으로 한 어바니즘은 공공미술의 적용원칙으로 보행일상권, 공공공간의 복합적 활용, 공동체 참여,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항목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연구가설

① 공공미술 구성요소가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까?

②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이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까?

③ 공공미술 구성요소와 어바니즘 인식이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때, 문화예술 가치인식이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나) 세부가설

가설 1. 공공미술 구성요소는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기능성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개방성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현장성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심미성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관리성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지속가능성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보행일상권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가설 2-2. 복합활용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참여성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환경과의 조화는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공공미술 구성요소가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때, 문화예술 가치인식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공공미술 구성요소는 문화예술 가치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은 문화예술 가치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공공미술의 구성요소와 도시경쟁력의 관계에서 문화예술 가치인식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7.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이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때, 문화예술 가치인식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분석의 방법

도출된 자료의 분석방식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55]과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s

55)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연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기존의 이론과 가설과의 일치하는 모형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론적인 구조나 가설검증을 위해 주로 사용되며, 모델 적합도, 척도의 타당성을 통해 이론적 구조를 검증하는데 활용되는 분석방식이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correlation)과 넷째, 변수 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행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실행하였다. 다섯째,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를 검증할 것이다. 전체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가설의 증명을 위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3)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310명의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55명(50.0%), 여자 155명(50.0%)으로 구성하였고, 연령은 20세 미만부터 60세 이상까지로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에서부터 개장을 대학원 이상까지, 직업은 일반 사무직 134명(43.2%), 연구원 5명(1.6%), 전문직 18명(5.8%), 교직(교사, 교수) 10명(3.2%), 자영업/프리랜서 29명(9.4%), 공무원 5명(1.6%), 언론/방송 1명(0.3%), 학생 33명(10.6%), 엔지니어 5명(1.6%), 기타 70명(22.6%)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까지 50만원 단위구간을 적용하여 배치하였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공공미술의 역할에 대하여 함께 물었고 그 결과 공공미술 역할에 대한 중복응답으로 ‘커뮤니티의 활성화’ 79명(8.5%), ‘보행공간의 쾌적화’ 108명(11.6%), ‘공공공간의 활용강화’ 237명(25.5%), ‘지역 명소 조성’ 166명(17.8%), ‘휴식과 정서함양 지원’ 203명(21.8%), ‘버려진 공간의 재생’ 137명(14.7%)으로 나타났다. (표 3-17 참조)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3-17]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사람 수	%
성별	남 자	155	50.0
	여 자	155	50.0
연령	20세 미만	26	8.4
	20~29세 이하	36	11.6
	30~39세 이하	63	20.3
	40~49세 이하	62	20.0
	50~59세 이하	62	20.0
	60세 이상	61	19.7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1	16.5
	2년제 재학	3	1.0
	2년제 졸업	30	9.7
	4년제 재학	23	7.4
	4년제 졸업	164	52.9
	대학원 이상	39	12.6
직업	일반 사무직	134	43.2
	연 구 원	5	1.6
	전 문 직	18	5.8
	교직(교사,교수)	10	3.2
	자영업/프리랜서	29	9.4
	공 무 원	5	1.6
	언론/방송	1	0.3
	학 생	33	10.6
	엔지니어	5	1.6
	기 타	70	22.6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9	15.8
	100~150만원 미만	10	3.2
	150~200만원 미만	10	3.2
	200~250만원 미만	29	9.4
	250~300만원 미만	36	11.6
	300~350만원 미만	35	11.3
	350~400만원 미만	34	11.0
	400~450만원 미만	31	10.0
	450~500만원 미만	14	4.5
	500만원 이상	62	20.0
전체		310	100.0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4)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설계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증분적합도 지수IFI(Incremental Fit Index)[56], TLI(Tucker-Lewis Index)[57], 비교적합도 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58], 근사평균 제곱근 오차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59], 잔차평균 제곱근RMR(Root Mean Square Residual)[60] 등을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기본적인 적합도 지수인 $\chi 2$은 표본의 크기와 경로의 수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본의 수가 많고, 모델이 복잡해질 경우 대부분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낼 확률이 높아지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Bollen et al., 1993) 적합도 지수 기준은 IFI, TLI, CFI가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모형이며,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80 이상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RMSEA의 값은 .06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괜찮은 모형, .10을 넘으면 나쁜 모형을 의미한다.

---

56) 증분적합도 지수(IFI,Incremental Fit Index) :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로, 표본의 크기와 자유도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Bollen's, 1989) 0.9 이상을 우수적합도로 보고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하나 1을 초과할 수 없다.

57) 규격적합도 지수(TLI,Tucker-Lewis Index) : Tucker Lewis지수라고도 불리며, 망정식 모형의 적합도가 0.95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95% 향상됨을 의미한다.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지수적용이 더 적합하다.

58) 비교적합도 지수(CFI,Comparative Fit Index) :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Fan, Thomas,& Wang 1999)모형의 적합도를 독립모형 또는 귀무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96 또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59) 근사평균제곱근 오차(RMSEA,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 : 경로분석모델에서 모델의 복잡성과 표본크기를 고려하여 모델과 모집단 공분상 행렬간의 불일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좋으며 .08미만 또는 .05미만이어야 한다.

60) 잔차평균제곱(RMS,Residual Mean Square) : 회귀분석에서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데이터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가) 공공미술 구성요소 측정

공공미술 구성요소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x2$(df=284)의 값은 515.944 (p<.001)로 나타났고, RMR=.039, GFI=.886, RMSEA=.051로 나타났으며, IFI=.935, TLI=.924, CFI=.934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18 참조)

[표 3-18] 공공미술 구성요소 측정모형적합도

적합도 지수	x2(p)	RMR	GFI	RMSEA	IFI	TLI	CFI
측정모형	515.944 (p<.001)	.039	.886	.051	.935	.924	.934
권장기준	p>.05	<.05	≥.90	≤.08	≥.90	≥.90	≥.90

설문에 적용된 공공미술 구성요소는 총 26개의 항목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함께 각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관측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을 확인하였다. '기능성'의 요인 부하량은 .704~.773, '개방성'의 요인 부하량은 .612~.764, '현장성'의 요인 부하량 .451~.641, '심미성'은 .693~.773, '관리성'은 요인부하량 .636~.726, '지속가능성'에서는 요인 부하량이 .572~.726으로 전체 구성요소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미술 구성요소 척도의 모든 항목의 요인 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관측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념신뢰도(CR,Construct Relibility)[61]는 .60 이상, 평균 분산추출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40 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양호한

61) 개념신뢰도(CR,Construct Relibility):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의 신뢰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관측변수가 얼마나 잠재변수를 신뢰도 있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것으로 판단하는데(Fornell & Larcker, 1981),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본 모형은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표 3-19 참조)

[표 3-19] 공공미술 구성요소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B	S.E.	β	CR1)	p	CR2)	AVE
기능성	구성요소1	1.000		.704			.888	.613
	구성요소2	1.094	0.095	.705	11.468***	〈.001		
	구성요소3	1.091	0.093	.722	11.740***	〈.001		
	구성요소4	1.126	0.097	.715	11.624***	〈.001		
	구성요소5	1.257	0.100	.773	12.504***	〈.001		
개방성	구성요소6	1.000		.612			.820	.535
	구성요소7	1.094	0.112	.724	9.809***	〈.001		
	구성요소8	1.100	0.108	.764	10.144***	〈.001		
	구성요소9	0.997	0.107	.670	9.297***	〈.001		
현장성	구성요소10	1.000		.631			.743	.424
	구성요소11	0.752	0.105	.451	7.170***	〈.001		
	구성요소12	0.984	0.105	.615	9.386***	〈.001		
	구성요소13	1.006	0.104	.641	9.704***	〈.001		
심미성	구성요소14	1.000		.693			.848	.583
	구성요소15	1.049	0.094	.694	11.104***	〈.001		
	구성요소16	1.141	0.093	.773	12.231***	〈.001		
	구성요소17	1.084	0.096	.711	11.352***	〈.001		
관리성	구성요소18	1.000		.636			.803	.505
	구성요소19	1.127	0.115	.708	9.764***	〈.001		
	구성요소20	1.139	0.122	.665	9.338***	〈.001		
	구성요소21	1.304	0.131	.726	9.933***	〈.001		
지속가능성	구성요소22	1.000		.726			.850	.534
	구성요소23	1.062	0.090	.698	11.786***	〈.001		
	구성요소24	0.903	0.086	.623	10.503***	〈.001		
	구성요소25	0.888	0.092	.572	9.624***	〈.001		
	구성요소26	1.127	0.093	.720	12.155***	〈.001		

* p〈.05, ** p〈.01, *** p〈.001 /CR1)=임계비(critical ratio), CR2)=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나)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측정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적용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x2$(df=146) 값은 315.795(p<.001)로 나타났고, RMR=.039, GFI=.900, RMSEA=.061로 나타났으며, IFI=.936, TLI=.924, CFI=.935로 모두 양호한 수준의 측정값이 도출되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3-20 참조)

[표 3-20]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측정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x2$(p)	RMR	GFI	RMSEA	IFI	TLI	CFI
측정모형	315.795 (p<.001)	.039	.900	.061	.936	.924	.935
권장기준	p>.05	<.05	≧.90	≦.08	≧.90	≧.90	≧.90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은 총 1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의 결과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함께 각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관측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을 확인하였다.

통계적으로 '보행일상권 변화'에서는 요인 부하량이 .689~.743, '복합활용'에서는 요인 부하량이 .626~.745, '참여성'에서는 요인 부하량이 .607~.672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환경과의 조화'에서는 .558~.692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척도 역시 모든 항목의 요인 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관측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bility: CR)는 .60 이상,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40 이상으로 수렴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3-21 참조)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3-21]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B	S.E.	β	CR1)	p	CR2)	AVE
보행일상권 변화	어바니즘1	1.000		.743			.889	.573
	어바니즘2	0.953	0.077	.709	12.329***	〈.001		
	어바니즘3	1.060	0.089	.689	11.949***	〈.001		
	어바니즘4	1.093	0.086	.732	12.752***	〈.001		
	어바니즘5	1.090	0.089	.702	12.189***	〈.001		
	어바니즘6	1.125	0.087	.740	12.903***	〈.001		
복합활용	어바니즘7	1.000		.702			.865	.562
	어바니즘8	1.155	0.095	.735	12.176***	〈.001		
	어바니즘9	1.130	0.092	.745	12.343***	〈.001		
	어바니즘10	0.915	0.088	.626	10.431***	〈.001		
	어바니즘11	1.111	0.096	.693	11.513***	〈.001		
참여성	어바니즘12	1.000		.630			.797	.496
	어바니즘13	0.950	0.102	.607	9.351***	〈.001		
	어바니즘14	1.093	0.108	.670	10.138***	〈.001		
	어바니즘15	1.149	0.113	.672	10.156***	〈.001		
환경과의 조화	어바니즘16	1.000		.692			.816	.527
	어바니즘17	1.076	0.112	.669	9.561***	〈.001		
	어바니즘18	1.044	0.107	.684	9.723***	〈.001		
	어바니즘19	0.916	0.111	.558	8.243***	〈.001		

*p〈.05, **p〈.01, ***p〈.001/CR1)=임계비(critical ratio), CR2)=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다) 문화예술 가치인식 측정모형 적합도

매개변수로 설정된 문화예술 가치인식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χ2(df=167) 값은 390.379(p<.001)로 나타났고, RMR=.035, GFI=.884, RMSEA=.066으로 나타났으며, IFI=.917, TLI=.904, CFI=.916으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3-22 참조)

[표 3-22] 문화예술 가치인식 측정모형 적합도

적합도 지수	x2(p)	RMR	GFI	RMSEA	IFI	TLI	CFI
측정모형	390.379 (p<.001)	.035	.884	.066	.917	.904	.916
권장기준	p>.05	<.05	≧.90	≦.08	≧.90	≧.90	≧.90

문화예술 가치인식은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측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을 확인하였다. '개인적 가치재'에서는 요인 부하량이 .587~.753, '예술적 경험재'는 .573~.716으로, '사회적 공공재'는 .513~.744로 모두 3개의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가치인식 척도에서 모든 항목의 요인 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관측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bility:CR)는 .60 이상,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40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3-23] 문화예술 가치인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B	S.E.	β	CR1)	p	CR2)	AVE
개인적 가치재	가치인식 1	1.000		.732			.898	.526
	가치인식 2	0.907	0.088	.605	10.310***	〈.001		
	가치인식 3	0.920	0.080	.675	11.555***	〈.001		
	가치인식 4	1.128	0.087	.753	12.936***	〈.001		
	가치인식 5	0.890	0.082	.638	10.895***	〈.001		
	가치인식 6	0.891	0.089	.587	9.991***	〈.001		
	가치인식 7	1.013	0.087	.684	11.711***	〈.001		
	가치인식 8	0.977	0.088	.647	11.043***	〈.001		
예술적 경험재	가치인식 9	1.000		.626			.848	.529
	가치인식 10	0.960	0.109	.573	8.834***	〈.001		
	가치인식 11	1.049	0.109	.634	9.603***	〈.001		
	가치인식 12	1.145	0.111	.697	10.354***	〈.001		
	가치인식 13	1.258	0.119	.716	10.577***	〈.001		
사회적 공공재	가치인식 14	1.000		.513			.869	.493
	가치인식 15	1.050	0.146	.526	7.191***	〈.001		
	가치인식 16	1.078	0.145	.554	7.432***	〈.001		
	가치인식 17	1.070	0.142	.565	7.525***	〈.001		
	가치인식 18	1.402	0.162	.724	8.668***	〈.001		
	가치인식 19	1.399	0.161	5.728	8.694***	〈.001		
	가치인식 20	1.535	0.175	.744	8.791***	〈.001		

* p〈.05, ** p〈.01, *** p〈.001 / CR1)=임계비(critical ratio), CR2)=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라) 도시경쟁력 측정

도시경쟁력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x2$(df=203) 값은 566.802(p<.001)로 나타났고, RMR=.049, GFI=.837, RMSEA=.076으로 나타났으며, IFI=.905, TLI=.891, CFI=.905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24] 도시경쟁력 측정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x2(p)	RMR	GFI	RMSEA	IFI	TLI	CFI
측정모형	566.802 (p<.001)	.049	.837	.076	.905	.891	.905
권장기준	p>.05	<.05	≧.90	≦.08	≧.90	≧.90	≧.90

도시경쟁력에 대하여는 총 22개의 항목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 부하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경제력'은 .625~.723, '혁신성'에서는 .669~.785, '인적자본' .635~.718, '접근성'은 .714~.756 으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도시경쟁력 척도 모든 항목의 요인 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관측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5 참조)

[표 3-25] 도시경쟁력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B	S.E.	β	CR1)	p	CR2)	AVE
경제력	도시경쟁력 1	1.000		.667			.863	.512
	도시경쟁력 2	0.977	0.091	.682	10.686***	<.001		
	도시경쟁력 3	0.974	0.092	.677	10.620***	<.001		
	도시경쟁력 4	0.965	0.097	.625	9.903***	<.001		
	도시경쟁력 5	1.057	0.097	.699	10.924***	<.001		
	도시경쟁력 6	1.031	0.092	.723	11.245***	<.001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혁신성	도시경쟁력 7	1.000		.775			.887	.568
	도시경쟁력 8	0.975	0.073	.730	13.356***	〈.001		
	도시경쟁력 9	1.055	0.074	.772	14.279***	〈.001		
	도시경쟁력 10	0.985	0.068	.785	14.570***	〈.001		
	도시경쟁력 11	0.871	0.072	.669	12.081***	〈.001		
	도시경쟁력 12	0.992	0.078	.701	12.744***	〈.001		
인적자본	도시경쟁력 13	1.000		.635			.848	.528
	도시경쟁력 14	1.110	0.103	.701	10.748***	〈.001		
	도시경쟁력 15	1.184	0.108	.718	10.961***	〈.001		
	도시경쟁력 16	1.137	0.110	.665	10.299***	〈.001		
	도시경쟁력 17	1.149	0.106	.705	10.796***	〈.001		
접근성	도시경쟁력 18	1.000		.714			.883	.602
	도시경쟁력 19	1.062	0.086	.736	12.404***	〈.001		
	도시경쟁력 20	1.081	0.086	.744	12.542***	〈.001		
	도시경쟁력 21	1.099	0.089	.736	12.398***	〈.001		
	도시경쟁력 22	1.142	0.090	.756	12.745***	〈.001		

* p〈.05, ** p〈.01, *** p〈.001 / CR1)=임계비(critical ratio), CR2)=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마)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조사에 응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란 측정대상을 여러 번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 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Hair et al., 2006), 모든 조사 변수의 알파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26 참조)

[표 3-26]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문항 수	Cronbach's α
공공미술 구성요소	기능성	5	.846
	개방성	4	.784
	현장성	4	.672
	심미성	4	.810
	관리성	4	.780
	지속가능성	5	.802
	전체	26	.933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보행일상권 변화	6	.864
	복합활용	5	.827
	참여성	4	.740
	환경과의 조화	4	.741
	전체	19	.924
문화예술 가치인식	개인적 가치재	8	.864
	예술적 경험재	5	.788
	사회적 공공재	7	.823
	전체	20	.929
도시경쟁력	경제력	6	.837
	혁신성	6	.875
	인적자본	5	.814
	접근성	5	.856
	전체	22	.949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3.2.3 조사의 분석

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시경쟁력은 공공미술 구성요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633, p<.001), 공공미술 구성요소의 하위요인인 기능성(r=.587, p<.001), '개방성'(r=.540, p<.001), '현장성'(r=.531, p<.001), '심미성'(r=.543, p<.001), '관리성'(r=.309, p<.001), '지속가능성'(r=.521, p<.0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도시경쟁력'은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666, p<.001), 어바니즘 인식의 하위요인인 '보행일상권 변화'(r=.574, p<.001), 복합활용(r=.602, p<.001), 참여성(r=.548, p<.001), 환경과의 조화(r=.530, p<.001)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도시경쟁력은 문화예술 가치인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671, p<.001), 문화예술 가치인식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가치재(r=.602, p<.001), 예술적 경험재(r=.629, p<.001), 사회적 공공재(r=.618, p<.001)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화예술 가치인식은 공공미술 구성요소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763, p<.001), 공공미술 구성요소의 하위요인인 기능성(r=.671, p<.001), 개방성(r=.550, p<.001), 현장성(r=.668, p<.001), 심미성(r=.673, p<.001), 관리성(r=.417, p<.001), 지속가능성(r=.674, p<.0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화예술 가치인식은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841, p<.001), 어바니즘 인식의 하위요인인 보행일상권 변화(r=.679, p<.001), 복합활용(r=.772, p<.001), 참여성(r=.742, p<.001), 환경과의 조화(r=.678, p<.001)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3-27 참조)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3-27] 상관분석 결과표

	공공미술 구성요소	기능성	개방성	현장성	심미성	관리성	지속 가능성	어바니즘 인식	보행일상권 변화	복합활용	참여성	환경과의 조화	문화예술 가치인식	개인적 가치재	예술적 경험재	사회적 공공재	도시 경쟁력	경제력	혁신성	인적자본	접근성
공공미술 구성요소	1																				
기능성	.830***	1																			
개방성	.770***	.637***	1																		
현장성	.823***	.695***	.616***	1																	
심미성	.854***	.692***	.588***	.683***	1																
관리성	.652***	.306***	.326***	.391***	.454***	1															
지속가능성	.861***	.613***	.544***	.618***	.683***	.637***	1														
어바니즘 인식	.873***	.740***	.614***	.765***	.771***	.492***	.801***	1													
보행일상권 변화	.810***	.630***	.537***	.636***	.762***	.552***	.756***	.888***	1												
복합활용	.809***	.708***	.557***	.701***	.726***	.440***	.741***	.924***	.777***	1											
참여성	.785***	.636***	.553***	.714***	.645***	.481***	.737***	.889***	.732***	.772***	1										
환경과의 조화	.504***	.524***	.424***	.550***	.401***	.102	.424***	.657***	.345***	.530***	.532***	1									
문화예술 가치인식	.763***	.671***	.550***	.668***	.673***	.417***	.674***	.841***	.679***	.772***	.742***	.678***	1								
개인적 가치재	.723***	.617***	.497***	.633***	.660***	.424***	.633***	.793***	.688***	.714***	.719***	.559***	.929***	1							
예술적 경험재	.698***	.614***	.508***	.598***	.635***	.373***	.616***	.756***	.612***	.707***	.647***	.611***	.899***	.759***	1						
사회적 공공재	.668***	.611***	.508***	.594***	.548***	.337***	.597***	.751***	.548***	.698***	.655***	.702***	.911***	.736***	.768***	1					
도시경쟁력	.633***	.587***	.540***	.531***	.543***	.309***	.521***	.666***	.574***	.602***	.548***	.530***	.671***	.602***	.629***	.618***	1				
경제력	.569***	.533***	.427***	.472***	.523***	.279***	.485***	.620***	.535***	.567***	.515***	.478***	.651***	.600***	.616***	.577***	.901***	1			
혁신성	.627***	.549***	.508***	.519***	.548***	.368***	.514***	.651***	.607***	.592***	.536***	.434***	.586***	.535***	.550***	.529***	.912***	.787***	1		
인적자본	.539***	.525***	.504***	.463***	.434***	.217***	.437***	.571***	.460***	.509***	.457***	.533***	.612***	.536***	.587***	.570***	.911***	.739***	.756***	1	
접근성	.537***	.510***	.515***	.455***	.432***	.227***	.433***	.548***	.444***	.489***	.457***	.486***	.575***	.498***	.520***	.564***	.888***	.708***	.708***	.834***	1

* p<.05 ** p<.01 *** p<.001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2) 확인적 요인분석

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공공미술 구성요소,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문화예술 가치인식, 도시경쟁력은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묶음지표(item parceling)로 관측변인을 구성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로 평가하였다. 절대적합지수는 제안모델이 관찰된 상관관계 행렬 혹은 공분산 행렬을 얼마나 예측하는지와 연관이 있고, χ^2, GFI (Goodness -of-Fit In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증분적합지수는 IFI(Incremental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등의 지수가 있으며, 모든 증분적합지수는 기준모델과 제안모델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다. IFI, TLI, CFI 등의 지수는 1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0.9 이상은 매우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 (표 3-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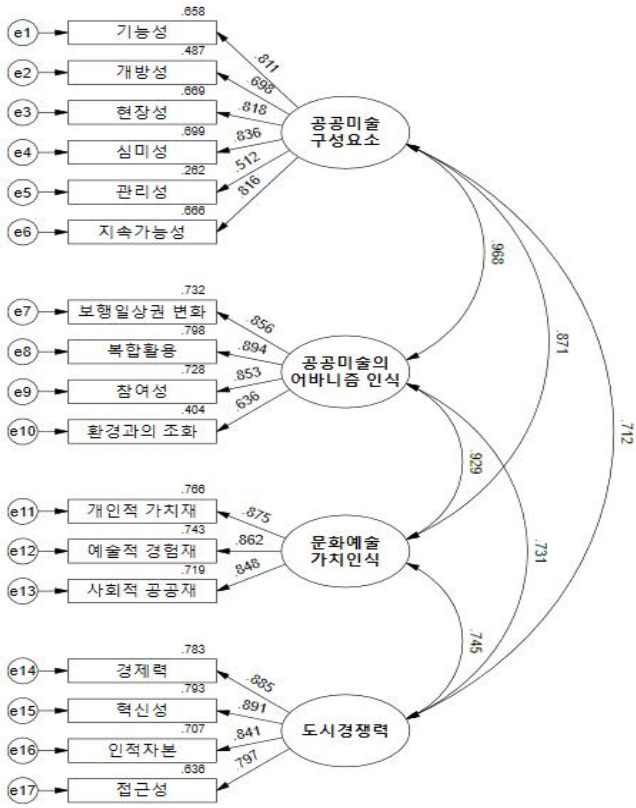
[표 3-28] 측정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x2(p)	RMR	GFI	RMSEA	IFI	TLI	CFI
측정모형	320.520 (p<.001)	.019	.887	.080	.954	.942	.954
권장기준	p>.05	<.05	≧.90	≦.08	≧.90	≧.90	≧.90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chi 2$(df=107) 값은 320.520(p<.001)으로 나타났으나, $\chi 2$ 값은 표본의 크기와 모형의 복잡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RMR=.019, GFI=.887, RMSEA=.080으로 대체로 적합하였으며, IFI=.954, TLI=.942, CFI=.954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그림 3-10] 확인적 요인분석에 따른 경로별 부하량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각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측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요인 부하량이 유의하게 나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타나 관측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bility : CR)는 .60 이상,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40 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Fornell & Larcker, 1981) 분석 결과 구성된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본 모형은 수렴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29]와 같다.

[표 3-2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B	S.E.	β	CR1)	p	CR2)	AVE
공공미술 구성요소	기능성	1.000		.811			.945	.745
	개방성	0.914	0.068	.698	13.534***	〈.001		
	현장성	0.925	0.055	.818	16.786***	〈.001		
	심미성	1.094	0.063	.836	17.317***	〈.001		
	관리성	0.689	0.074	.512	9.287***	〈.001		
	지속가능성	0.963	0.058	.816	16.735***	〈.001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보행일상권 변화	1.000		.856			.950	.830
	복합활용	1.014	0.047	.894	21.619***	〈.001		
	참여성	0.924	0.047	.853	19.819***	〈.001		
	환경과의 조화	0.650	0.060	.636	10.832***	〈.001		
문화예술 가치인식	개인적 가치재	1.000		.875			.962	.893
	예술적 경험재	0.966	0.047	.862	20.566***	〈.001		
	사회적 공공재	0.901	0.045	.848	19.825***	〈.001		
도시경쟁력	경제력	1.000		.885			.957	.846
	혁신성	1.128	0.053	.891	21.457***	〈.001		
	인적자본	0.955	0.049	.841	19.380***	〈.001		
	접근성	0.951	0.054	.797	17.579***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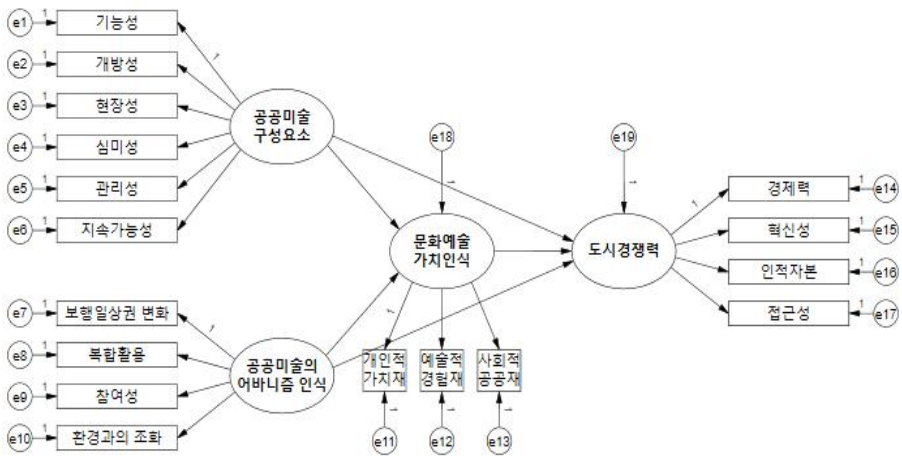
*p〈.05, **p〈.01, ***p〈.001 CR1)=임계비(critical ratio), CR2)=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3) 구조모형 검증

(1)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는 공공미술 구성요소와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이 문화예술 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 공공미술 구성요소,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문화예술 가치인식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며, 공공미술 구성요소,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과 도시경쟁력의 관계에서 문화예술 가치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의 [그림 3-1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3-11]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경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chi 2$(df=107) 값은 320.520(p<.001)로 나타났으나, $\chi 2$ 값은 표본의 크기와 모형의 복잡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Bollen et al., 1993). 그 결과, RMR=.019, GFI=.887, RMSEA=.080으로 대체로 적합하였으며, IFI=.954, TLI=.942, CFI=.954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3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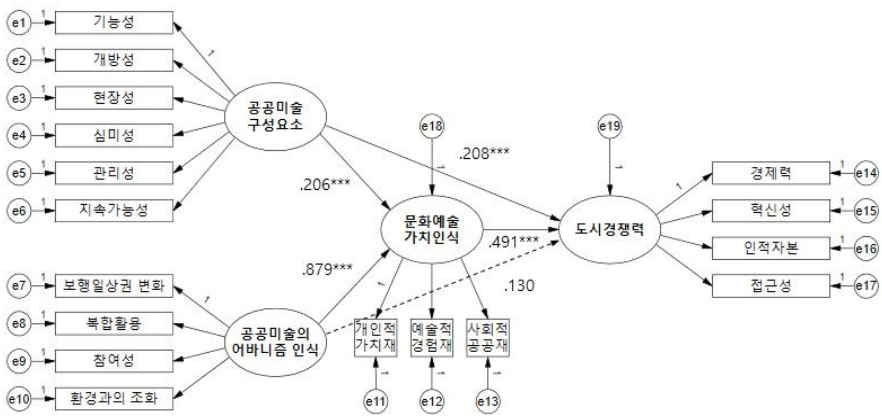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3-30] 연구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x2(p)	RMR	GFI	RMSEA	IFI	TLI	CFI
측정모형	320.520 (p<.001)	.019	.887	.080	.954	.942	.954
권장기준	p>.05	<.05	≧.90	≦.08	≧.90	≧.90	≧.90

나)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인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미술 구성요소(β=.206, p<.001)와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β=.879, p<.001)은 문화예술 가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미술 구성요소(β=.208, p<.001), 문화예술 가치인식(β=.491, p<.01)은 도시경쟁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미술 구성요소와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가치인식은 높아지며, 공공미술 구성요소와 문화예술 가치인식이 높을수록 도시경쟁력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3-31, 그림 3-12 참조)



[그림 3-12]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3-31]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			B	S.E.	β	C.R.	p
공공미술 구성요소	→	문화예술 가치인식	0.175	0.033	.206	5.311	<.001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	문화예술 가치인식	0.699	0.044	.879	15.880	<.001
공공미술 구성요소	→	도시경쟁력	0.198	0.059	.208	3.332	<.001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	도시경쟁력	0.116	0.141	.130	0.823	.411
문화예술 가치인식	→	도시경쟁력	0.550	0.186	.491	2.960	.003

* p<.05 ** p<.01 *** p<.001

다)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을 통해 밝혀진 변인 간의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좀 더 세밀히 파악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공공미술 구성요소(β=.101, p<.05)와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β=.431, p<.01)이 문화예술 가치인식을 매개하여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3-32 참조)

[표 3-32]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 로	effect	95% CI		p
		LLCI	ULCI	
공공미술 구성요소 → 문화예술 가치인식 → 도시경쟁력	.101*	0.006	0.510	.038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 문화예술 가치인식 → 도시경쟁력	.431**	0.100	1.296	.010

* p<.05 ** p<.01 *** p<.001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4) 공공미술 요소, 어바니즘 인식, 문화예술 인식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가) 공공미술 구성요소가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공공미술 구성요소의 하위요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37.169(p<.001)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42.4%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123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기능성'과 '개방성'은 도시경쟁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β=.249, p<.001), 개방성(β=.193, p<.01) 순으로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며 기능성, 개방성의 강화가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33 참조)

[표 3-33] 공공미술 구성요소가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수	B	S.E	β	t	p	tolerance	VIF
(상수)	1.024	0.197		5.202***	<.001		
기능성	0.240	0.069	.249	3.498***	<.001	.375	2.667
개방성	0.175	0.055	.193	3.177**	.002	.516	1.940
현장성	0.083	0.072	.079	1.149	.251	.402	2.488
심미성	0.096	0.065	.105	1.474	.142	.373	2.682
관리성	0.001	0.050	.001	0.016	.987	.574	1.742
지속가능성	0.143	0.074	.142	1.928	.055	.349	2.865

F=37.169(p<.001), R2=.424, adjusted R2=.413, Durbin-Watson=2.123

* p<.05 ** p<.01 *** p<.001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나)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의 하위요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66.370(p<.001)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46.5%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13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계수의 유의성검증 결과, 보행일상권 변화, 복합활용, 환경과의 조화는 도시경쟁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의 조화(β=.323, p<.001), 보행일상권 변화(β=.323, p<.001), 복합활용(β=.178, p<.05) 순으로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며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의 보행일상권 변화, 복합활용, 환경과의 조화가 높을수록 도시경쟁력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3-34) 참조.

[표 3-34]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tolerance	VIF
(상수)	0.746	0.198		3.777***	<.001		
보행일상권 변화	0.297	0.066	.323	4.468***	<.001	.336	2.974
복합활용	0.168	0.075	.178	2.243*	.026	.280	3.576
참여성	0.003	0.072	.003	0.041	.968	.330	3.030
환경과의 조화	0.337	0.054	.323	6.228***	<.001	.650	1.539

F=66.370(p<.001), R2=.465, adjusted R2=.458, Durbin-Watson=2.134

* p<.05 ** p<.01 *** p<.001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다) 문화예술 가치인식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 가치인식의 하위요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85.179(p<.001)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45.5%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110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공차 한계(tolerance)는 모두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개인적 가치재, 예술적 경험재, 사회적 공공재는 도시경쟁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적 경험재(β=.282, p<.001), 사회적 공공재(β=.254, p<.001), 개인적 가치재(β=.201, p<.01) 순으로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화예술 가치인식의 개인적 가치재, 예술적 경험재, 사회적 공공재가 높을수록 도시경쟁력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3-35) 참조

[표 3-35] 문화예술 가치인식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tolerance	VIF
(상수)	0.806	0.190		4.235***	<.001		
개인적 가치재	0.209	0.073	.201	2.879**	.004	.366	2.729
예술적 경험재	0.300	0.078	.282	3.824***	<.001	.328	3.050
사회적 공공재	0.281	0.078	.254	3.582***	<.001	.355	2.820

F=85.179(p<.001), R2=.455, adjusted R2=.450, Durbin-Watson=2.110

* p<.05 ** p<.01 *** p<.001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5) 가설검증 결과

연구의 모형을 통해 앞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미술 구성요소, 어바니즘 원리, 도시경쟁력 간 연결구조 내에서의 경로의 수는(Path Frequency)와 연결의 강도(Connection Strength), 공통의 가치 달성정도를 반영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공공미술 요소는 어바니즘 요소와 총 연결경로 42개로 연계성이 강한데, 특히 '공간활용성 강화' 측면에서 9개의 어바니즘 요소와 직접 연결성이 확인되어 연결강도 70점으로 공공미술요소가 어바니즘의 공간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미술 요소는 도시경쟁력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인 연결경로 21개인데, 그 중 '예술적 인상'의 구성요소는 3.5개의 도시경쟁력 요소와 매개변수 없이 직접적인 연결성을 가짐으로써 공공미술이 작용할 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결합은 도시경쟁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공공미술과 어바니즘 결합요소는 단독적으로 볼 때, 어바니즘 요소는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였으나 공공미술요소와 결합될 경우 연결경로의 수가 평균 1.5배 이상 높아졌으며 공동가치로 제시된 '도시의 인상변화', '일상의 활력제고', '참여 및 가치지향' 등의 4개 가치의 목표를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전략적 결합은 연결경로 58개를 충족하고 연결강도 96.7점으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의 모형에서 설정하였던 세부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3-36]과 같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표 3-36]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종합

	가 설	결과
1	**공공미술 구성요소는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	기능성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개방성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현장성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4	심미성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5	관리성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6	지속가능성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1	보행일상권 변화는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복합활용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참여성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4	환경과의 조화는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	**문화예술 가치인식은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	개인적 가치재는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	예술적 경험재는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3	사회적 공공재는 도시경쟁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	**공공미술 구성요소는 문화예술 가치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5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은 문화예술 가치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6	**공공미술 구성요소와 도시경쟁력의 관계에서 문화예술 가치인식이 매개할 것이다**	**채택**
7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과 도시경쟁력의 관계에서 문화예술 가치인식이 매개할 것이다**	**채택**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3.3.4 소결

AHP 분석을 통해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도시경쟁력 달성 전략의 중요도를 측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통해 각 요소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AHP 분석에서는 전문가들은 공공미술의 경쟁력 요소 중 '경험성(0.098)', '현장성(0.074)', '주체성(0.069)'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평가한 것과 대비하여 '문화예술 가치인식'이 없는 현장성과 심미성은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없음이 발견되어 두 조사의 결과를 연계 분석하면 다음의 [표 3-37]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37] 각 조사결과의 주요 결론 연결해석

AHP (전문가 판단)	SEM (시민 인식)	연결 해석
1위 : 경험성 (0.098)	도시문화 향유 β = 0.732	전문가와 시민 모두 '경험' 중심적 공공미술의 중요성 강조
일상의 활력 제고 (1계층 우선순위)	도시문화 향유 → 도시경쟁력 (β = 0.651)	AHP에서 강조된 감성적 일상성 가치가 시민 인식과 정합
활용성, 현장성, 안전성 등 체험·실용성 강조	공공미술 전략이 직접적으로 도시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	전문가 판단과 시민 경험 간 인과구조 일치

즉 실제 예술의 경험에 대한 향유자적 관점의 제공의 필요하며, 공공미술의 전략 구성에 있어 '일상에서 체감되는' 도시적 공공미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미술을 단순한 심미적 기호로써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도록 감성적 체험과 의미 형성을 유도하는 참여형 문화매개체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시민 310명을 대상으로 한 SEM 분석 결과, '공공미술 전략 → 도시문화 향유(β = 0.732, p< .001)', '도시문화 향유 → 도시경쟁력(β = 0.651, p< .001)'로 이어지는 경로가 가장 강하게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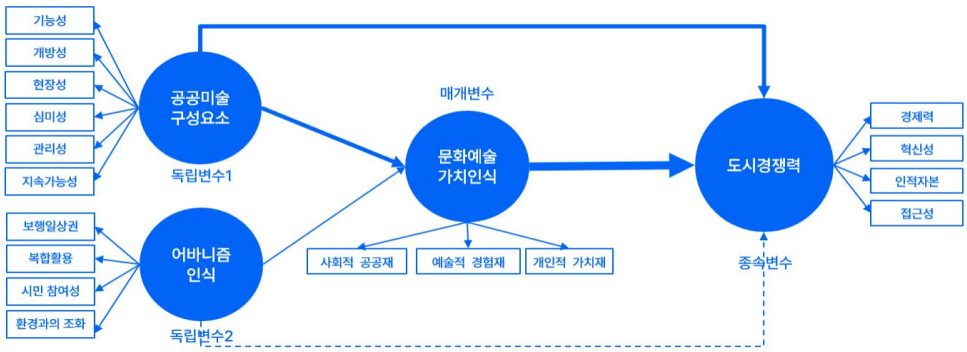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확인되였으며, 공공미술 전략의 경우 독립적으로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β = 0.208, p<.05)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공미술' 자체가 도시의 경쟁력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표 3-38 참조)

[표 3-38] 주요 인과관계 확인 경로

인과관계 경로	표준화 계수 (β)	유의수준
공공미술 전략 → 도시문화 향유	β = 0.732	*** (p<.001)
도시문화 향유 → 도시경쟁력	β = 0.651	*** (p<.001)
공공미술 전략 → 도시경쟁력 (직접효과)	β = 0.208	* (p<.05)

특히 구조방정식 모델(SEM) 분석결과로 공간의 활용성 강화와 예술의 일상성 강화, 지역의 특성 발견의 필요성이 도출되었고, 가설에 있어 근소한 점수차로 기각된 어바니즘은 공공미술의 결합전략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두 개념의 상보적 관계는 결합을 통해 도시경쟁력에 대한 정(+)적 영향력 경로의 수를 단독경로 대비 30% 증가시킬 뿐 아니라 요소간의 매개효과를 통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1.5배 이상 강해짐이 확인되었다.



[그림 3-13] 변수 간 인과관계의 정도

따라서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전략적인결 합의 유효성과 도시경쟁력 달성의 가능성을 지원하는 도시의 공공미술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도시에서의 예술 경험 확대와 보행접근이 가능한 일상공간을 활용 강화, 개인적 가치향유를 지원하는 공공미술로 도시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위한 문화정책의 진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본 연구는 어바니즘과 공공미술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으로 실제 결합을 통한 효과측정이 된 사례가 부존재 한다는 데이터적 한계점은 향후 통계적인 접근방식으로 두 개념의 결합력에 대한 다층적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미술의 적용부터 성과 확인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화예술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례에 대한 연차별 영향력 평가와 누적된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분명한 영향력과 효과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3.4 도시공공미술(Urban Public Art) 개념화

앞선 연구와 조사의 과정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어바니즘과 공공미술의 진화방식과 가치 지향성(value orientation), 시민주도의 참여방식(Citizen-led participation), 공공공간의 활성화(vitalization of public space), 장소적 정체성 강화(Emphasis on Place identity) 등의 공통요소가 다수 발견되었고 구조방정식의 결과 두 영역간의 유사도가 높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예술적 표현으로써의 공공미술이 도시공간에 적용될 시 각 도시가 지향하는 어바니즘 원칙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공공미술 요소와 어바니즘이 함께 작동할 때 도시경쟁력의 상승효과가 큰 것을 영향력 평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문화적 향유와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두 영역을 통합하여 '도시 공공미술(Urban Public Art)'의 개념을 제안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도시공간의 활용방식에 맞는 문화예술 콘텐츠로써의 공공미술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3.4.1. 도시공공미술의 개념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도시공공미술(Urban public art)'이란 '대도시 공간에 적용되는 공공미술의 하나로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지향성을 반영하고 합목적적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도시공간에 개입하는 정책화된 공공미술'을 뜻한다. 영어적 표현으로는 Urbanism과 Public Art의 결합어로써 Urban Public Art로 사용하였고, 한국어로는 도시이론과 공공미술의 결합어로써 '도시공공미술'이라 명칭하였으며 정책유형으로는 공공미술 사업에 속하며 공공미술의 새로운 실행유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일반적인 공공미술의 개념을 확장하여 정책에 유기적인 시스템으로써의 '도시'가 가지는 물리적 구조, 시스템적 가치지향성을 녹인 전략이자 예술표현의 방법이며. 도시민의 삶과 밀착적으로 작동하여 예술적 독창성과 심미성, 시대에 따른 가치변화와 경험가능성을 작품의 구현과정이나 기본계획에 도입한다. 기본계획,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 활용, 지속가능한 행정적 지원체계의 3개 특성에 기반하여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높이기 위한 공공미술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3-39] 도시공공미술과 공공미술, 어바니즘의 개념차

	공공미술 (Public Art)	→	도시공공미술 (Urban Public Art)	←	어버니즘 (Urbanism)
목적 (Objectives)	미적 경관 상징적 장식 중심	→	도시경쟁력, 삶의 질 향상, 장소 활성화	←	도시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적용단계 (Application Stage)	계획 완료 후 별도 설치	→	계획 초기부터 통합적 적용	←	계획 초기부터 도시 구조·디자인에 적용
참여방식 (Participation)	수동적, 작품성 보완방법으로 활용 제한적 관람	→	능동적 참여 시민의 협력 필수	←	시민의 참여 필수 거버넌스 강조
공간 개념 (Spatial Concept)	독립된 사이트 중심	→	도시 전체 대상 지역 맥락 통합 고려	←	도시 전역, 지역 통합적 공간 설계
접근성 (Accessibility)	미적 관람 중심 제한적 접근성	→	보행친화적 접근성 일상 속 예술 경험 제공	←	보행중심성 도시의 효율화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문화 향유 예술적 가치 중심	→	사회적 공공성 공동체 활성화 지역 정체성 형성	←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포용성 주민친화성
경제적 가치 (Economic Value)	간접적 목표, 제한적 자산적 가치	→	경제 활력 증진 도시이미지 제고 문화적 부가가치	←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진흥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미학적 보존, 문화적 유산화	→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동시 추구	←	장기적 도시 발전 지속가능성 핵심 가치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도시공공미술과 전통적인 공공미술의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 시스템적 공공미술로써 도시의 일상성에 기반한 공공미술로 전통적 공공미술과의 차별점을 도출하면 다음의 [표 3-40]와 같다.

[표 3-40] 전통적 공공미술과 도시공공미술의 차별점

〈 전통적 공공미술 〉		〈 도시공공미술 〉
환경 미화 요소 조성이 완료된 공간을 채우거나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	⇒	**계획 요소** 공간 조성 초기부터 통합계획 마스터플랜에 의한 방식
도시 장식요소 낙후 환경 미화, 장식적 조형물 설치	⇒	**도시 구성요소** 도시공간 계획에 포함되는 기본개념
독립적 상징적 요소 심미성 중심의 독립적 작품	⇒	**일상적 요소** 개방성과 접근성이 있는 예술
작가의 영역 미술작품으로써의 독립영역	⇒	**시스템 영역** 구조화된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는 체계화된 미술
미학적 가치지향 작품과 작가위주의 현대미술적 가치	⇒	**사회적 가치지향** 도시와 시대의 가치철학을 공유하는 도시공간과 사회관계적 미술

앞선 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른 조사분석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미했던 어바니즘 요인이 공공미술 또는 문화예술적 경험과의 결합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통계적 결론을 근거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공공미술을 '도시공공미술'로 시스템화 함으로써 확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3.4.2. 도시공공미술의 방향성

도시공공미술의 지향적 가치와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공공미술과의 차별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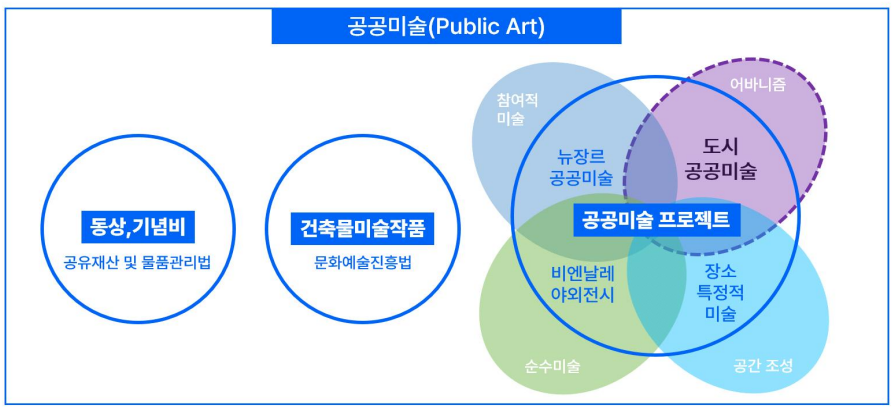
[표 3-41] 도시공공미술의 전통적 공공미술과의 차별점

	공공미술 (Public Art)	도시공공미술 (Urban Public Art)
공통성	· 예술가의 창작권 보전 · 공공미술의 고유한 특성인 장소특정성, 시민참여 · 공공미술을 통한 고유한 장소적 정체성 발견, 장소의 의미·경험 가치 증진	
목적	· 도시경관의 향상, 미적 장식 · 커뮤니티와 상징성 강조 · 작가의 창의적 표현을 통한 미적 수준 향상과 예술적 의미 강조	· 도시경쟁력 향상, 삶의 질 제고, · 문화수준 향상, 경제 활성화, · 사회적 통합 등 종합적 가치평가
향유방식	예술작품의 감상	예술의 향유와 경험
작 가 군	순수미술 중심	미술, 건축, 디자인, 조경, 퍼포먼스 등
주요가치	작가의 세계관에 따른 작품 중심	도시의 가치철학에 근거한 예술
작품형태	순수미술 관련 장르로 구분	복합 설치, 시설, 공간, 미디어 등 복합
적용시점	공간조성 후, 도시재생 시설 도시계획 후반부 또는 완성 후 추가 설치	도시 개발 시점, 공간조성 연계 도시계획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설계
시 스 템	프로젝트 발생 시 구성, 한시적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Artist 중심의 프로세스	Design 프로세스 도입
행정지원체계	고정 조형물·벽화 위주 설치 (Static installation)	유연한 프로젝트, 생애주기 적용 프로그램, 이벤트 융합 다원적 접근
정책연계성	소극적	적극적
계획.결과	작가의 창작, 비평	도시공간 변경계획, 효과평가
적용정도	선택적	필수적
확장가능성	자율적인 확장 가능	정책적 연결 규모 확장성 내재

도시공공미술은 어바니즘원리와 결합하여 사회적 공공재, 예술적 경험재, 개인적 가치재로써 예술적 경험을 제공함에 의미가 있다. 이 점은 1980년대 도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시개발계획에 미적인 장식요소를 도입하였던 도시계획 속의 미술(Public Art In Urban planing)의 수동적 태도를 넘어 시민들의 직접참여와 지속가능한 도시의 가치지향성을 반영한 공공미술의 도시적용 원칙이다. 전통적인 공공미술의 방식을 넘어 도시의 철학과 시대의 가치지향성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공간에 전략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이 강화된 향유의 방식과 안정적인 시스템에 기반한 발전적 공공미술의 형태이다.



[그림 3-14] 공공미술과 도시공공미술의 속성과 포지셔닝(Positioning)

[그림 3-1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도시공공미술의 범위는 전체 공공미술의 범위 안에 일부를 차지하며 특징적으로 도시의 시설적, 시스템적, 정책적 환경에 적응성을 갖추는 방식이다. 예술품 설치만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미술관의 관습을 도시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도시의 시스템으로써의 '시간성'의 개념의 도입과 다차원적 가치창출 (Multi dimensional Value Creation)을 위한 체계적, 계획적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시민의 일상과 조우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공공미술로 발전할 수 있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3.4.3. 도시공공미술의 특성요소와 기본원칙

1) 도시공공미술 특성요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도시공공미술은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이론의 공통적 가치추구의 방향을 도시공간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앞선 AHP 분석에서 도출된 우선요소와 구조방정식을 통해 증명된 가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전통적 공공미술의 원칙에서 발전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특성요소를 추출하였다. 이 특성요소는 현재 도시공공미술의 지표로 활용된 뉴어바니즘과 N분 도시이론의 핵심가치를 지향하고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되었다. 이 요소는 넓은 범주의 전통적 공공미술의 요소와 어바니즘 원리가 결합된 발전적인 요소로써 용어 표현의 일반성을 넘어 일부 특징적 기능성이 부여된 개념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각 특성요소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 [표 3-42]에 정리하였다.

[표 3-42] 도시공공미술의 특성요소

추가 요소	설 명
통합성 **(Integration)**	도시계획과 정비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도시공공미술이 공간점유 면적과 방식을 기능적으로 결합하여 도시 전체와 조화가능성 점검
다변적 접근성 **(Accessibility)**	일상 공간에서 N분간의 보행으로 접근성(walkability)가능한 일상공간, 24시간 안전하게 열린 야간 문화환경 개방, 공간활용 강화
콘텐츠 순환성 **(Curculation)**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콘텐츠의 순환. 미디어나 전시의 운영 지속가능성과 플랫폼으로써의 도시공간 활용, 신중한 영속적 점용 진행
지속가능한 시스템 **(Sustainability)**	공공미술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효과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가치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PRO HOMINUM BENEFICIO · 1946

가) 통합성 (Integration) : 계획에서 부터의 공공미술 기획 적용

N분 도시이론의 대표적인 원리의 하나로 보다 완결성이 있는 생활반경을 만들고자 하는 도시회복적 가치를 설명한다. 카를로스 모레노(2021)[62]는 복합성(mixté)의 개념을 통해 공간기능의 복합성(주거, 상업, 문화, 교육, 건강)과 이용자들의 다양성,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의 통합성(Integraion)[63]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과 통합의 개념은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서 다학제적(Mutidicpline) 관점을 통합하는 과정으로써 전체 계획단계부터 공공미술과 젝트와 그랑 익스프레스 파리 프로젝트(Grand Express Paris)에서 적합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두 프로젝트 모두 도시계획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예술감독을 선임하여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공간의 구성방식을 고려한 종합적 마스터플랜(Manster plan)을 수립하였다. 수퍼킬른 프로젝트의 경우 문화예술명소 조성을 하고자하는 계획에서 출발하였으나 파리의 신역사(新驛舍) 조성 사례의 경우 보다 진화된 방식으로 복합적인 개발계획과의 역할분할을 통해 체계화된 프로세스를 제안한 점은 주목할만 한다.

나) 다변적 접근성 (Multiple Accessibility) : 24시간, 일상공간 적극활용

접근성은 뉴어바니즘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재 도시공간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뉴어바니즘 선언(1996)[64] 에서 제시된 접근성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이용성'으로 보행친화성과, 대중교통의 활용,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설계 등의 물리적 접근성을 설명하고 있고, 도시에서의 시간성을 연구한 Abdelfattah(2025)[65]는 야간도시에서의 도시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62) Moreno, C. (2021). "The 15-Minute City: A Solution to Saving Our Time and Our Planet", MDPI Land.
63) Moreno, C, (2021) Ibid.
64) http://www.cnu.org/resources/charter-new-urbanism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심리학자인 올가조토바는(Olga Yu. Zotova,2024) 공공공간에서 느끼는 도시민의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ecurity)이 공격성 감소와 심리적 장애를 저감함으로써 공간과 사람 모들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설명하며 녹지공간의 활용과 공간디자인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다변적 접근성은 그간 공간의 접근성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GCPI(Global Power Index)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 서울이 7위에서 6위로 1계단 상승한데에는 야간의 활동성(Nignt Life)과 안전한 환경이 핵심을 이루었는데, 이 내용은 3장에서 진행한 요소중요도 분석(AHP)에서의 안전성(24시간 감상의 안전감)이 상위요소(2위)로 선정된 것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야간환경을 활용한 축제의 확대와 미디어아트, 라이트아트의 매체적 변화를 고려해면 시간과 관련된 요소의 반영은 필수적이다. 보행성 강화와 시간개념 도입은 어바니즘과 도시계획에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공공미술 향유방식을 결정 하고(Ran Tan,2024)[66] 확장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도시공공미술에서의 접근성이란 물리적, 심시적 접근성과 함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고유의 현장성과 체험, 체감적 요소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현장성과 경험성은 권미원(M.W.Kwon)(2002[67])이 공공미술의 필요요소로 언급한 체험적 활성화(Experiential activation)의 개념과 일치하며 장소특정적 공공미술이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공간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상호작용

65) The Right to the Night City: Exploring the Temporal Variability of the 15-min City in Milan and Its Implications for Nocturnal Communities,

66) Walking in Tandem with the City: Exploring the Influence of Public Art on Encouraging Urban Pedestrianism within the 15-Minute Community Living Circle in Shanghai,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Interaction)으로써 다양한 접근과 주야간의 활용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2001)[68]가 주장한의 인식공간(perceived), 개념공간(conceived)', 활용공간(lived)의 의미와 에드워드 랠프(Edward Relph (1976))[69]가 주장한 장소가 가지는 현실적인 장소감(sense of Place)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을 수동적 감상자에서 직접적 사용자로 보다 쉽께 접근하고 편안하게 현장을 즐길 수 있는 기능적 지원성을 가진다.

다) 콘텐츠의 순환성 (Curculation) : 신중한 점용과 콘텐츠의 순환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며 대도시의 도심은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한 밀집도와 구조화된 체계를 갖추어 조성된다. 따라서 공공미술이 도시공간에 개입이 될 때 그 면적과 점용방식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특히 전통적인 공공미술의 방식에서 제기되는 영구적 설치(Permanent Installation)의 문제는 작품의 생애주기(Life Span)를 설정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박재은,2023) 특히 작품의 철거 또는 소멸의 문제에 있어 일정기간의 '전시물'로써의 공공미술 도입은 재료적 한정성의 극복과 실험과 창의의 발현을 지지하는 시스템으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순환성은 물리적 공간점용에 대한 순환가치 이상으로 일정 주기마다 새로운 얼굴의 미술품을 맞이하는 콘텐츠의 변화를 수반하며, 살아있고 관리되는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앞으로 열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따라서 순환성이란 물리적인 점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더불어 도시를 캔버스로 활용하는 공공미술 정책에 N 분 도시이론의 바탕이 된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

68) Henri Lefebvre (1991). The Production of Space.(D. Nicholson-Smith, Trans.). Oxford: Blackwell.
69) Edward Relph (1976)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로 그 순환주기를 다양화 함으로써 축제, 미디어아트 전시 등 체감도가 높고 콘텐츠의 순환주기가 빠른 표현에서부터 한시적(1~5년) 전시를 개념적으로 지원한다. 즉 점용에서 활용으로, 소장적 가치에서 경험적 가치로의 전환을 통해 현대 어바니즘이 지향하는 지속가능성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 공공공간의 활성화, 인프라의 활용성과 자원의 낭비요소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활력제고에 중요한 가치로 인정된다.

라) 안정적 지원체계 (Sustainability) : 협치의 과정화, 정책 확대의 기반

많은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공적인 프로젝트에는 계획의 면밀성과 운영체계의 합리성이 전제됨을 확인하였고, 지속적인 콘텐츠 운영을 위한 협업체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시민의 삶의 질은 한번의 사업이나 정책으로 안정화되기 어렵고 중장기으로 다양한 체계를 갖추어 실행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또한 전시된 작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은 설치의 중요성 만큼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안정적 지원체계는 공공미술정책에 근본적인 출발점을 이룰 뿐 아니라 현재 공공미술 확산의 체계예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 개념은 공공행정의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성립하기 어려운 공공미술을 프로세스와 지원체계를 시스템화하는 내용으로 전통적 공공미술을 체계화된 도시계획 이론인 어바니즘과의 결합을 시도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전체 공공미술 정책의 프로세스의 체계화, 도시의 지향성과 일치성 강화, 주체와 자본 확대를 위한 협업방식, 아티스트를 위한 법률적 지원책, 도시정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등은 UN이 발표한 창의도시 모니터의 핵심적인 평가요소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며 단발성의 장식 미술설치에 그치는 공공미술 정책의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PRO HOMINUM BENEFICIO · 1946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된다. 도시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적 공공미술 체계는 집객과 관광객을 위한 미술에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과 활력을 지원하는 예술로 전환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여야 한다.

2) 도시공공미술의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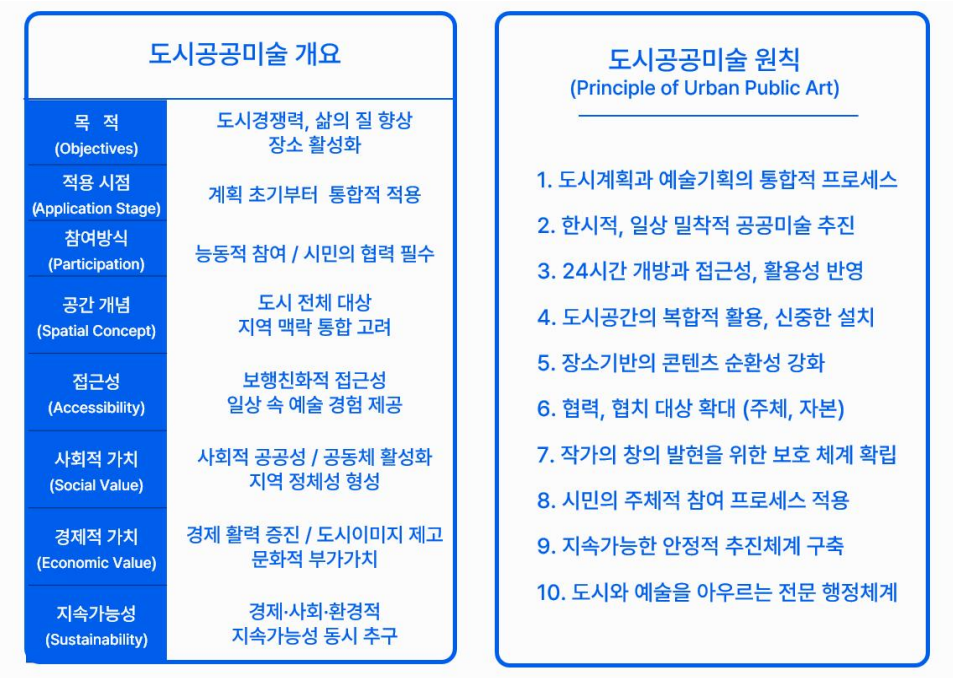
앞서 도출된 도시공공미술의 4개의 특성요소와 공공미술의 기본요소인 작소 특정성과 작가의 창의성의 2개의 요소를 적용하고, 어바니즘, 공공미술, 도시 경쟁력 모두에서 기본적인 가치로 지향하고 있는 주체적 참여성, 환경친화성의 2개의 요소를 대입하여 총 8개의 도시공공미술의 기본원칙을 도출하였다. 도시공공미술의 구성요소 8개를 제안하였는데 각 요소별 성격과 세부 내용은 [표 3-43]와 같다.

[표 3-43] 도시공공미술의 8개의 구성요소

공공미술 기본요소	장소 특정성 (Site Specific)	장소 고유의 의미를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장소의 정체성과 작품설치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요소
	작가의 창의성 (Creativity)	공공미술의 핵심요소로 주문된(ordered) 목적성과 관계없이 각가의 자율적인 창의와 상상력 표현
도시 공공미술 특성요소	통합성 (Integration)	공간의 복합성, 이용의 다양성을 종합화하여 체계적인 연결, 계획하기 위한 개념
	다변적 접근성 (Accessibility)	시간과 공간의 접근 한계의 극복과 작품 경험을 위한 심리적 물리적 안전감
	순환성 (Curculation)	한시적 점유와 작품 순환전시, 활성화 이벤트 등 장소와 시간점유의 한정을 통한 활력제고 방안
	지속가능한 시스템 (Sustainability)	도시공공미술의 시스템화를 통한 타 영역, 타 주제와의 협력유지와 정책의 안정성 제고
기본 가치요소	주체적 참여성 (participation)	도시민의 적극적인 도시권(Right to the City의 행사를 통한 공공미술의 직접개입 강화
	환경 친화성 (Eco friendliness)	국제적 의제(Global Agenda)의 지향과 지구를 위한 환경 친화 지향적 예술 추구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도시공공미술이 공공미술의 하나의 실행유형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도시공공미술이 추구하는 방향과 참여방식, 공간활용 개념, 적용방식 등의 주요 지향점을 적용한 '도시공공미술' 10개의 원칙을 정리하여 [그림 3-15]와 같이 구성, 제시하였다.



[그림 3-15] 도시공공미술의 개요와 도시공공미술 10개 원칙

도시공공미술은 어바니즘과 결합된 도시적합형 공공미술의 체계로 도시단위의 관리주체인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행되며, 각 도시가 추구하는 도시발전의 목효, 철학의 방향, 도시의 인구적, 구조적, 산업적 특성 등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주제와 방식으로 수립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목적성을 부여한 도시형 공공미술로써 미술작품을 개별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도시의 변화와 연결하여 계획하고 실현하는 특성이 있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제 4 장 도시공공미술 전략제시

본 장에서는 3장의 통계적 조사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도시공공미술'에 개념을 한국의 공공미술 정책변화에 활용하기 위한 사례 분석과 정책제안을 진행한다. 또한 전문가과 현장실무자의 FGI를 통해 제안된 정책의 발전가능성과 실현가능성애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검증을 을 통한 공공미술의 영향력과 어바니즘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시공공미술'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도시공공미술의 특성을 체계화화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도시공공미술 정책을 제안한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도시공공미술' 의 특성요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도시의 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대상은 2020년 전후 도시기본계획 내 어바니즘이론을 적용한 도시 중 도시의 조건이 서울과 유사한 파리, 뉴욕, 코펜하겐, 뉴욕, 서울, 멜버른의 6개의 도시이며, 각 도시에서 진행된 최근의 공공미술 정책사례 10개를 선정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각 사례들은 앞서 도출된 도시공공미술의 구성요소인 8개의 개념(장소특정성, 작가창의성, 통합성, 다변적 접근성, 순환성,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관련 상위 정책과의 연관성과 재원특성 등을 포함하여 각 사례들의 특성을 평가하여 도시경쟁력 증진과의 연결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사례분석 결과를 통해 얻어진 전략 중 한국에 도입가능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도시공공미술'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의 현행 공공미술의 제도적, 정책적 현황을 바탕으로 도시공공미술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구조, 도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시공간의 활용, 실현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하여 한국에서 작동가능한 '도시 공공미술' 추진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통해 제시하였다. 넷째. 제안된 전체 전략과 구성된 내용에 대하여 공공미술과 관련된 국내 대표 전문가 그룹 6명, 실행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는 현장 실무자 그룹 5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안된 전략의 적합성, 실행의 타당성 검증 뿐 아니라 향후 도시공공미술의 발전 또는 도입 가능한 추가의견을 수렴하는 FGI를 진행하였다.

본 장을 통해 한국의 공공미술 시장에 '도시공공미술'이라는 또 하나의 정책 영역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각 도시의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도시공공미술의 기본 프레임을 제안하였다. 용어의 이해와 실행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도시정책과 조우하는 공공미술의 발전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여 적용되는 어바니즘의 원리와 함께 도시에 적용됨으로써 미술적인 가치를 넘어 도시, 건축, 경관, 사회문화적 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공공미술로의 발전가능성을 제안한다. 본 장의 진행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4장 연구의 흐름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4.1 도시공공미술 실증분석

도시공간에서의 공공미술은 단순한 조형물 설치나 벽화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공간에서의 예술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도시의 가치지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된 '도시공공미술'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사례를 평가함으로써 실제 도시공공미술의 기본원칙이 반영되고있는 정도를 분석하고, 서울과 유사한 규모의 선진도시들의 적용사례들에서 도출된 경향성과 특화전략을 파악하여 향후 한국의 발전적인 정책제안에 활용한다.

4.1.1 조사의 범위

1) 조사 대상 도시 1차 선정

2020년 이후 전후에 N분 도시이론을 도시기본계획, 도시비전, 도시 문화진흥계획 등에 반영한 도시로 2018년 UN 세계 도시화 전망[70]의 도시 분류기준에 따라 인구 규모가 100만 이상으로 분류하는 대도시로 한정하였다. 도시기본계획에 N분 도시이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도시계획화 한 도시 중 파리, 바르셀로나, 코펜하겐, 멜버른, 시드니, 뉴욕, 서울 7개 도시를 우선 선정하였다. 또한 2000년대 대표 도시이론이자 N분 도시이론의 기초이론으로써 뉴어바니즘과 인간중심의 효율적 도시를 지향한 콤팩트시티 이론을 반영한 런던, 도쿄, 시카고, 싱가폴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도시를 1차 후보로 선정하였다. 각 도시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핵심요소를 분류해 보면 다음 [표 4-1]과 같다.

70)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 highlights. 2018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표 4-1] 1차 선정된 도시의 도시계획과 적용된 어바니즘 원리

대륙	북 미	
도시	뉴욕	시카고
어바니즘	15-minute city 시범 도입	15분 도시
관련계획	One NYC 2050	We Will Chicago

대륙	유 럽			
도시	런던	바르셀로나	파리	코펜하겐
어바니즘	인간중심 디자인도시	슈퍼블럭	15분 도시	5분 도시
관련계획	London Plan 2021	Super block	Le Paris du 1/4 heure	CPH 2025 Clima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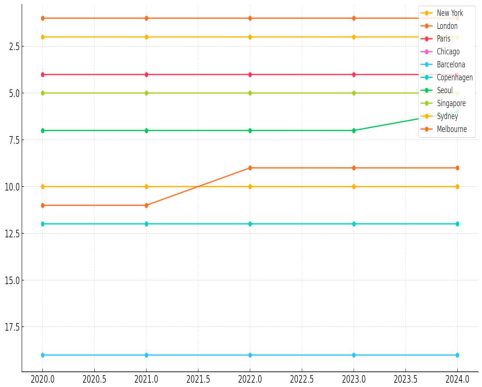
대륙	아 시 아		
도시	싱가폴	서울	도쿄
어바니즘	10분 내 공원접근, 탄소중립	10분 도시	컴팩트 시티
관련계획	SIngapore Green Plan 2030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3차 문화진흥계획

대륙	호 주	
도시	시드니	멜버른
어바니즘	30-minute city + 15분 생활권 복합모델	20분 도시
관련계획	VIVID Sydney	Council Plan 202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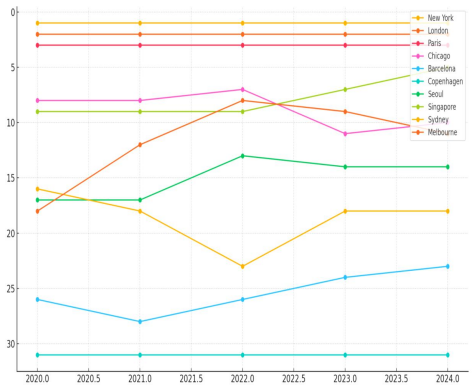
2) 조사 대상 도시 2차 선정

1차로 선별된 11개의 도시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문화, 도시환경 등의 내용을 고루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도시경쟁력지표로 커니의 GCI(Global Cities Index, Kearney)와 모리의 GCPI(Global City Power Index)의 두 개의 지표를 적용하여 샘플도시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11개 도시 모두 두 개의 경쟁력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최근 5년간의 데이터가 존재하였다. (그림 4-1, 그림 4-3 참조)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그림 4-2] 11개 도시 2020~2024 GPCI 변화추이



[그림 4-3] 11개 도시 2020~2024 GCI 변화추이

두 개의 경쟁력평가 융합을 위하여 유사한 평가지표을 결합하여 '경제지표', 'R&D와 인적자원', '문화경험과 교류', '정보교류', '생활환경과 접근성', '환경과 지속가능성' 6개의 기준을 설정하여 데이터화 하였으며 각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분석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산술화하였다. 수집된 결과에 공공미술과 어바니즘과 관련된 영향력을 고려하여 문화, 생활환경, 환경 지표에 각각 1.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향후 정책 제안의 대상인 서울을 중심으로 상위에 랭킹 된 도시들을 사례조사의 우선순위로 하되 향후 사례조사의 결과 반영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과 도시의 면적, 인구수와 도시밀도, 행정시스템, 교통인프라 등의 유사성을 조사[71]하여 조사결과의 반영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사도 평가[72]를 진행하였다.

---

71) 평가의 기준 : 도시면적(㎢), 인구(백만), 도시밀도(고.중.저), 행정시스템(중앙집중, 분산), 교통인프라(우수,양호,보통), 공간구조(복잡, 단순)으로 구조화 하여 적용 도시 구조(콤팩트형, 확장형, 격자형) 도시형태: 단핵형(monocentric), 다핵형(polycen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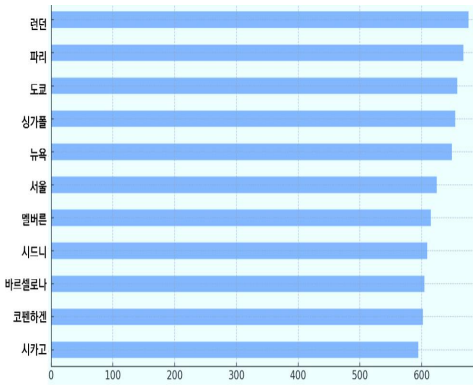
72) 유사도 평가 : 복합지표 평가방식(Composite Indicator Method)

$$\text{유사도 점수} = \left[\frac{\text{면적(비교도시)} - \text{면적(기준도시)}}{\text{면적(기준도시)}}\right] + \left[\frac{\text{도시인구(비교도시)} - \text{인구(기준도시)}}{\text{인구(기준도시)}}\right] + \sum(\text{정성 항목차} \times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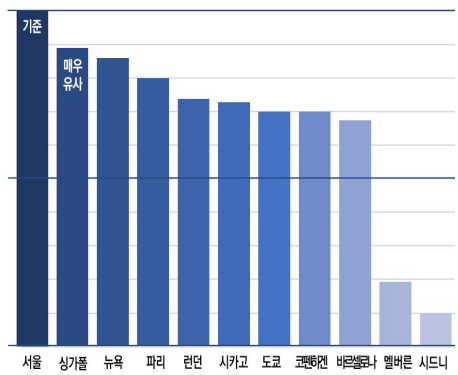
정량지표는 상대편차, 정성지표는 각 항목별 차이를 0.5씩 가산하여 적용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조사 데이터는 UN Habitat과 OECD에서 발표된 공식 리포트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결손이 있는 데이터는 각 도시의 도시관련부서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유사도는 1에 가까울수록 동일성을 가지며 종합적인 유사도 평가를 통해 싱가폴(유사도 1.11) 〉 뉴욕(1.4) 〉 파리(2) 〉 런던(2.62) 〉 시카고(2.73) 〉 도쿄(3) 〉 코펜하겐(3) 〉 바르셀로나(3.26) 〉 멜버른(8.07) 〉 시드니(9) 순으로 나타났다. 11개 도시에 대한 도시경쟁력 종합평가 순위는 [그림 4-4]와 같으며 서울을 기준으로 한 유사도 평가의 결과를 도표화하면 [그림 4-5]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4] 도시경쟁력 종합평가 순위



[그림 4-5] 서울과의 유사도 평가순위

도시경쟁력 평가 순위와 서울과의 유사도 평가의 두 가지의 선정기준을 종합한 결과 2020년 전후 어바니즘 요소를 다수 반영한 도시 중 서울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도시유형이 유사하고 도시경쟁력 지표에서 평가점수가 90점인 도시는 파리, 런던, 싱가폴, 뉴욕, 바르셀로나, 코펜하겐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대륙별 특성에 있어 유럽지역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런던과 바르셀로나를 제외하고, 오세아니아 주 2개의 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 중 비교적 서울과의 유사성이 높은 멜버른을 포함하여 최종 6개 도시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1차 11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서울과의 도시 유사도 평가의 결과를 종합한 도표는 [표 4-2]과 같다.

[표 4-2] 11개 도시 대상 서울과의 유사도 평가

	경제·비즈니스	R&D·인적자원	문화경험·교류	정보교류	생활환경·접근성	환경·지속가능성	평균점수	가중합점수	단순평균순위	종합순위	순위변화
런 던	94	92	98	94	88	78	90.666	676	1	1	0
파 리	85	82	95	88	90	90	88.333	667.5	2	2	0
도 쿄	91	92	88	89	85	84	88.166	657.5	3	3	0
싱가폴	95	88	85	92	90	78	88	654.5	5	4	+1
뉴 욕	98	95	95	96	80	65	88.166	649	3	5	-2
서 울	82	90	72	91	84	85	84	624.5	6	6	0
멜버른	75	76	86	77	89	83	81	615	7	7	0
시드니	78	70	84	80	88	82	80.333	609	8	8	0
바르셀로나	70	65	92	72	85	88	78.666	604.5	10	9	+1
코펜하겐	60	68	78	75	92	96	78.166	602	11	10	+1
시카고	88	84	75	85	80	70	80.333	594.5	8	11	-3

3) 도시별 공공미술 사례조사 대상 선정

도시공공미술 사례분석에 앞서 각 도시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하여 2020년 전후에 수립된 각 도시의 도시계획, 문화계획, 공공미술 계획을 조사하였다. 문화계획 또는 공공미술관련 별도의 계획이 없는 경우 대표적인 공공미술 선언이나 프로젝트, 또는 정책적 방향성을 담은 지침 등으로 대체하였다. 각 도시의 공식문서와 사이트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된 내용은 [표 4-3]과 같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4-3] 각 도시의 관련 상위계획

도시	도시계획 (연도)	문화계획 (연도)	공공미술 계획 (연도)
코펜하겐	Copenhagen Municipal Plan (2023)	Copenhagen Cultural Strategy (2022)	Superkilen 프로젝트 중심 (2012~)
싱가포르	Singapore Green Plan 2030 (2021)	Our SG Arts Plan (2023-2027)	Public Art Trust (2014~)
서울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23)	서울문화비전 2030 (2021)	서울은 미술관 (2016~)
뉴욕	OneNYC 2050 (2019) Planning Together(2020)	CreateNYC (2017)	Percent for Art Program (1982~)
멜버른	Metropolitan Planning Strategy (2021)	Creative State 2025 (2021)	Public Art Framework 2021-2031
파리	Grand Paris Express Urban Integration Plan (2022) PLU Bioclimatique (2023)	Paris Climate Action Plan (2020)	Public Art Initiatives (2000s~)

선별과정을 통해 선정된 6개 도시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도시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를 조사하였고 각 도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1회성의 조형작품 설치로 종결된 사례는 제외하였으며 정기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례이거나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도시공간의 변화나 주요 정책 연결성이 강한 사례로 도시의 변화 방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구성하였다. 각 도시별 1~2개의 도시공공미술 사례를 선정하되 도시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다양한 접근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장르의 영역이 포함되도록 전시, 미디어아트, 일반적인 설치미술, 시설결합 형태, 축제, 랜드마크 조성, 커뮤니티 아트 방식을 포함하도록 사례를 구성하였으며 도시공공미술의 추진 시점은 2000년대 이후의 사례로써 N분 도시이론이 확산된 시점인 2020년 전후에 가장 근접한 대표사례로 한정하였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는 총 10건은 [표 4-4]와 같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4-4] 사례분석의 대상

대륙	국가	도시	사례
A 유럽	덴마크 (Denmark)	코펜하겐 (Copenhagen)	슈퍼킬렌 공원 프로젝트 (Superkillen Park Project)
	프랑스 (France)	파 리 (Paris)	그랜드 익스프레스 파리 프로젝트 (Grand Express Paris)
			뉘블랑쉬 (La Nuit Blanche)
B 북미	미국 (USA)	뉴 욕 (New York)	하이라인 파크 프로젝트 (High Line project)
			록펠러 센터 프로젝트 (Rockefeller Center Project)
C 아시아	싱가폴 (Singapore)	싱가폴 (Singapore)	아이 라이트 싱가폴 (I Light Singapore)
	한 국 (Korea)	서 울 (Seoul)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 (Seoul is Museum Project)
			DDP 미디어 파사드 (DDP Media Facad-Seoul Light DDP)
D 오세아니아	호주 (Australia)	멜버른 (Melbourne)	20분 동네 프로젝트 (20 Minute heighborhood Project)
			가림막 벽화 프로젝트 (Creative Hoarding Trial)

4) 사례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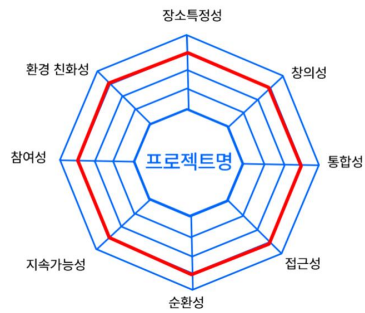
공공미술 사례분석의 기준마련에 있어 3장에서 제시되었던 도시공공미술의 전략으로 채택했던 일상의 활력제고, 도시의 인상변화, 참여와 가치지향의 3가지 틀을 유지하여 각 사례의 중점 전략을 살피고, 앞절에서 제안된 도시공공미술의 요소인 장소특정성, 창의성, 통합성, 접근성, 순환성, 참여성, 환경친화성, 안정적 시스템의 8개 기준을 적용하여 사례별 평가를 진행하였다. 각 사례별 요소 적용정도는 리커트 5점척도(Five-point Likert scale)을 적용하였다.

각 사례분석은 작품의 형상적 표현에 대한 것 보다 각 사례에 대한 도시, 공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공미술, 어바니즘, 경제성, 사회성, 가치지향성과 함께 발생시키는 도시경쟁력 효과를 확인하고 사업의 과정으로써의 상위계획 연계성 등을 복합평가 할 수 있도록 [표 4-5]과 같이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표 4-5] 사례분석의 틀

<table>
<tr><th colspan="8">도시명 (국가명)</th></tr>
<tr><td colspan="8">프로젝트 명</td></tr>
<tr><td colspan="2">사업 개요</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3">세부내용</td><td>도시계획 관점</td><td colspan="6"></td></tr>
<tr><td>공공미술 관점</td><td colspan="6"></td></tr>
<tr><td>어바니즘 관점</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경제성 관점</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사회적 관점</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가치지향성</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도시경쟁력 효과</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 rowspan="2">계획 연계성</td><td colspan="2">도시계획</td><td colspan="2">문화계획</td><td colspan="2">도시계획+문화계획</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자본적 주체</td><td colspan="2">정부</td><td colspan="2">민간</td><td colspan="2">정부 + 민간</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기획, 운영 주체</td><td colspan="2">정부</td><td colspan="2">민간</td><td colspan="2">정부 + 민간</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도시공공미술 특성</td><td colspan="5">최저 〈----------〉 최고</td><td rowspan="2">종합점수</td></tr>
<tr><td>1</td><td>2</td><td>3</td><td>4</td><td>5</td></tr>
<tr><td colspan="2">장소 특정성</td><td></td><td></td><td></td><td></td><td></td><td rowspan="8"> 
</td></tr>
<tr><td colspan="2">작가의 창의성</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통 합 성</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다변적 접근성</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순 환 성</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지속가능한 시스템</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주체적 참여성</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환경 친화성</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4.1.2.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1) 코펜하겐(Copenhagen, Denmark)

코펜하겐은 유럽 내에서 지속가능성과 인간 중심 도시계획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도시로, 'The City of Cyclists', 'Carbon Neutral by 2025' 등의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대응,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창의적인 도시 미관을 위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유네스코-UIA가 지정한 '세계 건축수도'로 선정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과 더불어 예술을 통한 도시경관의 품격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공공미술계획을 주요 도시정책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코펜하겐 현대미술센터인 니콜라이 쿤스트할((Nikolaj Kunsthal)을 중심으로 '그린어트랙션(Green Attrction)' 인증제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사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도시플랜을 실천하고 있다. 최상위 지향점으로 '우리의 코펜하겐' (Our Copenhagen 2035)[73] 비전 아래 거리에서의 커뮤니티 활동, 녹지공간에서의 놀이, 자전거의 이용 등을 통해 사람중심의 도시를 위한 장기전략을 추진중이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기후전략을 도시계획에 확대 적용한 'Copenhagen Climate Plan 2025'를 발표하며 에너지 효율적 건축, 친환경 교통수단, 도시녹지 확대 등을 실천한다.[74]

이러한 도시계획은 살기 좋은(Livability) 공공공간 계획에 따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75] 시 주도의 공공미술 프로그램인 Kunst i Byen (Art in the City)를 통해 도시 내 주요 개발프로젝트에 예술작품을 통합하는 방식을 채

73) City of Copenhagen, https://urbandevelopmentcph.kk.dk/urban-planning
74) City of Copenhagen (2012) CPH 2025 Climate Plan. Technical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75) City of Copenhagen & Gehl Architects. (2009). Public Space and Public Life Study – Copenha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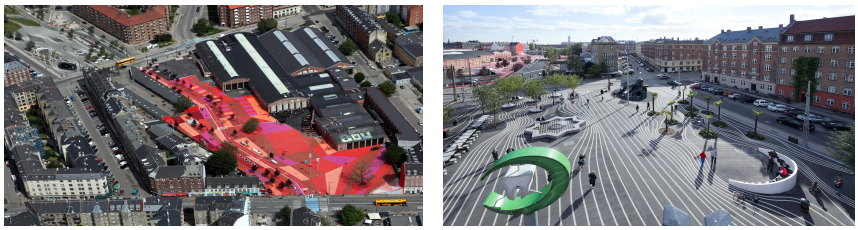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택하고 교통 허브, 광장, 공공건물 등에 예술작품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다.[76]

가) 도심광장과 공원자체의 예술작품화 : 슈퍼킬렌 공원 (Superkillen Park)

슈퍼킬렌 공원은 코펜하겐의 다문화 지역인 노레브로(Nørrebro) 지구에 조성된 재생형 공공공간으로 2012년 예술과 도시정책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로 완공되었다. 이 지역은 코펜하겐 내에서도 가장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재된 지역으로, 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이민자로 범죄와 낙후된 도시환경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과제가 심각했던 지역이였다.[77] 이러한 배경은 프로젝트 초기 기획부터 예술, 조경, 건축, 지역 커뮤니티가 협업한 열린 도시문화공간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하였고 아트스트 팀과 정부의 협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적 33.000㎡, 공원 길이가 750m에 달하는 슈퍼킬렌은 붉은 광장(스포츠, 문화행사, 카페 등 활동공간), 검은 광장(벤치, 분수 등 휴식 여가 공간), 녹색공원(잔디밭, 어린이 놀이터 등 자연 여가공간)의 세 개의 테마로 나뉜다. 특히 세계 60개국에서 모은 문화 오브제를 활용한 설치물들로 다문화 포용의 가치를 반영하였다.[78]



[그림 4-6] 수퍼킬렌 붉은광장, 검은광장 이미지

슈퍼킬렌 공원으로 인해 이 지역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사회적

76) City of Copenhagen. (2020) Kunst i Byen – Strategi for kunst i det offentlige rum. Københavns Kommune.
77) Koefoed, L., & Simonsen, K. (2011) The Stranger, the City and the Nation: On the Possibilities of Identification and Belonging in Times of Cosmopolitanism.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8(4), 349–363.
78) SUPERFLEX, BIG, & Topotek1. (2012) Superkilen: A Celebration of Diversity.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첫째. 다양한 문화 배경을 지닌 주민이 공원을 공유하며 상호 존중을 학습하는 공간으로 기능[79]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참여형 설계를 통해 공간 소유감과 문화적 자긍심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80] 또한, 셋째, 과거에는 범죄와 낙후 이미지가 강했던 노레브로 지역이 창의적이고 안전한 도시공간으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국내외 언론과 관광객의 관심을 받으며 도시 브랜드 강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공공미술이 단순한 장식이 아닌 사회적 메시지 전달과 도시문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되게 됨으로써 공공예술의 기능이 확장되었다.[81]

[표 4-6] 코펜하겐 수퍼킬렌 프로젝트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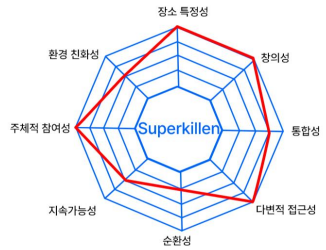
코펜하겐 (Copenhagen, Denmark)		
수퍼킬렌 (Superkillen Park)		
사업 개요		약 800 m 부지에 '붉은·검은·녹색' 광장 세 구역을 조성하고 세계 60여 국 거리 가구·예술로서 다문화를 잇는 참여형 도시재생 공원 프로젝트.
세부내용	도시계획 관점	- 쇠퇴한 철도 부지를 재생해 공공기능 회복과 도시미관 향상과 활동·휴식·자연 기능을 통합한 도보 중심 설계 - 생활밀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며, 다문화 주민의 참여로 지역성과 문화적 소유감을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효과 창출
	공공미술 관점	-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예술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담론을 도시공간에 투영 - 확장된 의미에서의 공공예술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
	어바니즘 관점	- 물리적 디자인보다 사용자와 상호작용 방식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로 기능하며, 주민의 기억을 시각화한 오브제와 다기능적 생활공간 구성을 통해 일상 속 예술 실현
경제성 관점		- 부동산 가치 상승 및 중산층 유입 촉진 (공원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 부동산 가치 증가) - 상권 활성화 및 관광소비 증가 (공원 중심 유동인구 증가로 상업시설 및 관광산업 활성화)
사회적 관점		- 다문화 주민 간 상호 존중과 교류 촉진 : 문화적 다양성 반영한 공

79) Gehl Architects. (2015) Public Space and Public Life – Nørrebro. City of Copenhagen.
80) City of Copenhagen (2020) Kultur- og Fritidspolitik.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공공간으로 사회통합 효과 - 공간 소유감과 문화적 자긍심 증대 : 참여형 설계를 통한 주민의 소속감 강화
가치지향성	- 사회적 메시지 전달을 통한 도시 문제 해결 : 공공미술이 단순 장식을 넘어 사회적 기능 수행 - 포용적 사회 인프라로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도시경쟁력 효과	- 도시 브랜드 강화 및 국제적 관심 확보: 창의적이고 다문화적인 도시 공간으로 국내외 주목 - 도시 재생 및 도보 중심 공간 조성으로 도시 미관 향상 : 쇠퇴한 철도부지 재생하여 도시 환경 경쟁력 제고

	도시계획	문화계획	도시계획+문화계획
계획 연계성			●
자본적 주체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
기획, 운영 주체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

도시공공미술 특성	최저 〈---------- 최고					종합점수
	1	2	3	4	5	
장소 특정성	■	■	■	■	■	
작가의 창의성	■	■	■	■	■	
통합성	■	■	■	■		
다변적 접근성	■	■	■	■	■	
순환성	■	■				
지속가능한 시스템	■	■	■			
주체적 참여성	■	■	■	■	■	
환경 친화성	■	■	■			

2) 파리 (Paris, France)

파리 시장인 앤 이달고(Anne Hidalgo)가 2020년 공약으로 내세운 15분 도시는 당선이후 본격화 되었다. 파리의 분산적인 공간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코로나19 이후 집 근처에서의 정주시간이 많아지는 생활패턴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행성과 혼합용도의 개발, 컴팩트한 커뮤니티와 뉴어바니즘의 형태이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도입되었다. 파리시 도시계획국과 그랑 파리 메트로폴이 도시계획 주관으로 최근 지속가능성과 지역 균형을 중심으로

81) OECD (2020) The Culture Fix: Creative People, Places and Industries.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도시공간의 재구조화를 추진 중에 있다.

파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시전략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도시민이 도보 15분 내에서 일상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근접성과 자족성 중심의 도시 모델인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의 추진,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도시환경 구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생물 기후학적(Plan Bioclimatique) 변화',[82] 셋째,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장을 통한 외곽 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역세권 복합거점 개발을 추진하는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 프로젝트(Grand Paris Express Project)'[83]이다.

이러한 계획은 물리적 인프라의 확장을 넘어, 공공공간, 커뮤니티, 문화 기능이 융합된 도시 운영 구조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예술을 도시구조에 내재화하 있는 파리는 예술을 정체성과 기억의 매개체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공간의 예술화와 도시의 감성화'를 전략화를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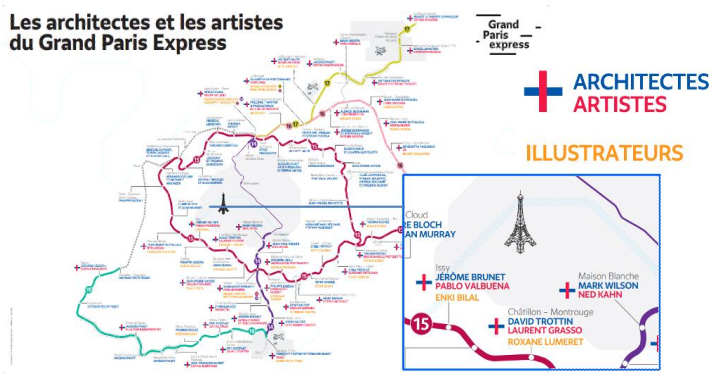
가) 도시 핵심 개발전략과 연계한 교통거점 특성화 공공미술 프로젝트 : 그랜드 파리 익스프레스 프로젝트(Grand Paris Express Project)

그랜드 파리 익스프레스 프로젝트는 정부중심 협업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Le Paris du 1/4 heure[84]에 기반한 도시계획 중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이다. 4,000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비롯하여, 200km에 달하는 새로운 자동 운행 지하철 노선과 68개의 신규역을 건설함으로써, 파리 도심과 외곽 지연 간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교통체계 혁신을 목표로 한다.[85]

---

82) Ville de Paris (2021) Plan Climat Air Énergie de Paris – Plan d'Action 2030.
83) Société du Grand Paris (2023) Le Grand Paris Express – Projet de transport et de développement urbain
84) '15분 도시 파리'를 의미하며, 그랜드 파리 익스프레스 프로젝트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임.
85) https://www.systra.com/en/project/grand-paris-express-lines-15-16-17-and-18/?utm_source=chatgpt.com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그림 4-7] 그랑파리 익스프레스 종합지도

파리 뉘블랑쉬 예술감독으로 알려진 호세 마누엘 곤살베스(José-Manuel Gonçalves)의 총괄기획을 기초로 30명의 건축가와 41명의 현대 미술가가 68개의 미래 지하철역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며, 건축가와 예술가를 하나의 팀으로 매칭하여 외관과 내부, 주요 예술콘텐츠의 특성화를 진행하는 협업방식을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채택하였다. 역마다의 독특한 컨셉 디자인과 예술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문화적 랜드마크이자 핵심 거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예상 효과로는 교통혁신을 통한 교통활성화와 지역 접근성 향상, 문화와 예술을 융합하여 지역의 랜드마크 역사로 탈바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역 브랜딩, 심미적 효과, 지역활성화와 접근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6]

[표 4-7] 그랜드 파리 익스프레스 프로젝트 조사표

파리 (Paris, France)		
그랜드 파리 익스프레스 프로젝트(Grand Paris Express Project)		
사업 개요		파리에 신설되는 68개 지하철 역사 조성을 예술가와 건축가 매칭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각각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문화적 인프라 구축
세	도시계획	- 파리의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 계획

86) https://www.grandparisexpress.fr/benefit-metro-ile-de-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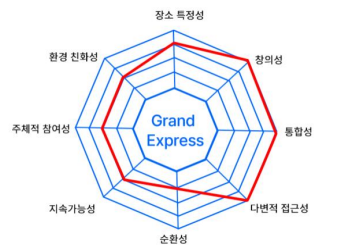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table>
<tr><td rowspan="3">부
내
용</td><td>관점</td><td>- 약 200km에 달하는 자동 운행 지하철망과 68개의 신규 역사 신설
- 기존 도심 집중형 개발의 한계를 극복, 수도권 외곽 지역의 접근성과 자족성을 증대
- 프랑스가 추진하는 생물기후적 도시계획(PLUb)[87]과 연계
- 저탄소 도시 전환, 보행 중심 네트워크, 녹색 인프라 확대 등과 연결</td></tr>
<tr><td>공공미술
관점</td><td>- 각 역에 건축가와 예술가의 협업체계를 구축, 예술적 장소로서의 역사 공간이 구현
- 장소 특정성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사회적 기억, 정체성, 역사적 맥락을 반영. 역사의 벽면, 천장, 출입구 등 공간 전반에 예술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적 이동을 감각적이고 서사적인 체험
- 도시 미학의 민주화와 문화 접근성의 확장이라는 공공미술의 핵심 목표를 실현</td></tr>
<tr><td>어바니즘
관점</td><td>- 이동성과 도시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도시경험의 프레임을 제시
- 역세권 상업, 문화, 주거, 공공서비스가 융합 공간의 기능적 통합 시도
-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문화라는 새로운 어바니즘 조건 마련
일상생활이 교통·문화·공간을 종합적으로 경유하는 구조로 전환</td></tr>
<tr><td colspan="2">경제성 관점</td><td>- 대규모 고용 창출 및 산업 진흥 :약 350억 유로 규모 투자로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건설·철도기술·도시디자인·스마트 인프라·예술 분야 간 산업 연계 효과 증대
- 역세권 복합거점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 : 68개 신규 역사 주변에 상업·주거·문화·공공서비스 융합 거점 조성으로 교외 지역 경제 자립성 강화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td></tr>
<tr><td colspan="2">사회적 관점</td><td>- 교통망 확대를 통한 생활권 통합 : 도심과 외곽 간 시간·공간적 거리감 축소, 역 중심 단위 ‘15분 도시’ 일상 기능 지역화 기반 마련)
- 예술·문화 접근성 확대 : 50명 아티스트·건축가 협업으로 역 공간 전반에 설치된 예술작품 감상권 제공</td></tr>
<tr><td colspan="2">가치지향성</td><td>- 공공미술을 통한 정체성·기억 매개 : 역사 벽면·천장·출입구에 반영된 지역 사회적 기억과 역사 맥락을 ‘공공공간의 예술화’
- 저탄소·생물기후적 전환 가치 : Plan Bioclimatique과 연계된 저탄소 도시환경 구축, 보행 중심 네트워크 및 녹지 인프라 확대</td></tr>
<tr><td colspan="2">도시경쟁력 효과</td><td>- 다핵 네트워크 도시 구조 전환 : 약 200km 신규 지하철망으로 단핵 집중 구조 한계 극복, 수도권 외곽까지 자족성· 접근성 강화
- 문화 랜드마크로서의 도시 이미지 제고 : 예술이 내재된 역사 디자인으로 교통 인프라를 문화적 랜드마크로 재탄생시켜 국제적 주목 및 도시 브랜드 강화</td></tr>
</table>

계획 연계성	도시계획	문화계획	도시계획+문화계획
	●		
자본적 주체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		
기획, 운영 주체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		●

도시공공미술 특성	최저 〈----------〉 최고					종합점수
	1	2	3	4	5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1946 · PRO HOMINUM BENEFICIO

장소 특정성						
작가의 창의성						
통합성						
다변적 접근성						
순환성						
지속가능한 시스템						
주체적 참여성						
환경 친화성						

나) 도시공간 전체가 무대가 되는 예술적 하룻밤 : 뉘 블랑쉬(La Nuit Blanche)

뉘 블랑쉬는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적인 현대 예술 축제로, 저녁부터 익일 새벽까지 도시 전체를 예술의 무대로 활용하는 행사이다.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파리 전역에서 문화적 경험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조형물과 이벤트, 박물관, 문화 공간, 공공장소에서 진행된다. 대부분의 전시, 공연, 행사가 무료로 진행이 되는 이 축제는, 관람객도 예술 체험에 참여하거나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일상공간을 무대로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예술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한다. 야간시간대에 공공장소를 예술을 체험기회를 확대하는 사회문화적 기능의 장이 된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경제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림 4-8] 뉘 블랑쉬 포스터(좌)와 축제 전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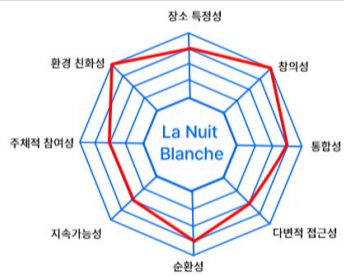
87) Plan Local d'Urbanisme bioclimatique의 약자로, 건축, 교통, 공공공간, 녹지등 도시 전반을 탄소중립과 기후 회복력 관점에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https://www.paris.fr/pages/plan-local-d-urbanisme-bioclimatique-vers-un-paris-plus-vert-et-plus-solidaire-23805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4-8] 프랑스 뉘 블랑쉬 프로젝트 프로젝트 조사표

<table>
<tr><th colspan="4">프랑스(Paris, France)</th></tr>
<tr><td colspan="4">뉘 블랑쉬 프로젝트(La Nuit Blanche)</td></tr>
<tr><td colspan="2">사업 개요</td><td colspan="2">파리 등 도시 전역을 현대미술·퍼포먼스 무대로 전환해 시민이 예술을 탐험하도록 하는 야간 공공예술 축제</td></tr>
<tr><td rowspan="3">세부내용</td><td>도시계획 관점</td><td colspan="2">- 파리시의 공공공간 활용 전략 및 도시문화 분산 정책과 연계, 비전통적 공간을 예술 무대로 전환 공공공간의 다기능성과 유연성을 실현
- 야간시간대를 활용 24시간 도시전략 실험, 행사 범위를 교외 지역까지 확대하여 도시문화의 공간 재분배와 지역균형 발전 도모</td></tr>
<tr><td>공공미술 관점</td><td colspan="2">- 장소 특정적 예술로서 시민들의 미적 경험의 일상화와 예술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도시 공간을 기억, 정체성, 사회적 메시지를 공유하는 상징적 매개체로 전환하여 예술이 도시의 공공성과 정체성 형성</td></tr>
<tr><td>어바니즘 관점</td><td colspan="2">- 도시 체험의 재조직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공간, 시간, 사람, 이동의 요소들이 예술을 매개로 재편되는 도시 실험실로 기능하며 시민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보행과 예술 체험을 통해 도시를 직접 탐색하고 재해석하는 주체로 전환</td></tr>
<tr><td colspan="2">경제성 관점</td><td colspan="2">- 문화관광 유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 기간 동안 숙박·식음료·기념품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경제에 기여
- 이벤트 산업 및 임시 고용 창출 : 축제 기획·운영, 설치물 제작·철거, 현장 안내 등 단기 일자리와 예술 관련 서비스 수요 확대</td></tr>
<tr><td colspan="2">사회적 관점</td><td colspan="2">- 시민 참여형 예술체험 제공 :관람객이 작품의 일부가 되어 예술적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술 접근성 향상
- 야간 공공장소의 사회문화적 장 형성 :밤 시간대 도심 전역이 예술 무대로 전환되어 주민과 관광객 간 교류 및 커뮤니티 네트워킹 촉진</td></tr>
<tr><td colspan="2">가치지향성</td><td colspan="2">- 예술 대중화 및 문화민주주의 실현 : 전시·공연이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어 모든 시민이 경제적 장벽 없이 예술 향유
- 일상 공간의 예술화 : 도시 전체를 갤러리로 전환하여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일상의 문화적 가치 강조</td></tr>
<tr><td colspan="2">도시경쟁력 효과</td><td colspan="2">-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 브랜드 강화 : 국제적인 현대미술 축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파리의 문화적 위상 제고
- 24시간 도시 활성화 및 야간 경제 증진 : 야간 예술 행사로 인해 음식점, 대중교통 등 야간 산업의 수요를 확대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td></tr>
<tr><td colspan="2" rowspan="2">계획 연계성</td><td>도시계획</td><td>문화계획</td><td>도시계획+문화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자본적 주체</td><td>정부</td><td>민간</td><td>정부 + 민간</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기획, 운영 주체</td><td>정부</td><td>민간</td><td>정부 + 민간</td></tr>
<tr><td>●</td><td></td><td></td></tr>
</table>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도시공공미술 특성	최저 〈----------〉 최고					종합점수
	1	2	3	4	5	
장소 특정성						
작가의 창의성						
통합성						
다변적 접근성						
순환성						
지속가능한 시스템						
주체적 참여성						
환경 친화성						

3) 뉴욕 (Newyork, USA)

급격한 도시화와 다인종, 다문화 사회, 지속가능성 문제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직면해 왔던 뉴욕시는 전통적인 마스터플랜 보다 전략 중심의 유연한 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공공예술을 도시공간 관리와 사회문화적 통합의 도구로 활용해 왔다.[88]

뉴욕시의 도시기본계획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주도하에, 인구 900만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전략 계획인 Plan NYC(2007)과 빌 드 블라시오 시장하에 발전한 OneNYC(2015-2023)이 있다. PlanNYC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대중교통의 강화, 주택공급, 공공공간 확대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비해, OneNYC는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형평성, 회복력, 경제발전을 강조함과 동시에, 뉴욕시 전역의 공간 자산을 공정하고 창의적인 공유자산으로 정의하였다.[89] 이 두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책 이행 지침과 예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도시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부서 간 협업 구조, 시민 참여 구조,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88) NYC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2020) Percent for Art Program Overview.
89) City of New York (2015) OneNYC: The Plan for a Strong and Just City.
City of New York (2021) OneNYC 2050: Building a Strong and Fair City.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90]

뉴욕시의 아트플랜과 공공예술 정책에 대하여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있다. 우선 모든 공공건축 프로젝트 예산의 일정 비율(통상 1%)을 공공미술 설치에 의무적으로 할당한다는 Percent for Art 제도 (1982~현재),[91] 공공장소에서의 전시기획, 커미션 작품 유치, 국제교류 전시 등 수행하는 Public Art Fund[92]와 지역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반영한 공공공간 설계로 예술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 상생하고 도시공간을 지향하는 장소만들기(Creative Placemaking),[93] 그리고 정책 제안, 파일럿 프로젝트, 시민참여 디자인 기반의 실험적 공공예술 등을 수행하는 Design Trust for Public Space[94] 등이 있다. 뉴욕시의 도시기본계획과 공공예술 정책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과 공공예술을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사례로는 대표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와 록펠러센터(Rockefeller Center)의 공공예술활성화 프로젝트가 있다.

가) 도시의 폐자원을 재생한 예술프로젝트 : 하이라인 파크 (High Line Park)



[그림 4-9] 하이라인파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 이미지

90) Furman Center for Real Estate and Urban Policy, NYU (2016) Understanding NYC Planning: A Guide to the City's Planning Framework.
91) NYC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n.d.) Percent for Art Program.
92) Public Art Fund (2017) Ai Weiwei: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93) Markusen, A.,& Gadwa, A.(2010) Creative Placemaking.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94) Design Trust for Public Space (n.d.) Mission & Projects.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뉴욕 하이라인 파크는 산업화의 잔재를 도시 유산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다. 1.6㎞의 폐철도를 예술, 자연, 시민활동이 결합된 선형공원으로 변화되었다. 1934년 건설된 고가 화물철도가 1984년 방치된 후 철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1999년 시민단체인 Friends of the High Line이 보존 및 공공공간 전환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면서 뉴욕시-민간재단 협력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전환되었다.

맨하탄 서부 첼시 지구에 위치한 하이라인 파크는 약 2.3km에 달하는 규모로, 2009년에 1단계가 개장하고, 2014년에 최종적으로 완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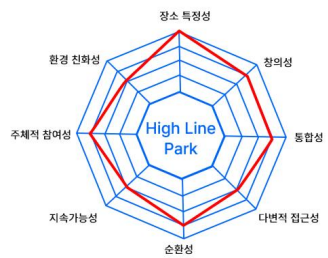
[표 4-9] 뉴욕 하이라인 파크 프로젝트 조사표

뉴욕 (Newyork USA)		
하이라인파크(High Line Park)		
사업 개요		맨해튼 고가 철로를 선형 공원·예술 산책로로 재생한 시민주도 도시재생 프로젝트.
세부내용	도시계획 관점	- 산업유산 재활용의 대표 사례이자 민관협력 도시정책의 전형 - 부동산 가치 상승과 저소득층 퇴거라는 딜레마를 야기
	공공미술 관점	- 한시적 작품, 설치미술, 미디어 아트를 배치하여 과정 중심 예술을 실현, 변화 가능성과 참여를 전제로 관계 지향적 예술로 방문객 경험강화 - 또한 인종, 젠더, 환경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룬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여 사회적 상상력과 담론이 펼쳐지는 공공 플랫폼으로 기능
	어바니즘 관점	- 도보 중심 : 도보 생활권 내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선형 공간으로, 주민의 일상 속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공간적 밀착성 향상 - 다양성과 포용성 : 프로젝트 초기부터 지역 예술가, 커뮤니티 그룹이 기획 및 운영에 참여,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포용성 구현 - 지속가능성과 저탄소 도시 구조: 보행 및 자전거 접근성을 강화하여 - 시민 중심의 도시 거버넌스 : 시민 주도 비영리단체 Friends of the High Line이 운영, 예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은 도시 운영에서 시민 참여 기반 거버넌스 모델
경제성 관점		- 관광·부동산 가치 증대 : 개장 이후 연간 수백만 방문객 집객, 주변 상권·숙박업 활성화 및 첼시·미트패킹 지구 부동산 가격 상승 촉진 - 예술 프로젝트 운영 일자리 창출:Percent for Art, Public Art Fund, Design Trust 등 공공미술 프로그램의 기획·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예술가·기획자·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의 단기·장기 고용 기회 확대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사회적 관점	- 시민 참여형 도시공간 조성: 주민과 예술가가 공동으로 디자인에 참여, 커뮤니티 주도의 공공장소 활용과 사회적 결속 강화 - 공정한 문화 자산 공유 : OneNYC의 '공간 자산을 공정한 공유자산'으로 정의, 시민 누구나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
가치지향성	- 예술을 통한 역사·정체성 보존: 폐철도 재해석, 도시 유산을 창의적으로 계승·전달하며, 공공예술을 통해 장소 특정적 기억을 시각화 -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강조 : OneNYC의 'Strong and Just City' 비전 아래 형평성·회복력·지속가능성을 정책 핵심가치로 내세워 도시계획과 예술 프로그램을 통합
도시경쟁력 효과	- 글로벌 도시 브랜드 제고 : 다양한 프로젝트 등으로 '뉴욕=혁신적 공공예술 도시' 이미지 확립 - 협업 기반의 유연한 계획 체계: 시정부·커뮤니티·민간재단 간 파트너십으로 민·관 협업 모델을 구축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신속한 도시 정책 실행 경쟁력 강화

계획 연계성	도시계획	문화계획	도시계획+문화계획
	●	●	
자본적 주체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
기획, 운영 주체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

도시공공미술 특성	최저 〈---------- 최고					종합점수
	1	2	3	4	5	
장소 특정성	■	■	■	■	■	
작가의 창의성	■	■	■	■		
통합성	■	■	■	■		
다변적 접근성	■	■	■			
순환성	■	■	■	■		
지속가능한 시스템	■	■	■			
주체적 참여성	■	■	■	■		
환경 친화성	■	■	■			

나) 민간 주도의 도심 활성화 : 록펠러센터(Rockefeller Center) 공공예술 프로젝트

뉴욕시 맨허튼 중심부에 위치한 복합 상업단지인 록펠러센터는 역사적으로 예술과 건축의 융합을 통해 도시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2000년 이후, 부동산 개발 및 관리 회사인 티쉬먼 스파이어(Tishman Speyer)가 록펠러센터의 관리를 맡으면서, 공공예술 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그림 4-10] 록펠러센터 전경 및 공공예술 프로젝트

록펠러센터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공예술을 활성화하였는데, 이들은 계절별 이벤트, 국제적 예술가와의 협업,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공공예술을 확장시켰다. 록펠러센터의 공공미술 전시와 활동은 계절성과 국제성, 지역성을 아우르는 예술적 경험을 시민과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겨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스링크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절별 설치미술이 선보여져, 방문객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95] 또한, 국제 예술 전시의 일환으로 2023년에는 'Celebrate Korea'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 작가 '이불'의 작품을 소개하며 다문화 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커뮤니티 기반의 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공예술에 대한 접근성과 지역문화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표 4-10] 뉴욕 록펠러센터 공공미술 프로젝트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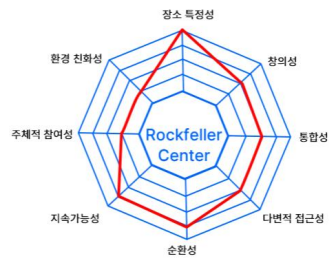
뉴욕 (NewYork USA)		
록펠러센터(Rockefeller Center)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		록펠러센터 전체를 야외갤러리로 변화시키는 현대 공공미술 순환전시 프로그램
	도시계획 관점	건축적 원형을 유지하면서 공공예술을 도입하여 도시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활용한 사례로 공공영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작동 도시의 틈새공간에 예술을 적용함으로써 도시 브랜딩 및 문화관광 자산화 등 다양한 도시 운영 전략

95) https://www.rockefellercenter.com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세부내용	공공미술 관점	-시민들이 우연히 마주치는 예술적 경험을 유도하며 살아 있는 공공공간(Living Public Space)의 실험의 장으로 활성화
	어바니즘 관점	- 도보 생활권 내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선형 공간으로, 주민의 일상 속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공간적 밀착성 향상 - 일상 접근성을 강화하고 내부 순환을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전시구조 - 시민 주도 비영리단체 Friends of the High Line이 운영, 예산, 프로그램을 관리, 도시 운영에서 시민 참여 기반 거버넌스 모델
경제성 관점		- 관광 유입 및 소비 활동 증가 :록펠러센터를 찾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체류 시간 동안 숙박, 식음료, 기념품 구매 등 소비 촉진 - 민간 투자 활성화 및 부동산 가치 상승 : 문화적 상징성을 가진 프리미엄 복합 공간으로 전환되어 인접 블록 대비 10~15% 높은 임대료 유지
사회적 관점		- 커뮤니티 기반 협업 프로젝트 운영 : 지역 예술가, 커뮤니티 단체가 함께 전시·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유도 - 도시 이미지 및 정체성 강화: SNS·언론 등 미디어를 통한 긍정적 도시 브랜딩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자부심 고취
가치지향성		- 다양성과 국제성 포용 :‘Celebrate Korea’ 등 국제 교류 전시로 글로벌 예술 상호 이해 및 문화교류 증진 - 생활 속 예술 경험 확대: 계절별 아이스링크·대형 트리 주변 설치미술 등 일상 공간을 예술적 체험의 장으로 전환
도시경쟁력 효과		- 글로벌 문화 허브 전략 강화: 현대 공공미술 순환 전시 플랫폼으로서 뉴욕의 문화적 위상을 높여 국제적 주목 - 프리미엄 복합 공간 모델 제시: 예술과 상업·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혁신적 공간으로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며 투자 유치 촉진

	도시계획	문화계획	도시계획+문화계획
계획 연계성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자본적 주체		●	●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기획, 운영 주체			●

도시공공미술 특성	최저 〈----------〉 최고					종합점수
	1	2	3	4	5	
장소 특정성	■	■	■			
작가의 창의성	■	■				
통합성	■	■				
다변적 접근성	■	■	■	■		
순환성	■	■	■	■	■	
지속가능한 시스템	■	■	■	■		
주체적 참여성	■	■	■	■		
환경 친화성	■	■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4) 싱가폴 (Singapore)

싱가폴은 도시재개발청(URA)를 중심으로 약 10주년 주기의 마스터플랜을 통해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개발을 종합적으로 조율한다.[96] 도시계획의 핵심은 컴팩트 시티 개념에 기반한 혼합용도 개발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있으며, 주거·상업·공공서비스·문화 기능이 통합된 공간 구조를 지향한다.[97]

특히, 마리나 베이, 부킷 바토, 파야 레바 등 주요 거점은 공공공간과 문화시설이 결합된 도시 노드로 개발하고 있으며 1989년 이후 싱가폴 정부는 문화예술을 국가 전력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왔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Renaissance City Plan 시리즈(2000, 2005, 2008)와 Our SG Arts Plan (2018–2022, 2023–2027)이 있으며, 예술을 경제·관광·도시정체성과 연계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98]

특히 2024년 7월에 발표한 정책인 'ArtsEverywhere@CDC' 는 이러한 정책은 국립예술위원회(NAC)와 5개 지역사회 개발위원회(CDC), 공동체협회(PA)가 공동으로 시작하며 개성있고 접근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전환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99] 싱가폴 도시재개발청(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는 도시의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안에 공공미술을 포함하여 다루며, 정부와 민간의 크로스 섹터 협력구조와 예술과 문화시설을 도시 구조 안에 배치하는 것을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배치함으로써, 문화가 주변 기능이 아닌 도시계획의 내적 구성요소로 작동하도록 도시계획을 설계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리나베이의 공공예술 루트, Art Science Museum, 공연장 등

96)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A) (2023) Master Plan Overview.
97) OECD (2021) Culture and Local Development: Maximising the Impact.
98) National Arts Council (NAC) (2023) Our SG Arts Plan (2023–2027)
99) https://www.mccy.gov.sg/about-us/news-and-resources/speeches/2024/Jul/Our-SG-Arts-Plan-2-0-Bringing-Arts-Everywhere-for-Everyone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1946 · PRO HOMINUM BENEFICIO

을 도시 인프라와 통합배치 하거나, 도심공원, MRT 역사 내 예술 설치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한, 공공공간을 시민 경험과 문화 소비의 무대로 전환하려는 전략과 문화정책을 연계하여 예술의 일상화와 도시 공간의 감성화를 추구하는 시도로 평가된다.[100] 도시재개발청(URA)과 싱가폴 국립예술위원회, 관광청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I Light Singapore'가[101] 대표사례이다.

싱가폴의 도시기본계획과 아트 플랜은 단순히 병렬적인 정책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간과 문화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유기적 체계로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102] 이러한 통합 전략은 도시를 물리적 기능의 총합이 아닌, 감각적·사회적 체험의 장으로 재정의하며, 지속가능성, 공동체성, 창의성을 중심으로 미래 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103]

가) I Light Singapore

I Light Singapore는 2010년부터 시작된 싱가폴의 마리나 베이 및 주변 지역(사우스 비치, 밀레니아 워크, 탄종 파가르)에서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빛 예술 축제이다. 국내외 예술가들의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설치물을 선보이는 조명 예술 축제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시 공간에서 대중의 상호작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다.[104]

이 축제는 싱가폴 도시재개발청(URA)이 주최하며, 마리나베이 샌즈, UOB (United Overseas Bank) 등 다양한 민간 후원자들과 협력하여 진행하며[105]

100) OECD (2021) The 15-Minute City: A Sustainable Model for Urban Living.
101) I Light Singapore (2023) About the Festival – Sustainability and Collaboration.
102)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2023) Master Plan Overview.
103) Landry, C.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Earthscan.
104) https://www.ilightsingapore.gov.sg/about/the-festival/?utm_source=chatgpt.com
105) https://futr.sg/2024/06/07/i-light-singapore-2024-a-dazzling-display-of-art-and-sustainability/?utm_source=chatgpt.com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설치되는 작품들은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또는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디자인된 조명 설치미술 작품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탄소중립의 의의를 느끼도록 한다.



[그림 4-11] I lights singapore의 대표 조명 설치물

싱가포르는 I Light Singapore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층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본 축제의 모든 작품이 환경 조명 기술과 재활용 소재를 기반으로 제작됨에 따라, 시민들은 예술 감상을 통해 일상생활 속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고취시킬 수 있다. 둘째, 참여형 및 체험형 설치 예술의 확산은 시민들로 하여금 예술을 보다 직접적이고 능동적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중심 도시문화의 정착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아시아 내에서 지속가능한 예술축제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하여 문화예술 허브로서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싱가폴 예술플랜 (2023-2027) 이 지향하는 연결된 사회(Connected Society), 독창적인 도시(Distinctive city), 창조적 경제(Creative Economy)를 실천하며 콘텐츠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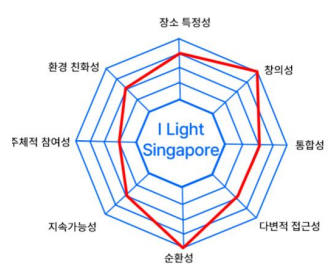
[표 4-11] 싱가포르 아이 라이트 싱가포르 프로젝트 조사표

싱가포르(Singapore)	
아이 라이트 싱가폴 (I Light Singapore)	
사업 개요	마리나베이 일대를 에너지 절약형 빛 아트로 밝혀 지속가능한 생활을 제안하는 아시아 대표 야간 조명 예술 축제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세부내용	도시계획 관점	-도시 수변 재생계획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친환경 도시거점 재정의 핵심 -전시 작품은 친환경적 기술과 소재로 구성되며, 기존 경관자원을 활용한 공공공간 네트워크 재조직 효과
	공공미술 관점	-지속가능·장소특정·참여형 빛 예술을 통해 도시를 열린 공동체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축제
	어바니즘 관점	-보행 중심의 감각적 경로와 인터랙티브 설치를 통해 도시공간을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체험장으로 전환하며, 시민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도시 경험의 공동 창작자로서 경험시킴
경제성 관점		- 관광객 유입 및 소비 촉진 : 매년 개최되는 축제로 인해 국내외 관람객이 마리나 베이 일대로 몰리며 숙박·식음료·기념품 소비 증가 - 민간 후원 및 산업 연계 강화 : UOB, Marina Bay Sands 등 주요 기업 후원으로 예산확보 및 조명 제작·운영에 관련 제조·디자인산업 활성화
사회적 관점		- 시민 참여형 체험 기회 제공 : 에너지 절약 실습형 설치물과 인터랙티브 조명을 통해 관람객이 축제의 일부가 되어 직접 참여) - 지속가능성 교육 및 커뮤니티 의식 고취 : 친환경 조명 기술과 재활용 소재 사용으로 시민들이 예술 감상을 지속가능성 메시지 전달
가치지향성		- 환경친화적 예술 구현 : 모든 작품이 에너지 효율 조명·재활용 소재 기반으로 제작되어 '예술을 통한 지속가능성 가치' 강조 - 예술의 일상화 및 접근성 확대 : 도시 주요 공공공간에 설치된 조명 예술로 예술이 특정 장소를 넘어 싱가포르 도심 전체의 일상 속에 스며들도록 함
도시경쟁력 효과		- 지속가능 예술축제 허브로서 브랜드 강화 : 아시아 대표 빛 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지속가능한 크리에이티브 시티' 이미지 제고- 크로스 섹터 협업 모델 선도 - URA·NAC·관광청·민간 기업이 공동 주최·후원하는 협업 구조를 통해 혁신적 도시문화 정책 실행력 및 국제적 주목도 상승

	도시계획	문화계획	도시계획+문화계획
계획 연계성			●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자본적 주체			●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기획, 운영 주체			●

도시공공미술 특성	최저 〈---------- 최고					종합점수
	1	2	3	4	5	
장소 특정성	■	■	■	■		
작가의 창의성	■	■	■	■	■	
통합성	■	■	■			
다변적 접근성	■	■	■			
순환성	■	■	■	■	■	
지속가능한 시스템	■	■	■			
주체적 참여성	■	■				
환경 친화성	■	■	■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4) 멜버른 (Melbourne, Austria)

멜버른시는 2021년에서 2031년 까지 10년간의 공공미술 프레임워크[106]를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멜버른시 경제개발 계획 2031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31)과 멜버른 시의회가 발표한 지역사회 발전 계획(Council Plan 2021~25)을 반영한 비전을 수립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창의적 도시' 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최상위의 도시비전과 멜버른시의 20분 도시(20 minute City)계획과 맞물려 수립된 이 계획에는 작품의 한시적 점용, 주민과의 협력강화, 민관협력,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실천전략과 프로세스를 강조하였다. 특징적으로 실무자들의 아이디어를 작품화하는 커미션 작품 프로그램과, 신진작가의 테스트베드를 확장함과 동시에 건축, 조경개발, 교통과 결합한 개발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예고하였다. 멜버른은 예술의 도시라고 칭해질 정도로, 공공예술과 창의산업 진흥에 적극적인 도시정책을 추진[107]해 왔는데,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2] 멜버른 20분 도시

① 공공공간의 도시 인프라 내 예술작품 통합
② 지역 커뮤니티와 예술가 간 참여 기반 공동 창작 확대
③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신흥 예술 콘텐츠 육성
④ 창의산업과 도시 브랜드 전략 연계
⑤ 소수자·원주민 예술의 포용과 가시화

106) https://www.melbourne.vic.gov.au/public-art-framework?utm_source=chatgpt.com
107) City of Melbourne(2018) Creative Strategy 2018–2028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멜버른은 도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술을 도시구조의 고정요소로 통합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가 시각적 감성·사회적 기억·시민참여의 장이 되도록 공공공간과 예술을 구조적으로 통합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108] 또한, 20분 동네(20-Minute Neighborhoods) 전략은 지역 기반의 생활권과 문화시설, 예술공간, 커뮤니티 센터의 근접한 배치를 통해 문화 접근성과 생활 자족성을 높이고 있으며,[109] 이는 예술의 일상화와 지역문화 기반 형성을 유도해 멜버른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브랜딩하여 도시경쟁력 제고 및 관광·투자 유치 전략을 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딩, 사회통합, 문화다양성 보장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7억 호주달러(한화기준 약 1조5천억)[110]의 예산을 투입한 Arts Precinct Transformation (MAPT) 프로젝트와 골목길 벽화로 유명한 멜버른의 전통적인 그래피티를 도시의 디자인 요소로써 가림막에 적용한 Creative Hoarding Trial 프로젝트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가) 커뮤니티 기반 거버넌스 : 20분 동네 프로젝트(20 Minute Neighborhood)

20분 동네란, 주민이 도보 또는 자전거로 20분 이내에 주거, 교육과 보건, 식료품 구매 등 생활의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 모델로 근접성, 접근성, 자족성의 세 가지 공간적 원칙으로 전통적인 중심지 집중형 도시구조에서 다핵적, 분산형 도시구조를 지향한다.[111] 멜버른의 20분 동네 프로젝트는 빅토리아주 도시개발부의 장기 전략계획인 Plan Melbourne 2017-2050에 처음 명문화되었으며, 이후 시범사업과 커뮤니티 기반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확대 적

108) City of Melbourne (2021) Public Art Framework.
109) Department of Transport and Planning Victoria (2017) Plan Melbourne 2017-2050.
110) https://www.jensenhughes.com/pacific/insights/melbourne-arts-centre-and-precinct?utm_source
111) Department of Transport and Planning Victoria (2017) Plan Melbourne 2017-2050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용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빅토리아 주 정부와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멜버른 시내 세 곳에서 진행된 시범프로젝트로, 주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활기차고 걷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4-13] 20분 도시 프로젝트

지역 내 일상 기능의 자급자족 구조를 통해, 저소득층과 교외 거주민의 문화·보건·사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정체성과 커뮤니티 소속감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며 자동차 의존도를 낮춰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저탄소 도시 이동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방식으로[112] 문화시설과 공공미술을 배치함으로써, 문화 접근성 향상, 일상 속 예술 경험 확산, 예술의 지역 기반 생산·소비 구조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문화기반 도시개발과 예술의 일상화를 지향한다.[113]

[표 4-12] 20분 동네 프로젝트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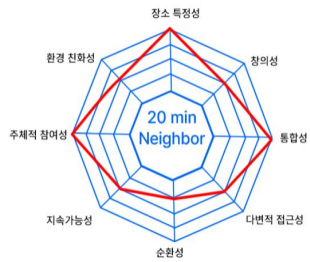
멜버른 (Melbourne, Austria)		
20분 동네 프로젝트 (20-Minute Neighbourhood)		
사업 개요		"지역적인 삶(living locally)"에 초점을 맞추어 800m 반경 내 공동체중심의 공공공간 조성
세부	도시계획 관점	멜버른의 20분 동네 프로젝트는 도시 내 생활권 단위의 자족성과 기능 분산을 지향하는 분산형 도시계획 모델로 정의

112) Department of Environment, Land, Water and Planning (2020) 20-Minute Neighbourhoods Pilot Program: Lessons Learned Report. Victorian Government.
113) City of Melbourne (2018) Creative Strategy 2018-2028: A City that Creates.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내용		- 지역 커뮤니티 단위에서 주거, 상업, 문화, 교육, 보건 등 일상 기능이 통합된 복합생활 노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둠. - 도시 전반의 공간 불균형 해소, 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회적 포용성 확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책적 시도.
	공공미술 관점	- 예술이 도시 공간 속에서 일상성과 장소특정성 획득 : Creative Strategy 2018-2028과 Public Art Framework를 통해, 공공미술을 지역 커뮤니티 공간, 교차로, 광장, 보행로, 공원으로 확장 - 원주민 예술,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 인터랙티브 설치미술 등을 통해, 예술은 도시 정체성과 사회적 기억의 매개체로 기능
	어바니즘 관점	- 시민 체험 중심의 도시 운영 모델 도시공간을 정적인 기능 구조물이 아닌, 유동적·감각적 체험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실험 - 도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행 루트, 골목 네트워크, 커뮤니티 광장,로컬 마켓등은 도시의 밀도를 인간 친화적으로 체감, '걸을 수 있는 도시'의 구현 - 로컬 기반 문화 프로그램, 공공시설 공동설계등의 방식 '경험하고 구성하는' 도시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화
경제성 관점		- 지역 상권 활성화 : 동네 내 필수 서비스 이용 증가로 로컬 상점·소상공인 매출 증대
사회적 관점		- 문화·사회서비스 접근성 개선 : 저소득층·교외 거주민도 집 가까이에서 보건·교육·문화시설을 이용 가능 - 커뮤니티 소속감 강화 : 주민 참여 기반 설계로 지역 정체성 회복 및 이웃 간 네트워크 형성
가치지향성		- 저탄소·지속가능한 이동 체계 구축 : 보행·자전거 중심의 교통 설계로 도시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 지속가능성 제고 - 예술의 일상화 및 문화 접근성 향상 : 공공미술·문화시설을 생활권 내 배치하여 일상 속에서 예술 체험 확대
도시경쟁력 효과		- '유네스코 창의도시' 브랜딩 강화: 20분 도시 모델을 통한 혁신적 도시설계로 글로벌 창의도시 위상 제고

계획 연계성	도시계획	문화계획	도시계획+문화계획
자본적 주체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
기획, 운영 주체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

도시공공미술 특성	최저 〈---------- 최고					종합점수
	1	2	3	4	5	
장소 특정성	■	■				
작가의 창의성	■	■	■	■		
통합성	■	■				
다변적 접근성	■	■	■	■		
순환성	■	■	■	■		
지속가능한 시스템	■	■	■			
주체적 참여성	■	■	■	■		
환경 친화성	■	■	■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나) 임시 가설물을 활용한 예술전시 Creative Hoarding Trial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을 둘러싼 가림막은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공공공간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대체한 것이 공공미술과 임시건축물을 결합한 Creative Hoarding 전략이다.[114]

2016년부터 호주 멜버른 시가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도시 곳곳의 건설 가림막을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채우는 Creative Hoarding Trial은 멜버른 중심지 내 빈번한 재개발과 공사현장의 증가로 인해 도시 공간에 초래하는 혼란이 발생하게 되면서 도시의 미적 연속성과 공공공간의 질 유지를 위한 비상설적 공공미술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4-14] Creative Hoarding Trial

본 전략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지역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전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임시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생태계와 도시경관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예술작품을 거리 환경 속에 삽입하여, 일상 동선 내의 감각적 경험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창의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115]

Creative Hoarding Trial은 총 6개 공공,민간 프로젝트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시정부, 민간 개발사, 문화예술 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공공-민간 협업구조를 취

114) City of Melbourn (2016) Creative Hoardings Trial: Public Art on Construction Sites. Arts and Culture Branch.
115) City of Melbourne (2018) Public Art Framework 2014-2024. Urban Strategy Division.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하였다. 특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가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예술가 공모제를 운영하였다.[116] 설치물에 대한 디자인 기준으로는 공공안전, 도시 맥락,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작품에는 사회적 메시지, 지역문화,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담았다.

[표 4-13] 크리에이티브 홀딩 트라이얼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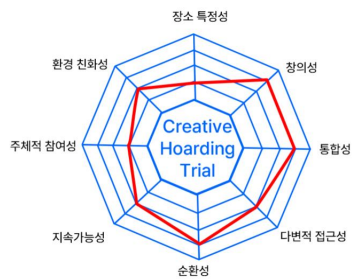
멜버른 (Melbourne, Austria)		
크리에이티브 홀딩 트라이얼 (Creative Hoarding Trial)		
사업 개요		공사의 가림막을 예술작품의 캔버스로 만들어 다양한 도시예술 실험
세부내용	도시계획 관점	- 도시경관의 연속성과 심미적 일관성 유지를 도시계획의 일부로 간주 - 공사현장을 시각적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정책을 수립 - 가림막 디자인은 개발승인 조건으로 포함되며, 공공미술을 도시개발의 하위계획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 - 정부와 민간 개발사, 예술가 간의 삼각 협력 구조를 통해, 민간은 예술가의 작품 설치에 필요한 가림막 공간과 일부 예산을 제공하고, 시는 선정 및 디자인 가이드를 제공
	공공미술 관점	- 건축현장을 예술 캔버스로서 전환, 예술가에게 실험적 프로젝트 기회, 시민에게는 거리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미적 경험을 선사 - 도시에게는 문화 콘텐츠와 경관 미디어의 융합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생태계와 도시미디어를 융합, 포용적 전시 기회 제공 - 참여 예술가에게 소액의 수당 및 실적을 제공지속적 커리어 발전 기회를 제공으로 퍼블릭 아트 커미션, 갤러리 전시가 가능하도록 연계[117] - 시민의 문화적 호기심을 갖도록 자극, SNS 공유를 통하여 비공식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예술과 도시의 소통 활성화 - 거리에서 회화작품을 만나고 청년 예술가, 이민자 작가 등에게 포용적인 전시기회를 제공. 접근성 높은 예술구현 계기 마련
	어바니즘 관점	- 공사장 주변을 시각적 호기심의 장소로 인식, 동선 속에서 마주치는 전시공간으로 작동 살아있는 공공공간 조성 - 설치와 해체가 자유로운 임시구조물인 가림막은 빠르게 반응하는 도시실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시민 참여형 메시지, 정치적 혹은 지역 이슈 반영 등 공간적 담론의 발현 장치로도 기능하였음[118].
경제성 관점		- 지역 예술 생태계 경제 활성화 : 공공-민간 협업으로 예술가 공모제 운영 - 미관 개선에 따른 상권 및 부동산 가치 유지: 공사장 가림막의 시각적 불쾌감 해소, 인근 상점 고객 유치 및 주변 부동산 이미지 안정화

116) City of Melbourne (2016) Creative Hoardings Trial: Public Art on Construction Sites. Arts and Culture Branch.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사회적 관점	- 시민 참여형 예술 경험 제공 : 일상 동선상의 가림막을 매개로 거리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과 교감 -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커뮤니티 결속:작품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지역문화 반영을 통해 주민의 소속감 증진 및 커뮤니티 정체성 확립
가치지향성	- 비상설적 공공미술 전략 구현: 임시건축물과 공공미술 결합을 통한 창의적 도시 경험 제공 - 사회적 메시지와 예술 실험의 장 : 지역 예술가 작품을 통한 도시경관과 예술 생태계의 상호작용 실험
도시경쟁력 효과	- 도시 미적 연속성 및 공공공간 질 유지 : 재개발 현장 속에서도 도시경관 품격 유지를 통한 창의도시 이미지 강화

계획 연계성	도시계획	문화계획	도시계획+문화계획
			●
자본적 주체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
기획, 운영 주체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

도시공공미술 특성	최저 〈---------- 최고					종합점수
	1	2	3	4	5	
장소 특정성	■					
작가의 창의성	■	■	■	■		
통합성	■	■	■	■		
다변적 접근성	■	■	■			
순환성	■	■	■	■		
지속가능한 시스템	■	■	■			
주체적 참여성	■	■				
환경 친화성	■	■	■			

6) 서울(Seoul, Korea)

서울시는 21세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물리적 도시계획과 함께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 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2040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보행일상권과 수변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재편, 도시공간구조의 새로운 혁신을 지향하며 도시공간의 효율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117) City of Melbourne (2018) Public Art Framework 2014-2024. Urban Strategy Division.
118) Strom, E. (2019). Temporary Urbanism and Art-Led Regeneration in the Public Realm. Urban Studies, 56(11), 2202-2218.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서울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도시공간 구조를 사람 중심의 30분 도시로 전환하는 전략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5대 생활권역 및 3도심 체계를 자족성과 분산성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형 구조로 개편하고, 도시계획에 있어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적용한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문화자산과 지역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미학을 실천하고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에 맞추어 녹지 인프라를 확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조성, 저탄소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으로 환경정책과 도시공간 계획을 종합했다.

서울 전역을 문화·예술로 채워진 도시공간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도시기본계획과 더불어 공공예술과 도시디자인의 통합 추진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예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경쟁력 확보 전략과도 직결된다. 참여작가의 범위와 장르의 한계를 없애고 시민을 공공미술의 기획단계부터 직접 참여시키는 공공미술방식과 대형 설치, 시설결합, 커뮤니티아트, 대학협력 사업과 컨퍼런스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공공미술의 유형을 실험한다. 서울시의 공공미술 전략은 세계적인 글로벌어워드(IF,SEGD,DFA 등)[119]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한국문화공간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시민과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정책을 확장 중이다.

가) 도시공간 예술 실험 :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Seoul is Museum)

'서울은 미술관'은 2016년 서울시 내 전담팀을 배치하여 행정력을 강화하고 공공미술위원회 설치, 조례제정과 함께 지방정부 중심의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2016년 11월 '서울은 미술관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본격화하였다.[120]

119) 공공미술 프로젝트「서울은 미술관」2020-2022, (2023), 서울특별시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그림 4-15] 숨쉬는 그물(서울숲), 홍제유연(유진상가), 비의 장막(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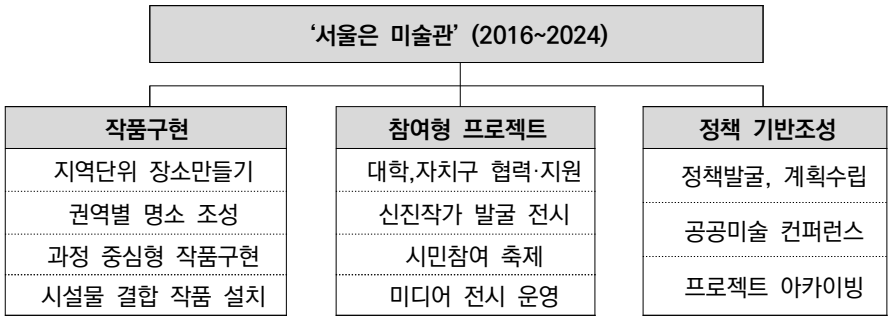
2025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도시의 일상 공간을 예술적 실험의 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으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광장, 벽면, 육교, 지하보도, 담장 등 비전통적인 도시 공간에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시민 일상에 예술을 스며들게 하였다.[121] 윤슬, 홍제유연, 타원본부, 도킹서울, 비의 장막, 숨쉬는 그물 등의 설치형 작품과 신진작가 발굴과 전시, 컨퍼런스, 대학협력사업, 공공미술 축제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미술을 통해 도시에서 가능한 공공미술 정책을 입체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미관 향상이 아니라 시민의 감각적 경험을 증진시키고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장소 만들기, 관계 만들기를 실현하면서 관광객자원이 아닌 도시민을 위한 예술자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개입한다는 철학을 실천하며 공공미술에 수요가 있는 대상지 발굴, 작품의 생애주기 설정,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전담 관리부서의 설정, 작품선정 시민투표, 시민 스토리에 의한 작품구현, 시민과 함께 완성하는 작품구현 과정 등을 실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현장프로젝트 등으로 시민의 직접참여와 경험을 주도하며 도시공간의 풍경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122] 중에 있다.

120) 공공미술 프로젝트「서울은 미술관」2017-2019, (2020), 서울특별시
121) https://archives.seoul.go.kr/contents/seoulmuseum?utm_source
122) 박재은, 장영호(2021), 서울시 디자인 정책으로서의 도시 공공미술 현황과 개선 필요성, 공공디자인연구, vol 2, p42-53 기반 현행화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표 4-14] 서울시 공공미술 정책 '서울은 미술관' 추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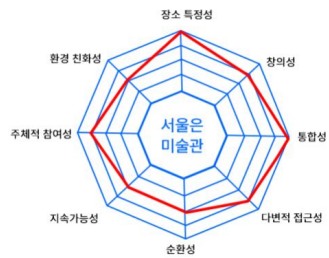


[표 4-14]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조사표

서 울 (Seoul. Korea)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 (Urban asrt Project Seoul is museum)		
사업 개요		서울 곳곳의 특성에 맞춘 공공미술 프로젝트
세부내용	도시계획 관점	- 공공공간의 질을 높이고 기능 복합화를 실현하며, 서울플랜 2040과 연계하여 예술 자원을 분산 배치 - 지역 문화 불균형 해소 및 문화 향유권 확대, 도시시설물에 예술을 융합. 도시 관리부서, 공원부서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도시 전반의 균형감 있는 정책 확대
	공공미술 관점	- 일상 공간 기반의 관계 지향적 예술 실천을 추구, 장소특정성 강화 - 예술은 시민과 공간 사이의 매개자로서 과정 중심의 구조를 통해 사회적 의제를 예술과 연결한 현대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어바니즘 관점	- 도시 물리적 구조에 예술을 내재화하고, 일상 생활반경 안에서의 도시시설과 공공공간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 - 장소의 복합적 활용으로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의 수요에 기반한 사업 추진, 권역과 지역의 문화 불균형 해소, 국제적인 탄소중립의 의제 적용, 문화 향유권 확대
경제성 관점		-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등 고용 및 산업활성화가 있지만 경제성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움
사회적 관점		- 시민 참여형 공공미술 기획·제작 : 시민 투표, 스토리 제안, 현장 제작 참여 등 전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 참여 → 공동체 소통 및 협력 강화 - 비전통적 일상공간의 예술화: 광장·벽면·육교·지하보도.시설물 등 도심 틈새를 예술 실험장으로 전환 → 일상 속 감각적 경험 증진 및 지역 정체성 회복
가치지향성		-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 비전 실현: 일상 공간에 설치미술을 통해 예술이 도시 구조의 장소 만들기, 관계 만들기 구현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table>
<tr><td>도시경쟁력 효과</td><td colspan="3">-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수상 : IF, SEGD, DFA 등 국제 공공미술·디자인 어워드 수상으로 서울의 디자인 도시 위상 강화
- 도시브랜드 강화 및 정책 확장:‘서울은 미술관’의 긍정적 시민 평가를 기반으로 사업을 권역별·지역별로 확대 적용하여 문화도시 정체성·경쟁력 제고</td></tr>
<tr><td rowspan="2">계획 연계성</td><td>도시계획</td><td>문화계획</td><td>도시계획+문화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자본적 주체</td><td>정부</td><td>민간</td><td>정부 + 민간</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기획, 운영 주체</td><td>정부</td><td>민간</td><td>정부 + 민간</td></tr>
<tr><td>●</td><td></td><td></td></tr>
</table>

도시공공미술 특성	최저 〈----------〉 최고					종합점수
	1	2	3	4	5	
장소 특정성	■	■	■	■	■	
작가의 창의성	■	■	■	■		
통합성	■	■	■	■	■	
다변적 접근성	■	■	■	■		
순환성	■	■	■			
지속가능한 시스템	■	■	■			
주체적 참여성	■	■	■	■		
환경 친화성	■	■	■			

나) 상징적 건물표면에 미디어아트로 생명성 부여 : DDP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

DDP는 서울시가 과거 동대문운동장을 새로 조성하면서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디자인을 구현하여 2014년에 개장한 랜드마크이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는 아름다운 건물의 외벽 곡면을 활용함으로써 초대형 디지털 공공예술 전시를 시작하였다. 이 미디어 파사드는 DDP를 디지털 공공예술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으며, 기술과 예술의 융합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도시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123)]

12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2232911Y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그림 4-16] DDP미디어 파사드

2023년 서울라이트라는 브랜드로 융합되어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벽면, 만리동 광장 등 서울의 곳곳을 미디어아트로 활력을 제고한다. 8K 이상의 초고화질 콘텐츠 구현과 함께, 몰입형 인터랙션 기술이 도입된 미디어 파사드는 단순한 영상 송출을 넘은 AI, 빅데이터 기반의 예술작품, 실시간 시민 참여형 콘텐츠 등으로 확장되며 진화하고 있다. 콘텐츠 운영에 있어서도 DDP 미디어 파사드는 전시 시점에 테마 전시를 운영하며, 그 외에 다른 스크린에 대하여는 월별 또는 분기별 운영계획에 따라 내용을 달리한다. 기후위기, 젠더, 평화 등 사회적 담론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를 적극 수용하며 국내외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작품공모, 기획전, 커미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주야간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24시간 공공문화 콘텐츠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124] DDP 미디어 파사드는 기술, 예술, 시민성을 결합한 차세대 공공예술 플랫폼으로 기능며 서울의 미래형 도시문화 실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표 4-16] DDP 미디어 파사드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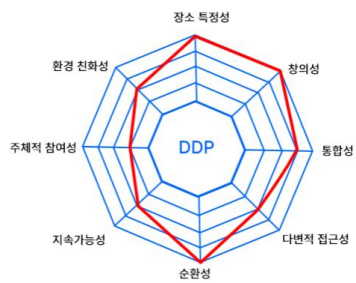
서 울 (Seoul.Korea)		
DDP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		
사업 개요		DDP 외벽을 초대형 디지털 캔버스로 바꿔 서울 야간경관·관광을 살리는 미디어아트 플랫폼 구축 사업.
세부	도시계획 관점	- 동대문 일대는 미디어 파사드와 곡선형 건축을 통해 '디자인 중심 도시'로 브랜딩되었으며, 계절별·주제별 콘텐츠로 시민의 시선을 유도하고 공공공

124) https://ddp.or.kr/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내용		간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통합적 도시설계의 사례로 평가
	공공미술 관점	- 야외 디스플레이를 통해 예술을 일상화하며, 다양한 사회·문화·글로벌 이슈를 시각화하여 시민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공 담론의 장 제공
	어바니즘 관점	-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야간 문화 거점으로서 도시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지향적 공공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실험하는 매개체로 작용
경제성 관점		- 관광 유입 및 소비 촉진 : 야간 시각 콘텐츠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반복 방문 유도로 체류 시간·소비 증가 - 상권 활성화 및 매출 증대 :동대문 상업지역 보행자 유입 증가로 인한 음식점·카페·소매점 매출 상승
사회적 관점		- 공공 담론의 장 제공 :기후위기·젠더·평화 등 사회·문화 이슈를 미디어 아트로 시각화하여 공공 토론 촉진
가치지향성		- 공익적 사회 메시지 실현 : 분기별 테마 전시를 통해 사회적 담론을 예술적으로 구현을 통해 공공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조)
도시경쟁력 효과		- 야간경관 브랜드 강화 : DDP를 디지털 공공예술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서울의 글로벌 디자인 도시 이미지 제고 - 미래형 도시문화 허브 구축 : 기술·예술·시민성이 결합된 차세대 플랫폼으로 서울의 스마트·창의도시 경쟁력 강화

계획 연계성	도시계획	문화계획	도시계획+문화계획
		●	
자본적 주체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
기획, 운영 주체	정부	민간	정부 + 민간
			●

도시공공미술 특성	최저 〈----------〉 최고					종합점수
	1	2	3	4	5	
장소 특정성	■	■	■	■	■	
작가의 창의성	■	■	■	■	■	
통합성	■	■	■	■		
다변적 접근성	■	■				
순환성	■	■	■	■	■	
지속가능한 시스템	■	■	■			
주체적 참여성	■	■				
환경 친화성	■	■	■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4.1.3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1) 사례분석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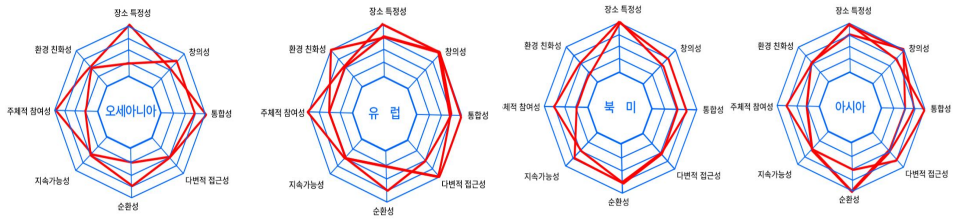
가) 도시공공미술의 대륙별 활용 특성

8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10개의 도시공공미술 사례를 평가한 결과 유럽과 오세아니아 3개 나라의 경우 국제적인 가치지향성 높게 나타난 반면 아시아의 경우는 활력강화를 위한 도시디자인 요소에 보다 집중한 경향성이 있었다. 뉴욕, 서울, 싱가폴과 같이 밀도가 높은 도시는 거대한 장소점용 보다는 순환적 전시형태의 프로젝트 추진 경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유럽의 도시공공미술은 대부분 예술기획자를 우선 선정하여 통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야간경관, AR등의 기술을 활용한 일시적 프로젝트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사업 추진 재원의 관점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사업비는 대부분 국비이거나 시비 등의 정부자금으로 대부분 공적 자금의 한계 안에서 실행되었으며 설치 프로젝트 내에서는 한시성을 강조하는 사례는 없는 반면, 시범적인 사업(Pilot), 또는 정책 지원적 목적으로 추진 사례가 발견된다.

10개 사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하면 가치중심의 환경친화성, 주체적 참여, 지역의 특성 발견에 대하여 유럽도시들이 더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며, 장소의 특성과 도시자원의 컨디션을 적극 활용하는 통합성과 활용성. 순환성 측면에서는 아시아권 도시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북미의 경우 아시아권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보다 강화햐여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오세아니아와 유럽사례를 참고할만 하다. 결과의 종합은 [그림 4-17]과 같다.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1946 · PRO HOMINUM BENEFICIO



[그림 4-17] 사례분석을 통한 대륙별 도시공공미술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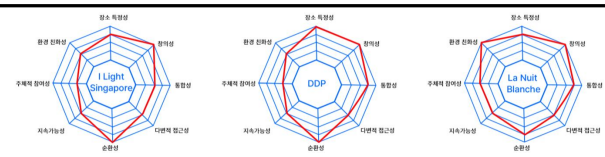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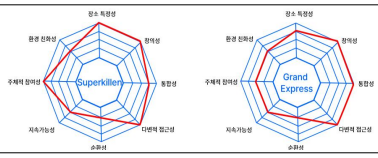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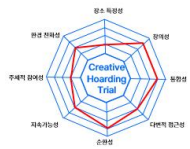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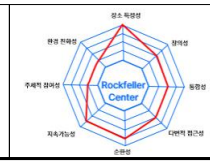
나) 도시공공미술 유형별 표현특성

사례분석의 결과 6개 도시에서 진행된 도시공공미술의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면 미디어 융합, 도시 마스터플랜과 결합된 영구설치, 장소만들기 방식으로 도시자원의 재생과 활용성 강화를 지향한 프로젝트, 시설물 자체에 예술 프로그램을 연결한 사례, 민간의 주도에 의한 자율적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미디어아트, 라이트아트와 결합한 축제, 이벤트 형식에 대하여 각 도시는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기술력의 표현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으로 공공미술을 활용한 싱가폴의 사례가 있는 반면, DDP라는 장소의 이미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물의 독특한 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서울의 사례가 있는 반면 프랑스의 뉘 블랑쉬는 빛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 하고 전기 절약과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해 단 하루의 축제기간을 설정하여 집약화된 프로그램을 지향한 특성으로 구분된다.

또한 대형프로젝트로써 진행 중인 파리의 그랑 익스프레스와 코펜하겐의 수퍼킬렌 프로젝트는 초기 기획부터 아트디렉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계획, 건축, 조경, 예술가들이 결합되어 각 장소의 명소화 한 공통 특성이 있는 반면,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관계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수퍼킬렌과 미술,건축의 거장들이 함께 일상명소를 조성하는 거점개발 사업으로 실행한 파리사례추진구조와 주요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4-17] 유형별 도시공공미술 표현 형식

미디어기술 활용한 이벤트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개발부터 결합			
도시자원 재생, 활용			
시설물 결합형		민간주도형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원 또는 일상공간에서 유휴했던 공용공간을 예술로 바꾼 도시자원의 재생, 활용 프로젝트의 경우 공통적으로 지역의 장소특성, 역사,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통합적 예술과 유휴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장르적으로도 과정형 커뮤니티아트가 포함되었고 추가적인 공간점용이 최소화되었다. 시작에서부터 참여한 지역공동체가 현장을 활성화, 추가 전시의 적용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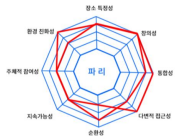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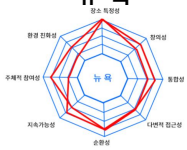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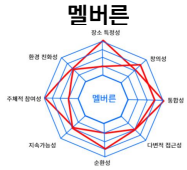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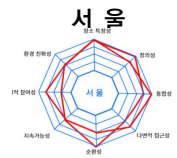
벽화의 도시로 유명한 멜버른의 특징을 살림과 동시에 도시를 작가들의 작은 캔버스를 만들어 도시의 필요자원과 예술의 결합사례를 만들었으며 미국의 사례로 소개된 록펠러센터의 공공미술은 민간소유의 공개공지를 시민에게 공공에서 다룰 수 없는 규모와 명성의 작품들을 민간을 통해 구현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적 자금에서 탈피하고 문화를 통한 민간의 공공성 창출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다) 도시별 상위계획과 도시공공미술의 연결성

도시별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관련 기본계획과 검토된 도시공공미술 사례의 적용방식을 도시별로 정리하면 [표 4-18]과 같다.

[표 4-18] 도시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공공미술 적용방식

도 시	관련 기본계획 지향점	도시공공미술 적용방식
파 리 	**PLU Bioclimatique** 탄소중립, 기후와 생물다양성 보호 1인 녹지공간 확보 주민을 위한 보행권 내 서비스 편의 제공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 지향	**Grand Paris, La Blanche** 공간의 형평성과 문화적 분산화 사회적 균형에 맞는 예술적 장소만들기 열린 문화공간 체험을 강화 자유와 포용을 갖춘 환경친화적 예술
코펜하겐 	**Copenhagen Municipal Plan (2023)** 2025년까지 탄소중립 녹색도시 달성 모든 연령을 위한 혼합적 지속가능성 강조 '멈추지 않는 모든 사람을 도시 강조	**Superkillen Park** 시민참여형 커뮤니티의 표용성 넓음 포괄적인 장소 조성과 동네의 회복 초기부터 예술기획 장소특정성 강화
뉴 욕 	**OneNYC 2050 (2019)** 강하고 공정한 도시 지향 형평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고 활기찬 민주주의 달성이 목표, 현대 인프라 활용 강조	**High Line Park, Rockfellor C.** 버려진 도시자원의 녹색공원화 모두를 위한 현대미술의 장 제공 민간을 중심으로 문화민주화 추구 모두 하나된 문화적 형평성 지향
멜버른 	**Metropolitan Planning Strategy 2017-2050** 디자인 특성이 기반된 살기 좋은 도시 지향 건강한 공동체, 공간적 형평성, 회복력이 있는 저탄소 도시 추구	**20 Min Neighbor,** Creative Hoarding 20분 생활권 내 공원, 거리에 예술 결합 집근처에서 활기찬 문화향유 가능케 함 문화자산을 통하 도시에 스토리를 입힘 거주성을 중심으로 독특한 예술방식 추구
싱가폴 	**Singapore Green Plan 2030** 도시의 녹생강화, 폐기물 최소화 대중의 참여와 라이프스타일 변화 추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다분야 기술결합	**I Light Singapore** 기술과 재활용재료를 사용한 작품설치 Green Plan관련 주제를 축제화 예술과 기술결합 미디어 축제로 활력 증진 녹색 창의산업 육성.지원
서 울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30분 보행도시 서울을 지향 지역사회 중심의 일상생활의 질 향상 디지털, 국제네트워크로 위상강화 61개 하천활용과 새로운 교통체제 운영	**서울은 미술관, DDP 미디어파사드** 장소만들기, 자원의 재활용과 지역거점의 형평성 있는 장소선정 기술적 예술 혁신으로 창의 이미지 강화 최첨단 예술을 통한 국제교류 강화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재원의 출처, 운영의 구조. 정부협력 여부를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 [표 4-19]와 같다.

[표 4-19] 사례분석 결과 종합

분석기준		유럽			미국		아시아			오세아니아	
		코펜하겐	파리		뉴욕		싱가폴	서울		멜버른	
		A1	A2	A3	B1	B2	C1	C2	C2	D1	D2
기획단계	상위계획 연계		●	●			●			●	●
	복합개발사업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부처협력		●	●	●			●	●	●	
	민관협력	●			●		●	●	●		
	민간단독					●					
실행단계	기획자 지정	●	●	●		●	●		●	●	
	공모방식				●			●			●
	위원회구성		●		●			●			
사업형태	단발성 사업	●						●			
	지속사업		●	●	●	●	●		●	●	●
실행 유형	영구설치	●	●								
	한시설치			●	●	●		●		●	●
	순환전시	●			●	●					●
	축제,이벤트	●		●	●	●	●		●		
자본	민간자본			●	●	●	●	●			
	정부지원			●			●				
	정부예산	●	●				●	●	●	●	●
사업평가	사업평가				●		●				
	유지관리	●	●		●			●			●

라) 사례별 도시경쟁력 달성 여부

각 도시의 사례에서 도시계획과 문화계획의 영향관계에서 '도시공공미술'의 8개의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을 때 도시별 공통성과 차별성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도출을 포함하여 삶의 질 평가와 관광적 성과, GDP의 성장, 야간활동의 지원 등을 통해 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직·간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접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바니즘과 연결된 공공미술 적용'을 통해 도출된 효과는 멜버른의 보행일상권과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도시의 장소특성과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활동과 국제적 의제참여 등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양한 도시경쟁력 지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보행권 강화와 접근성, 민간의 직접적 참여 외에도 국가주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은 안정적인 정부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임을 재확인 할 수 있다. 10개의 사례연구를 통해 발견된 도시공공미술 적용을 통한 도시경쟁력 달성 지표는 [표4-20]과 같다.

[표 4-20] 도시공공미술 적용을 통한 도시경쟁력 지표 달성

	도시	도시공공미술 관점	경쟁력 증진효과	핵심어
호주	멜버른	보행 일상권 지원을 위한 한시적 프로그램 도입, 거버넌스 활성화	창의계층의 유입과 지역 혁신 EUI 삶의 질 평가 7년간 1위	보행 일상권
유럽	파리	현대미술 축제와 일상공간 내의 문화 랜드마크 확산, 국제의제 동참	야간 문화 활성화, 도시이미지 제고, 도시경쟁력 지표 상위권 유지	예술기획 강화
	코펜하겐	사람중심의 디자인, 예술가의 기획 참여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확산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 주민의 건강, 행복도 향상과 사회통합 지원	거버넌스 지역성 강화
북미	뉴욕	고가공원을 시민의 공간이자 예술적인 명소로 공공미술 일상화,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	연 500만 명이 방문함으로써 관광활성화, 풍부한 예술자원과 도시브랜드 강화	민간 참여 순환성
아시아	싱가폴	국가주도의 르네상스 시티 계획으로 예술적인 인프라를 도시에 확장, 기술중심 친환경 예술 추구	2009~2014년간 문화부문 GDP의 기여도가 증가 (1.42→1.7조 SGD)	관광, 축제
	한국	도시의 일상공간을 디자인과 미술로 활성화. DDP의 문화 인프라 확장	도시이미지 증진과 야간활동증가에 따른 GPCI 7위→6위로 변동	도시디자인

⇓ ⇓ ⇓

도시경쟁력 효과 : ① 삶의 질 향상 ② 도시 관광·브랜딩(이미지 제고) 효과 ③ 거버넌스 강화 ④ 글로벌 가치 추구 ⑤ 문화인프라 확대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2) 사례를 통한 도시공공미술 실행전략

도시공공미술의 사례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해 보다 강조해야 할 전환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도시와 시설의 변화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부터의 예술기획의 반영이다. 코펜하겐과 파리, 멜버른의 사례를 통해 도시계획에 예술작품의 설치와 문화적인 명소조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작품 설치를 위한 기반의 작업을 포함한 도시공공미술 추진하였다. 도시의 재구화, 재개발, 신규 조성 등의 도시계획은 시대의 철학을 반영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의 미래상을 그림에 있어 감성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에 예술이 도입된 사례들은, 통합적인 계획을 통해 작품 및 장소의 상징적이고 특별한 장소로의 환원에 기여한다.

둘째, 대형의 랜드마크 조성보다는 일상권 안에서의 장소, 시설, 보행로 등을 활용하여 일상 생활반경에서의 접근성 강화와 도시 인프라 활용성 강화아다. 뉴욕 하이라인파크와 멜버른의 가림막 설치, 서울시 작품의 일부에서 주로 발견되었는데, 너른 공원이나 광장의 설치가 일반적이던 공공미술의 적용방식에서 벗어나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틈새의 공간, 재생의 공간 등을 활용하여 생활반경 안에서의 감상권을 강화하면서 도시와 시민, 작품 간의 밀착도를 높인다. 이러한 방식은 일상에서 작품과의 교감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셋째, 시간개념의 반영이다. 밀도가 높은 도심의 도시공공미술은 순환성과 한시성이 가장 극명한 차이로 나타났는데, 정기적인 콘텐츠 순환과 새로운 미디어, 기술과의 결합을 통하여 전통적인 미술의 고정적 형태를 탈피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뉴욕의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영국의 네 번째 좌대와 같이 특정 장소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순환시키는 방식이 그것이다. 자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산적 가치로써 구매,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한계를 탈피하여 생동감 있는 도시에 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공간의 물리적 점용을 최소화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동시대미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장기 존치 가능한 재료와 구조로 한정되어있던 작품에서 유연하고 활용성이 있는 예술로의 성장가능성을 여는 핵심요소로 기능하였다.

넷째, 야간활동의 지원성이다. 본 논문을 통해 싱가폴과 서울, 프랑스 사례를 다루고 있으나 미디어아트와 라이트아트 등 점용이 없는 비물리적 차원의 전시, 축제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야간활동을 위한 안전감을 강화하는 조건을 만족하고 설치와 점용 중심의 공공미술에서 야외공간 자체에서의 실시간의 몰입도를 높이는 공공미술방식 전환에 중요한 지향점을 제시한다. 특히 도시공간을 이루는 대형 건축물들의 벽면, 일상적인 활동공간 자체를 한시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극대화된 변화경험으로 생동성을 강화한다.

다섯째, 거버넌스의 작동이다. 코펜하겐의 수퍼킬렌, 멜버른의 20분 도시와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모두 정부의 계획에서 시작된 정책사업이였으나 전체 과정에 지역 커뮤니티가 참여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지역 밀착도를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현재까지 능동적인 전시와 현장운영 등의 활성화에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인 작품운영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이 점은 커뮤니티가 와해된 대도시에서 공동체적 의미를 강화하고 도시공공미술이 지역에 안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확인하였다.

여섯째, 안정적 시스템의 구축여부이다. 조사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실질적인 경제효과와 도시공간의 활용성 증진의 결과는 도시의 다향한 계획들의 연계화 체계적인 실행 시스템이 성공요인으로 작동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사례를 통해 발견된 도시공공미술의 전략은 [표 4-21]과 같다.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1946 · PRO HOMINUM BENEFICIO

[표 4-21] 사례에서 도출된 도시공공미술 전략

1. 도시 공간계획 시점에서부터의 예술기획 반영
2. 일상 보행반경 내 예술경험 강화, 도시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
3. 작품설치에서 전시개념의 시간성 적용 (한시성, 순환성, 정기성)
4. 야간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감과 기술결합을 통한 폐기물 최소화
5. 거버넌스의 참여를 통한 현장 활용의 지속가능성 확보
6,.체계적이고 안정적 시스템 인프라 구축

3) 시사점

지금까지의 논의의 과정을 통해 '도시공공미술'의 체계화와 구체화를 통해 도시의 문화경쟁력 증진 뿐 아니라 실제적인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도시의 특정적인 인상을 만듦으로써 관광적 효과, 도시브랜드 효과, 문화적 수준향상 효과 등의 부가가가치 도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도시공공미술이 하나의 이론으로써 체계화 되어 공공디인이 하나의 분명한 영역을 형성한 것과 같이 순수미술 전시장으로 도시를 활용하는 과거와 다른 유형의 공공미술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의 과정에서 선명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공공'으로써의 정부의 역할인데, '도시계획', '문화계획', 도시점용의 원칙, 도시가 추구하는 공통가치와의 합일성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써의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작가의 창작과 민간과의 협력과의 중요도 평가가 아니라 실제적인 시스템으로써의 도시가 지속가능한 창의의 장으로 작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도시공공미술의 기획과 운영, 평가, 확산의 과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공공미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도시공공미술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개선이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어야 창작자의 자율과 민간의 표현의 대상이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있음을 연구의 결과로 밝힌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4.2 도시공공미술 전략구성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해 도시공공미술이 5개의 경쟁력지표(① 삶의 질 향상, ② 도시 관광·브랜딩 효과(이미지 제고, ③ 거버넌스 효과, ④ 글로벌 가치 추구. ⑤ 문화 인프라 확대)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공공미술의 도시 경쟁력 증진 전략의 4개의 핵심목표 '일상의 활력제고', '도시의 인상변화', '참여와 가치지향', '시스템의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실행전략의 적정성과 실행가능성 평가의 타당성 확보와 실질적인 범주 한정을 위하여 전략적용의 대상은 한국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도시공공미술에 대한 강화전략의 실증적인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한국의 공공미술이 가진 법률적 위상, 정책적 환경에 대한 고찰을 선행한다. 이후 한국의 지방정부 최초로 도시공공미술 정책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 기본적인 정책추진 프레임과 실행, 심의 프로세스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도시공공미술 실행전략을 구성하고자 한다.

4.2.1 한국 공공미술 정책환경 특성

1) 한국 공공미술의 법률적 한계점

한국의 공공미술과 관련된 제도는 해외에 비해 공고한 영역적 기반과 법률적 토대는 모호하다. 왜냐하면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범주와 내용을 정의하기보다 문화예술기금의 활용 용도를 설명하는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기재 된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적인 공공미술 정책을 지원하는 진흥법제는 부재하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건축물미술작품과 공공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조형물조례가 제정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조형물 제작과 같은 현물이 있는 경우가 현재 법령상 가능한 조형의 범위이다. 공공미술의 용어표현이 있거나 공공미술의 범위를 설명하는 법률 및 조례는 다음 [표 4-22]와 같다.

[표 4-22] 공공미술의 범위 또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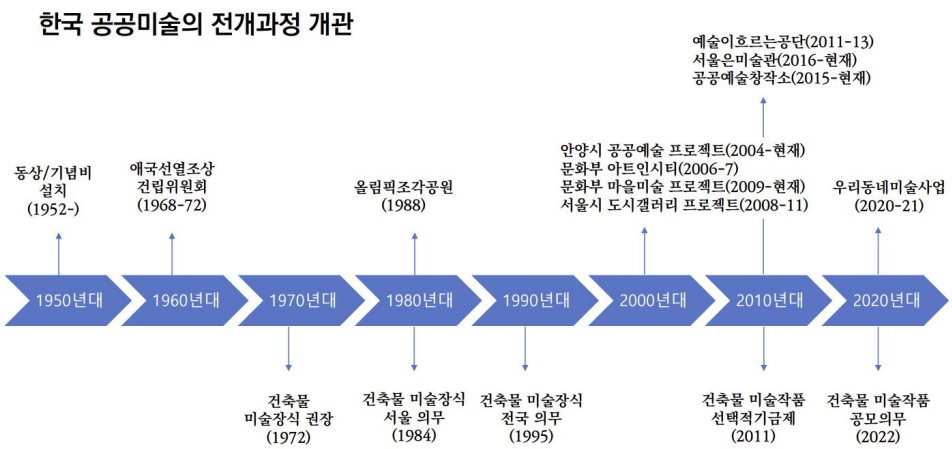
관련법·조례	내 용
미술진흥법 (제13호 제14호)	13.“공공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적용을 받는 문화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적용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은 제외한다. 14.“정부미술품”이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으로서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 선정 · 관리하는 미술품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기금의 용도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공공미술"이라 함은 공원 · 도로 · 녹지대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회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벽화 · 미디어아트 · 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2. "공공미술 사업"이라 함은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광진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공공미술”이란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이하 “공공용지”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벽화 · 미디어아트 · 동상 · 탑 · 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2. "공공미술 사업"이란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또는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2.“공공미술”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 · 분수대 · 폭포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 · 탑 · 기념비등 상징조형물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공공미술”이란 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 “구”라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이하 “공공용지”라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제2조)	한다)에 설치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2."공공미술 사업"이란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또는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1.“공공미술”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회화 · 조형물(조각,상징물,상징탑포함) · 공예 · 사진 · 서예 · 벽화 · 미디어아트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2.“공공미술 사업”이란공공미술을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한국 공공미술의 정책 한계점

한국에 최초 공공미술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3가지 유형의 정책으로 안착되었다. 동상·기념비,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공공미술 사업(프로젝트)이 그것이다. 공공미술정책 연구자 양현미는 한국의 공공미술의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흐름[125]을 [그림 4-18]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18] 한국 공공미술의 전개 과정

125) 서울특별시 (2022), ‘서울은 미술관’ 2.0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발굴 용역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그 흐름을 보면 한국의 공공미술은 동상·기념비로 시작하여 80년대 조각공원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알려졌으며 이후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의무화와 함께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공공미술 사업(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자체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자체 조례에 해당하는 법률적 기반, 공공미술 정책 추진체제가 구축된 정부에서 가능하였다. 서울시와 안양시의 사례가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사업으로써 예산이 실행 예산이 확보된 경우 지방비 배정을 통해 시범적이고 3년의 전시의 한시성을 설정하여 실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아트앤시티' 사업과 코로나 19 대응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의 사례가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 중 공공미술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시는 2007년 서울디자인재단을 중심으로 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를 5년간 진행하였고 2011년 중단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2016년 시 직접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으로 재개되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미술 정책사업 체계는 시 조례 제정을 통한의 법률적 틀을 갖추고 민간산업 영역의 건축물미술작품과 동상설립 외 다양하고 유연한 도시 밀착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는 설치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정형, 육성형, 공론화 사업은 축소되거나 소멸하였다. 이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부터 전국단위 약 980억 규모의 코로나19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시도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미술 사업을 본격화 하는 확산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정부주최의 공공미술의 연대기적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23][126]과 같다.

126) 박재은. 장영호, 김주연 (2023), 프로젝트성 공공미술 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연구 –서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표 4-23] 2000년대 이후 주요 주체별 공공미술 프로젝트 흐름

	공동체중심형	복합형			전시형
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안양시
	문화예술 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 기초지자체	서울시 산하재단	서울특별시	안양 문화재단
2005					APAP
2006					
2007	아트인시티		도시갤러리 (서울문화재단)		APAP
2008					
2009					
2010	마을미술 프로젝트		도시갤러리 (서울디자인재단)		
2011					APAP
2012					
2013					
2014					APAP
2015					
2016				서울은 미술관	
2017					APAP
2018					
2019					APAP
2020		우리동네미술			
2021					
2022					
2023					APAP
2024					

서울시 외 도시공간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공공미술 트리엔날레(3년주기의 정기전시)로 2005년부터 시작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가 있으며, 도시 공공미술의 시작을 알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아트인시티(2006)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러한 공공미술 영역의 확장은 건축물미술작품시장이 유일한 시장인 한국에서 한정적인 미술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이을 가까이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3) 정책적 한계점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미술 제도인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소유작품을 설치함에 있어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광역 지방정부의 작품심의를 진행할 뿐 관계된 사업이나 정책과 확장적으로 연계할 수 없다.

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간디자인연구 vol.18,no.1, 재편집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작품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적기급제가 도입되었으나 납부된 기금 역시 지방정부나 행정기관 등에서 정책사업비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각 도시의 자율적 공공미술 정책은 지자체 또는 기관의 재원의 규모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한국의 지방회계 원칙에 따라 단년도 회기년도의 예산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도시계획과 경관계획 등의 장기 프로세스와 공공미술 정책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다년도 회계방식으로의 집행구조 변경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단년도 사업이 원칙인 시간적문제, 기금활용 불가에 따른 자본적 한계는 한국에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Millenium Park)'나 뉴욕 허드슨 야드의 '베슬(Vessel)과 같은 대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지방정부가 대형 사업비를 조달한다 하더라도 재원 규모에 따라 지방재정법[127]에 의해 거치게 되는 재정투자심사 대상항목에 예술작품 또는 대형 조형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부재하여 대규모 예산투입의 타당성 증명과 관계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때문에 별도의 대규모 예산편성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민간의 투자, 기금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공원계획 또는 대형 건축물 설립에 포함된 건축물미술작품 비용도 응용적으로 활용할 있도록 구조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재원적 한계를 넘어 지방정부 중심의 한국의 도시 공공미술 정책은 매우 초기단계에 있고 특정한 이유가 없는 이상 연계의 필요성이 없던 프로세스에 타 부서와 전략적인 협력관계 확대, 공공미술 전문가 양성, 민간과의 다양한 협치를 통해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으로 현재적 한계 극복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7) 지방재정법(법률 제20871호)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항안부령 제464호)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4.2.2 한국 도시공공미술 전략구성

도시공공미술(Urban Public Art)은 기존의 공공미술 개념을 확장하여 도시계획 이론(Urbanism)이라는 도시공간과의 연결방식을 도입한 실행원칙이다. 도시의 정책과 도시계획의 지향점, 공공의 24시간 접근성 강화와 도시자원의 다변적 활용을 통해 공공미술의 새로운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도시의 개발과 조성, 활성화 전략에 있어 공통의 지향점을 지원하는 공공미술의 도입은 도시의 정체성과 대형 개발, 지역 특화 예술방식 등에 다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문화적인 경쟁력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현재 한국의 공공미술 영역에셔의 한계상황 극복과 발전 대안으로서 최종적인 경쟁력 강화를 전략을 구성하였다.



[그림 4-19] 도시공공미술 전략 개념도

본 연구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의 핵심전략인 '일상의 활력','도시의 인상변화', '참여와 가치추구', '안정적 기반조성'은 도시공공미술 추진을 통해 각각 '삶의 질 향상', '관공명소 조성', '국제 의제(가치 지향성) 동참', '문화지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원 기반 구축'의 도시경쟁력 효과와의 연결점을 제시하였으며 4개의 전략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4-19]와 같다.

4개의 도시공공미술의 핵심전략을 실행이 강조된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각 전략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기본 가치로써 '참여와 가치지향'을 실행의 전제로 전환하여 '일상의 활력제고', '도시의 인상변화', '안정적 기반조성'의 3개로 실행 전략을 압축하였다. 또한 사례조사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정책사업과 아트플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시공공미술의 특성과 한국의 컨디션에서 적용가능한 실행과제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시간단위의 기준을 적용하고 단.중.장기 목표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행정의 적용성을 높이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핵심전략이 추구하는 도시공공미술의 주요 전환개념과 방향성을 전략 구조로 정리하면 [그림 4-20]과 같다.



[그림 4-20] 도시공공미술 전략구조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또한 각 핵심전략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 실행방식과 달성가능한 도시경쟁력 요소를 세부 과제별로 부여하고 실행에 소요되는 시간단위로 구분하여 다음 [표 4-24]과 같이 한국의 도시공공미술의 전략 방향을 종합하였다.

[표 4-24] 도시공공미술의 핵심전략과 세부내용

	세부 목표	추진방향	실행방식	경쟁력 요소
A 일상의 활력강화	예술의 일상 침투 및 생활 문화 확산	A1. 경험 중심 기획 강화	체험, 기능, 지원성 강화	일상 문화 경험 열린 시공간 경험 보행 접근성
		A2. 한시적 프로젝트 확대	일상 접근성 강화	
		A3. 야간활동 보행문화 강화	야간도시전략	
B 도시의 인상제고	도시적 스케일 적용 시도 이미지 변화 정체성 확립	B1. 예술기획 조기 반영	프로세스의 개선	도시 브랜딩 장소 정체성 문화정책 시스템
		B2. 도시계획 연계 공공미술	국토계획법 연계	
		B3. 협력형 정책 설계	민관협력,기관협력	
C 안정적 기반조성	제도 정비 시스템 안정화 거버넌스 활성화	C1. 공공미술 위상 정립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공공미술의 제도 지속성 확보, 민관 협치 확산
		C2. 행정적 체계 마련	PPP/기금법안	
		C3. 인력양성과 시스템화	행정체계 정비	

⇓ ⇓ ⇓

계획 단계	B1	예술기획 조기 반영	프로세스의 개선	중기과제
	B2	도시계획 연계 프로세스		
실행 단계	A1	경험 중심의 기획 강화	도시공공미술 전략 다변적 실험	단기과제
	A2	한시적 프로젝트 확대		
	A3	야간활동 지원		
기반 조성 단계	C1	공공미술 위상정립	법·제도 개선	장기과제
	C2	행정적 체계 마련	재원 확보 실행 주체 확대 등 정책 개선	중기과제
	B3	협력형 정책 설계		
	C3	인력 양성과 전문 행정 시스템	지원 체계 구축	장기과제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1) 단기전략



[그림 4-21] 도시공공미술 단기 전략과제

가) 경험중심의 예술기획 확대 : 일상적 공공미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관람 위주의 공공미술이 점차 진화하여 참여와 경험을 지향함을 검토하였다. 도시공공미술은 일상공간의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보행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경험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경험의 확장은 매체의 다양성, 24시간 활용성, 보행 접근성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과의 결합을 이루면서, 일상적 공간에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감상과 경험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활동 반경 안에서의 이색적인 경험은 도시의 풍경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뜻밖의 신선한 예술경험을 제공한다. 멜버른의 20분 동네와 '서울은 미술관' 사례 중 야외수변을 활용한 공공미술의 경우 생활공간을 작품화 함으로써 경험의 가치를 극대화하였다. 공공미술을 통한 Place Making의 대상공간이 버려진 자원이나 재생공간을 넘어 육교, 산책로, 도로변과 같이 움직이는 환경, 휴식의 공간에 스며드들어 자연스럽게 즐길거리가 될 수 있는 적용방식의 고안이 필요하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1) 공공미술 거점 공간 조성 : Place making 확대

일상적 보행환경 안에서의 공개공지, 근린공원, 유휴시설을 거점으로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페이빙, 벽화, 미디어쇼를 비롯하여 조경과 정원, 휴게 파빌리온 등의 거점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머무르고 만나는 소규모 거점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싱가포르의 공공미술 전략 중 하나로‘ 매력적인 목적지’를 조성하고 활성화는 전략에 포함되어있고, 멜버른 아트플랜에서는 벽화거리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창의적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 방식은 서울시의 지역별, 권역별 명소조성 사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중소규모의 거점형 공간이 도시의 활력요소가 됨을 확인한다. 이러한 장소와 거점 조성의 방식은 단독의 미술품 조성방식에서 도시의 일상권에 새로운 형태의 문화향유의 공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람중심의 예술에서 활용중심의 공간으로 의미를 확장한다.

(2)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인프라와 예술의 결합 : 도시자원 활용

대형 개발사업, 인프라 구축 시 기획 단계부터 예술가를 참여시켜 건축물과 공공공간에 예술을 통합적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프랑스 파리는 그랑파리 익스프레스 지하철 프로젝트에서 68개 역사를 건축과 미술이 조화된 예술거점으로 갤러리화하여 2030년까지 70여 점의 예술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며 세계적인 작가들의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 현재 한국의 도시계획법령 상에는 공공미술과 관련된 언급이 없는 한계가 있는 반면, 대형 역사나 공간조성에 필요한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의 한계 극복과 다양한 공공미술작품을 선보이는 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 다른 방식으로 도시의 유휴자원이나 사용하고 있는 기반시설, SOC 등과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결합한 재생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도시의 인프라와의 적정한 예술 기획의 조화는 종래에 가지던 장소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매우 단시간, 소규모자본으로 시민 일상 생활반경 안으로 공공미술을 적용하는 대안이 되며,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인프라에 기반함으로써 지역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재생적 방식은 서울의 공공미술작품 인 '홍제유연', '도킹서울', '비의 장막',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소단위 행정구역별 지역참여 : 동(마을) 단위 공공미술 확대

각 자치구와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장소 정체성을 강화한다. 워싱턴 D.C.의 공공미술 계획에 수록된 내용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필요에 부응하는 작품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 중이며 주민들의 이야기나 지역 자원을 소재로 한 벽화, 조형물, 커뮤니티 아트 작품을 지원함으로써 대형 설치물 없는 명소조성의 방식을 활성화한다. 사례에서 보였던 멜버른의 '20분 동네' 프로젝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지역의 커뮤니티와 보행범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삶의 공간에 적용되는 공공미술은 한국의 경우 민생과 맞닿은 소단위 행정구역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핵심적인 의제 도출과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기법 등을 활용하여 향후 장소 활성화에 있어 주민이 주도하는 예술프로그램으로 진화할 수 있다.

나) 공간과 시간의 한정성 기반 공공미술 추진 : 생애주기와 순환성

(1) 공공미술작품의 생애주기 설정

공공미술작품의 생애주기(Life span/生涯週期)란 미술작품의 기획으로 탄생하는 순간부터 구현되고 보존 후 소멸되는 전 과정을 생명체에 비유한 개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념[128]으로, 설치되는 공공미술작품의 한시성이 있음을 전제한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상위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은 2021년 법령 개정을 통해 제9조의 3을 신설하여 누적되어 가는 관리대상과 작품의 흉물논란 방지를 위한 철거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모법이 없는 공공미술 사업은 기준과 법령이 부재한 상태로 대부분 지방조례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공공미술관련 조례가 부재한 자치단체는 물품법에 기초한 공공조형물 조례에 의해 작품을 설치한다. 이 조례의 성격은 물품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자산취득과 소멸을 디루는데 정부의 자산 소멸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영구보존을 목표로 한다. 반면 미국,프랑스, 영국 외에도 많은 도시에서는 한시적(termporary) 공공미술이 보편화 되어 있어, 작품의 해당 전시기간을 완료한 이후 소멸됨으로써 불필요한 충돌가능성을 소거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예술가에게 표현의 방법과 재료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시대적 담론을 담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다양한 전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의 기반을 만든다. 특히 도시공공미술은 도시의 인프라와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한시적인 공공미술 다변화가 필요하다.

밀집된 도시공간의 공공성은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공공미술은 도시의 변화와 활용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현대적인 도시이론으로써 제시되는 택티컬 어바니즘(tectical Urbanism)과 N분 도시이론이 가지는 시간성의 개념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게 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128) 박재은,장영호,김주연(2023), 공공미술작품의 생애주기 정립에 관한 연구, 공간디자인연구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미국과 프랑스의 공공미술 정책에는 한시적 작품을 명문화 하고 5년, 10년, 20년 주기로 평가를 통해 공공미술의 소멸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조례로써의 한계를 가지지만 서울시가 2017년에 제정한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최초로 생애주기(Life Span)개념을 법제화 한 사례가 있어 참고할만 하다.

(2) 야간 활동강화와 기술결합형 경관: 미디어아트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

싱가폴과 시드니, 파리 등의 아트플랜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화도시에서 활성화 되고있는 방식이다.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를 표출하던 디지털 기술이 예술에 접목되면서 고정적인 작품이 가지지 못한 시간성과 현장성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행사의 표현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디어 스크린을 활용하거나 건물의 벽면과 강의 표면, 하늘 등을 캔버스로 하고 AI와 디지털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공공미술을 확대한다.

많은 도시에서 미디어 축제를 앞다투어 개최하고 있지만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방향과 맞물린 운영방식을 보이는데, 파리의 경우 탄소중립에 대한 이슈를 감안하여 단 하룻밤동안의 프로젝트인 '뉘블랑쉬(Nuit Blanche)'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도시브랜드 강화에 하며 전략적인 개최를 진행중에 있다. 싱가폴의 경우 디지털 기술 결합형 미디어아트를 집중적으로 선보이면서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선도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문화재, 한강, 남산 등의 자연적 경관등에 맞게 라이트아트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미술의 형식으로는 일시적이고 파급력이 있는 방식으로 일상의 공간에 비일상적 경험을 제공하는 이벤트로써 도시공간 적용에 적합하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3) Venue 중심의 순환전시 확대 : 장소의 고정과 콘텐츠의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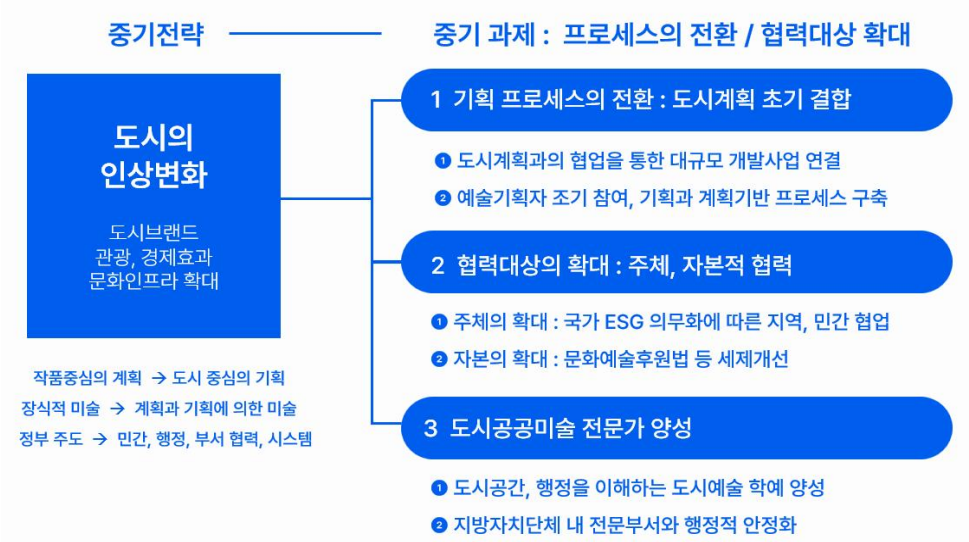
venue[129]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를 의미한다. 베뉴를 중심으로 한 공공미술은 대표적으로 비엔날레 등의 행사가 있으나, 도시공공미술의 적용에는 지정 위치에 콘텐츠를 순환하는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 전시하는 '네 번째 좌대(4th Plinth)[130]'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며 영국 서펜타인 갤러리의 파빌리온 프로젝트(Pavillion Project)와 같이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매년 새로운 작품으로 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민간에서 이벤트로 추진하는 석촌호수 프로젝트가 있으며 앞선 사례 고찰에서 뉴욕 중심부의 록펠러 센터와 재생된 도시인프라를 활용한 하이라인파크의 전시도 예시가 될 수 있다.

즉 미술의 방식이 하나를 만들어 오래 두는 방식에서 그 시대와 그 시간의 강렬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시리즈형 전시로, 고정되어 있는 도시의 인프라에 변화하는 예술 콘텐츠를 대입함으로써 도시공간에 생동감을 더하고 도시 거리에서 걷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일정 주기 이후에 등장할 새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마련하며 한정된 도시의 공간에 새로움을 더하는 방식으로 민간소유의 부지에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예술의 사회 환원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도시공공미술의 주체로 민간의 역할 강화에 대안이 될 수 있다.

129) 캠브리지 영어사전 https://dictionary.cambridge.org
130) 네 번째 좌대 프로젝트 (the 4th plinth) : 1999년을 시작으로 런던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현대미술 전시로 트라팔가광장에 비워진 좌대에 시민과 전문가 선정 조형작품 전시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2) 중기 전략 : 도시 인상변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개선과 협력대상 확대



[그림 4-22] 도시공공미술 중기 전략과제

가) 기획프로세스 전환 : 도시계획 초기결합

(1) 도시공공미술의 도시계획 연계 프로세스 구축

도시공공미술의 중요 부분으로 도시계획, 재구조화 계획, 도시공간 개선 계획 등 도시의 지형도가 바뀌는 시점부터 공공미술의 검토와 계획을 연계하는 것이다. 도시공공미술은 일반적인 공공미술 방식과 달리의 각 도시가 가지는 지향점과 도시공간 배열원칙 등에 준하하여 적용함으로써 도시에서의 활동과 휴식 등의 행태를 지원하는 예술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작품 전시를 위해 빈 공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의 결합을 검토할 수 있다. 앞선 사례조사에서 보였던 덴마크의 슈퍼킬렌 프로젝트의 경우 코펜하겐 도시계획국이 주도한 공원 조성계획으로 다문화 융합을 위한 열린도시재생을 위해 추진 된 사례로 3개의 독특한 광장에 98개의 조형작품이 설치되었다. 특히 기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획단에서부터 건축(BIG), 조경(Topotec1), 도시계획, 예술기획자(Superflex)가 지역거버넌스 위원회(Kilebestyrelen, Local Governance Board)를 조성하고 민간 자선회사(Realdania)와 파트너쉽을 통해 구현하여 현재도 주민들에 의해 활성화 된다. 또 다른 사례로써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의 경우 역시 시카고계획(Plan of Chicago)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원계획을 위한 마스터플랜에서 출발하였으며 시카고시의 공공 사업비와 민간의 기부를 통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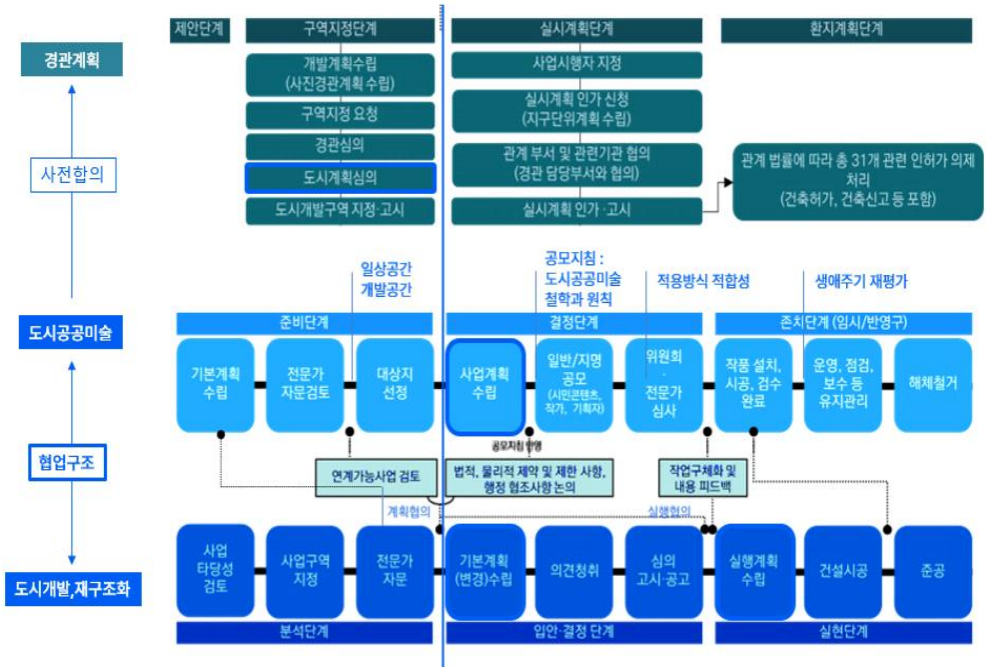
검토되었던 프랑스 파리의 그랑 익스프레스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예술기획자를 중심으로 건축가+예술가 팀을 통해 역사의 예술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는 도시계획 상위정책에 예술과 도시공간을 함께 기획하는 기획이 있어 가능하였다.

한국의 경우 부서간의 완전한 역할분리가 되어있으나, 전체 도시기본계획에 공공미술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문화지구, 실행계획 등에 공공미술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도록 하거나 특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부서간 협력 프로세스를 강화 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형 예술명소의 조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추진 기본계획 단계에서 부서간의 협업 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하다면 그 계획과 공모의 시점 공유, 각 분야의 작품 적용을 위한 면적의 우선배치를 통한 공간확보가 가능하며 조화롭고 통합적인 도시의 문화 명소 조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사례는 거의 없으나 서울시의 '윤슬-하늘을 비추는 만리동'은 만리동 조성계획 시점에 맞추어 먼저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광장 안에 지름 20m의 원형 반지하 공간을 조성하였는데, 이러한 사례조성을 위해서는 각 부서의 역할과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협치방식을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파악한 도시계획, 경관계획의 흐름과 공공미술의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결합 시점 연계한 대안은 [그림 4-23][131]과 같다.



[그림 4-23] 도시계획, 경관계획과 공공미술의 프로세스 결합 모델

(2) 예술기획 조기 반영 : 프로세스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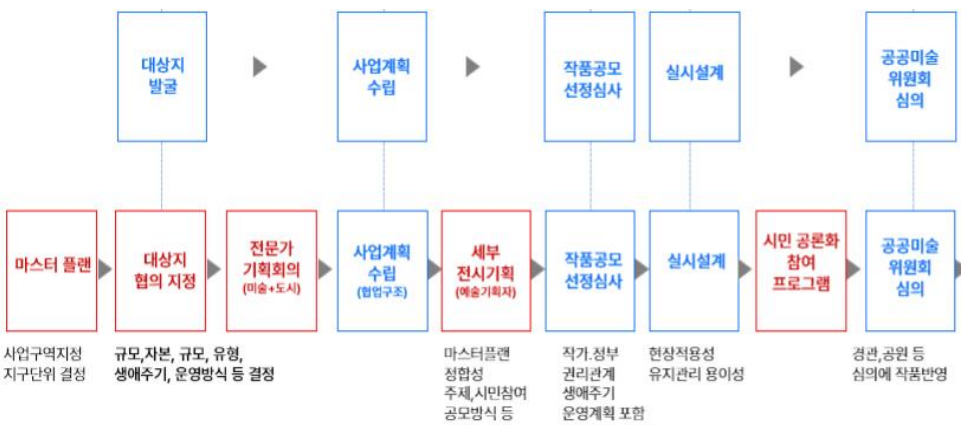
앞서 분석된 우수사례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과에는 대부분 총괄 기획가 포함된다. 더불어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장르와 작품이 하나의 공간을 이루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융복합적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참여작가 외 전체 기획을 담당할 예술기획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작가의 역할은 작품을 구상하고 만드는 것에 집중하되, 전반적인 도시의 컨디션, 대지를 활용한 작품의 배치와 구성, 시민과의 접점을 이루는 관계에 대하여 우선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도시 공공미술은 제작설치하는 미술품을 넘어 작품 자체가 공간이 되거나 전시 환경이

131) 서울특별시 (2022) 서울은 미술관 2.0 기본계획수립 및 정책발굴 연구 pp.177 응용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도시기반시설 등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대상일 경우 더욱 세밀한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전작업은 일상 업무와 보행환경에 조화 뿐 아니라 전체 도시의 경관과 시설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예술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며, 계획에서부터 설치까지의 순환주기가 짧은 경우 성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위 법령의 부재로 인해 정기적인 비전과 마스터플랜 수립의 의무가 없는 공공미술 정책은 하나의 흐름을 이루거나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가 지향하는 지향점과 연결된 비전의 수립과 5년간의 중장기 플랜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도시공공미술의 체계적인 작동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명료성은 돌발적인 작품설치나 기본 체계 없는 조형물 설치와 대비를 이룸으로써 전체적인 도시공공미술 수준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술기획이 반영된 도시공공미술 프로세스와 일반적 사업의 프로세스를 비교하면 [그림 4-24]와 같다.



[그림 4-24] 일반 공공미술 프로세스(상)와 도시공공미술 프로세스(하) 비교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나) 협력형 대상의 확대 : 민관협력과 재원확보

(1) 민관협력 방식의 확대

2004년 1,000개 도시의 시장들이 UN에서 공동발표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목표(SDGs)에 따라 세계의 도시들은 포용성있는 도시, 회복력있는 도시, 시민의 도시권이 살아있는 도시 등 국제의제에 동참 중이다. 이에 2006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함께 대세를 이루며 비 재무지표로써 공공성 있는 기업의 역할을 공식화 하기를 기대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기업의 ESG 목표를 공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서울시는 2024년 3월 ESG관련 조례를 수립하여, 중소규모의 사업장에도 환경과 사회적 책무, 인권에 관한 가치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나 지자체도 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관의 협력방식의 다변화가 세계적인 추세를 이루고 있다. 대규모 도시공간의 개발은 민관협력(ppp), 민간투자(BTO,BTL방식 등), 민관협업모델(PPC) 등의 방식 등을 다변화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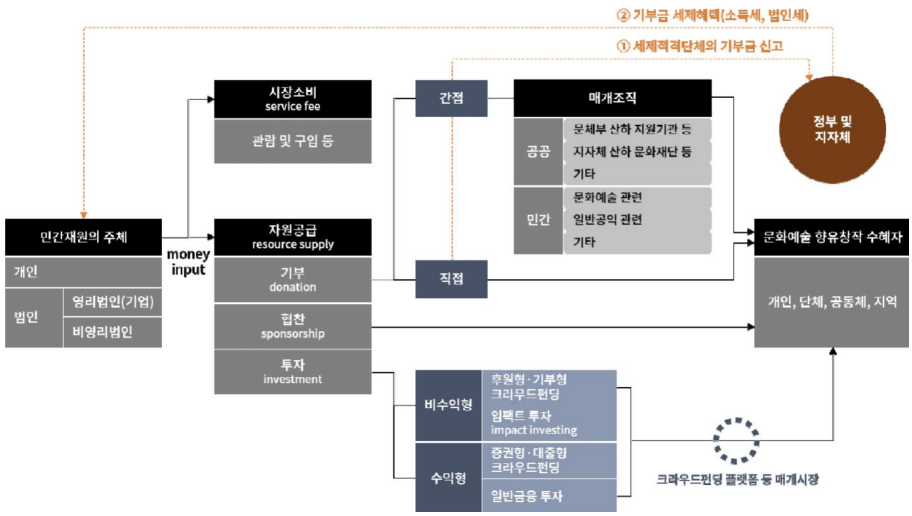
(2) 공공미술 재원의 다변화

문화예술 콘텐츠 확장의 경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메세나의 방식으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예술의 순수성 보로를 근거로 모든 문화예쑬에 대한 기부에 대하여 66%를, 최대 과세소득의 20%를 감면하고 영국의 경우 한도없는 공제, 미국의 경우 100%의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문화예술 후원을 확대하고 있다.[132] 그러나 우리나의 경우 지정된 문화예술재단 또는 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금 납부가

132) 이창근(2020)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KDI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가능하였으나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 시설투자 등 적정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으로 많은 기업과 민간의 기부투자가 불가능하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투자된 후원금은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실제 사업을 위한 후원이 불가능 하였었다. 다만 이러한 메세나의 방식이 2023년 조세법 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매개로 한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하였고 다양한 민관 협력방식과 CSV(사회공헌)을 넘은 ESG(environment, social, Goverment) 활동과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보다 윤택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100% 세금집행 방식의 콘텐츠 수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이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의 창구를 개방하고 홍보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실질적인 시민과 기업, 다양한 거버넌스가 참여하는 도시공공미술의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 재원의 정부와 지자체의 유입경로를 도표화[133] 하면 [그림 4-25]와 같다.



[그림 4-25] 민간재원의 정부 및 지자체 유입경로

133) 황용구(2021) 한국 문화예술 재원흐름 동향조사 : 분석 프레임 설정을 중심으로. pp.100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다) 인력양성과 전문행정 시스템 구축

사례로 제시되었던 덴마의 코펜하겐시[134]는 시 도시환경국(Urban Environment Department) 내 공공미술과 도시디자인 전담부서를 배치하고 도시계획, 공공미술, 디자인 전문 공무원을 구성하여 전체 도시 전략을 구성하여 도시의 변화에서 공공미술이 파편화 됨을 방지하고 하나의 도시요소 적용하고 있다. 또 다른 예시로 제시되었던 싱가폴의 경우 도시재개발청(URA)와 국립예술위원회(NAC)의 협업하여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여 디자인과 예술이 선도하는 도시를 만들고 있으며, 헬싱키시[135]는 공공예술 유닛을 결성하여 도시계획과 큐레이터 등이 하나의 전문 팀을 이루어 공공미술의 사전검토, 커미션 계획, 시민참여형 기획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공미술과 관련된 전문인력 대부분이 미술학예 중심으로 구성되며, 미술학예의 경우 고등교육과정에서 공공미술에 대한 전문교육과 도시, 공간, 행정시스템을 포괄하는 학습시스템이 부재한 환경에서 성장한다. 이러한 한계점은 공공미술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동시에 도시계획과의 연계나 도시적 프로세스로의 공공미술 반영을 하기 보다는 야외 공간에 미술작품을 놓는 개념으로 보편화 하는 한계점을 만든다. 미국의 경우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GSA(미국 조달청) 내에 Art-in-Architecture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참고할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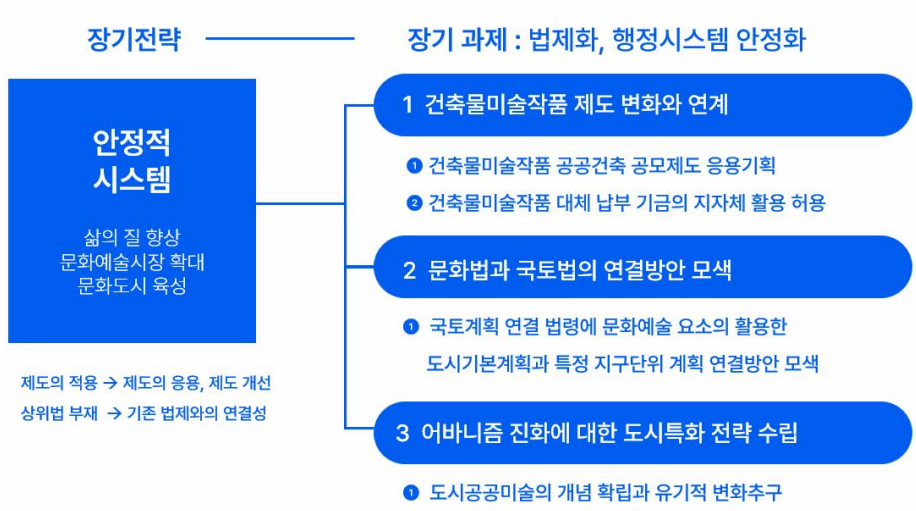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예술적인 표현의 수준향상과 기회창출을 위해서는 작가 창작성과 예술의 생태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확산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가의 창작권 보호를 기초로 도시에

134) 코헨하겐시 전략보고서 https://international.kk.dk
135) 헬싱키 도시전략 보고서 (2021-2025) https://www.hel.fi/en/decision-making/decision-making/strategy-and-economy/strategy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교육확대와 도시계획 융합 부서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공공미술의 안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련 부서 내의 공공미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부서의 배치가 필요하며 도시계획과의 지속적인 결합을 위한 조직구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면 한국에 사례가 없는 도시계획과 결합된 도시공공미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랜드마크 구현도 실제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 장기과제 : 법률과 제도의 정비와 추진체계의 안정화



[그림 4-26] 도시공공미술의 장기 전략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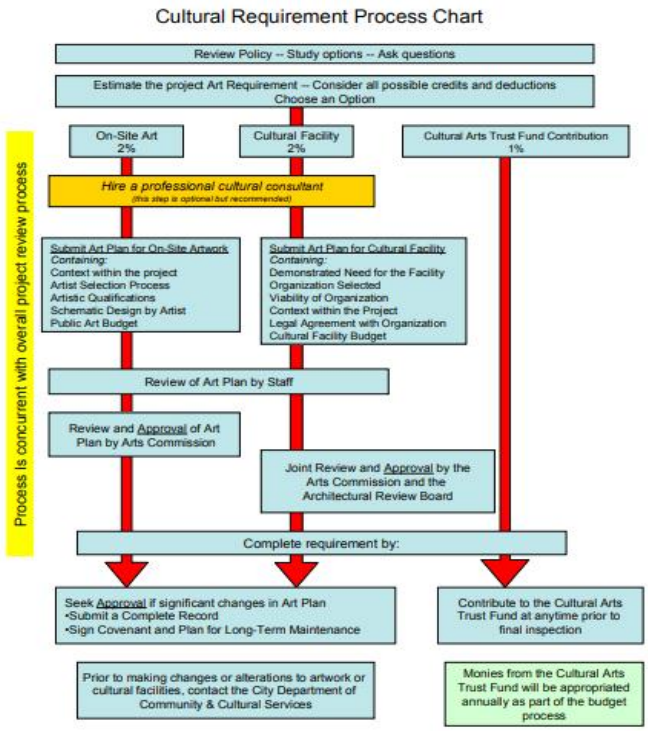
가)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변화와 연계

(1)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제도의 개선과 확대

공공미술 재원의 핵심축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민간 건축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은 의무비율을 탄력 적용하거나 면제하되, 대형 개발사업에는 현재 0.7%인 설치비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공공건축에 적용되는 비율을 상향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기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건축물미술관의 활용대상을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각 장소와 시설에 맞는 적정 프로젝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7] 산타모니카 공공건축에 대한 건축물미술작품 시스템

(2) 공공건축물의 건축물미술작품 공모제도의 응용기획

공공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미술작품에 해당하는 비용의 국제공모 추진, 기 편성된 예산의 적극 활용, 융합적인 유형의 대표 작품유치 가능성을 검토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일반적 공공공간의 활용을 넘어 우수한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공공건축물에 부합하는 수준급의 예술작품을 공모할 수 있다. 2022년 공공건축물에 대한 작품공모 의무화(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되었으나 현재 LH, SH등 시행기관에서 임의 진행하고 있으나, 일본의 공공건축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와 같이 공공미술작품의 범위를 회화, 조각 등을 넘어선 과정형 시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파고라 등 휴게시설 조성 등으로 범주를 넓히거나 미국 산타모니카(Santomonica) 시 미술작품 제도와 같이 공공건축에 대한 건축물 미술작품비용 적용 비율을 상향하고 외부의 자금투자도 함께 진행하여 일상적 휴식활동과 녹지와의 조화, 친환경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예술의 방식 등으로 다양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 문화예술진흥법·국토계획법 연계 강화

한국의 경우 도시계획과 경관계획, 공공미술 플랜은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특정한 이유가 없는 이상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실행 프로세스 상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검토하는 것과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이유는 공공미술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과 효율성, 사용성을 평가할 수 없는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공간에 문화예술이 체계적으로 결합하는 시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법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도시공공미술 제도화를 위해서 문화 분야 법령과 도시계획 법령 간의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국토계획법령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눈 대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있다. 이 법은 지자체가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지만, 이를 물리적 공간계획이나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작품설치로 연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공공미술 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계획” 항목을 추가하여, 모든 도시·군기본계획에 공공미술 추진계획을 도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가능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신도시 개발 등 특정 사업에서는 초기 기획단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국토부 소관 사업이라도 문화적 요소가 중요하면 문체부와의 협업을 공식화하는 근거를 양 부처 공동의 지침 또는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4.3 전문가 검증 (FGI)

앞절까지 도출된 도시공공미술의 전략, 과제, 로드맵 전반의 실행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실무자 총 10명의 의견을 받았다. 관련 FGI는 현장토론 방식과 서면방식을 병행하였으며, 서면조사의 경우 충분한 답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유선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토론과 서면, 유선 안터뷰 조사의 기간은 2025년 4월 27일~ 5월 2일까지이며, 오픈된 토론과 의견조사 진행 후 수정 보완된 정책제안에 대한 정량적인 점수평가를 부여하여 통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3.1 조사의 목적과 대상

본 조사는 전문가 그룹과 실무자 그룹으로 2개로 구분하였는데, 전문가 그룹은 공공미술과 관련된 각 분야의 국내 전문가로 국가의 문화, 디자인, 도시계획관련 정책입안과 서울시 유관위원회 위원장, 한국 대표 프로젝트의 총감독으로 구성하였다. 참여 전문가 6명은(남성 4명, 여성 2명) 전공분야 기준 도시계획 및 건축(33.3%), 미술(33.3%), 디자인(16.7%), 도시사회학(16.7%)로 연령은 50~60대로 구성되었다. 실무자 그룹은 현재 공공미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자로 서울시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안양시, 광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기획, 실행을 담당하였거나 공공미술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였던 연구원을 포함해 총 4명이 참여하였다. 실무자 그룹은 전공비율 미술(40%), 디자인(20%), 도시계획(20%)이며 연령은 30~40대로 구성되었다. 전체 인원의 전공비율은 미술(36.3%), 도시계획 및 건축 (27.3%), 디자인(27.3%), 도시사회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학(9.1%)으로 각 전공분야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과 실행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참여자 전원은 국내외 공공미술 프로젝트 연구, 기획, 실행, 자문, 심의에 참여한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어 비교적 현재 공공미술 정책과 방향에 대한 개념을 갖추고 있으며 현업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실행의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인 참여자는 [표 4-24]와 같다.

[표 4-26] FGI 참여인원 구성

전문가 그룹	
소속	**주요경력**
00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서00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외, 전 문화도시위원장
00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유00	전 서울시공공미술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외
00대학교 건축공간디자인학과 교수 최00	현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장 외
00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양00	전 청와대 문화비서관 외
00대학교 조소과 교수 박00	전 DDP 미디어파시드 총감독 외
00건축 콘텐츠 실장 박00	전 서울시 공공미술위원장

실무자 그룹	
소속	**주요경력**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대행사 A 대표 이00	문체부,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외 전국 다수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대행사 B 소속 기획자 이00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및 전국, 전시, 문화행사, 프로그램 기획, 실행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기획자 장00	문체부, 서울시 및 전국 공공미술 프로젝트 다수
서울시 공공미술 비전 연구 책임연구원 심00	공공미술 비전 및 도시계획 연구
전업 작가 (중견) 김00	공공미술 프로젝트 다수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4.3.2. 전문가 의견 분석

전화와 현장인터뷰, 개방형 설문지에 대한 답신 등의 녹취, 기록 등을 텍스트화 하여 전체 내용에 언급된 단어의 빈도, 긍정과 부정적 언어를 통한 동의 수준 등을 파이선(Python)의 텍스트 분석 코딩을 활용하여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화하여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제안된 의견은 해석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1) 키워드 빈도 분석

가) 그룹별 빈출 단어

전체 조사를 통해 빈출 용어를 정리하면 [표 4-25]와 같으며, 전문가 집단의 도시와 공공미술, 계획, 문화, 진흥, 정책과 같은 제도와 정책에 관한 단어의 빈도가 80여회에 달했으나, 실무자의 경우는 43회 수준에 그친 반면 실무자 그룹에서는 사람, 작가, 문제, 행정 등의 빈도가 높았다. 두 그룹 모두 '도시 공공미술'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높은 가운데 작가, 기획자 뿐 아니라 행정에서의 기본적인 공공미술의 이해를 돕는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즉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무엇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으로써의 연구, 활용, 진흥 제도 등의

[표4-27] 그룹별 키워드 빈도 우선순위 분석

순위	전문가(빈도)	실무자 (빈도)
1	도시 (196)	도시 (138)
2	공공미술 (161)	미술 (88)
3	문화 (73)	**공공 (61)**
4	계획 (61)	공공미술 (50)
5	예술 (41)	**사람 (44)**
6	활용 (38)	작가 (41)
7	연구 (37)	계획 (40)
8	진흥 (34)	예술 (38)
9	**정책 (33)**	기획 (31)
10	**공공 (32)**	**문제 (30)**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전략적 담론에 집중한 반면 실무자 집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과 실천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무자 그룹에서 '사람', '작가', '기획' 등의 구체성 있는 답변이 상위 가치와 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과 상호 보완을 이루었다.

나) 용어 관련 의견제시

전문가 그룹과 실무자 그룹 모두 인터뷰 과정에서 '시'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는데, 행정기구로써 '지자체', '행정', 포괄적 개념의 '정부'를 모두 약 400회를 상회하는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 집단과 실무자 집단 모두 서울을 비롯한 '시' 단위가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문화계획, 실행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며, 실제 실행주체로써 각 도시 정부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표 4-28] 실행조직 및 대상관련 용어빈도

키워드	전문가	실무자
도 시	196	138
정 부	3	5
지자체	4	3
시	358	348
자치구	2	2
서울시	12	11
행 정	14	29
문화재단	2	5
재단	2	16
민간	5	10
기업	8	1
시민	29	15

[표 4-29] 제도·정책관련 용어 빈도

키워드	전문가	실무자
제도	31	6
법	65	51
조례	1	0
기준	2	6
절차	1	5
갈등	3	1
기존	9	0
한계	12	5
변경	1	1
애매	0	8
체계	6	6
위임	1	0

두 개의 그룹 모두 공공미술관련 '법'의 부재와 '정의와 영역의 불분명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한 전문가는 '공공미술에 대한 최초의 볍률적인 정의가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있었는지 조차 찾기 어렵다.'라고 언급하며 미술품 유통관리 중심의 '미술진흥법'의 한계와 규제적 '문화예술진흥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의 공공미술은 서구의 그것과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서, 혁신을 주도하는 도시에서 제안되는 아이디어가 소비지향적인 공간을 만들어 대부분의 도시가 균질화 될 수 있다.'고 '도시의 경험을 확장하고 시민참여에 기반한 정체성 강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공미술이라는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현실적으로 혼란스러움을 지적하였고, 조사에 참여한 실무자는 '현재의 공공미술은 공공디자인 방식에 점차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작가 고유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도시공공미술의 개념으로 시스템화 된 미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공공미술을 하는 곳은 서울시 외에 없고 아르코(ARKO)[136]에서 약간의 지원을 하는 정도로 극히 한정적' 이라며 '점차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2) 도시공공미술 정책화에 대한 동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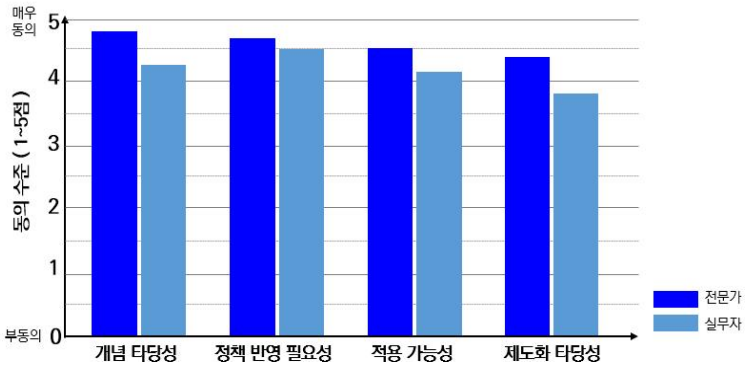
가) 동의 수준

도시공공미술을 통해 제안된 정책을 바탕으로 도시공공미술 개념의 타당성, 정책 반영의 필요성, 정책적용 가능성, 제도화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전문가와 실무자의 답변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 [그림 4-2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개념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가는 4.8점, 실무자집단은 4.3점으로 개념적 접근방식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이 더 강한 동의도를 나타내었다.

136) 아르코 ARKO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를 줄여 부르는 말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그림 4-28] 도시공공미술 개념 및 정책화 동의도

도시공공미술 개념의 정책반영 필요성에도 전문가 4.7점, 실무자 4.5점로 양 집단 모두 높게 공감하였고 제안된 정책의 적용과 실행가능에도 4.6점, 실무자 4.2점의 높은 동의도를 보여 제안된 내용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제도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자 집단에서 3.8점으로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앞선 토론자 사용 용어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현장에서 과도한 절차와 기준 없는 행정지표들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30 참조)

[표 4-30] 전문가와 실무자의 시각차

구분	전문가 시각	실무자 시각
주요방향	제도 개선과 정책 통합 중심	실행 시스템 유연화 및 작가 지원 중심
보완방향	도시계획과 문화정책의 상위 연계 요구	행정 현실에 맞는 절차적 보완 요구
재원	법제화 기반의 기금 다변화	민간 후원, 지역 기여 기반 예산 다변화
실행주체	정책 중심(문화체육관광부, 기획단위)	예술가, 시민, 실무자 중심의 실행 주체 강조

나) 전문가 및 실무자 추가의견

토론과 설문의 과정에서 한 실무자는 '행정 담당자들의 순환주기가 지나치게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짧고, 공공미술에 대한 행정의 낮은 이해도와 예술에 대한 존중이 없는 태도로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면서, '행정가들의 이해수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잘 작동할 것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공공미술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구체성이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상호 합의의 기준이 될 지표, 작품의 후속관리 등에 대한 프로세스, 작품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담아준다면 기획자와 작가, 행정간의 '소통의 오류'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실행과정에 있어 상부조직의 소통한계를 지적하였는데, 문화, 경제, 사회, 관광, 복지 등을 다루는 행정1부와 도시, 주택. 안전, 시설 등을 다루는 행정 2부로 체계가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 체제에서 도시계획과 예술계획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결합할 수 있는 협업구조는 이상적인 것일 수 있음'이 지적하였다. 도시계획에서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시군구 단위에서 기본계획으로 다루고 있어 기존의 도시계획 프로세스에 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국토법 계열의 모든 법률은 물리적 도시구조에 대한 절대성을 주장하고 문화향유에 대한 부분은 문화향유 시설을 통한 지원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행 규칙으로 도시공공미술을 적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제시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문화진흥법 제4조에 명시되었던 문화향유권(문화권)'이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137] 로 이동함과 동시에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근거로 문화법에 근거한 문화예술법의 세부 법률개정을 통해 '도시공공미술'이라는 새로운 정의에 부합하는 법률체제의 마

137)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적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PRO HOMINUM BENEFICIO · 1946

련도 가능해 보인다.'며 도시공공미술의 법률과 제도화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보았다. 관련 내용은 [표 4-29]와 같다.

[표 4-29] 도시공공미술 전략에 대한 추가의견

추가의견	세부내용
구체적 지침 개발 및 교육	실무와 행정 모두를 위한 기본개념 설명, 가이드라인 구성 및 교육
도시부서와 예술부서의 연결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행 규칙' 도시공공미술 포함 검토 현재처럼 공간조성 후 투입이 현실적
관련 법령의 제정	공공미술의 개념혼동 개선, 안정체계 마련

3) 도시공공미술 상위 전략목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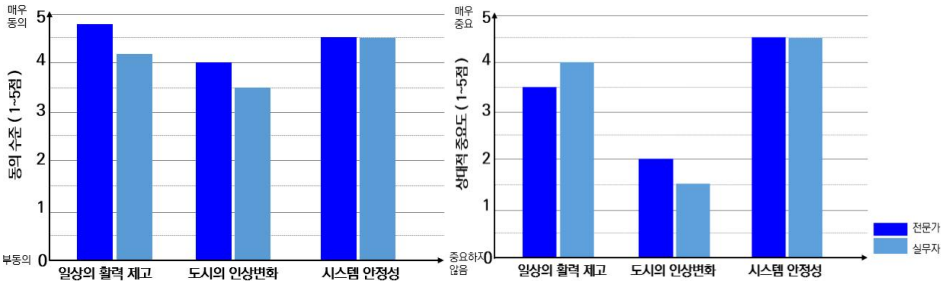
가) 동의수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되었던 상위 전략으로써 '일상의 활력제고', '도시의 인상변화', '시스템의 안정성'의 3개 전략에 대한 전문가와 실무자 집단의 의견을 5점 척도의 동의 정도를 추출하였고, 이후 앞선 AHP 분석데이터에 근거하여 각 그룹 마다의 3개 전략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각 전략 동의수준과 상대적 중요도 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제로 주어진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은 '일상의 활력 제고'(4.8) 〉'안정적 기반조성'(4.5) 〉 '도시 인상 강화'(4.0)의 순으로 동의정도가 나타났으며 실무자의 경우 '안정적 기반조성'(4.5) 〉 '일상의 활력 제고'(4.2) 〉 '도시 인상 강화'(3.5)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29 참조)

양쪽 그룹 모두에서 안정적인 정책 추진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하여 5점 만점에 4.5의 강한 동의도를 보였으며 즉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활력제고의 정책 필요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성을 대대적인 ‘도시 인상변화’보다 우선요소로 평가되였다. [그림4-29] 참조.



[그림4-29] 도시공공미술 전략 동의수준 [그림4-30] 도시공공미술 전략별 상대적 중요도

다만 각 전략에 대한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문가와 실무자 모두 안정적 기반 전략(4.5점)에 상대적 중요도가 높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전략으로 도출되었으며, 일상의 활력 증진에 대하여는(전문가 3.5점, 실무자 4.0점)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도시 인상변화에 대하여는 다소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전문가 2.0점, 실무자 1.5점)

나) 추가의견

조사에 참여한 전업작가와 전문가 의견이 상충되는 지점이 발생하였는데, 세대간의 단절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계기로 세대별 요구와 지향점을 수용하는 어바니즘이 강화와 도시조성 완료 후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공공미술 활용을 제안한 반면, 전업작가는 ‘미술의 논리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지만 사회와의 관계를 맺는 도시공공미술이니 만큼 그 방향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기획에서부터 예술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예술은 부차적 검토사항이 될 것’이라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 기획자는 ‘단기적 전략에 있어서 마스터플랜에서부터 시작하여 완성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명확한 프로세스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하였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다음으로 '문화향유' 측에서 도시의 예술경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 내었던 정책사업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도시경쟁력 관점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끌어올리는 대형사업이나 정책적 접근을 통해 '도시의 인상변화'를 만들 수 있는 로드맵이 제안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도시공공미술을 100만이상의 대도시로 특정하였는데, 오히려 '뮌스터 조각프로젝트(Skulptur Projekte Münster)'[138]나 '나오시마(直島) 프로젝트(Naoshima Project)[139]와 같이 작은 도시도 강한 아이덴티티를 갖게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큐레이터의 기획력, 둘째, 시민들의 호응, 셋째, 예술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 하였으며, 규모상으로 복합적 구조를 가진 서울시의 경우에는 동이나 권역단위의 시행을 통해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을 언급하였다.

[표 4-32] 도시공공미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의견

추가의견	세부내용
소규모 도시, 자치구 사업	다양한 시민참여와 함께 도시의 특성을 살리는데 조금은 작은 규모의 공공미술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
대형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도시의 인상변화를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도시공공미술 정책이 추진될 필요성 언급
예술기획자의 조기 참여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술기획자가 초기부터 참여 필요 시민들의 호응유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4) 도시공공미술의 단·중·장기 전략구성의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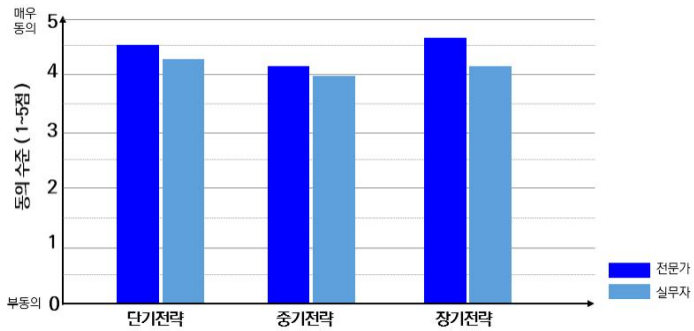
가) 동의 수준

138)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 : 1997년부터 매년 10년 주기로 봄. 가을에 걸쳐 열리는 조각축제로 여름과 가을에 걸쳐 도시 곳곳의 공공장소에 무료로 전시한다 세계적인 미술행사

139) 나오시마 프로젝트 : 제철사업의 중단으로 폐허였던 섬을 1985년 폐쇄된 국제캠핑장을 서점 경영자 후투다케 데즈히코가 장기간의 투지히야 세계계적인 미술작품이 가득한 섬으로 탈바꿈.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전문가 집단은 장기 전략에 대한 동의도 4.6점과 단기 전략 4.5점에 높은 동의를 보였으며 제도화와 지속성 확보에 강한 관심도를 나타내였다. 전반적 전략에 대한 높은 동의도를 보였으며 양 그룹 모두 장기적인 안정화 전략 마련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전반적인 동의수준으로 보았을 때 장기전략에 대한 동의도가 높게 나온 것은 법률과 제도의 개선안들이 장기전략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도시공공미술의 일상성과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단기적이고 실험적인 유형들에 대한 전문가와 실무자의 이해도 높을 가능성도 있다.



[그림 4-31] 전략 시기별 동의도

나) 추가의견

조사의 참여한 한 전문가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실행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단기과제로 진행해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고, 실무자 그룹에 참여한 기획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문 학예'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로 손꼽았다. 내용을 변형하는 것은 단기 과제로 편입하여 진행해도 좋을 것.'이라 하였다.

실무자의 말에서 '공공미술의 효과가 검증되고 시민들이 활용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일정시간이 걸리는데 서울의 당현천 프로젝트 사례가 공공미술로써의 수준은 높지 않고 놓이는 작품이 중복적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이끌어 가면서 활성화된 사례가 되었고. 반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처럼 대의를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없는 사례도 있음. 서울시의 '홍제유연'이나 '가락시장' 사례도 우수한 사례이고 명소가 되었지만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있었을 것.' 이라며 '당장의 효과 측정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느슨한 호흡을 가지고 활용가능한 '성과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정체성이 생길 때까지 꾸준하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향전환하여 단기사업을 장기젼략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행정1부시장 산하의 문화본부와 행정2부시장 산하의 도시기반본부는 분리된 조직인 것처럼, 제안된 도시계획과 공공미술의 연결은 쉽지않아 단기과제에서 오히려 장기과제로 두는 것이 현실적임을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단기전략은 가급적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공간에 집중하고 도시계획과 연계된 대규모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표 4-33] 도시공공미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의견

추가의견	세부내용
기존제도 개선 우선추진	건축물미술작품을 활용하거나 지침마련 등의 내용은 단기과제화
도시관점의 이해가 있는 전문학예의 필요성	미술관 학예에서 벗어나 행정과 도시를 이해하는 공공미술 적합형 학예사 양성 필요로, 고등교육기관과 행정의 변화유도 필요
도시공공미술 적합 성과평과 지표 필요성	도시공공미술의 성과를 측정하기 적합한 장기적 관점의 평가 구성 시민들의 참여와 지역공동체 연계성 강화방안 마련이 필수적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5) 제안 의견의 종합

전문가의 부정 응답은 전 범주에서 낮게 측정되었으며, 가장 높은 부정의견으로써 '정책 및 제도' 분야에서도 13.9% 수준에 불과하였다. 전문가 FGI에서는 정의의 타당성(4.8점)과 정책적 필요성(4.7점)에 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도시공공미술의 적용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전문가와 실무자 모두의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공공미술이 단독의 작품이기보다는 어바니즘 원칙과 연계하여 도시공간과의 연결고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다만 전문가 조사 과정에서 '한국의 경우 어바니즘이 철학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택 공급이나 도시조성의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도시계획와의 연결방식에 대한 고민보다는 도시공공미술에 대한 정의를 따로 규정하여 적용하는 프로세스로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공미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현실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바니즘이나 도시경쟁력의 관계 속에서 공공미술의 방향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이다.'이며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연계전략은 '물리적 범주를 넘어 도시계획과 문화정책의 전략적 연계수단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 도시공공미술의 전략적 접근은 개념적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안정적 제도 기반 마련과 일상적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전략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다층적 정책 통합, 민관협력 확대, 시민과 예술가 중심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실질적 예산 확보와 전문행정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조사의 과정을 통해 연구의 결론이 이론적 기반과 실현 전략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으며 발전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확인하였으며, 논의를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통해 전문가와 실무자의 제안사항은 [표 4-3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34] FGI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와 실무자의 제안의견 종합

	분야	제안 내용
전문가 그룹	**제도 개선**	- 도시계획·문화정책·생활 SOC 등과 연계한 다층적 제도 연결 고리 구축 - 통합형 계획 체계를 기반으로 공공미술을 전략화할 필요 강조 - 현행법 개정, 공공미술관련 별도의 법제화 시도
	유지관리 구조	- 공공미술은 설치 이후 관리가 핵심 - 설치 예산 외 민을 중심으로 활용에 대한 관심 유지, 사후 유지·관리 비용 책정 - 도시 시스템과 예술을 이해하는 지속가능한 행정 강조
	기술 기반 전략 도입	- AI, AR 기반의 공공미술 실험지구 지정 등 디지털 공공미술 시범 도시 제안 - 스마트 시티를 지원하는 기술 예술 확산 위한 정책 조성 필요
	재원 확보 다양화	-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유연한 운용, 민관 협력형 예산 구조 (마케팅 연계), 크라우드펀딩, 공공기여 예산 활용 등 - 창의적 기금조성 및 예술-경제 융합형 모델 제시
	해외법제 참고, 활용	- 퍼센트 제도, 기업 예술협력 제도 등 유럽·미국의 제도를 국내 적용·확장 - 해외 선진사례 기반 법제화 필요성 제안
실무자 그룹	**실행 체계 개선**	- 행정 구조의 유연성 확대, 전담 조직·기획자 배치 필요 - 부서 간 협력, 조율력과 연속 업무인력 확보의 중요성 강조
	가이드라인 지침, 교육	- 예술가의 창작 동기 유지를 위한 비금전적 보상체계 (명예, 기회)도입 필요 - 공공미술이 '기획자 중심'이 아닌 작가 주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제도 수용성 문제	- 규제가 예술가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로 작용할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발생 가능성 높음. 권리관계 정리, 체계화 필요 -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 및 조율 강조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시민 체감성 강조	- 정책 추진 이전에 시민의 문화 체감이 되는 실행사업이 우선되어야 함. - 공공미술의 존재 이유를 시민의 일상 인식 속에서 찾도록 유도 필요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4.3.3. FGI 결과에 따른 전략 수정

도시공공미술의 최종적인 전략 제시를 위하여 FGI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였다. 전문가 의견에서 주요 수정제안 방향은 다음 7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1. 서울시 도시공공미술 기획 행정시스템 구성 중기과제화
2. 가이드라인, 평가의 틀 등 구체화 중기과제화
3. 공공건축의 건축물미술작품 공모제 응용 단기과제로 변경
4. 도시계획 연결 시스템은 단기 실행사업으로 실험, 안정화는 장기과제화
5. 도시공공미술 개념 점검과 영역화를 통한 법제화 가능성 장기과제화
6. 도시경쟁력 달성을 위한 도시공공미술 성과평가의 틀 개발
7. 도시공공미술의 독립적 진흥법제화

대부분의 제안은 효과적인 실행과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의 시점을 변화하는 내용으로 최종 결과에 실행의 시점을 달리하여 적용하며, 상기 과제 중 앞선 정책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과평가의 틀과 독립적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도시경쟁력 달성을 위한 도시공공미술 성과평가의 틀 개발

이론가 비안키니(Franco Bianchini,1993)는 유럽의 문화정책의 평가방식[140]에 문화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것을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로 환산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관계와 감상자의 심리, 공동체의 가치 이해에 부적합함을 설명하였다. 문화정책은 삶의 질, 사회적 연대감, 공동체 등과의 주관

140)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The West European Experience』.1993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적이고 비가시적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경제적 투자와 수치적 효과로 환원하는 한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은 UNESCO Culture 2030 Indicator 등을 통해 문화의 본질에 대하여 SDGs에서 제시한 철학을 분화에 반영하기 위한 4개 테마, 22개의 지표를 통해 보완하였고, 도시의 선정 협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정량적 데이터 수집과 정성적 평가, 결과분석, 정책제안의 후속 모니터링(도시계획, 통계청, 문화부서, 환경부서 등의 협업)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현재 공공미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평가 틀이 부재한 가운데, 행정중심의 성과 목표달성과 내용적으로 맞지 않아 우수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도시공공미술의 적정 평가와 환류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 도시공공미술의 독립적 법제화 가능성

앞서 공공미술과 관련한 법제 고찰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법률적 기준'에서 공공미술이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상위 법과의 연계성 강화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의 공공미술은(제18조 제9호) '대중에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전시하는 것' 이며 문화예술기금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질 뿐이다. 특히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에서의 공공미술과 원래적 공공미술의 용어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공공미술은 행정체계의 근간이 되는 기초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GI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에 따라 미술진흥법과의 분리, 건축물미술작품제도와 대별되며 공공디자인으로 포괄되지 않는 예술의 독립성과 저작권 특성을 반영한 단독의 '도시공공미술 진흥법' 제정을 시도한다. 도시계획과 연결된 미술작품, 공공공간의 적용하는 미술작품의 체계화를 통해 도시공공미술의 정의와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장기전략에 포함하였다. 다만 타법과의 관계성과 관계부처의 설정, 독립적 밥제화에 따른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추가의견을 반영한 추진전략 종합

전문가 FGI를 통해 제시된 추가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그림 4-32]와 같다.

[그림 4-32] 초기 전략 및 수정전략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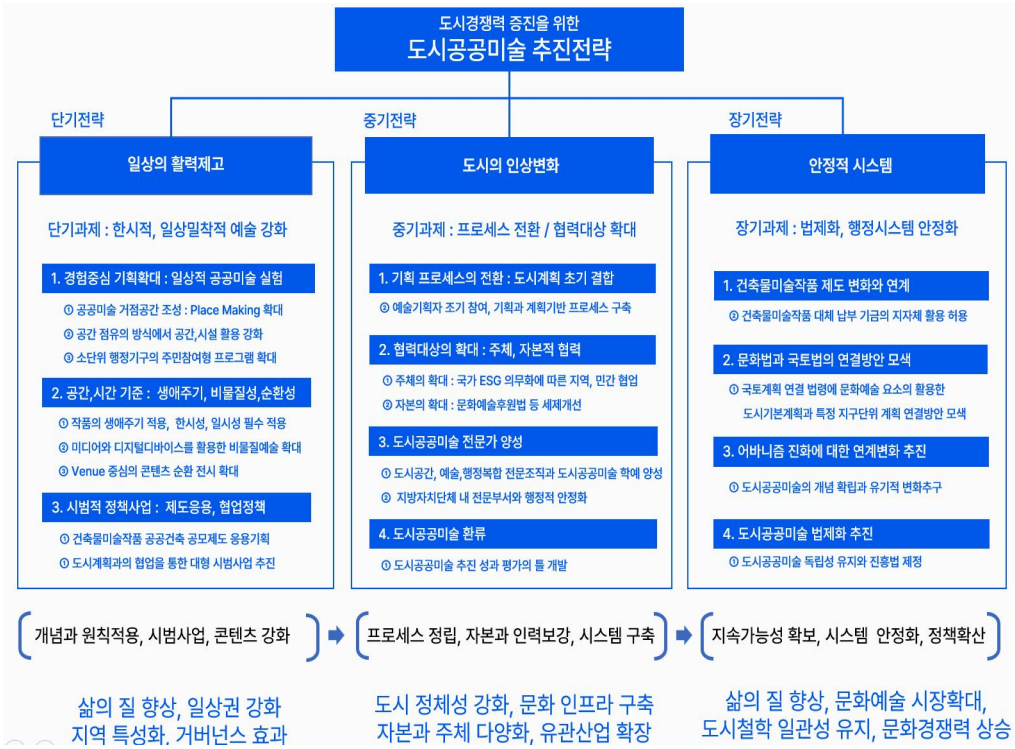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4.4. 도시공공미술 실행전략 제시

4.4.1 도시공공미술 실행전략 종합

전문가 검증과정을 거친 도시 공공미술의 실행전략을 종합 구성하였다. 검증과정에서 단기과제는 6개에서 8개로 증가하였고, 중기과제 6개, 장기과제 4개의 총 18개의 과제가 구성되면서, 총 3개의 핵심전략과 1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도시공공미술 전략모형이 최종 정리되었다. 각 전략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경쟁력 목표를 연결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그림 4-33]과 같다.



[그림 4-33] 도시공공미술 전략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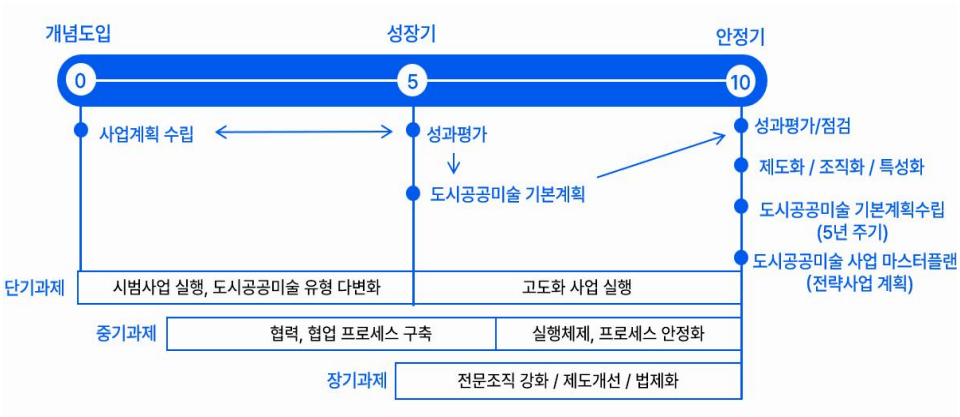
각 단계의 설정은 행정기관의 현실적인 실행성과 기반조성을 위에 필요한 시간 소요를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단계적으로는 시범사업 운영, 추진체계의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강화, 안정적 법제도의 확립 순으로 실행과제를 분류하였다.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 단기전략은 첫째 경험중심의 기획확대, 둘째 공간, 시간의 기준변화, 셋째 시범적 정책사업의 시도의 3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실행구조 체계화를 위한 중기전략으로는 첫째 기획 프로세스의 변화, 둘째 협력대상의 확대, 셋째 도시공공미술 전문가 양성, 넷째 도시공공미술 환류의 4개의 세부목표로 순으로 정리하였다. 시스템 안정화와 정책확산이 핵심인 장기과제로는 첫째,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변화와 연계, 둘째, 문화법과 국토법의 연결방안 모색, 셋째, 도시특화전략 수립, 넷째, 도시공공미술의 독립성을 갖춘 법제화의 추진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전략추진의 기간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총 10년으로 설정하고, 단기전략 실행은 3~5년, 중기전략 5~8년, 장기전략 8~10년으로 적용하였다. 전체 흐름에서 첫째 시범 착수년도의 기본방향설정, 둘째 시범 5년~6년차 성과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셋째 10년차 시스템 점검과 고도화된 도시공공미술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시점으로 설정하여 시간 축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정리하면 [그림 4-34]와 같다.



[그림 4-34] 도시공공미술 전략 로드맵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단기 전략사업의 핵심은 일상권 변화를 시작으로 도시개념의 공간단위로 확장하는 형태이며 시범사업(마중물 사업) 출발 후 5년 시점에 개발된 평가의 틀을 바탕으로 성과를 확인, 조정하여 향후 5년의 사업기획방안을 담은 도시공공미술 기본계획 또는 도시공공미술 아트플랜을 반드시 수립하는 것이 1차 목표라 하겠다. 또한 단기과제는 1회성으로 중기과제 시작 시점에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과제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 다변화히며, 완료시점까지 중기과제와 병행한다.

도시공공미술 도입 후 10년 시점은 그간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그간의 달라진 제도적 환경을 반영과 도시별 특화전략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공미술 추진체계와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은 어바니즘의 변화와 각 도시별 도시경쟁력의 달성지표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각 시대의 도시계획과 연결된 도시공공미술은 기본적인 모델 외 각자 다른 방식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디자인플랜, 문화플랜 등과 연계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재원마련, 인력양성, 평가 틀 구성 등의 시스템화 시도와 함께 기반의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는 것으로 정책을 고도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과거의 공공미술과 다른 기획, 계획, 시스템에 기반한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고도화함으로써 도시공공미술의 올바른 작동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4.2 도시공공미술 실행전략 기대효과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던 도시공공미술의 특성요소, 10개의 원칙, 도시공공미술의 효과와 도시경쟁력 효과를 과제별로 세분화하여 종합하면 [표 4-33]과 같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표 4-35] 도시공공미술 전략 종합

핵심전략	추진방향	실행과제	도시공공미술 특성요소	도시공공미술 10원칙	도시공공미술 효과	도시경쟁력 효과
일상의 활력 제고 (단기)	체험성, 활용성, 지원성 강화	일상 거점별 place making 확대	다변적 접근성, 장소 특정성	2. 한시적, 일상 밀착적 공공미술 추진	보행 일상권 강화, 장소발굴	① 삶의 질 향상 ⑤ 문화 인프라 확대
		공간 및 시설활용 예술 자원화	통합성, 작가적 창의성	4. 도시공간의 복합적 활용, 신중한 설치 7. 작가의 창의 발현을 위한 보호체계 확립	융합영역 확대, 활용성 강화	① 삶의 질 향상 ② 도시관광·브랜딩 효과
		소단위 행정기구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다변적 접근성, 주체적 참여성	8. 시민의 주체적 참여 프로세스 적용	공동체 회복, 시민권 강화	③ 거버넌스 강화 ④ 글로벌 가치 추구
	일상 접근성 시간성 강화	작품의 생애주기 설정, 변화 추구	순환성, 지속가능한 시스템	2. 한시적, 일상 밀착적 공공미술 추진 7. 작가의 창의발현을 위한 보호체계 확립	작품의 순환, 작가의 창의 확대. 시대성 장소성 강화	⑤ 문화 인프라 확대 ⑥ 문화 역량 강화
		Venue 중심의 순환전시 확대	장소특정성, 다변적 접근성 지속가능한 시스템	2. 한시적, 일상 밀착적 공공미술 추진 5. 장소 기반의 콘텐츠 순환성 강화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① 삶의 질 향상 ② 도시관광·브랜딩 효과
		야간 경관, 미디어아트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	순환성, 환경친화성, 장소특정성	5. 장소 기반의 콘텐츠 순환성 강화 3. 24시간 개방과 접근성 활용성 반영	야간 활동성 강화 관광 집객 효과	② 도시관광·브랜딩 효과 ⑤ 문화 인프라 확대
	시범적 정책변화	건축물미술작품 공모제 응용 기획강화	지속가능한 시스템	9. 지속가능한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	공공미술 기획 강화	⑥ 문화 역량 강화
		도시계획 연계 대형 시범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시스템, 장소 특정성	1. 도시계획과 예술기획의 통합적 프로세스	공공미술 랜드마크 기획추진	④ 글로벌 가치 추구 ⑤ 문화 인프라 확대
도시의 인상 변화 (중기)	프로세스 개선	예술 기획 조기 반영 프로세스 전환	통합성, 지속가능한 시스템 장소특정성, 작가적 창의성	1. 도시계획과 예술기획의 통합적 프로세스 7. 작가의 창의발현을 위한 보호체계 확립	공공미술 기획 강화 도시의 매력도 향상	④ 글로벌 가치 추구 ⑥ 문화 역량 강화
	민관·기관 협력 확대	민관협력 방식의 확대	주체적 참여성, 지속가능한 시스템	6. 협력, 협치 대상 확대 (주체,자본)	사업 주체의 확대	③ 거버넌스 강화
		공공미술 재원의 다변화	주체적 참여성, 지속가능한 시스템	6. 협력, 협치 대상 확대 (주체,자본)	문화예술 지원,	③ 거버넌스 강화
	전문행정 강화	도시공공미술 전문 학예 양성	지속가능한 시스템	10. 도시와 예술을 아우르는 전문 행정체계	사업의 질적 제고	⑥ 문화 역량 강화
		지방자치체 공공미술 기획 부서 배치	지속가능한 시스템	10. 도시와 예술을 아우르는 전문 행정체계	사업 질적 제고	⑥ 문화 역량 강화
	환류체계	도시공공미술 성과평가 틀 개발	지속가능한 시스템	10. 도시와 예술을 아우르는 전문 행정체계	환류체계 확립	⑥ 문화 역량 강화
안정적 시스템 (장기)	법령 제·개정	도시공공미술 진흥법제화	지속가능한 시스템	9. 지속가능한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	공공미술 시장 확대	⑥ 문화 역량 강화
	도시 특화	도시공공미술 특화전략	통합성, 지속가능한 시스템	9. 지속가능한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	도시별 매력추구	② 도시관광·브랜딩 효과
	자본확보 체제변화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의 용처 확대	지속가능한 시스템	6. 협력, 협치 대상 확대 (주체,자본)	자본확보의 유연성	⑥ 문화 역량 강화
		문화법과 국토법의 연결방안 모색	지속가능한 시스템	1. 도시계획과 예술기획의 통합적 프로세스	일상 밀착적	⑥ 문화 역량 강화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3장의 구조방정식을 통한 요인분석 과정에서 도시공공미술이 개인과 공동의 경험재로 작동할 때 기존의 효과에 1.5배 이상의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4장의 각 도시의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된 도시공공미술의 5개의 도시경쟁력 효과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이 유지하였으며 전문가 검증을 통해 완성된 실행구조는 공공의 정책에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며 실행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앞선 한국 공공미술의 정책적 현황과 한계점에 대한 단계적인 극복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연구의 결론으로 도출된 '도시공공미술'의 목표, 가치, 방향성과 전략을 연결함으로써 현재의 공공미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상황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연구의 범위설정에 따라 사례로 분석된 도시가 한정적이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도출된 도시경쟁력 효과 역시 한정적인 결과로 도출되었으나, 보다 많은 도시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도시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견인효과는 보다 확장적이고 분명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도시공공미술의 개념은 공공미술의 실행 유형 중 하나로 작동이 가능하며 도시와 예술의 관계성을 강화하고 도시와 도시민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자 요소로써 작동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도시공공미술은 공공미술이 도시공간과 도시정책과의 전략적 결합을 통해 도시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행방식이다. 사업 말미에 장식요소로 미술을 결합하거나 환경미화를 위해 미술을 활용하는 한계에 대한 반향이며 순수예술중심의 전통적 공공미술의 탈피를 전제한다. 이러한 도시공공미술의 전략적 시스템화는 공공미술이라는 요소를 정책화 하는 분명한 목적성을 제공할 것이며 시민향유와 도시의 관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공공미술이 가지는 장소특정성, 유일무이성과 작가적 상상력 구현은 각 도시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환경의 정온화, 균질화, 보편화를 추구하는 디자인의 방식과 차별점을 이루며 공공디자인과 공존가능한 대표적인 문화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이나 재구조화 시점에 결합하면서 도시의 형태에서 도시향유의 방식을 새로이 하는 창조적 모델이 될 수 있다.

기 제시된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공공미술은 작은 시설과의 결합, 공동체와의 활동에서부터 랜드마크의 조성, 감성 충만한 예술축제까지 전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각 도시의 컨디션과 특화요소와 다차원적으로 결합하여 작가보다는 시민을 작품보다는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적합형'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공공미술의 확장은 현재 건축물미술작품 시장이 유일한 한국의 공공미술 시장에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문화산업 육성의 장을 마련하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시대의 모순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대의 정서와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 할 것이다. 체계회된 시스템을 통해 도시로 확장된 예술의 언어는 시민의 일상공간에서, 도시의 인프라에서 도시의 문화적인 향유기반을 확대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도시로의 성장에 기여하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도시공간에서의 공공미술이 단지 장식적 요소를 넘어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증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증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공공미술(UrbanPublic Art)이라는 개념 체계화와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선 장에서의 진행되었던 이론적 고찰, 실증분석, 사례연구와 정량적, 정성적 조사 평가의 도출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연구의 의의를 제시한다. 정책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와 함께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토대로 향후 공공미술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5.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그간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이 되지 않는 공공미술 영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공공미술은 시대와 함께 진화하면서 다양한 영역들과의 유기적인 결합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 부족, 본래적 개념 정의와 범주의 모호성, 불분명하게 제시되는 사업의 목적성 등의 한계적 요인 극복이 시급하다. 특히 순수 '미술'이 도시공간으로의 확장된다는 개념에서 기원된 공공미술은 미학적 담론과 심미성, 관객과 작가품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연구되거나 작가의 작품성, 시민의 감상평을 근거로한 비평과 사례조사가 선행연구의 중심을 이루는 특성이 발견된다. 이러한 특성은 공공미술이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부차적 요소로써 독립적으로 실행하며 도시의 철학, 미래적 관점, 공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간의 활용과 개발의 방향과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만들어 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즉 학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공공미술은 유연성과 확장성, 다변적 적용성을 내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의 문화적, 사회적 풍요를 지원하는 공공미술를 통해 도시계획과 문화정책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학제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도시와 작품, 사람의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방향에 맞는 적정 공공미술을 전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지원책의 체계를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공공미술 정책 확산에 대한 '도시경쟁력 증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을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도시 공공미술로의 진화를 통해 도시공간의 다변화와 생동감 있는 예술이 있는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 도시공공미술(Urban Public Art)의 개념 제안이다.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공미술의 실행유형으로 당대의 어바니즘과 결합하여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지향성과 공간 구성방식, 도시개발과 연결한 전략화된 공공미술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체계화된 체계화된 조직구성, 프로세스의 전환과 성과평가, 환류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미술이 단발적이고 소극적인 장식미술을 넘어 도시와 도시정책, 시민들의 도시권(Right to the City)과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경쟁력 강화전략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19이후 강조된 시민의 일상권과 보행권을 중심으로 현시대에 보현화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1946 · PRO HOMINUM BENEFICIO

되고 있는 뉴어바니즘과 N분 도시이론이 결합된 도시공공미술의 유형을 적용하여 통합성(Integration), 다변적 접근성 (Accessibility), 콘텐츠 순환성 (Curculation), 지속가능한 시스템(Sustainability)의 도시공공미술 특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변화된 도시경쟁력 평가지표를 전략적으로 공략하여 한국 공공미술의 도시공공미술 도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공공미술과 어바니즘 요소가 실제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계구조 확인이다. 막연하게 '공공미술이 도시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에 대하여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공공미술과 어바니즘의 독립변수와 도시경쟁력이라는 매개변수 간의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의 진행하였다. 특히 공공미술은 독립변수로써 도시경쟁력과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공공미술이 어바니즘과 결합하거나 예술적 경험과 가치인식이 강조될 경우, 도시경쟁력의 파급효과가 1.5배 증폭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체적 영향관계를 통계 방식으로 증명하고 작동의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다소 모호하였던 공공미술과 도시경쟁력 간의 정(+)적 영향관계를 실증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작품의 심미성과 작품의 랜드마크적 규모가 도시경쟁력에 가장 유효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결과로, 도시의 일상활력 변화와 경험을 지원하는 공공미술이 유효한 값으로 도출됨으로써 도시공공미술 전략이 유효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도시공공미술의 전략적 확산과 체계적 실행전략의 구체화이다. 공공미술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 안정적 실행체계에 대한 단,중,장기의 단계적 실행이 가능한 3개의 핵심전략, 15개의 단.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안하여 공공미술 정책도입의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정부관점에서의 실용적 활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6개국의 10개 도시(코펜하겐, 멜버른, 파리, 뉴욕, 싱가폴,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서울)에서 실행하고 있는 도시공공미술 사례를 도시계획적 관점, 경제적 효과, 문화계획과의 연관성,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추구와의 합일성 등의 입체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미술정책이 발생시키는 도시의 경쟁력 증진 효과를 가시화 하였다. 또한 공공미술 기본계획 (5년주기) 수립주기와 한국의 정책, 제도적 시스템을 고려한 마중물 – 실행 – 고도화 - 환류로 이어지는 10년의 로드맵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공공미술, 도시계획, 도시사회학, 도시건축, 미술기획, 문화정책 전문가들과 기획자, 작가, 실무자의 검증을 거쳐 신뢰도 높은 도시공공미술 실행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정부기관의 공공미술에 대한 관점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동안 멈추어져있던 공공미술에 대한 담론을 다시 활성화하고 다소 관조적 입장에서 공공미술을 바라보던 것에서 벗어나 예술가를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 시장 확대와 도시의 문화경쟁력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합리적 대안으로 도시공공미술을 검토할 수 있다. 2025년 6월 기준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서울시 관내 설치된(등록된) 미술작품의 수는 무려 4,854점에 달한다. 그 중 4,492점 92.5%가 건축물미술작품이다. 동상·기념비는 127점과 기타 조형물이 있으며 지자체 자율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도시갤러리’부터 ‘서울은 미술관’ 사업으로 구현된 작품 도시갤러리 35점, 서울은 미술관 30점이 전부이다. 숫자로는 전체 미술작품 수의 1.3%이며 매년 약 1천억[141]을 달성하는 건축물미술작품 시장 대비 서울시 공공미술 관련 실행사업, 정책사업, 두 개의 위원와 작품유지관리 예산을 포함 30억 내외[142]로, 비용상

14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시장실태조사 연간 보고서 https://k-artmarket.kr/member/index.do

142) 서울시 예산서 아카이브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64284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으로 3%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매년 발생시키는 문화적 파급효과를 보면 도시 곳곳을 예술로 활성화 하고 국제적인 위상증진, 국제적 네트워크, 아티스트 발굴과 도시자원과의 결합, 장소의 재생 등을 통해 도시 곳곳에 우수사례들을 만들며 세계적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둘째, 건축과 경관 등 도시요소를 활용하거나 도시계획과 연결된 공공미술의 확장 가능성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2024년 61.8%에 이르렀다. 서울뿐 아니라 성장형 도시들의 지형도가 바뀌고 미래지향적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할 시점에 도래했음을 뜻한다. 이러한 콘크리트 노후화는 도시 재구조화, 도시활력강화, 도시재생 등의 변화 등의 도시구조의 변화와 연계하여 도시공공미술의 기획단계부터의 도입을 검토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도시 설계에 문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로 작동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도시는 '서울형', '제주형', '인천형' 등 각자의 환경여건, 인구 규모와 문화적 정서, 도시산업 구조에 적합한 도시공공미술 구축. 응용함으로써 매력이 살아있는 도시로 전환 가능할 것이다.

셋째, 공공미술시장에 민간, 기획자, 작가의 참여 확대의 기대감이다. 이제까지의 공공미술은 대부분 미술품을 통한 장식효과의 추구가 목표였으나 도시공공미술은 기획단계부터 개입하며 장르적 한계를 조각, 회화 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디자인, 건축, 조경, 도시계획, 미디어 등과의 연결가능성을 내포하며 시민의 경험과 도시의 정체성을 지원하는 예술로써의 역할이 있는 미술을 추구한다. 따라서 작가의 계층적 확대와 유연한 기획, 민간과의 유연한 협업을 통해 그 시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과정이 부족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PRO HOMINUM BENEFICIO · 1946

했던 공공미술 분야에 도시공간, 사회적관계, 미학적 가치를 두루 고려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가들의 육성을 통해 도시공공미술의 기획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건축물미술작품 시장 외 거대한 문화예술시장을 만듦으로써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시민 접점 강화를 위한 민간과의 전략적 협업을 활력넘치는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공공미술은 여전히 하나의 용어로 귀결되거나 체계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연구자들의 다학제적인 해석과 참여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유사한 용어와 구분이 모호한 법제도들의 정비에서부터 우수한 작가들의 참여확대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진화의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문화의 영역은 특별한 부가 설명이 없이도 그 부가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을 위한 미술'은 현장에 존재함으로써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시설물로 취급받기도 한다. 이것은 공공미술의 기본적인 정의가 학문에서부터 법령까지 명확한 범주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조형물, 동상, 기념비, 건축물미술작품 등이 각자 다른 틀의 심의와 절차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행정가역시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시대는 도시공간에서의 수준높은 예술표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시의 얼굴이 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도시공공미술의 전략은 작가의 창의성에 모든 것을 의지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객관적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해 이러한 한계점들을 차차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발전적 논의를 통하여 작가들의 아름다운 상상이 도시공간에 펼쳐지는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한다.

HONGIK UNIVERSITY · 홍익대학교 · PRO HOMINUM BENEFICIO · 1946

5.2 연구의 한계와 발전방향

본 연구에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연구의 결론으로 도출된 과제는 한국의 특성에 맞추어 제안된 것으로 범용성에 한계가 있다. 사례분석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대륙별, 국각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자의 도시플랜, 아트플랜, 지향하는 어바니즘의 방향을 적용하여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확산과 정부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함과 동시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적용된 원칙으로 중소도시와 농어촌 도시 등의 특정 도시들에 적용되었을 때의 유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도시공공미술의 원칙은 특정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지원하고 각 지자체가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므로 향후 다양한 도시공공미술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과 대별 되는 독립적 영역으로써 공공미술이 그 고유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으며 도시공공미술 정책 확산을 통해 건축물미술작품제도만이 작가들의 작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한국에서 많은 문화예술 작가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실험을 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의 성장하는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이 경쟁력을 이루는 대상도시를 제외하여 현재 성장 중이거나 자원이 부족한 도시들도 공평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였는데, 문화분야에서 역사적 헤리티지가 가지는 경쟁력이 가장 강력한 만큼, 향후 연구과제로써 역사적 도시들의 도시공공미술 적용방식에 대한 확장성을 기대한다.

전 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공미술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의점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자율적 대상에 대한 규제적인 입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데, 작가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시간과 프로세스. 작가-발주처 간의 명확한 권리관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영국의 학자 니콜라스 페브스너(Nikolause Pevsner)는 도시는 종합예술이라 하였다. 성장주의의 도시에서의 공공미술은 단지 보조나 장식이였을 수 있지만, 문화와 예술이 정책화 되는 현 시대에서의 공공미술은 유연하게 시대를 반영하고 사람과의 정서교류를 확장하는 문화예술의 매체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그 확장의 주체이자 지원체로써의 정부는 소극적인 지원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시공공미술의 실행전략은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시민의 세금활용에 대한 정당성과 삶의 질 증진을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는 정책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행정에 있어 전문성의 중요성, 도시관련 행정과의 협치성,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포용하는 유연성에 대한 변화의식이 없다면 발전적인 도시공공미술의 적용은 요원한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책입안과 실행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도시공공미술은 그 도시가 지향하는 철학과 도시가 가진 매력을 발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어바니즘의 방향을 담아 각자에 맞게 진화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매력이 살아있는 예술도시로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도시공공미술의 명확한 개념화는 공공미술 사업이 예쁜 조형물을 골라 여기저기 장식하는 수단, 캐릭터 조형물 만들기, 다른 곳에서 흥행한 사례의 외관을 베껴 포토존을 만드는 환경개선의 도구화되는 것을 막고, 우수한 기획을 통해 도시의 시대철학을 반영한 미학의 결정체, 그 곳에 있어 의미있는 단 한 점으로써 가치를 공고히 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일상공간에서 예술의 즐거움을 전하는 매개체이자 한 도시의 경쟁력을 이끄는 성장동력으로써의 도시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공공미술이 향후 한 도시의 컬쳐어바니즘의 일환으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공공미술은 한 분야의 전유가 될 수 없고 유연하고 확장적인 문화의 영역이다. 숨어있는 도시의 맥락을 찾고 예술가와 도시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보다 쉽게 시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구체화 된다. 도시 공간을 향한 다양한 실험에 열려있고 사회학적 담론과 연결되면서 시대를 따라 꾸준히 진화해 왔다. 도시공공미술의 제안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도시들의 미래를 그리는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한동안 멈춰져 있던 공공미술 연구와 담론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보다 많은 분야의의 연구자들의 다각도에서 관심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많은 정부에서 도시공공미술을 도입함으로써 도시 성장을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로 공공미술의 꾸준한 확장을 기대한다.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참고문헌

[국내 학위논문]

강현아. (2020), 공공미술의 역할과 방향성에 관한 연구 –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소은. (2014), 공공미술의 공론장 기능과 역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연희. (2017), 공공미술의 공공성 실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 (2005), 미국의 뉴어바니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경. (2002), 도시 외부공간 공공미술 설치 개선방안 연구: 건축미술장식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수경. (2022), 문화도시 정책 성과 측정방안 연구:성과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문희숙. (2013), 공공 공간의 환경조형물 설치에 관한 기본지침 연구: 서울시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민권. (2015), 유럽연합(EU)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신자. (2017), 심미적 통합환경을 지향하는 도시 공공친화 공간 형성방안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선영. (2021),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브랜드 정책 연구: 주요 도시의 도시브랜드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쳔. (2020), Placemaking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재란. (2021), 공동체 의미의 표상으로서 공공미술 시민관여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왕위잉. (202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미술 방향 연구: 공공가치 지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영주. (2023), 강남 슈퍼블록을 통한 n분 도시 계획 요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민주. (2013), 신도시 공공공간 통합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슬기. (2015), 시공간 영역의 공공미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현희. (2024),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혁신 성공 모델 연구 : 뉴욕 리틀 아일랜드, 리버풀, 오스틴, 나오시마 사례 분석 중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국내 학술논문]

강수미. (2024), 공공미술의 복합 논리: 글로벌 도시의 미적 공간과 아니쉬 카푸어의 〈구름문〉. 미학예술학연구, 71, pp.50-77.

김동규. (2013), 새장르 공공미술의 정치철학 : 공론장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와철학, 25, pp.77-106.

김유진. (2017), 로컬시대의 공공미술 : 2000년대 이후 한국 공공미술에서 공공성의 의미 변화, 미술사연구. 32, pp.189-219.

김정주 외. (2010), 서울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의 외부공간 공공미술 실태 분석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1), pp.49-64.

김주연 외. (2010), 도시 공간에서의 인간과 공공미술의 유기적 관계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5(3), pp.99-108.

김주호, 이은정. (2012), 문화지수 비교를 통한 OECD 5개국의 문화 경쟁력 연구, 예술경영연구,(22), pp.267-298.

김혜진. (2010),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유형,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0(8), pp.198-208.

김현정. (2011),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고찰 -부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2), pp. 276-286.

문선욱. (2008), 뉴어바니즘의 도시디자인과 공공성, 한국디자인포럼, 21, pp. 131-140.

박세훈. (2008), 문화의 시대, 도시계획의 새로운 역할, 국토정책 Brief, (183), pp.1-6.

박세훈. (2016), 해비타트 III「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성립배경과 의의, 26(4),, pp.9-39.

박수경, 김경배. (2024), 시간도시주의(Chrono-Urbanism) 전략에 관한 연구: 파리, 포틀랜드, 멜버른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10(1), pp.133-151.

박재은. (2023), 공공미술의 정의 분석을 통한 공공미술 정책 진흥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9(1), pp.581-592.

박재은, 김주연, 장영호. (2023), 프로젝트(Project)성 공공미술 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연구, 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8(1), pp.91-102.

박정은. (2015),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의 활용, 서울연구원, pp.16-21.

박창석. (2022), 파리의 15분 도시, 미래의 삶을 꿈꾸다, 나라경제, 377, p.32.

반정화, 김수진. (2022), 수용미학의 메커니즘 관점에서 공공미술 특정 장소가 갖는 의미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37, pp.123-134.
변미리. (2014), 도시경쟁력과 문화가치, 문화정책, 1, pp.115-142.
서동진. (2023), 장소정체성을 위한 내러티브 환경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7(3), pp.363-374.
서수정. (2007), 지속가능한 개발과 뉴어바니즘 이론의 적용에 의한 영국 버밍험시 도시재생의 특성, 국토계획, 42(7), pp.125-144.
심은주 (2011), 현대 도시 공간디자인에 나타나는 영역의 융합 유형 및 특성,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3), pp.1-10.
양초롱. (2022), 도시 발전과 공공미술의 상관관계: 프랑스 리옹 도시를 중심으로,유럽문화예술학논집, 13(1), pp.1-27.
양현미. (2024), 공공미술의 제도적 기반: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16, pp.177-202.
오재란, 최익서. (2019), 도시 공간에서 공공미술 가치에 관한 연구 - 빌바오 공공미술작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4(4), pp.23-32.
이명진. (2010), 공공 미술을 통한 공공 공간의 확장, 인문학논총, 15(3), pp.97-118.
이은정 외. (2013), 장소-특정성 공공미술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연구, 12, pp.65-91.
이정민. (2013), 공공미술의 공공성과 주체 간 관계의 특성,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지, 9(5), pp.83-97.
이형진, 하수경. (2021), 한국의 디자인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정책에 대한 고찰,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9(57), pp.211-222.
임성훈. (2008), 미술과 공공성: 공공미술에 대한 미학적 고찰, 현대미술학 논문집, 12, pp.107-134.
전지훈, 정문기. (2013), 문화경쟁력과 창의성이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2), pp.159-189.
정규상. (2018), 공공미술 가치 향상을 위한 유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마곡지구 공공미술 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4), pp. 353-363.
정평란. (2010), 공개공지 확보와 제도적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지. 8(13), pp.127-137.
조경진. (2014), 도시개발 및 재생의 수단으로 통합적 공공미술 추진 전략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61), pp.89-104.
최옥영. (2009), 공공미술로서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사례분석, 디자인융복합연구, 8(4), pp.77-84.
최찬양, 이윤석, 진동석. (2025), 2SFCA 기법을 활용한 서울시 문화공간 보행 접근성 분석: N분 도시 및 서울시 보행일상권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9(1), pp.127-162.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콘셉시온 머라이어 카밀, 유지원, 주범. (2025), 15분 도시 개념 적용을 통한 광주광역시 공공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1(1), pp.15-26.
류선정, (2012), 우리나라와 호주 공공미술제도 비교 연구 -서울특별시와 호주의 North Sydney Council, City of Holroyd를 대상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 pp.156-164.

[국내 단행본]
권미원, 김인규·우정아·이영욱 옮김. (2013), 장소특정적 미술, 현실문화연구
김세푼, 현진권, 이준형, 김정수, 이기호, 양현미. (2008), 공공성, 미메시스
라도삼. (2017), 서울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윤소영. (2020), 지속가능한 문화비전2030 추진방안 연구:문화비전2030 더하기 포럼, 문화체육관광부
이영범, 염철호. (2011), 건축과 도시, 공공성으로 읽다, AURI
박은실. (2018), 문화예술과 도시, 도서출판 정한책방
카를로스모레노, 양영란 옮김. (2023), 도시에 살 권리, 정예씨 출판사
서이토 준이치, 윤대성·류수연·윤미란 옮김, (2009), 민주적 공공성, 이음
서우석. (2024), 문화도시의 사회학, 서울경제경영
성은영, 강현미, 허재석. (2021),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AURI
국토연구원. (2005),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아카데미
캐롤라인 캠벨, 황성연 옮김. (2024), 도시와 예술, 21세기북스
양현미. (2009),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베 레비츠키, 난나 최현주옮김. (2013), 모두를 위한 예술, 두성북스
윤난지 엮음. (2016), 공공미술(모더니즘 이후의 화두), 눈빛
리처드 세넷, 파블로 센드라, 김정혜 옮김. (2023), 무질서의 디자인, 현실문화연구
오스틴 해링턴, 정우진 옮김. (2014), 예술과 사회이론(사회적 미학의 길잡이), 이학사
맬컴 마일스, 박삼철 옮김. (2000), 미술,공간, 도시(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학고재
얀겔, 이영아 옮김(2010), 사람을 위한 도시, 국토연구원
김진각 (2021), 문화예술지원론 : 체계와 쟁점, 박영사
길성호, (2003),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SPACETIME
김민주, 윤성식. (2016), 문화정책과 경영, 박영사
테오도르 폴 김. (2011), 도시 클리닉, 시대의 창
제인포지 지음, 주원호 옮김, (2016), 디자인 미학, 미술문화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국내 보고서]
노영순. (2019), 문화권 선언 2030 방향 설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현 외. (2024), 경기도 n분 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방향, 경기연구원
임희지. (2010), 통합적 디자인 계획을 통한 중심지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종웅. (2021),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변미리. (2013),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 분석, 서울연구원
변미리 외. (2022), 도시경쟁력 진단에 근거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서울은 미술관」2017-201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23), 공공미술 프로젝트「서울은 미술관」2020-2022, 서울특별시
양혜원, 김면 외. (2023), 지속가능한 문화매력국가를 위한 국가문화지수 개발 연구, 문화관광연구원
유럽연합. (2023), 문화 및 창의 도시 모니터, 유럽연합
㈜이음스토리, (2024), 지역문화 매력• 활력 증진 방안 연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문화관광 전문위원회
장훈. (2020), 문화예술분야 동향 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UN Habitit. (2020), 해비타트 Ⅲ:새로운 도시의제 2016, 국토연구원

[국내 기타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2023)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이창근 (2020).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KDI
서울특별시. 서울은 미술관 2.0 기본계획 및 정책발굴 용역 보고서

[해외 논문]
Buchloh, B. H. D. (1990), Conceptual Art 1962-1969:From the Aesthetic of Administration to the Critique of Institutions, *October*, 55, pp.105-143.
C. Kühnapfel et. (2025), On the impact of public art:How engaging a pedestrian-level exhibition improves neighborhood connectedness and well-being, *Wellbeing, Space and Society*, 8, pp.1-13.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Carrasco-Barranco, M. (2025), Artistic aesthetic value in participatory art: Re-evaluating the role of spectator agency. *Philosophies*, 10(2), pp.1-11.

Cheung, M., Smith, N., & Craven, O. (2022), The impacts of public art on cit ies, places and people's lives,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52(1), pp.37-50.

Corbett, J., & Weissman, S. (1994), Ahwahnee Principles, *Western City Magazine*, 70, pp.4-9.

Cuffie, H.A.T. (2021), Public Art and the Impact It Has on the Society, *Journal of Contemporary Indonesian Art*. 7(2), pp.98-104.

Francis, J., Giles-Corti, B., Wood, L., & Knuiman, M. (2012), Creating sense of community: The role of public spac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2(4), pp.401-409.

Graeme Evans. (2009), Creative Cities, Creative Spaces and Urban Policy, *Urban Studies*, 46(5&6), pp.1003-1040.

Grodach, C. (2010), Art spaces, public space, and the link to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5(4), pp.474-493.

Scardi, G. (2024), Creating a Space of Sharing, *PAD – Pages on Arts and Design*, 27, pp.76-99.

Shimomura, T., & Matsumoto, T. (2010), Policies to Enhance the Physical Urban Environment for Competitiveness: A New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2010/01). pp.1-52.

Hall, T., & Robertson, I. (2001), Public art and urban regeneration: Advocacy, claims and critical debates, *Landscape Research*, 26(1), pp.5-26.

Jan Brennan. (2019), Public Art and the Art of Public Participation, *National Civic Review,* 108(3), pp.34-44.

Francis, J., Giles-Corti, B., Wood, L., & Knuiman, M. (2012), Creating sense of community: The role of public spac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2, pp.401-409.

Koefoed, L., & Simonsen, K. (2011), The Stranger, the City and the Nation: On the Possibilities of Identification and Belonging in Times of Cosmopolit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anism,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8(4), pp.349–363.

Lamia Abdelfattah, Abubakr Albashir, Giulia Ceccarelli, Andrea Gorrini, Federic o Messa, Dante Presicce. (2025), The Right to the Night City: Explori ng the Temporal Variability of the 15-Minute City in Milan and Its Im plications for Nocturnal Communities, *Computers*, 14(1), pp.1–29.

McCarthy, J. (2006). Regeneration of cultural quarters: Public art for place im age or place identity?, *Journal of Urban Design*, 11(2), pp.243–262.

Montalto, V., Tacao Moura, C. J., Langedijk, S., & Saisana, M. (2019), Culture counts: An empirical approach to measure the cultural and creative vit ality of European cities, *Cities*, 89, pp.167–185.

Phillips, P. C. (1988), Temporality and public art: Dynamic meanings in the urban landscape. *Art Journal*, 47(4), pp.331–335.

Ran Tan, Yu Wu, Suhui Zhang. (2024), Walking in Tandem with the City: Exploring the Influence of Public Art on Encouraging Urban Pedestri anism within the 15-Minute Community Living Circle in Shanghai, *Sustainability*, 16(9), pp.1–21.

Strom, E. (2019), Temporary Urbanism and Art-Led Regeneration in the Public Realm, *Urban Studies*, 56(11), pp.2202–2218.

Webster, D., & Muller, L. (2002), Challenges of peri-urbanization in the Lower Yan gtze Region: The case of the Hangzhou-Ningbo corridor, *A/PARC*, pp.1–37

Wyllie, A. (2025), Gradation at a Ludic Edge,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X.Jiang. (2025), User-centred Digital Art Design for Public Space, *Scientific Reports*, 15(1), pp.1–20.

Zi Yang et al. (2023), Public Art, Public Space and Service Design: Communi cation Between Artists and Audience, *Human Factors in Communica tion of Design,* 90, pp.31–41.

[해외 단행본]

Franco Bianchini & Michael Parkinson. (1993).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 neration: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Furman Center for Real Estate and Urban Policy. (2016). *Understanding NYC Pl*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anning: A Guide to the City's Planning Framework, New York University

Deutsche, R. (1996). *Evictions: Art and Spatial Politics*, MIT Press

Gehl, J. & Gemzøe, L. (2000). *New City Spaces*, The Danish Architectural Press

Gehl Architects. (2015). *Public Space and Public Life – Nørrebro*, City of Co penhagen

Grant Kester. (2004). *Conversation Pieces: Community and Communication in Modern Ar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andry, C.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Earthsc an Publications Ltd

Markusen, A., & Gadwa, A. (2010). *Creative Placemaking. Washington*, DC: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Moreno, C. (2024). T*he 15-Minute City: A Solution to Saving Our Time and Our Planet*, Wiley.

Nicolas Bourriaud. (1988). *Relational Aesthetics*, Les Presses du réel

Kate Oakley. (2008). *The role of arts and culture in liveability and competitivene ss – Précis.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Kenneth A. Bollen.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John Wiley & Sons

Richard Sennett (1977). *The Fall of Public Man*, Knopf

SUPERFLEX, BIG, & Topotek1. (2012). *Superkilen: A Celebration of Diversity*, Arvinius + Orfeus Publishing

William H. Whyte. (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Conservation Foundation

World cities culture Forum. (2024). *World cities culture Forum Trend report 20 24*, World Cities Culture Forum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John Bingham-Hall. (2015). *Public art as a Function of Urbanism*, Routledge

Miles, M. (1997). *Art, space and the city: Public art and urban futures*. Routledge

Public Art Fund. (2017). *Ai Weiwei: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New York: Public Art Fund

Kayden, J. S. (2000).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he New York City Exp erience*, Wiley

Mi won. Kwon. (2002). *One place after another:Site specific art and Location*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al Identity, MIT Press

Rosalind Deutsche. (1996). *Evictions: Art and Spatial Politics*, MIT Press

Sharon Zukin. (2010). *Naked City: The Death and Life of Authentic Urban Places*, Oxford University Press

Tom Finkelpearl. (2001). *Dialogues in Public Art*, MIT Press

Tuan, Y.-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해외 보고서]

City of Copenhagen. (2012). *CPH 2025 Climate Plan,* Technical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City of Copenhagen.(2020). *Kunst i Byen – Strategi for kunst i det offentlige rum,* København s Kommune

City of Copenhagen. (2020). *Kultur- og Fritidspolitik 2020-2023,* København s Kommune

City of Copenhagen & Gehl Architects. (2009). *Public space and public life study – Copenhagen. Technical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City of Copenhagen

City of Melbourne. (2018). *Creative Strategy 2018-2028: A City that Creates*, City of Melbourne

City of Melbourne. (2018). P*ublic Art Framework 2014-2024. Urban Strategy Division,* City of Melbourne

City of Melbourne. (2021). *Public Art Framework 2021-2031*, City of Melbourne

City of Melbourne, Arts and Culture Branch. (2016). *Creative Hoardings Trial: Public Art on Construction Sites*, City of Melbourne, Arts and Culture Branch

City of New York. (2015). *One New York: The Plan for a Strong and Just City*, NYC Mayor's Office of Sustainability

City of New York. (2021). *One NYC 2050: Building a Strong and Fair City*, NYC Mayor's Office of Sustainability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2009). Charter of the New Urbanism(2nd ed.), McGraw-Hill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Creative Victoria. (2017). *Supporting Artists through Public Realm Activation: Case Studies*, Creative Victoria

Department of Environment, Land, Water and Planning, Victoria. (2017). *Plan Melbourne 2017-2050: Metropolitan Planning Strategy*, Department of Environment, Land, Water and Planning, Victoria

Department of Transport and Planning, Victoria. (2017). P*lan Melbourne 2017 -2050*, Department of Transport and Planning, Victoria

Department of Environment, Land, Water and Planning, Victoria.(2020). *20-Minute Neighbourhoods Pilot Program: Lessons Learned Report*, Department of Environment, Land, Water and Planning, Victoria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2020). *Percent for Art Program Overview*, NYC.gov

OECD. (2021). *The 15-Minute City: A Sustainable Model for Urban Living,* OECD Publishing

OECD. (2022). *The Culture Fix: Creative People, Places and Industries*, OECD Publishing

UNHabitat. (2020). *Global State of Metropolis 2020 - Population Data Booklet*, UN HABITAT

UNHabitat. (2021).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 (2020-2021),* UN HABITAT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2023). *Master Plan Overview*, URA

[참고 사이트]

서울기록원 : https://archives.seoul.go.kr/

"서울을 디지털 감성문화도시로"…광화문·노들섬·DDP 대변신(종합)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2232911Y

공공디자인 정보종합 시스템 : https://publicdesign.kr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 : https://blcm.go.kr

캠브리지 영어사전 : https://dictionary.cambridge.org

코펜하겐시 전략보고서 : https://international.kk.dk

프랑스 파리시 공식홈페이지 : https://www.paris.fr

헬싱키 도시전략 보고서 (2021-2025) City of Copenhagen : https://www.hel.fi/en/decision-making/decision-making/strategy-and-economy/strategy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City of Copenhagen (코펜하겐시 도시개발청, 덴마크) :
https://urbandevelopmentcph.kk.dk/urban-planning
City of Melbourne (멜버른 시정부) : https://www.melbourne.vic.gov.au/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CNU) :
http://www.cnu.org/resources/charter-new-urbanism
DDP : https://ddp.or.kr/
futr singapore 공식 홈페이지 : https://futr.sg
Grand Paris Express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grandparisexpress.fr/benefit-metro-ile-de-france
Grand Paris Express 소개 홈페이지 :
https://www.systra.com/en/project/grand-paris-express-lines-15-16-17-and-18/
Habitat III : https://habitat3.org/
I Light Singapore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lightsingapore.gov.sg/
Jensen Hughes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jensenhughes.com/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dataset” :
https://www.kaggle.com/datasets/weforum/global-competitiveness/data
World Economic Forum : https://www.weforum.org
“World’s Best Cities 2019 보고서“ :
https://barcelonacatalonia.eu/wp-content/uploads/2019/06/Resonance-2019-Worlds-Best-Cities-Report1.pdf
Rockefeller Center 공식홈페이지 ; https://www.rockefellercenter.com
UNCTAD 공식통계 플랫폼 : https://hbs.unctad.org/total-and-urban-population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 부록 1〉 전문가(AHP) 조사, 시민조사(SEM) 설문지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도시 문화향유 증진을 통한 공공미술의 경쟁력 요소 중요도 분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디자인·공예학과 공공디자인 박사과정 중에 있는 박재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문대상) 본 설문은 국내 관련 전문가 25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설문목적) 2000년대 현대 도시이론에 따른 공공미술 적용은 도시 문화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공공미술 전략요소들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지표도출) 본 조사에 전략요소는 국내외 공공미술 전반과 2000년대 전후의 현대 도시이론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도시의 문화경쟁, 도시경쟁력, 도시매력도 등 국내외 주요 10개 조사의 평가지표 중 문화관련 지표를 추출하여 체계화하였습니다.

(설문방법) 본 조사는 항목마다 제시된 두 개의 요소간의 관계 비교를 제시하고, 보다 유의미한 쪽에 유의미한 정도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요소들간의 관계파악을 위하여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본 설문조사에 기재하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 예정이며,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솔직한 답변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공공미술 정책 수립과 전략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공공디자인 전공 박사과정
지도교수 : 장영호, 김주연
연구자 : 박재은
연락처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1946

1. 도시 문화향유 증진을 통한 공공미술의 경쟁력 요소 평가 (현대 어바니즘이론을 중심으로)

[평가 계층도]



[항목 설명]

1계층	2계층	내 용 설 명
도시의 인상변화	상징성	지역의 서사가 있는 정체성 발현
	복합성	지역 대표 문화명소 조성, 복합용도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예술성	현대미술적 대표성이 있는 예술작품 유치
	이색성	개성 있는 건축, 디자인과 독특한 경관연출
	지표성	시각적 주목도를 높여 도시의 지표로서의 존재감
	접근성	공공공간에서의 물리적, 심리적 접촉면 확대
	보존성	도시의 자원 재발견과 원래의 공간, 자원의 스토리, 형태보존
일상의 활력제고	현재성	한시적 전시, 생애주기를 적용 통한 시대상 반영
	순환성	지정 열린장소에 콘텐츠 주기적 변화를 통한 생동감
	활용성	도시의 공간, 시설 등 사용성이 있는 요소들과의 유연한 결합
	확장성	스마트 기술, 야간콘텐츠를 접목한 장르, 감상 범위 확장
	경험성	공공미술작품의 체험적인 요소를 도입한 다면적 경험
	안전성	작품의 접근과 감상, 활용에 대한 심리적 안전감
참여와 가치지향	주체성	공동체 주도이고 주체적인 관심과 참여과정
	자율성	작가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율 보장. 다양성 표출
	공동체성	공동체 회복을 통한 공동의 가치추구
	포용성	자율적 의사표출과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포용적 가치추구
	지속가능성	지구와 환경, 세계적 지속가능 의제에 동참 여부
시스템의 안정성	협치성	공공공간 활용제고를 위한 민간과 정부, 정부기간관 협치성
	안정성	법제도 개선, 산업 육성, 체계적 정책, 작품관리,안정적 예산확보 등
	전문성	전문 교육, 인력 양성, 정부에의 전문인력 배치 등
	투명성	공개, 공유, 공감 가능한 과정의 투명성
	이해확산	공공미술에 대한 홍보, 교육, 체험을 통한 이해도 증진
	국제성	국제적 교류 강화와 행사유치 교류확대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1) 설문 평가 방법은 좌우 항목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증진 전략 방안에 더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 설문 평가 예시 : 'A'와 'B'를 비교하여 "중요"한 "정도"를 표시합니다.
(예) (1계층) 000에 있어 A는 B보다 ⑤만큼 더 중요하다.

평가 항목	중요 <----------동일----------> 중요																	평가 항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					V													B

1)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증진 전략의 "대분류 항목"간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중요 <----------동일 ----------> 중요																	평가 항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도시의 인상변화																		일상의 활력제고
																		참여와 가치지향
																		시스템의 안정성
일상의 활력제고																		참여와 가치지향
																		시스템의 안정성
참여와 가치지향																		시스템의 안정성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2)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증진 방안 중 “도시의 인상변화”의 소분류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중요 <----------동일 ----------> 중요																	평가 항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상징성																		복합성
																		예술성
																		이색성
																		지표성
																		접근성
																		보존성
복합성																		예술성
																		이색성
																		지표성
																		접근성
																		보존성
예술성																		이색성
																		지표성
																		접근성
																		보존성
이색성																		지표성
																		접근성
																		보존성
지표성																		접근성
																		보존성
접근성																		보존성

【참 고】

1계층	2계층	내 용 설 명
도시의 인상변화	상징성	지역의 서사가 있는 정체성 발현
	복합성	지역 대표 문화명소 조성, 복합용도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예술성	현대미술적 대표성이 있는 예술작품 유치
	이색성	개성 있는 건축, 디자인과 독특한 경관연출
	지표성	시각적 주목도를 높여 도시의 지표로써의 존재감
	접근성	공공공간에서의 물리적, 심리적 접촉면 확대
	보존성	도시의 자원 재발견과 원래의 공간, 자원의 스토리, 형태보존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3)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증진 전략 방안의 “경험의 확장”의 소분류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중요 <----------동일 ----------> 중요																	평가 항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현재성																		순환성
																		활용성
																		확장성
																		경험성
																		안전성
순환성																		활용성
																		확장성
																		경험성
																		안전성
활용성																		확장성
																		경험성
																		안전성
확장성																		경험성
																		안전성
경험성																		안전성

【참 고】

1계층	2계층	내 용 설 명
일상의 활력제고	현재성	한시적 전시, 생애주기를 적용 통한 시대상 반영
	순환성	지정 열린장소에 콘텐츠 주기적 변화를 통한 생동감
	활용성	도시의 공간, 시설 등 사용성이 있는 요소들과의 유연한 결합
	확장성	스마트 기술, 야간콘텐츠를 접목한 장르, 감상 범위 확장
	경험성	공공미술작품의 체험적인 요소를 도입한 다면적 경험
	안전성	작품의 접근과 감상, 활용에 대한 심리적 안전감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4)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증진 전략 방안의 “협력과 활력”의 소분류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중요 <----------동일 ----------> 중요																	평가 항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체성																		자율성
																		공동체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자율성																		공동체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공동체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참고】

1계층	2계층	내 용 설 명
참여와 가치지향	주체성	공동체 주도적인 참여과정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확보
	자율성	작가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율 보장. 다양성 표출
	공동체성	공동체 회복을 통한 공동의 가치추구
	포용성	세계적인 의제 동참을 통한 포용적, 가치지향적 예술 추진
	지속가능성	다양한 주체의 주인의식 고취와 지속가능한 운영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5) 공공미술의 도시경쟁력 증진 전략 방안의 “시스템 강화”의 소분류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중요 <----------동일----------> 중요																	평가 항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협치성																		안정성
																		전문성
																		투명성
																		이해확산
																		국제성
안정성																		전문성
																		투명성
																		이해확산
																		국제성
전문성																		투명성
																		이해확산
																		국제성
투명성																		이해확산
																		국제성
이해확산																		국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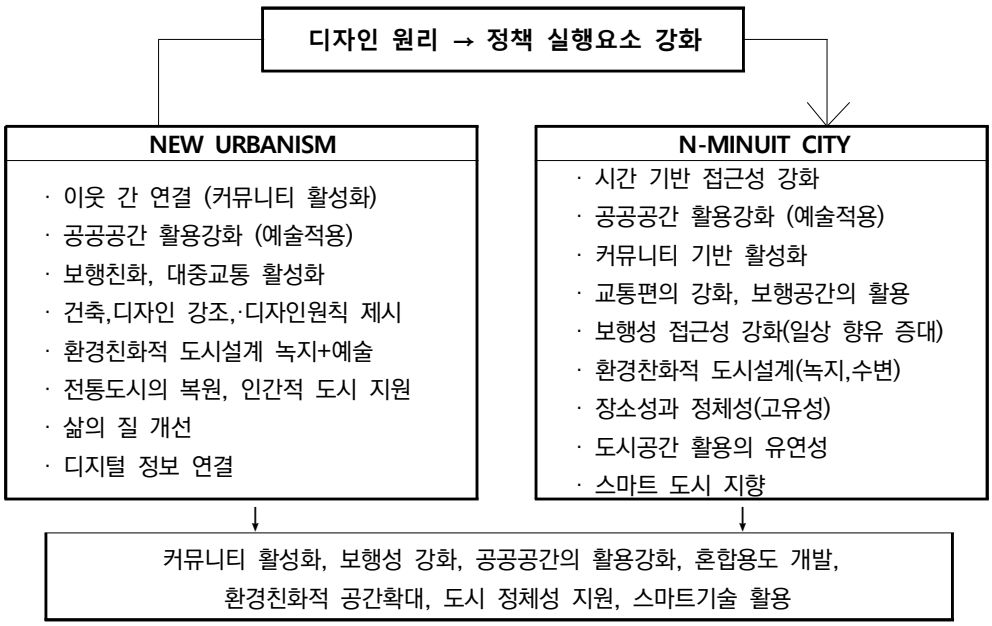
【참 고】

1계층	2계층	내 용 설 명
시스템의 안정성	협치성	공공공간 활용 제고를 위한 민간과 정부, 정부기관 간 협치성
	안정성	법제도 개선, 산업 육성, 정책확대, 안정적 예산확보 등
	전문성	전문 교육, 인력 양성, 정부에의 전문인력 배치 등
	투명성	공개, 공유, 공감 가능한 정책과정의 투명성
	이해확산	공공미술에 대한 홍보, 교육, 체험을 통한 이해도 증진
	국제성	국제적 교류 강화와 행사유치 교류확대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2. 현대 어바니즘의 도시 공공미술 연계요인 중요도 평가

2000년대 도시이론의 주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뉴어바니즘과 N분 도시이론의 공동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공공미술을 도시공간에 적용하는 원칙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각 이론들의 주장을 통해 도출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순위로 선택된 항목은 공공미술 전략 요소의 가중치로 활용됩니다.



[항목 설명]

계 층	내 용 설 명
커뮤니티 활성화	사람 중심의 공공공간, 사람간의 관계의 연결
보행성 강화	보행을 지원하는 환경과 도로, 보도의 설계, 시설의 배치
공공공간의 활용강화	공공공간 예술작품 설치, 공공건물을 활용한 예술적 경관 연출
혼합용도의 개발	유연한 공간활용과 기능을 복합, 융합한 도시공간 창출
환경적 친화적 공간 확대	도시의 녹지의 보존 활용, 공원, 친수공간의 일상권 도입 등
도시 정체성 지원	도시의 정체성 활용과 디자인, 예술을 통한 장소만들기 강화
스마트 기술 활용	디지털 기술의 도시결합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1) 현대 어바니즘의 공공미술 연계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중요 <----------동일 ----------> 중요																	평가 항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커뮤니티 활성화																		보행성 강화
																		공공공간의 활용강화
																		혼합용도의 개발
																		환경친화적 공간확대
																		도시 정체성 지원
																		스마트 기술 활용
보행성 강화																		공공공간의 활용강화
																		혼합용도의 개발
																		환경친화적 공간확대
																		도시 정체성 지원
																		스마트 기술 활용
공공공간의 활용강화																		혼합용도의 개발
																		환경친화적 공간확대
																		도시 정체성 지원
																		스마트 기술 활용
혼합용도의 개발																		환경친화적 공간확대
																		도시 정체성 지원
																		스마트 기술 활용
환경친화적 공간확대																		도시 정체성 지원
																		스마트 기술 활용
도시 정체성 지원																		스마트 기술 활용

【참 고】

계 층	내 용 설 명
커뮤니티 활성화	사람 중심의 공공공간, 사람간의 관계의 연결
보행성 강화	보행을 지원하는 환경과 도로, 보도의 설계, 시설의 배치
공공공간의 활용강화	공공공간 예술작품 설치, 공공건물을 활용한 예술적 경관 연출
혼합용도의 개발	유연한 공간활용과 기능을 복합, 융합한 도시공간 창출
환경적 친화적 공간 확대	도시의 녹지의 보존 활용, 공원, 친수공간의 일상권 도입 등
도시 정체성 지원	도시의 정체성 활용과 디자인, 예술을 통한 장소만들기 강화
스마트 기술 활용	디지털 기술의 도시결합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 1946

【 조사자 특성 】

성 명	
소속·직책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60대
경 력	① 5년 이하 ② 5-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0년 이상
학 력	① 학사 ② 석사과정 ③ 석사 ④ 박사과정 ⑤ 박사
분 류	① 교수, 전문가 (연구자, 비평가, 심의위원) ② 현업 종사자 (작가,기획자,디자이너,전문업체 등) ③ 행정기관 (시·구, 정부기관, 산하기관 등)
전문분야	① 미술/디자인 ② 건축/조경 ③ 도시계획 ④ 문화/사회학 ⑤ 경제/인문학 ⑥ 기타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공공미술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민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디자인·공예학과 공공디자인 박사과정 중에 있는 박재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문대상) 본 설문은 서울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설문목적) 많은 도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미술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에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입니다.

※ 본 조사에서의 공공미술이란? 조형물 설치, 벽화조성의 한정적 개념을 넘어, 장소만들기, 미술작품의 전시, 커뮤니티 활동 등 **공공의 공간**에 **공공의 자본**으로 **공동의 가치**를 위해 이루어지는 창의적 예술활동(건축,디자인,조경,미디어 등 포함)과 그 결과를 포괄하는 예술작품을 말합니다. 서울시에 조성된 공공미술 중 대표적인 조형작품과 장소조성, 재생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계광장 스프링	홍제천 홍제유연	만리동 윤슬	가락시장 정수탑

(개인정보 보호) 본 설문조사에 기재하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 예정이며,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솔직한 답변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공공미술 정책 수립과 전략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공공디자인 박사과정
지도교수 : 장영호·김주연
연구자 : 박재은
연락처

1. 공공미술 구성요소

다음은 공공미술 구성요소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표시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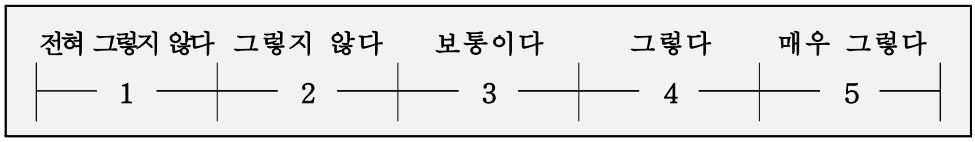
기능성 (체험성+상징성+현장성)					
1) 공공미술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1	2	3	4	5
2) 공공미술은 다른 공간이나 시설에 없는 독특한 느낌을 주는 기능이 있다.	1	2	3	4	5
3) 공공미술은 고품격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체험하는 기능이 있다.	1	2	3	4	5
4) 공공미술은 독특한 이곳의 정체성을 담은 기능이 있다.	1	2	3	4	5
5) 공공미술은 획일화된 도시풍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	1	2	3	4	5
개방성 (안전성+접근성+체험성)					
5) 공공미술은 24시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1	2	3	4	5
6) 공공미술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7) 공공미술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1	2	3	4	5
8) 공공미술은 사용하기 쉽고 어렵지 않아 용이하다.	1	2	3	4	5
현장성(현장성+순환성)					
9) 공공미술은 지금, 여기에 유일하게 있어 의미가 있다.	1	2	3	4	5
10) 공공미술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이 좋다.	1	2	3	4	5
11) 공공미술은 기간 내에 볼 수 있는 볼거리로 찾아가기 좋다.	1	2	3	4	5
12) 공공미술은 머물러서 감상할 수 있어서 좋다.	1	2	3	4	5
심미성(자율성+상징성)					
13) 공공미술은 획일적이지 않고 개성이 있어 만족스럽다.	1	2	3	4	5
14) 공공미술은 심미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있다.	1	2	3	4	5
15) 공공미술은 조형적으로 우수하고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한다.	1	2	3	4	5
16) 공공미술은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사진을 찍고 체험하고 싶다.	1	2	3	4	5
관리성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17) 공공미술은 관리가 효율적이고 용이하다.	1	2	3	4	5
18) 공공미술은 튼튼하여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1	2	3	4	5
19) 공공미술은 훼손되거나 변형이 적다.	1	2	3	4	5
20) 공공미술은 교체가 쉽고 대체하기 쉽다.	1	2	3	4	5
지속가능성					
21) 공공미술은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게 조성되어있다	1	2	3	4	5
22) 공공미술은 오랫동한 설치되어 있어 장소의 이미지가 된다.	1	2	3	4	5
23) 공공미술은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되어 쾌적하다.	1	2	3	4	5
24) 공공미술은 자연에 해가 적으며 환경오염이 없다.	1	2	3	4	5
25) 공공미술은 자연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고 설치되었다.	1	2	3	4	5

2.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

다음은 공공미술의 어바니즘 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표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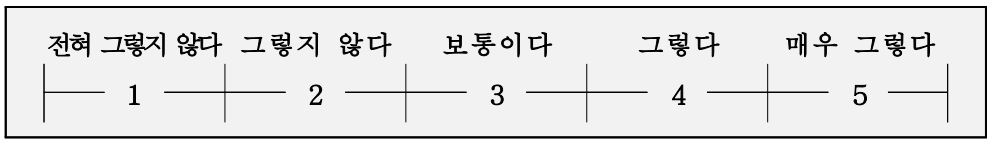
보행일상권 변화					
1) 공공미술로 인해 우리동네 주변 경관이 좋아졌다.	1	2	3	4	5
2) 공공미술로 인해 주변 환경이 생기있게 변하였다.	1	2	3	4	5
3) 공공미술로 인해 주변에 소외되었던 공간들이 아름답게 바뀌었다.	1	2	3	4	5
4) 공공미술로 인해 걸어다니는 일상공간이 쾌적해졌다.	1	2	3	4	5
5) 공공미술이 만들어진 후, 단기간에 주변 환경이 변했다.	1	2	3	4	5
6) 공공미술로 인해 방문객이 많아졌다.	1	2	3	4	5
7) 공공미술이 우리 동네만의 명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1	2	3	4	5
복합활용 강화					
8) 공공미술은 장르와 표현방식이 많아 건축물, 공원, 광장, 시설 등과	1	2	3	4	5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다양한 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9) 공공미술이 설치된 곳은 새로운 활동 거점으로 활력 거점이 된다..	1	2	3	4	5
10) 공공미술이 문화시설이나 공원, 광장에 어울려 명소를 만들 수 있다.	1	2	3	4	5
11) 공공미술이 설치된 장소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하다.	1	2	3	4	5
참여성 활성화					
12) 공공미술은 공동제가 참여해 도시공간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한다.	1	2	3	4	5
13) 공공미술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변공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1	2	3	4	5
14) 공공미술은 참여를 통해 지역과 장소에 애정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1	2	3	4	5
환경과의 조화					
15) 공공미술은 녹지와 수변공간에 잘 어울린다.	1	2	3	4	5
16) 공공미술은 재료의 선택과 활용에 환경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1	2	3	4	5
17) 공공미술은 규모와 방식이 공간의 계획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1	2	3	4	5
18) 공공미술은 장소의 특성을 부각시켜 장소의 이미지로 활용되어야 한다	1	2	3	4	5

3. 문화예술 가치인식

다음은 문화예술 가치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표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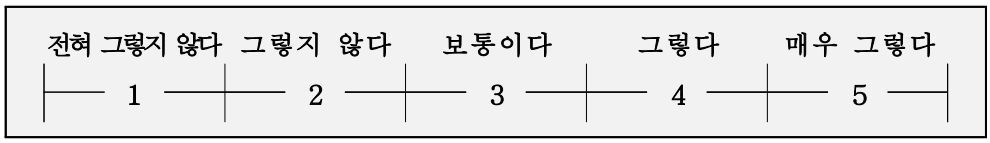
개인적 가치재 (개인의 가치인식)					
1) 문화예술은 정서순화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2) 문화예술은 직업·교육·가사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문화예술은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1	2	3	4	5
4) 문화예술은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1	2	3	4	5
5) 문화예술은 재미와 즐거움을 준다.	1	2	3	4	5
6) 문화예술은 인간관계(가족·사회)에 도움을 준다.	1	2	3	4	5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7) 문화예술은 삶(일상)을 풍요롭게 한다.	1	2	3	4	5
8) 문화예술은 문화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준다.	1	2	3	4	5
예술적 경험재 (예술에 대한 태도)					
9) 문화예술은 예술가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1	2	3	4	5
10) 문화예술은 새로움과 독특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1	2	3	4	5
11) 문화예술은 예술적인 경험과 체험을 전달하는 것이다.	1	2	3	4	5
12) 문화예술은 그 즐기는 과정 자체로 예술적 가치가 있다.	1	2	3	4	5
13) 문화예술은 정신과 감각에 작용한다.	1	2	3	4	5
사회적 공공재 (공공성 인식)					
14) 문화예술은 감상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1	2	3	4	5
15) 문화예술은 실물을 감상하거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1	2	3	4	5
16) 문화예술은 공공의 재산으로 모두가 즐기는 것이다.	1	2	3	4	5
17) 문화예술은 사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1	2	3	4	5
18) 문화예술은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기능을 한다.	1	2	3	4	5
19) 문화예술 관람은 문화예술 창조에 기여하는 것이다.	1	2	3	4	5
20) 문화예술은 사회적 가치가 있다.	1	2	3	4	5

4. 도시경쟁력

다음은 공공미술작품 조성 시 도시경쟁력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표시해주세요.



경제력					
1) 서울시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1	2	3	4	5
2) 서울시의 산업구조 및 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1	2	3	4	5
3) 서울시의 소비구조는 잘 형성되어 있다.	1	2	3	4	5
4) 서울시는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도시이다.	1	2	3	4	5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5) 서울시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에 좋은 도시이다	1	2	3	4	5
6) 서울시는 문화산업 육성하기에 좋은 도시이다.	1	2	3	4	5
혁신성					
5) 서울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는 도시이다.	1	2	3	4	5
6) 서울시는 새로움을 개척해 나가는 선구적인 도시이다.	1	2	3	4	5
7) 서울시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이다.	1	2	3	4	5
8) 서울시는 매력적이고 발전적인 도시이다.	1	2	3	4	5
9) 서울시는 다양한 야간 활동이 자유로운 도시이다.	1	2	3	4	5
10) 서울시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이다.	1	2	3	4	5
인적자본					
11) 서울시는 경제활동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 많은 편이다.	1	2	3	4	5
12) 서울시는 문화예술관련 활동 인구가 많은 편이다.	1	2	3	4	5
13) 서울시는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14) 서울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친다.	1	2	3	4	5
15) 시민들의 학습과 교육은 서울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접근성					
16) 서울시의 교통(도로, 대중교통, 공항, 항구, 철도 등)은 편리하다.	1	2	3	4	5
17)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보건소, 장애시설 등)이 잘되어 있다.	1	2	3	4	5
18) 서울시는 문화 예술 체육시설 등이 잘 조성되어 있다.	1	2	3	4	5
19) 서울시는 생활편의서비스(통신, 전기, 상수도, 도시공원 등)가 잘 되어 있다.	1	2	3	4	5

5. 아래 보기 중 공공미술의 역할로 가장 적합해 보이는 것을 3개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커뮤니티의 활성화 ② 보행공간의 괘적화 ③ 공공공간의 활용강화
④ 지역 명소 조성 ⑤ 휴식과 정서함양 지원 ⑥ 버려진 공간의 재생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6. 응답자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와 일치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가 공공미술에 참여해본 것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이하 ③ 30~39세 이하
④ 40~49세 이하 ⑤ 50~59세 이하 ⑥ 60세 이상

4) 귀하의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2년제 재학 ③ 2년제 졸업
④ 4년제 재학 ⑤ 4년제 졸업 ⑥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 사무직 ② 연구원 ③ 전문직
④ 교직(교사, 교수) ⑤ 자영업/프리랜서 ⑥ 공무원
⑦ 언론/방송 ⑧ 학생 ⑨ 엔지니어
⑩ 기타

6) 귀하의 한 달 평균 수입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50만원 미만 ③ 150-200만원 미만
④ 200-250만원 미만 ⑤ 250-300만원 미만 ⑥ 300-350만원 미만
⑦ 350-400만원 미만 ⑧ 400-450만원 미만 ⑨ 450-500만원 미만
⑩ 5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부록 2〉 주요 도시경쟁력 관련 조사 지표

유네스코 문화 2030 지표(Culture 2030 Indicators)

조사목적 : 2015년에 채택된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와 세부 목표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이행하는 데 문화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영역	차원	세부 지표
경과 회복력 Environment & Resilience	유산에 대한 지출	• 국가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세계유산 포함)의 보전, 보호, 보존을 위한 공공 및 민간 금융투자
	지속가능한 유산관리	• 국내 및 국제 등록, 업데이트 •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유산의 보호, 보존, 관리 조치 • 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동원된 지원의 수준
	기후적응과 회복력	• 건축, 재료 기후 적응과 회복력을 위한 제도적 틀 • 역사지구 내 신규 건축물이 지속가능하고 자연적이며 전통적인 건축 기법과 자재 사용정도
	문화시설	• 시설의 다양성 • 인원수용능력 / • 면적 / • 네트워크(대중교통, 인프라)
	열린 문화공간	• 모든 열린 공공 공간 중에서 '열린 문화공간'의면적(m2, ha)이 차지하는 비율 • 모든 열린 공간 중에서 '열린 문화공간'의수가 차지하는 비율 • 문화통계체계(FCS)의 차원별 분류에 따른 열린 공간에서의 문화 행사구성 비율
번영과 생활 Prosperity & Livelihoods	GDP 내 문화 비중	• 민간 및 공식 문화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문화 고용	• 최근 1년간 전체 고용에서 문화・창의부문 및 문화 관련 직업에 고용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
	문화 사업체	문화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추세
	가계 지출	• 총 가계 지출 중 문화 활동, 상품, 서비스 지출의 비율
	문화상품 및 서비스 무역	•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문화를 위한 공공 재정	• 행정단위별 공공 예산 • 공공 예산의 유형(자본 투자, 운영 비용) • 주민 1인당 공공 예산 • 개입 부문별 • 자금원별(기부,중앙정부 배분,지방세) • 문화를 위한 공공 예산
	문화 거버넌스	• 국가/지방 수준의 제도 및 규제 체계 (법.기준유무) • 관리, 기술, 재정 지원 체계 (예산유무), • 지원 확보 여부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지원영역(FCS활용) A. 문화유산, B.공연, C.시각예술,D.도서및출판, E. 인터렉티브, F.창조적 서비스, G.관광, H.스포츠 및 오락
지식과 기술 Knowledge & Skills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	• 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가능발전 • 교육(ESD)이 (a) 국가 교육 정책, (b) 교육 과정, (c) 교사 교육, (d) 학생 평가 통합 정도
	문화 지식 정책	• 무형문화유산, 유산에 관한 교육과정의 다양성, 장학금 • 역략구축프로그램 및 매커니즘, 교육 및 인식제고
	다중언어 교육	• 공용어 또는 국가언어 배당시간 • 현지언어 또는 지역언어 배당시간 • 국제언어 배당 교육시간
	문화예술교육	• 중등교육기관에 문화 교과의 비중
	문화 훈련	• 문화 분야에서 중등 후교육, 고등교육 학생 수와 이 교육 수준에 등록한 전체 학생 수 비율 • 분야에서 중등후교육, 고등교육 졸업 학생 수와 이 교육 수준으로 졸업하는 전체 학생 수 비율
포용과 참여 Inclusion & Participation	사회적 응집력을 위한 문화	• 문화 간 관용: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웃이 있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 • 대인 신뢰: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표명하는 사람들의 비율 • 성평등에 대한 인식: 성평등에 대한 긍정 평가정도
	예술적 자유 정책	• 예술적 자유에 대한 지원 수준과 예술가의 지위를 확인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보호 – 국가 법률 및 규제의 틀, 저작권 유뮤, 예술가의 지위 보장, •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예술작품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책 유무 • 예술가 및 예술가 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유무 • 디지털과 장최성역량증진 프로그램 • 예술가와 문화전문가의 이동성, 실체 참여 지원 프로그램 유무
	문화에 대한 접근성	• 인구 분포에 따른 문화 인프라의 이용가능성 • 인구 규모와 관련하여 도시 또는 국가의 문화시설 수를 평가
	문화 참여	• 문화 장소 방문: 선정된 문화 장소 또는 공연에 대한 방문 횟수의 추이. • 문화 활동 참여: 지난 12개월간 1회 이상 외부 문화 활동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 • 개인적인 문화 활동: 지난 12개월간 가정에서 문화 활동을 실시한 가구의 비율
	참여적 과정	• 문화 장소 방문 • 문화 활동 참여 • 개인적인 문화 활동 • 문화적인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

출처: UNESCO(2019), Culture 2030 Indicators.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유럽연합 문화 및 창의도시 모니터(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

조사목적 : 인구, 소득 및 고용을 기반으로 유럽의 문화 및 창의도시 성과 모니터링
조사기관 : 유럽의 과학 및 지식 서비스 공동연구센터(JRC)
조사주기 : (2017년부터 시행)

3대 영역	차원	세부 내용
문화적 활력 문화인프라와 문화 참여 측면에서 도시의 문화적 활력 측정	문화 공간 및 시설	경치 및 랜드마크
		박물관 및 예술 갤러리
		영화관
		콘서트 및 음악 홀
		극장
	문화적 참여 및 매력	관광 숙박
		박물관 방문객
		영화관 방문
		문화시설 만족도
창조경제 문화 및 창조부문이 고용,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측면에서 도시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측정	창의적 및 지식기반 일자리	예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채용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채용
		기타 창조 부문의 채용
	지적재산 및 혁신	ICT 특허 출원
		커뮤니티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창조 부분의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예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채용
		뉴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채용
		기타 창조 부문의 기업 채용
환경 활성화 도시가 창의적인 인재를 유치하고 문화적 참여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프라를 얼마나 구축하고 있는지 측정	인적자본 및 교육	예술 및 인문학 졸업생
		ICT 졸업생
		대학 순위의 평균 출현
	개방성, 관용 및 신뢰	외국인 졸업생
		외국 출생 인구
		외국인에 대한 관용
		사람에 대한 신뢰
	지역 및 국제 연결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거버넌스의 질	지역 거버넌스의 질

출처: European Commission(2022년 기준), Cultr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 "How cultural and creative is your city?", https://composite-indicators.jrc.ec.europa.eu/cultural-creative-cities-monitor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PRO HOMINUM BENEFICIO 1946

Mercer, Quality of Life (삶의 질 지수)

조사목적 : 글로벌 기업 주재원의 파견수당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조사기관 :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발표시기 : 매년 (1997년부터 발표)
조사대상 : 세계 450개 이상의 도시

분야	비율	기준	
소비재	10.7%	육류, 생선의 다양성과 질	과일, 야채의 다양성과 질
		일상 소비재	주류의 다양성 및 구입 제한
		자동차의 질, 수입 자동차 구매의 용이성	-
경제 환경	4.0%	환전의 용이성	은행 서비스
주거 환경	5.1%	주택공급 및 질	가정용품 및 가구
		주택 유지·보수	-
의료 및 보건위생	19.0%	의료 서비스	의약품
		전염병 발생(방역수준)	수돗물 수질
		쓰레기 처리	하수 처리
		공기 오염(청정수준)	해를 끼치는 동물, 곤충
자연 환경	5.9%	기후	자연재해 빈도와 피해
정치·사회적 환경	23.5%	다른 나라와의 관계	정치적 안정성
		범죄율(안전수준)	법집행(법치수준)
		출입국의 용이성	-
공공 서비스 및 교통	13.0%	전력공급	용수공급
		통신(전화)	우편서비스
		대중교통	교통체증
		최항 항공사, 공항이용의 편리성	-
휴식 제공	9.0%	외식서비스	공연(연극, 뮤지컬)
		영화	스포츠 및 여가활동
교육 환경	3.4%	국제학교 교육수준과 선택의 폭	-
사회-문화 환경	6.4%	개인의 자유	다양한 미디어의 접근성 언론의 자유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OECD, Better life initiative (BLI)

조사목적 : '더 나은 삶' 혹은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중간결과물 성격으로 국제수준과의 비교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조사기관 : OECD

발표시기 : 매년

조사대상 : 34개 OECD 회원국 및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 OECD의 주요 파트너 국가

영역	지표	산출방식
주거	주거비	가계수입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1인당 평균 사용방수	방 수/가구원 수
	기본 시설 측면	화장실 수/가구원 수
소득	평균가구 순-조정 가처분 소득	세금 등을 제외한 연간 소득
	가계재무재산	가계재무자산 가치(저금, 주식등) - 대출비
일자리	직업안전성	지난 6개월간 고용되어 있는지의 여부
	개인수입	정규직의 연간 평균 수입
	고용률	15-64세의 고용률(연간)
	실업률	15-64세의 실업률(연간)
커뮤니티	사회적 유대	필요할 때(어려울 때) 의지살 수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교육	교육기간	정규교육을 받은 기간
	학생역량	PISA 점수
	교육정도	25-64세 중 고등교육 이수율
환경	수질오염	수질 만족도
	환경오염	미세먼지 농도
시민참여	법률 제정에서의 협의	법률제정에서의 투명성 수준
	투표율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투표인 수/등록인 수)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상상태를 좋다/나쁘다로 평가 "How is your health in general?"
	기대여명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평가(0-10점)
치안	살인율	인구 100,000명당 살인발생건수
	폭행률	폭행률
일과 생활의 조화	레저와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잠자고 먹는 시간을 포함해 레저와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장기근무시간	일조일에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Mori Foundation,Global Power City Index (GPCI)

조사목적 : 우수한 도시환경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
조사기관 :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
발표시기 : 매년 10월 결과발표(2008년부터 도시순위 발표)
조사대상 : 세계 40개 주요 도시

분야	세부항목	세부지표
경제 (13위)	시장규모	GDP, 1인당 GDP
	시장매력도	GDP 성장률, 경제자유도
	경제활력	증권거래소의 주식시가 총액, 세계 상위 300대 기업 수
	인적자본	종사자 수, 비즈니스 서비스업 종사자 수
	사업환경	평균임금수준, 우수한 인재확보의 용이성, 1인당 오피스 면적
	규정과 위험	법인세율, 정치·경제·사업 등의 위험도에 따른 지수
연구 개발 (7위)	학술자원	연구자 수, 세계 top200 대학 수
	연구환경	수학과 과학에서의 학술 성과, 외국인 연구자 수용도, 연구개발비
	연구업적	산업재산권(특허)의 등록 수, 주요 과학기술상 수상자 수, 연구자들 간의 상호 교류기회
문화 교류 (15위)	유행을 선도하는 잠재력	국제 컨벤션 개최 건수, 세계주요 이벤트 개최 건수,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의 무역 가치
	문화자원	창작활동의 환경, 유네스코 세계유산(100km권), 문화적·역사적·전통적 상호작용 기회
	관광객을 위한 시설	극장·콘서트홀 수, 박물관 수, 경기장 수
	방문객 매력도	고급호텔의 객실 수, 호텔 수, 쇼핑 만족도. 식당 만족도
	교류 정도	외국인 수, 해외 방문객 수, 해외 유학생 수
거주의 적합성 (24위)	노동환경	실업률, 총 노동시간, 종업원의 생활만족도
	생활비	평균 주택임대료, 평균 물가수준
	안보와 안전	1인당 살인 건수, 재해대응력
	생활환경	기대수명, 커뮤니티의 성숙도, 1인당 의사 수
	생활시설	인구밀도, 외국인 학교 수, 소매점포의 다양성, 음식점의 다양성
생태 환경 (13위)	생태	ISO 14001 취득기업 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재활용 비율
	오염도	CO2 배출량, SPM 농도, NO2(이산화질소) 농도
	자연환경	수질, 도심부의 녹피상황. 기온의 쾌적도
교통· 접근성 (4위)	국제교통네트워크	국제선 여객 직항편 취항도시 수, 국제선 화물 공항 직항 편 취항도시 수
	국제교통기반시설	국제선 여객수, 활주로 본수
	도심지역 교통서비스	공공교통(주로 지하철)의 역 밀도, 공공교통의 정시성, 통근의 편리성
	교통편리성	도심에서 국제공항까지 소요시간, 1인당 교통사고 건수, 택시운임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Global Cities Index (GCI)

조사목적 :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세계화 수준 평가를 위함

조사기관 : 미국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사, 경영 컨설팅회사 AT 커니, 시카고 의회 연합이 공동조사

조사주기 : 2년(2008년부터 시행)

조사대상 : 40개국 60개 주요 도시

분야	분야별 지표	기반 자료 / 발표기관
비즈니스 활동(6) business activity	500대 기업 본사의 수	Fortune
	40대 비즈니스 서비스 회사의 수	회사 웹사이트 참조, 금융서비스, 경영컨설팅, 로펌, 광고회사. 회계
	자본시장의 외국인 참여	2007 세계 주식, 상품, 파생상품거래 핸드북, 국제증권 거래소 연합, FIA(미국선물협회), Exchange websites(환율 웹사이트)
	도시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규모(항만)	Port websites(항만 웹사이트)
	도시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규모(항공)	ACI(국제공항협의회)
	해당 도시에서 열리는 산업 콘퍼런스의 수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ICCA)
인적자원 (5) human capital	상위 대학의 수	상하이 교통대 선정 세계 대학순위
	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수	타임즈 세계대학순위, 대학교 웹사이트들
	대학학위 소지자의 비율	US Census Bureau(미국 통계국),OECD
	외국 국적의 인구	지방정부, 세계화, 이주도시화 연구(globalization migration urbanization study)
	국제학교의 수	국제학교등록 위원회(Council on international schools registry), 국제대학 입학자격 운영 학교(International bacheloreate World diploma schools)
정보교류 (3) Information exchange	국제간행물기관 수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 이코노미스트, AFP, 로이터통신, 신화통신, BBC
	지역신문의 국제뉴스의 비중	지역신문 참조, 한국의 경우 조선일보 참조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분야	분야별 지표	기반 자료 / 발표기관
	광대역 통신망 이용자 수	ITU(Int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문화적 체험 (5) (cultural experience)	외국 관광객의 수	국제공항협의회(ACI)
	시각 및 공연예술	Lonely Planet, Woruld Music Awards, Company tour 사이트
	박물관	세계 박물관들
	스포츠행사	올림픽, 월드컵, 럭비월드컵, 골프 메이저 대회, 테니스 그랜드슬램 및 마스터즈 대회,. 이벤트 참여에 따른 스코어
	식당	Frommers.com, Zagats(자갓), Michelin(미슐랭)
국제 정치 리더십 (6) (International Policy Leaderships)	대사관/ 영사관 수	Embassypages.com
	주요 연구소 (Think Tank)의 수	NIRA's world directory of think tank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 network, ETH Zurich
	국제기구의 수	African Development Bank(아프리카개발은행), AU(아프리카연합), APEC, ASEAN, BIS(국제결제은행), CIS, CTBTO(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EFTA(유럽자유무역연 합체), ECB(유럽중앙은행), EU,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Gulf Cooperation Council, IADB(미주개발은행), IAEA, IBWM (국제도량형국), IMF, IPU, INTERPOL, League of Arab States(아랍연맹), NAFTA, NAM(비동맹운동), OECD, OIC (이슬람제국가회의기구), OPEC, Paris Club(파리클럽), UNICEF, UNDP, ICJ(국제사업재판소), UNHCR(유엔 난민고 등사무소), UNESCO, The World Bank Group, WHO, WIPO, WTO
	자매도시	Sister cities international, Individual city websites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지역 단체	World affairs council of america(WACA), FIAS FDI Promotion Center, WAIPA(세계투자진흥기관연합), UNESCO, CONGO, city websites
	해당 도시 주최의 정치 콘퍼런스의 수	African Union Summit, APEC Summit, Commonwealth of Nations Heads of, Government Summit,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G77(Group of 77 at the United Nations), G8, League of Arab States, Mercosur,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Ministerial,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nual Meeting, United Nations Summit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Global Cities Outlook (GCO)

조사기관 : AT커니

- AT Kearney 글로벌 도시지수·도시전망 측정항목

글로벌 도시지수 (Global Cities Index)	글로벌 도시전망 (Global Cities Outlook)
· 5 분야 27개 지표 측정 - 비즈니스 활동(30%) : 자본흐름, 시장 변동성, 주요기업 현황 - 인적자원(30%) : 교육수준 - 정보교류(15%) : 인터넷 및 기타 미디어 통한 정보접근성 - 문화적체험(15%) : 주요 스포츠, 이벤트, 박물관 및 기타 전시회 경험 - 국제협력(10%) : 선거, 싱크탱크, 대사관 · 순위·점수 산정 : 각 분야별 가중평균을 합산하여 0-100(100점 만점)의 척도로 점수 를 산출하여 결정 · 측정데이터의 출처는 공공 도시통계 활용	· 4개 분야13개지표측정 - 개인웰빙(25%) : 안전, 건강관리, 불평등, 환경성과 - 경제(25%) : 장기투자여건 및 GDP - 혁신(25%) : 특허 및 기업가 정신, 민간투자, 창업 - 거버넌스(25%) : 지속성장 가능성, 정치 및 의회 투명성, 비즈니스 용이성 · 순위○점수 산정 : 지난 5년 데이터를 기반 으로 평균변화율 산출하여 2029 추정치를 통하여 0-100(100점 만점)의 척도로 점수를 산출하여 결정 · 측정데이터의 출처는 공공도시통계 활용

자료: A.T. Kearney 2019 Global Cities report p.12 활용 작성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홍익대학교 1946

국가문화지수(Global Culture Index) 조사지표

영역	구성요인	세부 지표	가중치
문화 자원과 활동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 UNESCO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등재 점수	8.5
		•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건수(건)	
		•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건수(건)	
		• 산림면적 비율(% of land area)	
	문화 분야 인적·조직자원	• 인구 대비 예비 문화예술 인력의 비율(%)	9.6
		• 문화 및 창조산업 고용 비율(%)	
		• 문화산업 분야 사업체의 비율	
	문화인프라	• 인구 만 명당 도서관의 수	11.3
		• 인구 만 명당 박물관(미술관 포함)의 수	
		• 인구 만 명당 영화관의 수	
		• 스마트폰 이용률(%)	
		• 고정 광대역 가입자 수(백 명당)	
	문화정책	• 문화재정지출(US $)	11.2
		• 문화ODA 규모(백만 달러)	
		• 문화 분야 주요 국제조약 비준 및 권고 이행 수준	
문화 역량	문화향유 수준	• 문화활동 참여율(%)	12.9
		• 여가시간	
		• 문화적 목적의 인터넷 사용 경험률(%)	
		• 가구당 총지출 대비 오락문화비 지출 비중	
	예술적 탁월성	• 세계 3대 문학상을 수상한 국적인의 누적 수(명)	9.9
		• 세계 3대 음악 콩쿠르에서 수상한 국적인의 누적 수(명)	
		•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수상한 국적인의 누적 수(명)	
		• 세계 3대 발레 콩쿠르에서 수상한 국적인의 누적 수(명)	
		•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수상한 국적인의 누적 수(명)	
		• 세계 100대 미술관에 포함된 미술관의 수(개)	
		• 지난 3년간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한 자국 곡의 수(개)	
	문화산업의 경쟁력	•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12.6
		• 전체 수출액 대비 문화상품 수출액의 비중(%)	
		• 지적재산권 사용에 따른 수령액 비중의 3년 평균 (% total trade)	
	문화다양성 및 삶의 질	• 문화 간 관용	15.5
		• 대인 신뢰	
		• 성평등에 대한 인식	
		• 삶의 질	
	관광 및 국가 브랜드	• 연간 외래관광객 수	8.6
		• 국가브랜드지수(NBI)	

출처: (기초연구 01) 지속가능한 문화매력국가를 위한 국가문화지수 개발 연구 (양혜원, 김면, 김소연, 주익현), p.179-180.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Resonance World Best 100 Cities 조사지표

구 분	조사지표	세부지표
거주성 **Livability**	도시의 물리적 장소감각을 정량화 자연 및 건축 환경의 품질 평가 도시의 주요 인프라와 기관	Walk Score : 도시의 보행성점수
		자전거 타기 : 100만 명의 주민당 지도에 표시된 자전거 경로 수
		관광 명소 및 랜드마크 :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추천하는 양질의 관심 지점, 동네 및 랜드마크 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추천하는 고품질 공원,야외 활동 수
		공항 연결성 : 도시 공항이 운항하는 직항 목적지 수
		박물관 :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추천하는 우수한 박물관 및 예술 기관 수
		지역 최고 대학의 대학 점수
사랑스러움 **Lovability**	도시의 상대적인 활력과 장소의 질	문 화 : 현지인과 관광객이 추천하는 고품질 공연예술 및 문화 체험의 수
		나이트라이프 :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추천하는 고품질 나이트라이프 경험의 수
		레스토랑 :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추천하는 고품질 레스토랑과 요리 경험의 수
		쇼핑 :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추천하는 고품질 쇼핑경험 수
		관광 명소 :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추천하는 고품질 가족 친화적 활동 수
		Facebook 체크인 수
		Google 검색 결과 수
		Tripadvisor 리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Google Trends :지난 12개월 동안의 인기 정도
번영 **Prosperity**	도시 간 인적 자본의 상대적 강점 평가를 위해 도시인구의 교육수준 노동력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	교육 : 수준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인구 비율
		노동력 참여 :경제 활동 노동력의 백분율
		1인당 GDP : 경제 내 거주자 1인당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
		빈곤율 : 국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
		Fortune Global 500 : Fortune Global 500 기업 본사 수
		스타트업 수 : 도시에 등록된 스타트업 수
		컨벤션센터 규모 : 도시 내 최대 규모 컨벤션센터 규모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OECD 지역매력(territorial attractiveness) 세부 지표

6대 측면	차원	지표(Indicators)
1. 경제적 매력 (Economic Attractiveness)	경제	GDP per capital
	혁신	R&D 고용률 (Share of personnel employed in R&D)
	노동시장	고용률 (Employment rate)
2. 방문객 소구력 (Visitor Appeal)	여행	숙박자 수 (Number of overnight stays in tourist accommodation per 1000 inhabitants)
	문화자본	문화ㅇ창조산업 고용률 (Share of employment in culture and creative industries)
3. 토지·주택 (Land and Housing)	토지	토지면적율 (Share of land cover converted to artificial surfaces)
	주택	주거안정층 비율 (Share of the population satisfied with affordability of housing)
4. 거주자 웰빙 (Resident Well-Being)	사회적 관계	정부의 질 (Quality of Government Index(사회부패, 공공서비스, 공공재에 대한 인식 사회조사 지표))
	교육	교육 시설 접근성 (Access to primary education facilities(거리))
	건강	의사 수 (Number of doctors per 1000 inhabitants)
5. 연결성 Connectedness	디지털화	인터넷 연결 속도 ((Internet download times from fixed devices(측정 도구 ookla))
	교통	90분 내 반경 120km 범주에서 도로로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Share of population accessible by road within 90 minutes within a 120 km radius(Population accessible within 1.5 hours by road as a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within a 120 km radius)))
6. 자연환경 (Natural Environment)	환경	재활용률 (Share of municipal waste recycled)
	자연 자본	삼림 보존율 (Share of tree cover)

출처: OECD(2022), Measuring the attractiveness of regions, OECD Regional Development Papers, No. 36,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be44086-en). 재구성.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1946 PRO HOMINUM BENEFICIO

ABSTRACT

A Research on Urban Public Art Strategies to Enhance City Competitiveness

Public Design Major
Department of Design·Craft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Park. Jae Eun

Public art, a concept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the 1980s, refers to artworks that are typically installed in outdoor spaces. It is an architectural artwork system that bega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1% law (Percent for Art) in France. It has since expanded to include statues and monuments honoring historical monuments and events, as well as public art projects that meet government policy objectives. Although public art has evolved to create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enjoy cultural nostalgia and various discourses in urban spaces by being open to the public for the purpose of 'public', it is still difficult to escape the limitation of being applied as a decorative element of a specific space or as a small-scale community activ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applicability of urban public art as a mechanism for strengthening a city's cultural attractiveness and competitiveness, and emphasize the need for its systematic application and expansion as a policy that drives the possibility of qualitative growth of urban culture.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1946

Public art has been a policy of governments and cities around the world, starting with the New Deal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40s, and the creation of European Culture Cities centered on the European Union (EU) in the 1990s, and has gained attention as a means of urban revitalization. Since the end of 2019, the role of public art has been rediscovered as public art is used to create art-enjoyment points utilizing open spaces, everyday gaps, and virtual spaces to overcome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importance of art in everyday spaces is gradually increasing, such as the economic attraction effect, emotional healing effect, and community restoration effect through public art.

However, public art in Korea has been undervalued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performance-oriented public sculptures and symbolic sculptures by governments without separating them from public artworks since the start of local government in 1994, and as of February 2025, the number of artworks and sculptures installed in Seoul has reached a saturation point of more than 4,500, making it an urgent task to manage the artworks and change public art policies for the future. In addition, although the rational prediction that public art will affect the city's competitiveness and attractiveness for cultural and art cities has theoretical validity,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hat confirms the relationship structure and causal relationship of the actual impact, and the problem of policies that attempt to complete the improvement of cultural and artistic quality, which takes a long time, with mostly one-off projects has emerged, and it is time to change the strategic structure to build a stable process and implementation system to grow into a developmental cultural c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positive impact

HONGIK UNIVERSITY PRO HOMINUM BENEFICIO 1946

that public art can achieve in changing contemporary cities works, and to propose an implementation strategy for public art to work more extensively and substantially beyond the decorative dimension, so that each city can strengthen its attractiveness and improve its competitiveness as a culturally advanced city.

As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have emerged as keywords in urban policies around the world in the wake of COVID-19, cultural approaches to restoring humanity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e success stories of European Creative Cities, Bilbao's Cultural Cluster, UNESCO's Culture city, and other examples of strengthening city competitiveness through cultural elements have implications for public art policy. In addition, recent cultural policy achieve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demonstrate the substantial impact of cultural factors on urban economies and quality of life. In the U.S., the output effect of the cultural industry contributed 4.3% of GDP in 2022, making it a major policy tool for economic recovery and urban revitalization, while Japan has established the Second Cultural Promotion Plan in 2023 and is making cultural emotional healing a new growth engine at the national level, contributing to enhancing urban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OECD, HABITAT III, and the EU emphasize the internal restructuring of cities, efficient utilization of existing resources, and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c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ather than indiscriminate expansion, which is closely linked to the value orientation of contemporary urbanism, which emphasizes the place-specificity of public art, community-centeredness, and utilization of everyday spaces.

HONGIK UNIVERSITY
PRO HOMINUM BENEFICIO
1946

Therefore, based on the trend of urban competitiveness evaluation indicators shifting from economic factors to qualitative values such as quality of life, cultural attractiveness, and civic engagement, this study seeks to specifically identify th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urban competitiveness through the strategic combination of public art and urbanism.

This study is organized into five chapters. Chapter 1 clarifi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as well as the scope and structure of the study. Chapter 2 specifies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rt, urban planning theory, and the concept of cultural competitiveness of cities. Chapter 3 presents the concept of 'Urban Public Art' by prioritizing strategic elements by integrating core elements of public art, urbanism elements, and urban competitiveness evaluation indicators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statistically verifying their correlation and influence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Chapter 4 analyzes representative public art cases in six cities - Paris, Copenhagen, New York, Singapore, Melbourne, and Seoul -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ffect of urban public art, and proves the feasibility of urban public art by proposing strategies applicable to Korea and verifying them with experts. Chapter 5 synthesizes the research result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first, that it attempts to change the attitude of applying public art to cities by combining the application of public art, which was considered abstract, with urbanism, and replacing the concrete process and application method with 'urban public art'. Second, by statistically proving the impact of urban public art on a city's competitiveness, the study confirmed that urban public art is a key policy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1946

tool to create a growth engine for a city by breaking away from public art policies for decorative purposes, thus providing a numerical basis for widespread application in the cultural policies of each government. Third, the study derived the administrative feasibility and operability of 'urban public art' that strategically integrates into urban space changes from the planning stage, rather than decorating the final stage of space creation. Fourth, based on the confirmation of the influence and utilization value of public art, this study foreshadowed the possibility of growing into a more attractive and high quality of life city through the systematic fostering of public art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mplementation system.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Korea's public art policy can be applied as a practical alternative for various cities across the country to grow into cultural cities with their own unique identities by becoming a core strateg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and strengthening urban cultural competitiveness, rather than just a means of environmental beautification or promotion.

Keywords : Public art, Urban public art, Urban competitiveness, Urbanism, Urban public art strategy

HONGIK UNIVERSITY · PRO HOMINUM BENEFICIO · 1946